

MAXIM

KOREA

CHRISTINA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세 번째 MAXIM

세 번째 합을 맞추니 나올 것이 나오고 말았다
지구에서 가장 매혹적인 팝스타와 나눈 어른들의 비밀 토크

ONE NIGHT STAND

여자의 옷차림과 원나잇의 상관관계

SKILL FOR GIRLS

초 만에 남자 홀리는 기적의 페티시 활용법

EXCLUSIVE

15연승의 살아있는 전설, 스포츠 재벌 1위

Floyd Mayweather Jr.

“예전 절친 50Cent와의 관계는 어떤가?”
“관계? 난 여자하고만 관계한다”

MISS MAXIM 한미 4:4 합동 훈련

한국 미스맥심 TOP4의

SEXY HALLOWEEN

JS 미스맥심 최정예 4인방의

LINGERIE BOMB

MAXIM RPM

미달의 차: DS3 뚜껑 뚫네
BMW에 빠진 미녀 에디터들의 M성향
현대차 다니는 독자의 애마, 기아 포르테

BMW LEXUS
M vs. F

2013년 10월호
정가 5,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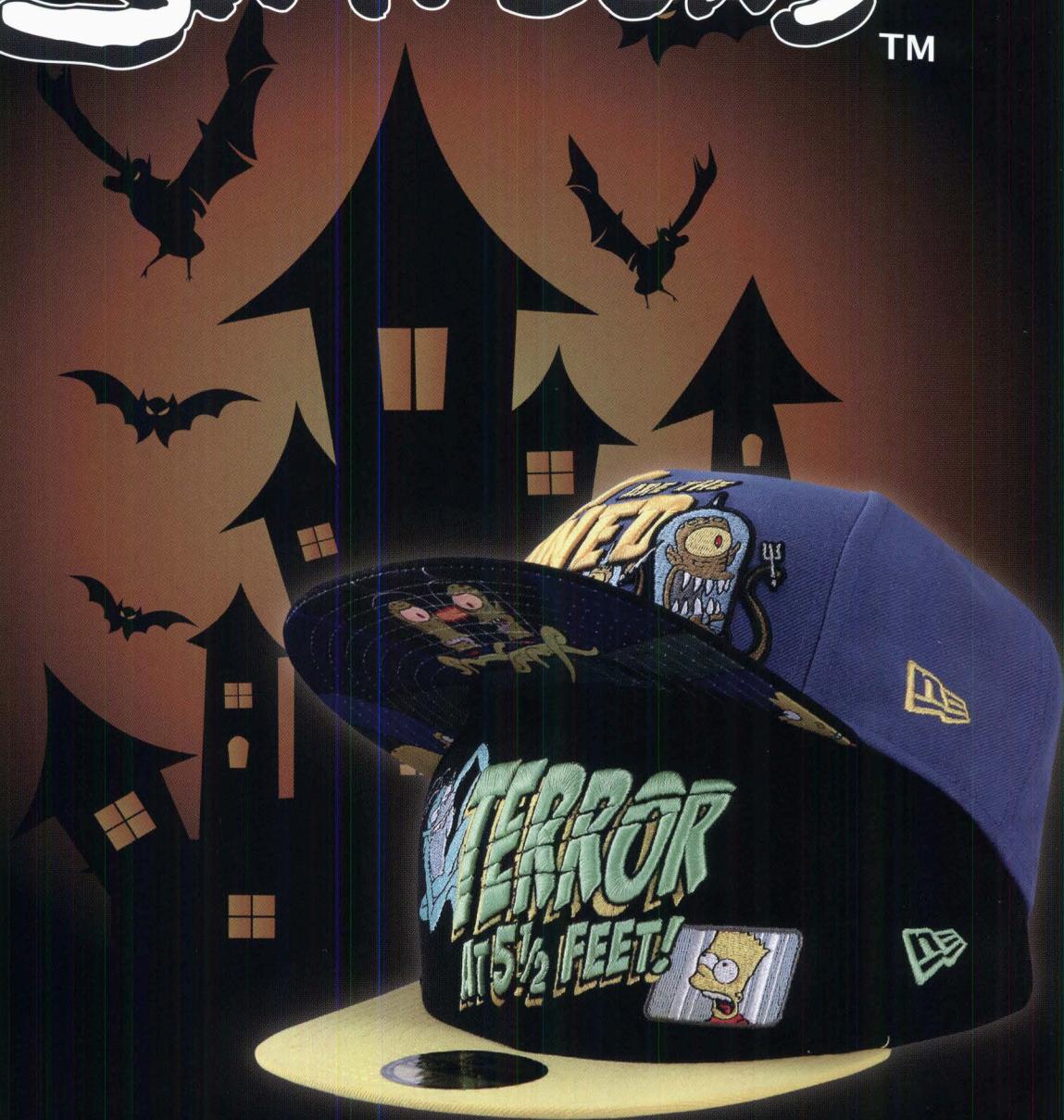
MAXIM 법정
이혼의 모든 것
결혼 전 마지막 경고다

STYLE BATTLE

서강대 VS. 홍익대
더 물 좋은 학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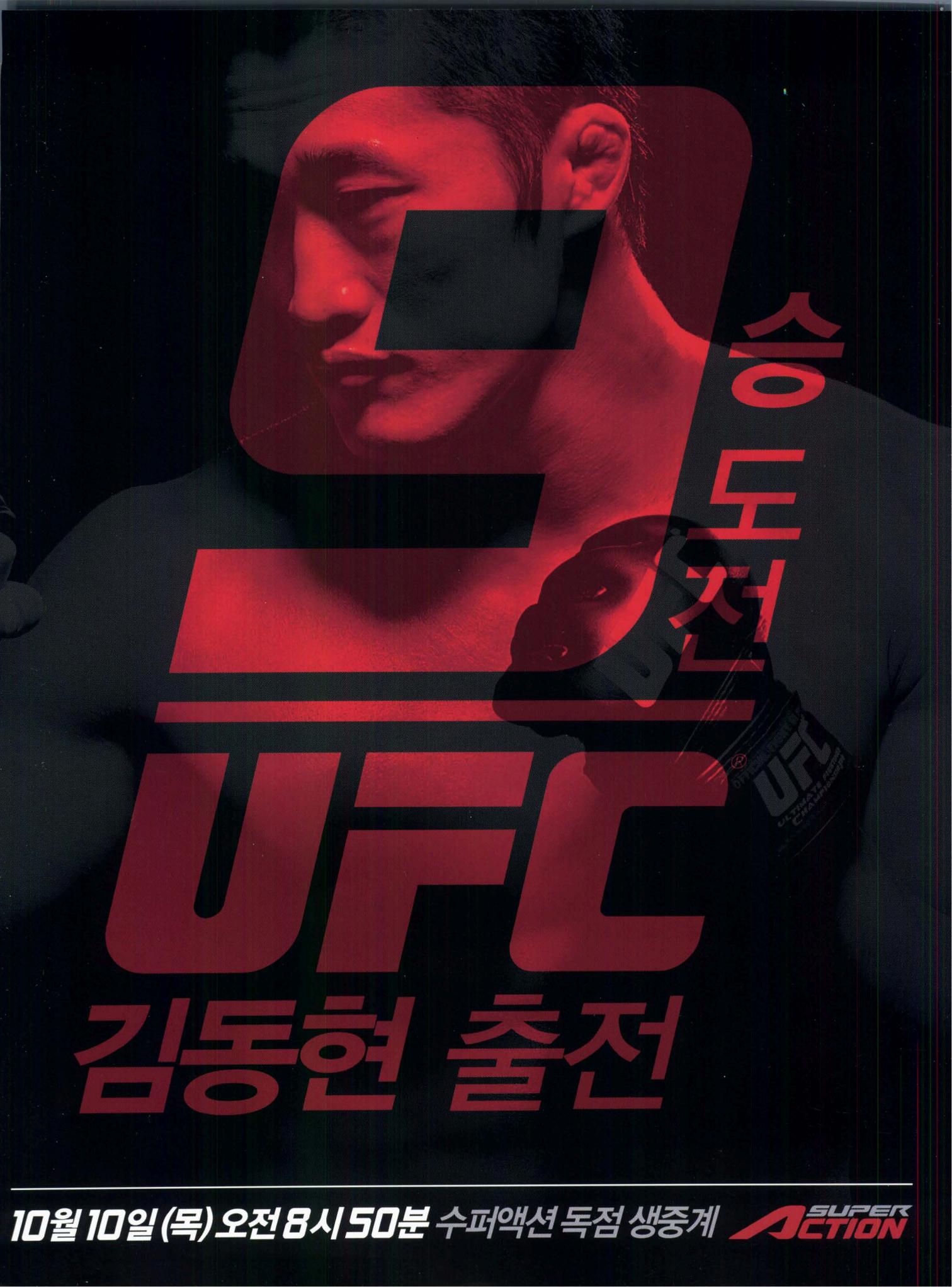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THE SIMPSONS™



THE SIMPSONS™

©2013 New Era Cap Co., Inc. All Rights Reserved.



승도전

UFC

김동현 출전

10월 10일 (목) 오전 8시 50분 슈퍼액션 독점 생중계 **SUPER ACTION**



MAXIM

KOREA

ICON

진격의 거인

MAXIM 독점! 인류 최초 초대형 거인 인터뷰
CNN도 감히 해내지 못한 일! 잡지사에 입체 기동 장치 하나쯤은 다 있잖아?

Sexy Fighter 임현규 & 태미

UFC의 신형 괴물 파이터가 MAXIM을 찾았다. 귀여운데? 태권도 국대 출신 배우 태미, 돌려차기 시구는 맛보기에 불과했어

Bikini Party

올해 마지막 풀파티 @W호텔 2시쯤 되니 쌍쌍이 사라지네

카라 왜 울게?

미국 R&B 스타의 여친 Nazanin Mand

속옷만 입히고 침실 화보 (남의 여친인데 좀 너무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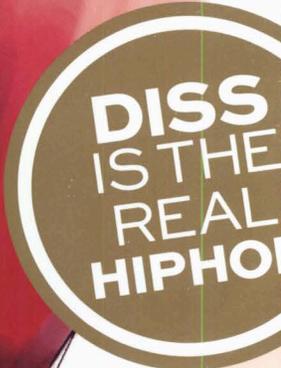
Ultimate Stuff 또 왔네 갠노트?

베르세르크 가족의 MAXIM 방탄 등짝! 등짝을 보자

실존하는 배틀크루저, 키로프급 순양함 108대1의 전설, F-22 스텔스

한국 힙합 전성기엔 DISS가 진리 RESPECT 없는 STORY는 MAXIM이 정리 LISTEN UP 한국 힙합 디스의 역사

인체의 신비함 아는데요



할로윈 파티 갠판논는 혐오 코스프레

OCTOBER 2013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



TREEHOUSE OF HORROR



The Simpsons은 미국 TV show 가운데 가장 아이코닉하고 긴 역사를 가진 만화영화이다. 특히, 할로윈 시즌 중에 방영된 "Treehouse of Horror"는 가장 인기 있는 에피소드 중 하나이다. 1990년에 처음 소개된 Treehouse of Horror는 그 인기가 반영되어 매년 할로윈 시즌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번 New Era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Treehouse of Horror Collection은 2013년 할로윈 시즌에 발 맞춰 전 세계 동시 발매 할 예정이다.

- OFFLINE STORE : 서울 _ 이태원점, 압구정점, 롯데 잠실점, 신세계 강남점 / 인천 _ 스퀘어원점, 부평점 / 경기 _ AK 수원점, 현대중동점(10월 오픈 예정) / 부산 _ 광복점(9월 오픈 예정)
- ONLINE STORE : www.neweracapkorea.com

FLY YOUR OWN FLAG™



Contents

OCTOBER / 2013



104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가을! 바깥에선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떨어진다. 그리고 MAXIM 안에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같은
매혹적인 슈퍼스타가 카메라 앞에서
입은 옷을 바닥에 떨어트린다.
우리에게는 일 년 중 최고의 시기!

수영복
RED CARTER
팔찌와 귀걸이
JENNIFER FISHER
반지
SOFFER ARI



SWISS + MADE



ESSENTIAL GEAR.

RECON NAV SPC Series No. 8831 (kilometers) or 8832 (miles): 46mm, carbon reinforced polycarbonate case and case back, unidirectional ratcheting bezel with aluminum ring compass rose, antireflective sapphire crystal, walking tachymetric scale, water resistant to 200 meters, black PU Strap with raised scale and compass attached, Luminox self-powered illumination. Swiss Made. Preferred timepiece of Swiss Special Forces and outdoor enthusiasts.

www.facebook.com/luminox

www.luminox.com

ALWAYS VISIBLE

Constant glow for up to 25 Years.

공식수입원 및 서비스 센터 미림시계(주) (02)757-9866, A/S센터직통 (02)735-9880, www.milimwatch.co.kr

루미nox 판매처

직영점 [모멘트]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 02-772-3181 / 잠실점 1층 02-2143-1920 / 청량리점 1층 02-3707-1179 / 평촌점 2층 031-8086-9232 / 대전점 1층 042-601-2109 / 대구점 1층 053-660-3122 / 부산 광복점 1층 051-678-4039 / 울산점 1층 052-960-4533 / 아울렛 서울역점 2층 02-6965-2637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1층 02-3438-6093 / 일산 킨텍스점 1층 031-822-2929 / 홍창점 1층 043-909-4148 (AK백화점) 원주점 1층 033-811-5525

특약점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1층(TM 시계백화점) 02-2111-1120 / 강변 테크노마트 7층(타임21) 02-3424-7073 / 강변 테크노마트 1층(타임21) 02-3424-1210 / 동대문 오케이아웃도어닷컴 1588-8796 / 종로 YMCA 1층(타임존) 02-737-3627 / 종로 중앙상가(노블워치) 02-745-8789 / 동대문 두산타워 5층(때션존) 02-3398-7527 / 동대문 두산타워 3층(타임갤러리) 02-3398-5528 / 성내동(다이버스몰) 02-565-9897 / 상계동 하이웰빙상가 A동(도라시계) 02-971-5334 / 종로 세운스퀘어 1층(정우상사) 02-2272-2688 / 명동(이와치) 02-771-7033 / 종로 피카디리 플러스 1층(정신사) 02-741-9678 /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 2층(사도) 02-2118-8075 / 잠실 롯데월드 웰빙센터 1층(제네바) 02-419-5622 / 남대문로 단암빌딩1층(프로워치) 02-779-6964 / 은평 이마트 1층(타임터치) 042-482-2328 / 이마트 대전터미널점 4층(스포츠빅텐) 042-615-1265 / 대전 가오동(예진시계) 042-280-9117 / 대구 삼덕동(엘가시계) 053-255-6940 / 천안 신부동(알파&존 1층(타임터치) 042-482-2328 / 이마트 대전터미널점 4층(스포츠빅텐) 042-615-1265 / 대전 가오동(예진시계) 042-280-9117 / 대구 삼덕동(엘가시계) 053-255-6940 / 천안 신부동(알파&오메가) 041-564-5465 / 청주 가경동(보보스워치) 043-235-1510 / 청주 남문로2가(복워치) 043-223-1333 / 충주 메가박스1층(메가워치) 043-857-9125 / 전주 롯데백화점 5층(세광당) 063-289-3592 / 익산 롯데마트(원남상사) 063-833-8536 / 광주 첨단롯데마트(원남상사) 062-971-8523 / 광주 롯데마트 월드컵점(원남상사) 062-675-8521 / 포항 밸류플러스(조이필) 054-613-1170 / 이마트 동구미점 2층(스포츠빅텐) 054-480-1260 / 구미 원평동(엘가시계) 054-451-6940 / 진해 롯데마트 1층(원남상사) 055-542-8521 / 부산 광복동(국제시계) 051-245-1230 / 부산 해운대(리브워치) 051-746-6112 / 부산 서면(엘가시계) 070-7569-5766

Contents



98

ICON 진격의 거인

역대 MAXIM 출연자들 가운데 가장 큰 녀석이 나타났다! <진격의 거인>의 60m짜리 초대형 거인! 그가 좋아하는 여성상은?

*표지 및 목차 <진격의 거인> 이미지의 저작권은 Heijime Isayama/Kodansha, Ltd.에 있습니다.

Circus Maximus

- 20 대만에는 1톤짜리 돼지가 있다?!
- 22 한글날 특집 '맥심 실전 한글 토익!'
(백점 맞아도 선물은 없어)
- 26 아역 부끄러워! 애국심 폭주 6대 사건
- 28 누들러, 흥대 앞 라면 버스킹 대결망기
- 30 굽시니스트 카툰: 중국 쪼깐 미인 진원원

How To

- 32 밍상 후배 제대로 길들이는 법
- 34 진짜 더럽고 무서운 할로윈 파티 분장법
- 36 가을엔 고기! 돼지 갈비 스테이크 조리법

Game

- 38 최종 보스도 고신대! 최강 미모의 쪽방 미녀 탱커, <에오스>의 가디언
- 40 열 손가락 멀쩡해도 못해먹을 병신 게임 TOP 5

Comment

- 42 이제 좀 '살 만한' 아이돌, 카라
- 44 일본의 우울한 미래를 정확히 예언한 귀신 같은 명작 <아키라> 다시 보기
- 46 <골드 워>, 홍콩 느와르라며, 왜 뺑치냐, 홍콩 느와르는 이제 없냐?

Sex

- 48 원나잇 성공률 높이기 프로젝트 제1탄 물색 편
- 52 For Ladies: 남자들이 환장하는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 거기? 요기?

Sport

- 58 자성부터 성용까지, 랭킹으로 보는 유럽 축구 리그 속 7인의 한국 선수 전망

Stuff

- 60 이달의 기어: 삼성 갤럭시 노트 3 역시 거시기 있는 놈은 뭔가 달라.
- 62 사나이 울리는 최강 퀄리티 토이! 베르세르크 피규어 콜렉션
- 66 사무실에서 가지고 놀기 좋은 아이디어 사무용품 12선
- 70 잘 빨고 잘 부는 발칙한 청소기

Smoke&Dr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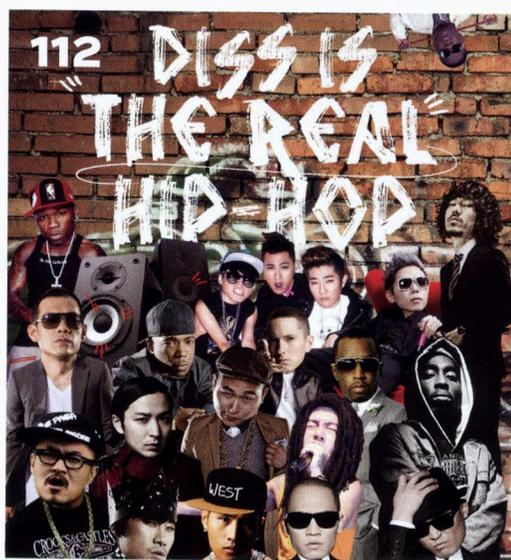
- 71 말랑! 물컹! 추림! 젤리 칵테일 만드는 법
- 74 데이트를 위한 최고의 드링크는?

Motor

- 77 이달의 자동차: DS3 투경 댕네
- 78 BMW에 빠진 미녀 에디터들의 M성향
- 82 LEXUS RX350 시승기: 승자의 감성
- 86 This is My Car! 현대차 다니는 독자의 애마, 기아 포르테
- 90 MAXIM이 만난 스타들의 드림 카



132





Heineken®
PRES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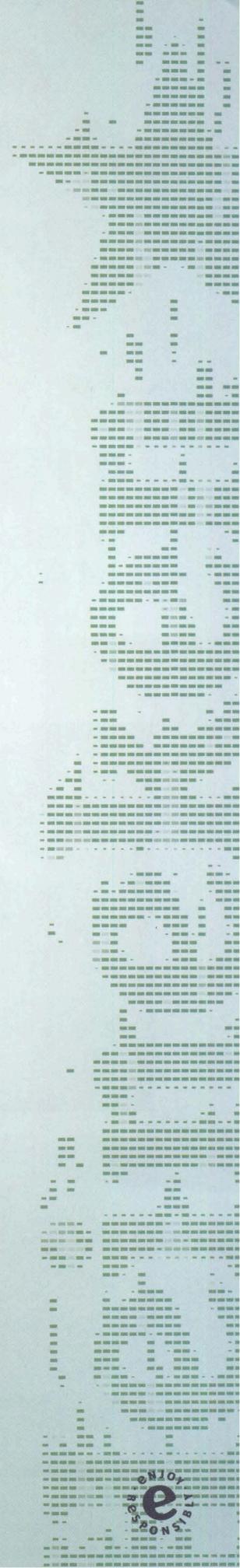
SENSATION

Wicked Wonderland

2013.11.30
ILSAN KINTEX

TICKET:  INTERPARK (ticket.interpark.com)
sensation.com

경고: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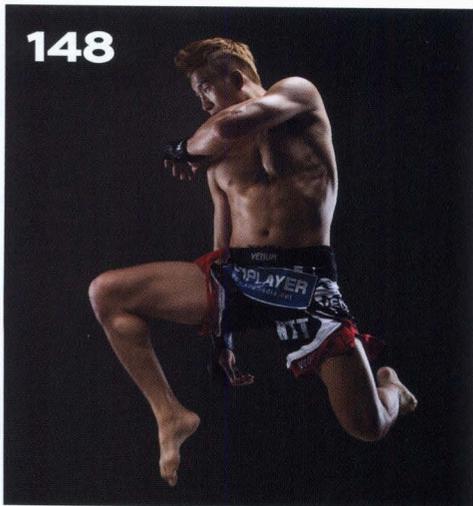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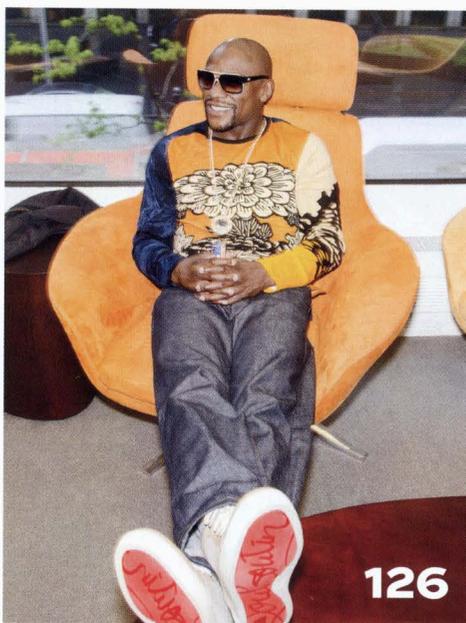


118 Miss MAX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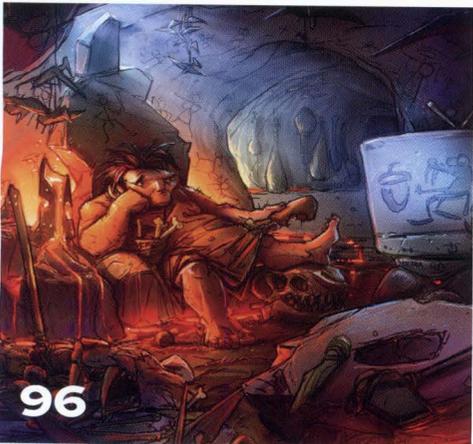
간호사, 경찰, 메이드...
당신 취향 몰라서
일단 다 준비했어.



148



126



96



78

Law&Order

92 결혼하려는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
변호사 에디터가 알려주는 이혼의 모든 것

Man Cave

96 선사시대 때부터 지켜온
남자들만의 공간, '맨 케이브'의 역사

Diss Means War!

112 SINCE 1998, 대한민국 래퍼들의
피 튀기는 '디스 전쟁사'
(가사 보고 오줌 지리지는 마)

Miss Maxim Round 4

118 MISS MAXIM 4강 진출자
소희&아영의 아찔한 코스프레 배틀!

Floyd Mayweather

126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의 하루

Who's That Girl #9

132 돌려차기 시구로 화제를 모은 태미가
이번엔 환상의 날라차기를 선보였다
이렇게 섹시한 날라차기는 처음이야!

Style

140 허리에 손이 가네? 남친 주고픈 벨트
142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진짜 사나이의
밀리터리 스타일 아이템 16가지
144 캠퍼스 스타일 배틀 #1
서강대 vs. 홍익대. 어디 학생이 더 이쁘냐?

Fight

148 떠오르는 코리안 UFC 파이터
임현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여자 에디터의 사심 가득 인터뷰

Military

154 현존 최강의 육·해·공 무기로 꾸려본
'밀리터리 드림팀'

Lingerie Special

158 MAXIM 미국판에서 가져온
란제리 '떼' 화보. 올해도 섹시가 풍년이네!

Party

166 워커힐 풀장에서 핏빛은 남녀가
맨살 부비부비! 멋진 힙합&디제잉 공연!
MINI는 생일 파티도 보통이 아니네.

Unpicked

174 이달에도 어김없이 쏟아지는 깨알
같은 B컷 퍼레이드. 왜 이 사진을 못 썼나?



ALBA

POSITIVE & SMART

수입원 삼성시계(주) 02)511-3182 • 직영매장 세이코부티크 스타시티점 02)454-8400 / 현대아이파크 백화점 02)2012-4144 • 직영 편집매장 모멘트 롯데본점 02)772-3181 / 롯데잠실점 02)2143-1920 / 롯데청량리점 02) 3707-1179 / 롯데명동점 031)8086-9232 / 롯데대전점 042)601-2109 / 롯데대구점 053)660-3122 / 롯데광복점 051)678-4039 / 롯데울산점 052)960-4533 / 롯데아울렛서울역점 02)6965-2637 / 현대킨텍스점 031)822-2929 / 현대충정점 043)909-4146 / AK원주점 033)811-5525 • 면세점 롯데 / 신라 / 워커힌 / 동화 / 신세계 / JDC / JTO / KTO • 전문점 서울(02) 중구 이화차(77-7033) 종로 타임존(37-3627) / 노블워치(745-8789) / 정신사(741-9678) / 정우상사(2272-2688) 동대문 패션존(3398-7527) / 사보(218-8076) 서초 시계독립(6282-2777) / 신비파(532-2121) 송파 타임존(411-0829) 강동 현대골드(484-2029) 용산 해피타임(2012-0625) 서대문 타임월드(313-4106) 은평 타임랜드(350-8471) 관악 타임(6299-7766) 구로 시계백화점(2111-1120) / 타임타임(2111-1141) 양천 티파니(2648-8333) 강서 타임파스(2668-0871) 광진 T.M.타임(23424-7073) 성북 해시계(217-1755) 노원 도라시계(971-5334) 인현(032) 남동 정타임(432-2430) 남구 타임랜드(862-5534) 부천 시계나라(329-0994) / 록북(662-2026) 경기(031) 고양 타임(24931-5555) 성남 AK프라자(781-8194) / 동성당(753-0786) / 타임24시(728-5370) / 엔타임(707-1289) 수원 AK프라자(240-2199) / 덴어몰(201-7100) / 지지컬렉션(221-4997) 안양 타임월드(383-8342) / 보석상자(441-1014) / 시계상자(441-0158) 동탄 타임플러스(371-6850) 부산(051) 중구 명성시계(253-5315) / 국제사(245-1230) / 블랑(245-7965) / 타이머룸(919-4704) 부산진구 플라자(922-2068) / 프로포즈(818-6573) / 동해사(644-5551) 울산(052) 금보당(960-4848) 경남(055) 마산 신세계스위스(224-2711) 창원 롯데창원(279-3191) 진주 갤러리아(791-1177) 대구(053) 중구 주얼리아(428-2668) / 바젤(425-8707) / 동아스위스(252-8111) / 해피타임(428-3068) / 엘가(255-6940) / 쟈미(428-0388) / 레츠(425-0157) / 삼성사(422-3002) 경북(054) 구미 타임프라자(455-2410) 포항 조이텔(613-1170) / 주얼리(244-8172) / 타임피아(253-8865) / 스위스(246-8944) 충북(043) 청주 명공사(256-4574) / 드림플러스(235-1510) 대전(042) 보육당(253-9241) / 세이백화점(257-7745) / 엔비(255-6292) / 세이브존(482-2328) 충남(041) 천안 티파니(561-9438) / 알파인오메가(564-5465) / 신세계예진(640-5081) / 루타타임(522-6505) 강원(033) 춘천 시계마을(253-7869) 광주(062) 굿타임(233-3050) / 이프유(225-0775) / 현대제일사(515-7172) / 시계명가(226-2251) / 골드룩(410-0137) / 티타(222-3114) 전북(063) 새광당(289-2590) / 김투(285-7596) 제주(064) 순금사(758-1777)

Beverly Hills

MAXIM

www.maximkorea.net

편집장 이영비

Editorial / 편집부

편집 1팀
 에디터 김희성 대리/ 팀장
 조웅재 주임
 김세형 사원
 김소윤 사원
 영상 에디터 김상수 인턴

편집 2팀
 에디터 손안나 주임
 박정욱 사원

편집 3팀
 디자이너 서윤정 주임/ 팀장
 김려은 인턴
 이상윤 인턴
 임지호 인턴

편집 4팀
 수석 에디터 유승민
 에디터 김진욱
 정재식 인턴
 뷰티 에디터 장혜민 사원

직원 에디터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엑스포> 기자 김덕중
 <마이데일리> 스포츠팀 기자 강산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 김대영
 라면 리뷰어 '누들러' 김광희
 라면 리뷰어 '누들러' 박종현
 카툰 작가 굴시니스트
 칼럼니스트 덕사마
 변호사 Devil's Advocate

Finance & General Affair / 경영지원과

재무 회계 최인영 과장
 인사 장선영 주임
 유통 안재만 사원
 비서 정석영 인턴

Marketing / 마케팅과

광고마케팅 김진욱 과장
 정재식 인턴
 박상준 인턴
 손 호 인턴

Web & Mobile Service / 웹·모바일

토크 서정민 팀장, 남원규 팀장

Photography / 사진

교열 신선경

포토그래퍼 정기수 실장
 박 울 실장
 이진호 실장
 오준섭

Circulation / 유통

승주출판유통 이응관 대표

Printing / 인쇄·원색분해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서리 192-1 인쇄인 이재수

MAXIM Korea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 원혜진

MAXIM Contact

독자Q&A / 일반 문의 www.maximkorea.net 접속
 상단 BOARD 메뉴 ▶ Q&A 게시판 이용
 광고 문의, 사입 제휴 partner@maximkorea.net
 TEL. 070-4010-8994
 정기 구독, 대량 구매 joy@maximkorea.net
 TEL. 02-323-1182

Butterfly on your wrist



MAXIM에 귀사의 브랜드 및 이벤트, 인물과 콘텐츠 등을 소개하고 싶으시면 편집부 대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취재 문의 및 화보, 협찬: press@maximkorea.net / 영화사, 공연 홍보: movie@maximkorea.net



발행처 (주)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3년 10월호 통권 제42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ALPHA MEDIA GROUP

PRESIDENT: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USTRALIA Santi Pintado	CZECH REPUBLIC Jan Stepanek	ITALY Paolo Gelmi	SOUTH KOREA Young-Bee Lee	UNITED KINGDOM Alpha Media Group
AUSTRIA Boris Etter	GERMANY Boris Etter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SWITZERLAND Boris Etter	UNITED STATES Dan Bova
BULGARIA Hristo Zapryanov	INDIA Vivek Pareek	RUSSIA Sasha Malenkov	THAILAND Surawong Krueafan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SERBIA Dragan Otašević	UKRAINE Sasha Malenkov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주)와이미디어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와이미디어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주)와이미디어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와이미디어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3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베카인벨 www.konocorp.com (주)게노코퍼레이션 02.3397.7100

[직영점] 롯데백화점 미아 (02-944-2130) / 롯데백화점 분당(031-738-2140)
 하이월 (02-2136-9743) 대구백화점 프라자 (053-253-7133)

[판매처] 롯데백화점 잠실 (02-2143-1909) / 뉴코아백화점 강남 (02-535-1948)
 / 대구백화점 (053-422-3191) / NC백화점 강서 (02-2667-9902) / NC백화점
 해운대 (051-709-5741) [연세점] 제주충무문세점 (064-780-7671)



DRIVING CONCERT HAL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ACTUNE

by HYUNDAI MOBIS

Letter From MAXIM

X도 모르면서 까분다

... 라는 말이 있다. [조:또]라고 읽히는 저 부분, 난 얼마 전까지 저 X에 들어가는 말이 '쫘'인줄 알았다. 혹시 알고 있었나? 저 X이 다근 받침을 쓰는 '쫘'이다. 원래 저 표현은 조상 조(祖)를 써서 '조(祖)도 모르는', 즉 '조상도 모르는 근본 없는 천한 놈'이란 뜻이었다. 비슷한 표현이 있다. '쥐뿍도 모르는 주제에'라는 말은 보통 뭇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체를 할 때 비난하는 말이다. 이 '쥐뿍'이란 말 역시 '지 뿍', 즉 '지 뿌리'를 가리킨다. 풀이하면 '제 뿌리도 모르는 천한 주제에'란 뜻이다. 그렇다면 '쥐뿍도 없는 게'는 더 심한 욕이겠지. 뿌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욕을 할 때 즐겁스럽게 그 상대 하나만을 욕하는 게 아니었다. 화끈한 스케일로 그 집안 조상까지 들먹이며 근본부터 싸잡아 비난하셨다는 얘기가. 이게 참... 나 하나 욕하는 것보다 부모나 조상 들먹이며 욕하는 게 훨씬 기분이 나쁘다. 딱 귀로만 들어도 '우라질(오라를 지을) 놈'이나 '개차반(개가 먹는 밥)'보단 '근본 없는 놈'이란 욕이 더 불쾌하잖나. 근본도 없는, 뿌리도 모르는 주제에... 이 말만큼 사람을 기 빠지게 만드는 표현이 없다. 시작이 미미할 수는 있어도 어찌 시작이 '없는' 사람이 있다.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욕이다. 뭘 잘못했다고, 좀 모자라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더니 이보다 큰 저주가 있을까. 사람을 바닥에 주저앉히고 일어설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말이다.

나는 직업상 일상적으로 평가와 수정의 지시어를 많이 쓰게 된다. "이건 좀 아니다. 수정해." "그건 아까 얘기한 콘셉트랑 달라요. 안 됩니다." "MAXIM이랑 안 맞잖아. 그건 안 돼."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잠들기 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찜찜한 미안함이 들 때도 있다. 혹시 그의 일을 두고 한 나의 말이 그의 인격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말로 들린 건 아닐까. 잘해보자고 한 말이 그를 주저앉히진 않았을까. 내가 믿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뭔가 실수나 잘못을 해도 '근본부터 틀려먹었다'고 비난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잡는다.

기억이 생생하다. 그렇게 좋아하던 MAXIM에 입사해 처음 이름을 올린 정규 월호가 54호다. 시판되기 전 남보다 먼저 잡지를 받아보고 한 장 한 장 조심히 넘기면서 얼마나 신기하고 설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땐 이름이 잡지에 찍힌다는 게 죄송해서 몸 둘 바를 몰랐다. 미미한 존재감, 실수투성이, 근데 자신이 뭘 실수했는지도 모르는 무지랭이, 선배들과 편집장님에게 짐만 되는 신인. 지금 보니 내 손을 탄 어떤 기사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찾아서 불태우고 싶을 만큼 부끄럽다.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MAXIM 한국판 125호, 여전히 나는 실수투성이다. 많이 자랐나? 글썽.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나? 그런 것 같다. 다행이다.

내가 그랬듯 지금 MAXIM에서 열심히 구르는 인턴들이 있다. 그리고 제법 자기 몫을 톡톡히 하는 그들의 선배가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함께 하겠다며 와서 조금씩 사람 구실을 한다. 가끔 날 당황시키고 혈압도 오르게 하지만 그래도 기특하다. 54호 때의 내 모습이 떠오른다. 선배들, 편집장님에게 얼굴이 빨개지도록 혼나기도 하고, 밤새 혼자 사무실에서 고민하던 미미한 막내 에디터. 그때의 나를 '너는 틀려먹었다'는 말로 주저앉히지 않은 참을성 많았던 선배들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쫘'도 모른다면 근본을 부정하는 맹독을 주변에 뿌지 말자고 나를 다잡아준다.

2013년 3월 초, MAXIM에 입사한 14명의 신입 인턴 중 5명이 냉혹한 인턴심을 통과하고 MAXIM의 정규 멤버가 되었다. 수고했다는 격려와 축하의 말을 나누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아직 잘 몰라서'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회사에, 그리고 수많은 독자들 앞에서 한 명의 MAXIM 정규 멤버 몫을 온전히 해내야 한다. 이들에게는 MAXIM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고 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확실한 '뿌리'가 생겼으니 말이다.

이제부터 독자님들도 너그러움을 거두시고 더 높고 빠른 기준으로 이 친구들을 평가해주시길 바란다.

2013년 10월 편집장

이영희





Swiss made ✦
 Chronograph ✦
 Sapphire crystal ✦
 Super luminova ✦
 200 meter water resistant ✦

200M
 WATER RESISTANT

TUFFATORE 101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로 코리아 1688-8907

- 직영점(여의도) 02)783-8910
- 롯데백화점(건대점) 02)2218-3191
- 롯데백화점(부평점) 032)452-2146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 신세계백화점(인천점) 032)430-1486
- AK백화점(구로점) 02)839-5128
- NC백화점(광주점) 082)510-7171
- 동아백화점(대구점) 053)780-1701
- 패션존(동대문) 02)3398-7527
- 타임타임(신도림) 02)2111-1171
- 탑타임(안산점) 031)413-7656
- 보보스와치(청주점) 043)235-1510
- 골드케니언(광주점) 062)714-1121
- 엘가(대구점) 053)255-6940
- 모다(양산점) 055)911-7111
- 중문면세점(제주점) 064)780-7665
- 롯데백화점(미아점) 02)944-2130
- 롯데백화점(중동점) 032)320-7559
- 롯데백화점(전주점) 063)289-3191
- 신세계백화점(의정부) 031)8082-0344
-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 NC백화점(해운대) 051)709-5741
- e-watch(영등포) 02)771-7033
- 타임갤러리(동대문) 02)3398-5528
- W MALL(구로점) 02)2081-0921
- 뉴코아아울렛(부천점) 032)624-8337
- 타임 21(청주점) 043)224-8851
- 파매(광주점) 062-383-9930
- 삼성사(대구점) 053)422-3002
-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 타임볼(부산점) 051)919-4704
- 롯데백화점(분점) 02)772-3908
- 롯데백화점(관악점) 02)842-7706
- 롯데백화점(청주점) 043)219-9108
- 롯데백화점(서면점) 051)810-4087
- 신세계백화점(천안점) 041)640-5496
- AK백화점(평택점) 031)646-6139
- 디큐브시티(신도림) 02)2211-0149
- 정우상사(종로점) 02)2272-2688
- 타임머신(동대문) 02)6388-2927
- 타임 21(광천점) 02)3424-0793
- 록록(부천점) 032)662-2026
- 북와치(청주점) 043)223-1333
- 골드록(광주점) 062)410-0137
-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 엘가(부산점) 070)7569-5766
- 롯데백화점(창실점) 02)2143-1922
- 롯데백화점(김포점) 02)6116-3176
- 롯데백화점(광주점) 062)221-1573
- 롯데백화점(광복점) 051)878-4191
- 신세계백화점(광주점) 062)360-1934
-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14
- 대동백화점(창원점) 055)212-8383
- 와와치(강남점) 02)537-8977
-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 타임 24(일산점) 031)931-5555
- 뽕까통(부천점) 032)662-0686
- 제이클럭스(천안점) 041)564-5465
- 락록(교산점) 063)443-0090
- 교보문고(대구점) 053)425-9961
- 티아라(제주점) 064)745-3008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64
- 롯데백화점(분당점) 031)738-2140
- 롯데백화점(울산점) 052)256-3191
- 롯데백화점(성남점) 051)730-3198
- 신세계백화점(선릉점) 051)745-2297
- NC백화점(광명점) 02)350-8979
-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 이타임월드(선릉점) 02)313-4108
- 워치(노원점) 070)4136-5090
- 샤론(안양점) 031)463-9788
- 타임런(인천점) 070)7516-4545
- 타임터치(대전점) 042)482-2328
- 진보석(순천점) 061)725-3849
- 타임피어(포항점) 054)253-8855
- 롯데백화점(영등포) 02)2164-6191
-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85
- 롯데백화점(창원점) 055)-279-3192
- 신세계백화점(경기점) 031)695-1277
- 현대백화점(중동점) 032)623-2161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대백프라자(대구점) 053)253-7133
- 해피타임(홍성점) 02)2012-0625
- TM시계백화점(신도림) 02)2111-1120
- 시계상자(안양점) 031)441-0158
-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 메가와치(충주점) 043)857-9125
- 엘가(구미점) 054)451-6940
- 조이필(포항점) 054)613-1170

Letters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나는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주매



잠깐 기다리시오!
진정 이러한 파티가
열린다는 말인가...



결결결,
이제 페이지를
넘겨도 좋소.



나는 이 처자에게
걸겠네. 좋은
몸을 가졌어.



웃을 입어주지
않겠나?



이달의
스페셜 사연
선물

파나소닉
방수 캠코더
HX-WA10

잠결에 지른 정기 구독

카이스터에서 공부 중인 대학원생이요. 그간 몇몇 사람들이 아이패드로 MAXIM 정기 구독을 했지만 난 깨끗하게 하지 않았소. 하지만 밤샘실험을 하고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내 무의식이 정기 구독을 신청해 둔 게 아니겠소! 환불하지 않을 테니 최소 1년 동안 나를 더 즐겁게 해주시오. 혹시 모르지 않소? 이리다 내가 평생 정기 구독을 하게 될 지도! (NIT정모씨, 모바일 사연)



썼어.

에디터 조웅재 → 카이스터가 천재들이 모인 두뇌 창고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무의식 중에 아이패드를 조작할 수 있는 초능력자들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 만취 상태로 이불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바지를 내린 채 의자에 앉아 있다던가... 모니터에 아사미 유마를 띄운 채로 말이죠. 허허. 렘수면에 빠져 있는 저를 가격하시던 어머니의 강스파이크만큼 환관하게! 다음 호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발하는 MAXIM

남들과는 좀 다른 기숙사형 대안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이요. 전부터 선배들이 사오던 MAXIM 을 흘깃흘깃 엿보다 매달 챙겨보기 시작한 지 여인 3년이 되었소. 학교 특성상 선배의 권력은 막강하지만, 후배 놈들은 위아래도 없는지 방을 비운 사이 MAXIM을 탈취해 가곤 하오.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이송골, 모바일 사연)



편집장 →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도 고등학교 3년 내내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한 학년 선배 중에 좀 이상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 방은 화장실 근처였죠. 근데 그녀는 자기 방 서랍장 속에 유아용 소변기를 숨겨놓고 쓰더군요. 그걸 안 이후로 그 방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 유아용 소변기만 보면 그녀의 유난히 새하얗던 다리가 떠올라 머리가 쭈뼛 서고 오금이 저려요. 후배에게 공포와 경외심을 심어줄 부비트랩으로는 '분비물'만한 게 없습니다.

유부남이지만 관찰아

유부남 2년차 찬이 아버지입니다. 의경 시절 MAXIM 창간호를 보며 길길대던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7개월 빅 베이비를 둔 아버지가 되었네요. 지난 무더운 여름엔 마누라의 심부름을 하고 마일리지를 쌓아 MAXIM 폴 파티에 가서 잘 놀다 왔습니다. 9월에도 후끈한 MAXIM 표지에 하악거리며 추석 연휴를 보내드립니다! MAXIM 편집부도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 (조용선, 이메일 사연)

에디터 유승민 → 개화의 물결 속에 맥심이 이 땅에 들어온 지도 어인 11년이 흘렀구려. 나 또한 그대처럼 맥심의 독자였소. 당시 우리처럼 청운의 꿈을 꾸던 청년 독자들은 이제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주축으로 거듭났소. 그리고 맥심 역시 약관의 나이로부터 30대 중반을 아우르는 민중의 정론지로 성장하였소. 보아하니 사내아이구려. 이마의 생김새를 보아 몹시 귀한 운명을 타고났으니 훗날 그 아이가 맥심의 편집장(編輯長)이 될지 누가 알겠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청년 시절에 초등학생이었던 여자아이들이 어느새 터질 듯한 미스맥심이 되었으니 말ियो. 우리가 함께한 맥심의 이념을 엄숙히 후대에 계승코져 밖에선 찬이의 생각을 살피우고, 집에선 나신수유(裸身授乳)를 불사하는 그대의 부정을 기리기 위해 네 덩어리의 말풍선과 진귀한 선물을 전하는 바이오.

이달의 QUICK 상담소!

Q. 너무 잘생겨서 고민이에요. 두 여자에게 고백을 받았는데 선택을 못하겠어요.
(1795, 이메일 사연)
A. 저랑 같은 고민 중이시군요. 여자가 있다는 것만 빼면요.

Q. 우리 학교는 남고인데, 미인이 많아요. 하하하.
(국어쌤, 모바일 사연)
A. 우리도 남성 잡지사인데 미인이 많아요. 안 신기해요. 하하하.



ANTI-WRINKLE TREATMENT ESSENCE
Take care of men's wrinkled skin with this one drop!

www.mdo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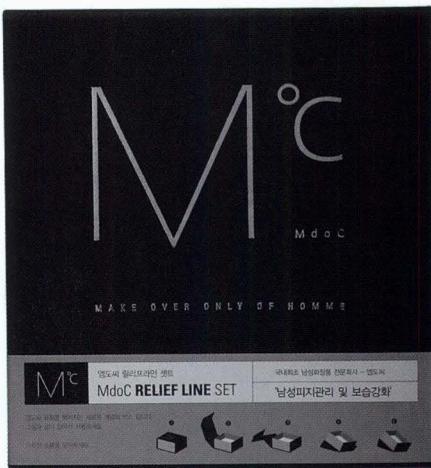
M-CARE MASSAGER
Wrinkle Care Total Solution



Beyond Perfect Man's Skin!

Only Man's Cosmetic Brand

RELIEF GIFT SET
Moisture/Special edition



RELIEF TONIC
Feel the freshness with zero-stress relief tonic-



RELIEF FIRST PEELING GEL
Start with relief first peeling gel to remove dead skin cells of men's face.

국내최초 남성전문 피부타입별 화장품 엠도씨



RELIEF ESSENCE EMULSION
Rich moisturization of essence - no more oily skin with silky finish!



RELIEF ESSENTIAL MASK
Amazing effect from botanical ingredients only for men

RELIEF FOAM CLEANSING
Foam cleanser best suited for men's skin type - feel the freshness.



MEN'S B.B CREAM
Present yourself with confidence by naturally covering widened pores and blemishes. (Triple function product)



맥심코리아 단독
3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할인쿠폰
2013년 11월 30일까지 사용

www.mdockorea.com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오른쪽 쿠폰번호를 입력하세요

COUPON / 할인쿠폰

A0Y0-85F6-P2HB-0QI4

에이엠와이엠 - 팔오에프육 - 피이에치비 - 오큐아이사

M°C
M d o c

독자 사연
투척하기



아프니까 청춘이다

대학교 입학 후 근 6년간 공들인 여인이 있소. 얼마 전 돌이 얼큰하게 취해 은밀한 장소로 들어갔고, 그렇게 동정을 때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똥똥이를 들이댈라치면 매서운 손찌검이 오는 게 아니겠소. 그것도 3연타로 말ियो. 결국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화장실로 도망가 그녀가 잠들기를 기다렸소. 왜 때린 건지 모르겠소. 어떻게 반했어야 했던 것이요? <새로운 성벽에 눈뜨까, 모바일 사연>

에디터 유승민 → 이런 천하의 갑갑한 자를 보았네! 아내자가 겨우 그 정도 내숭을 떨었다고 도망을 갔단 말인가! 게다가 뭐? 숨어서 여자가 잠들기를 기다려? 여봐라! 어서 내 검을 가져오너라! 내 친히 이 자의 목을 칠 것이야! 6년이나 똥을 들어, 불타는 나이의 여인에게서 사리가 나오게 만든 것도 모자라 뭐가 어찌고 어찌? 여인의 입장에서 3연타라도 날리지 않으면 네 놈의 똥똥이를 6년간 기다린 불쌍한 꼴이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는가!

지금 나 때문이라는 거냐?

촉매제가 필요해

저는 올해로 25살이 되는 처자라요. 남친하고 사귀는 지는 4년째 접어들고 있소. 1년 전 남친이 학생일 때는 매우 뜨거운 밤을 보냈으나 취직 후에는 부쩍 관계 횡수부터 시간까지 많이 줄었소. 내 남친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요? 어찌면 좋소? <듬이뜨거운여자, 모바일 사연>



내 여친은 비밀 요원?

4년째 만나고 있는 여친이 있소. 작년까지 동거를 하다 11월쯤 갑자기 피부 관리를 배우고 싶다는 지방으로 날랐소. 그러더니 한 달이 지나고 일이 너무 빡세니 카톡이고 전화고 신경 쓰고 싶지 않라며 연락을 잠깐 끊자고 하더군요. 앞으로 1년간 만나지 말고 그 돈 아껴서 1년 뒤에 결혼하자고 하요. 이 여자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공금, 모바일 사연>



에디터 김희성 → 상사에게 까이고 업무에 치이느라 남친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네요. 파곤한 남친을 아근 맞춤형 섹스머신으로 탈바꿈시켜보세요. 아근하고 있는 그의 회사에 찾아가 회사 근처 은밀한 섹스 스팟을 찾아보는 겁니다. 하루는 주차장에서 팔팔팔, 하루는 계단에서 팔팔팔, 또 하루는 근처 모텔에서... 시험기간에 유독 뉴스가 재미있는 것처럼 업무를 넘겨둔 상황에서의 짧은 섹스는 무척 짜릿한 경험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잘어나가요? 그건...

에디터 응? 희성씨 또 어디 갔어?

에디터 손안나 → 아마 그녀가 한 말은 진심인 것 같아요. 저도 취업준비생이던 시절 갑자기 모든 게 혼란스러워서 다 때려치우고 도보 여행한다고 스페인으로 몇 개월 간 날랐던 적이 있었죠. 남친을 사랑하는데, 분명 사랑하긴 하는데... 남자 친구도 어쩐지 예전만큼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으니깐, 지금 이 모습보다 더 멋진 여자가 되어 '짤'하고 나타나고 싶은 심리랄까요? 그녀에게 확신을 주세요. 자기가 먼저 프리포즈까지 하더니... 여자 친구가 독자님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네요!

독자 사연 응모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사연이 실린 독자 모두에게 주는

이달의 독자 선물

사연을 보낸 독자들에게 다음 선물 중 하나를 랜덤 발송한다!

For Men

엠도씨 안티링클 트리트먼트 에센스

몇 개월 우려 낸 사골국물만큼 진한 천연유래효모 발효추출수를 80%나 함유한 에센스 제품! 당신의 피부를 송충기만큼 탄력 있고 맑게 만들어 주는 제품이다. 아직 주름이 없다고? 혹 가는 거 한순간이야.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For Ladies

MAXIM 여성용 V넥 티셔츠

MAXIM의 소중한 여성 독자들을 MISS MAXIM 만큼 섹시하게 만들어 줄 MAXIM V넥 티셔츠! 이 옷을 입고 집안을 나서기만 해도 무수한 시선들을 느낄 수 있을 거다. 응성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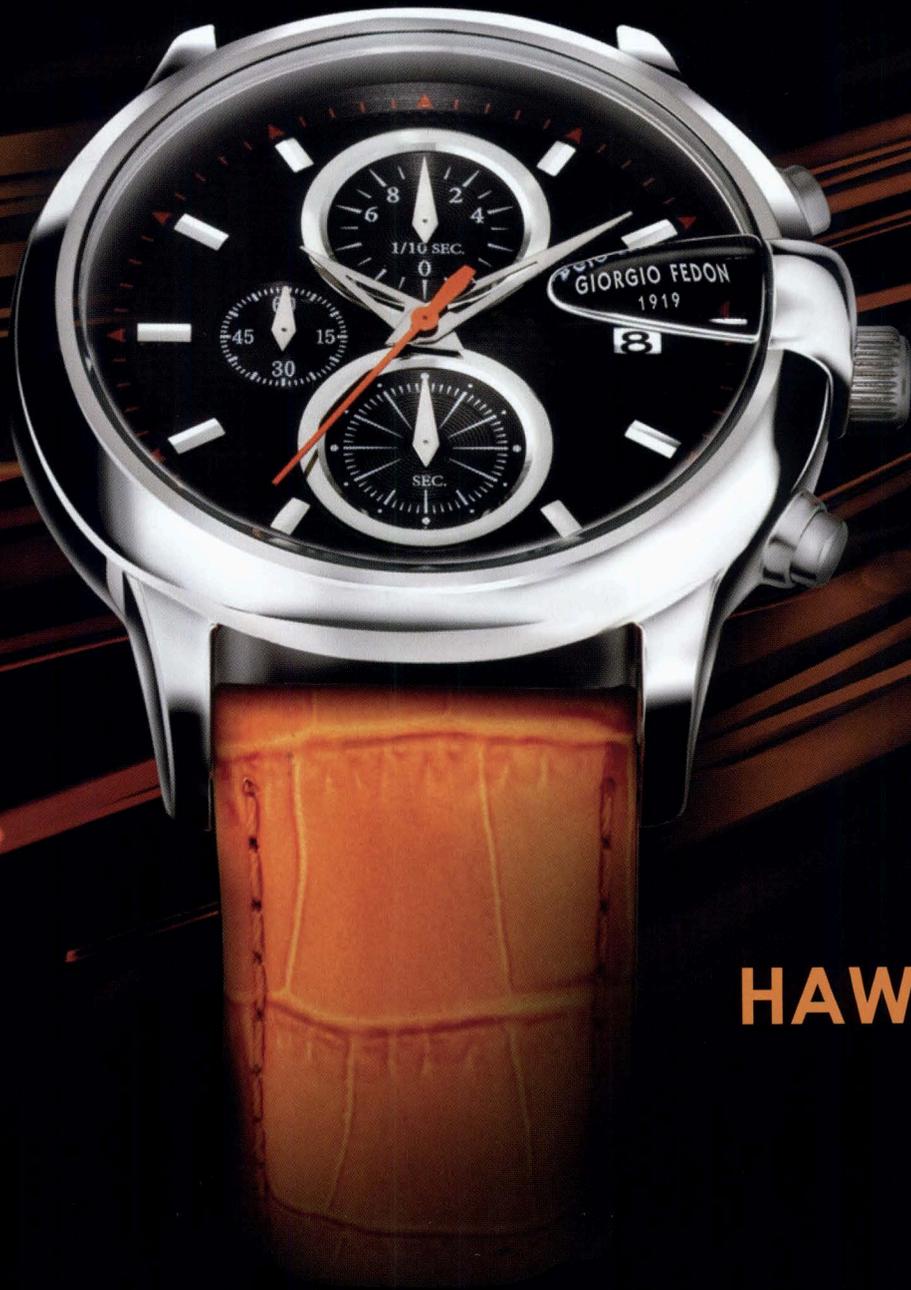


Unstitched Utilities 친환경 슈즈

초경량 런닝화조차 무겁다고 질질 끌고 다니는 연약한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하는 Unstitched Utilities의 친환경 슈즈를 증명한다!



GIORGIO FEDON
1919



HAWK EYE

조르지오 페돈 | (주)가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 www.giorgiofedon.co.kr | 02.3397.7100

[직영점] 롯데백화점 분당 (031-738-2140) 롯데백화점 미아 (02-944-2130) 대구백화점 프라자 (053-253-7133) 하이힐 (02-2136-9743)
[판매처] 롯데백화점 노원 (02-950-2490) / NC백화점 강서 (02-2667-9902) / 2001아울렛 분당 (031-786-262) / 서울 신철사 (02-745-0333)



Dear. Readers

언더웨어 애블린
가방 하비아누

베이글 종결자 엄상미의 뽕뽕한 독자 고민 상담!

귀염둥이 상미가 당신에게 전하는
쿵닥쿵닥 고민 해결 메시지!
이번 달 독자들, 아주 게 탕구냐?



“
플리면 그냥 만나요,
겉쟁이 오빠!
”

Q. 저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크다고 많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직장에서 가끔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자들이 “남자는 머리가 좀 커야지”라고 저를 위로하긴 하는데, 진실일까요?

(대두100%, 이메일 사연)

A. 머리가 작은 남자보다 큰 남자가 훨씬 나아요! 나보다 작거나 비슷하면 왠지 패배감이나 불쾌함이 느껴진다고요?(웃음) 아무리 잘생겨도 그저 '신기하다' 정도? 똑같은 조건에서 머리 작은 남자와 큰 남자 둘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머리가 큰 남자를 선택할 거예요!

Q.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먹을 때는 훨씬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살이 찌는 게 아닐까 걱정되네요. 효율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없을까요?

(iokkoi, 모바일 사연)

A. 저는 소문난 고무줄 체중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화보를 많이 찍다 보니 촬영 전날은 잘 안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 알고서는 굶으며 살 빼는 걸 그만뒀어요. 차라리 간단한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등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자주 하세요! 이왕 살 빼는 거 재미있게 빼면 좋잖아요?

Q. 서른 줄을 바라보는 나이에 예전에 과외할 때 가르치던 스물 한 살짜리 풋풋한 여대생에게 고백을 받았습니. 어차피 이 정도 나이차면 사귀어도 얼마 못 가지 않을까요? 받아들여도 괜찮을지...

(마성의 남자, 이메일 사연)

A. 플리면 그냥 만나요, 겉쟁이 오빠! 만나기도 전에 이별부터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그 정도 나이차는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에요. 오빠도 그 여자 분을 과외 선생님이로 알게 되었으니 남자답게 리드하면서 잘 챙겨주세요! 알콩달콩 재밌겠당!





RANDOM ACTS
OF FUN ARE

**NOT
NOR
MAL**



Q.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은 NORMAL. MINI는?

FAMILIAR.

GENERAL.

NOT NORMAL.

WARM.

AVERAGE.

COMMON.

MEDIUM.

REGULAR.



Jägermeister

ICE COLD SHOT

지니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Jägermeister

PRODUCED AND BOTTLED BY

Mast-
Jägermeister SE
WOLFENBÜTTEL
GERMANY

70 cl 35%
700 ml vol

WE NEVER FREEZE

www.facebook.com/jagermeister.Korea



새차처럼 쌩쌩하게

NEW Bullsoneshot

얼마 달리지도 않은 새 차에 생기고, 한참 잘 달리는 정든 차에 쌓여가는
엔진 때를 없애야 차의 성능은 더 좋아지니까!



주유구에
쉽게,





BULLSONESHOT (Fuel additive for diesel)
Bullstone Co. Ltd.
Verringerung von Ablagerungen an den
"Einstritzlöchern"
reduction of the formation of deposits on
the injection nozzles!
* Prüfung nach CEC F-08-08
* Test according to CEC F-08-08

불스원샷의 Hi-Tech 기술력 | 독일 기술검사협회인증 획득

신제품
New Car
0~3단km



새 차엔
엔진보호성분이 강화된
불스원샷 New Car

더욱 새로워진



정돈 차엔
Hi-Tech 세정기술로
더 강력해진 불스원샷



출력UP



연비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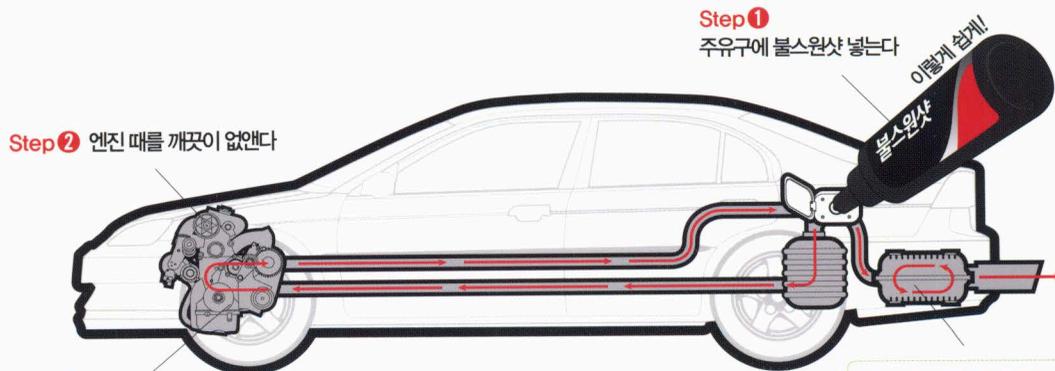


소음DOWN



배기가스DOWN

| 불스원샷의 효과 |



정부에서 인정받은 녹색기술
불스원샷은 CO₂ 저감효과로
환경까지 생각합니다





HELL DIVER

1942 SB2C

TRIPLE TIME



HELLDIVER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공식 홈페이지 <http://www.helldiverwatches.com>

- | | | | | |
|---------------------------|--------------------------|-------------------------|----------------------------|-------------------------------|
|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1909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490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 70'CLOCK(인천점) 032-456-4280 | M B K TIME(부산점) 070-8200-2234 |
| 굿모닝시티2F(동대문) 02-2118-8075 |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 타임타임(신도림) 02-2111-1171 | 타임런(부평점) 070-7516-4545 | 교보문고(대구점) 053-256-1575 |
| 헬로APM6F(동대문) 02-6388-2927 |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 샤론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 타임캐통(부천점) 032-662-0686 | 삼성새대구점) 053-422-3002 |
| 두산타워3F(동대문) 02-3398-5528 |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0 | 보석상자(안양점) 031-466-1014 | 복와치(청주점) 043-223-1333 | 엘가시계(대구점) 053-255-6940 |
| 두산타워5F(동대문) 02-3398-7527 | 와와치(반포점) 02-537-8977 | 탑타임(안산점) 031-413-7656 | 타임봄(부산점) 070-7530-1219 | 엘가시계(구미점) 054-451-6940 |
|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 타임21(강변점) 02-3424-7073 | 타임루트(안산점) 031-487-9057 | 엘가시계(부산점) 070-7569-5766 | 더타임(진주점) 055-741-3072 |
| 프로워치(남대문) 02-779-6964 | 타임21(강변점) 02-3424-1210 | 티파니(일산점) 031-931-5300 | 덕천시계(부산점) 051-333-8849 | |
| 이와치(명동점) 02-771-7033 | 테크노마스터(신도림) 02-2111-1120 |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 | |



* 흑백처리된 커버의 월호는 품절을 의미합니다.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도, 인터넷 서점에서도 MAXIM 과월호를 구할 순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쟁취하시길!
 *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서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Circus M

A MAXIM VIEW OF THE WORLD

파인애플을 줄거면
곁질 까서 주라고!



이게 바로
떡따는
소리



aximus



The Giant Pig God 1톤짜리 돼지?!!



하여튼 섬 것들은...

BY 손안나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에서 차로 30분 정도 가면 나오는 쑤샤 마을. 매년 '신의 돼지'라는 이름의 명절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수십 년 전 부유한 가문들이 재력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이 축제는, 강제로 몸을 불린 돼지들이 도살되고 퍼레이드용 수레에 실려 도시 거리를 행진하는 '공개 처형 돼지 쇼쇼쇼'다. 스테이지에 오를 돼지를 준비하는 데만 꼬박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 정도면 거의 SM 연습생 뺀다. 이 기간엔 돼지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좁은 우리에 가둬두고 지극정성으로 먹이고 또 먹인다. 운 없는 놈들은 마취제 없이 거세당하기도 한다. 그래야 나중에 육질이 여자 친구 속살마냥 아달아들해진다나?

축제 하루 전날, 체중을 불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돼지 몸에 있는 온갖 구멍이란 구멍에 중금속과 모래를 채운다. 드디어 데데이, 준비한 돼지를 한 마리씩 줄지어 저울에 올린다. 700kg 정도면 날씬한 축이고, 900kg은 넘어야 돼지다운 돼지로 인정받고 관객이 환호한다. 그렇게 1등 먹으면 뭐가 좋냐고? 목도 일빠로 땀방 잘리는 거지. 뭐, 돼지가 모두 도살당하고 나면, 사람들은 가장 똥똥한 돼지부터 골라 잡아 몸에 그림을 그리고 화려한 퍼레이드 수레에 올려 마을 곳곳을 순회한다. 재미있는 건, 동물을 강제 급식하고 공공장소에서 도축하는 것이 타이완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

WORLD LIGHTWEIGHT CHAMPIONSHIP



ROAD FC 013

ROAD FIGHTING CHAMPIONSHIP

NAM YUI CHUL vs KUME TAKASUKE

10월 12일 (토) 밤 8시

수퍼액션 독점 생중계

수퍼 액션
공식
블로그



파트.4 언어 해석 능력

다음 광고를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정성껏 차린 사골 밥상 느낌 그대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밥도둑!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전화 주문이 폭발적입니다. 간장과 양념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 판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이 구성으로는 다시는 여러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을 수 없는 가격 9만9천 원! 사장이 미쳤습니다. 손해 보면서 밀지는 가격으로 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상담원이 모두 연결 중이라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동 주문 전화를 이용해주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1. 광고를 듣고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가. 판매원의 전화기가 폭발했다.
 나. 판매원이 구라를 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 판매원의 사장은 미쳐서 정신병원에 있다.
 라. 판매원이 집에 방문할 예정이다.
2. 이 광고를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가. TV 홈쇼핑 나. 정선 5일장
 다. 화개장터 라. 압구정 로데오
3.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가. 도둑 나. 한국인 다. 계장 라. 밥상

파트.5 독해 능력

제시된 편지와 답장을 참고해 문제에 알맞은 정답을 고르시오.

>> 제목: 장 대리... 전화를 안 받아서 메일을 남기네.

발신: 박 차장 수신: 장 대리

장 대리! 나 박 차장이야. 어젯밤 화식 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장 대리가 사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도 모르고 내가 미친 짓을 했네. 오늘 아침 장미칼을 주문했어. 손모가지 자를게 그냥. 사실 그날 팔라가 되는 바람에 장 대리 엉덩이가 쿠션인 줄 알고 만진 거야. 고의는 없었어. 미안하네.

>> 제목: Re_ 장 대리... 전화를 안 받아서 메일을 남기네.

발신: 장 대리 수신: 박 차장

박 차장님, 정말 어이가 없네요. 모가지가 걸려 있는데 손모가지 정도로 되겠어요? 박 차장님 목숨이 제 손아귀에 있는 거 아시죠? 차장님 이제 새 됐어요. 차장님이 죽느냐, 사느냐는 제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얼마 전 협력사에 실수를 좀 했는데 박 차장님이 총대 좀 메세요. 기러기 아빠라고 들었는데, 처자식도 생각해야죠? 알아서 차신하세요.

1. 박 차장과 장 대리의 관계로 가장 알맞은 것은?
 가. 불륜 관계 나. 장미칼과 쿠션
 다. 의사와 환자 라.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2. 문맥상 밑줄 친 그렇고 그런 사이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가. 짝짓기 하는 사이 나. 원수 사이
 다. 그저 그런 사이 라. '장기하와 얼굴들' 노래 제목
3. 박 차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가. 아들 이름이 기러기다. 나. 새로 변신해서 날아다닌다.
 다. 어제 술에 많이 취했다. 라.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

파트.6 상황별 어휘 사용 능력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보기를 고르시오.

1. 카드빚이 산더미 같아서 세 달 전부터 계속 _____ 하고 있다.
 가. 돌려먹기 나. 돌려차기
 다. 돌려막기 라. 돌려받기
2. 분노에 찬 그가 _____ 을(를) 치며 통곡했다.
 가. 박수 나. 땅 다. 딸딸이 라. 사기
3. 맥심 손안나 에디터는 항상 지각에 _____ 이다.
 가. 칼치기 나. 칼퇴근 다. 대퇴근 라. 이대근
4. 합의 안 해! 저런 자식은 _____ 을 먹어야 돼!
 가. 콩밥 나. 사또밥 다. 스펀지밥 라. 오곡밥
5. 어차피 이렇게 된 게! 죽기 아니면 _____ 대!
 가. 까무러치기 나. 까발리기
 다. 까르보나라 라. 까진 여자애

파트.7 상황별 어휘 사용 능력

빈 칸에 알맞은 문맥상 바른 우리말 보기를 고르시오.

맥심 코리아 빌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4층 오피스 A는 디자이너들이 1. _____ 곳입니다. 우리 잡지의 모든 디자인과 일러스트는 이곳에서 탄생합니다.

- 가. 작업을 하는 나. 작업을 거는
 다. 작두를 타는 라. 작정을 하는

5층 오피스 B는 편집부입니다. 저기 보시면 불쌍한 에디터 한 명이 편집장에게 2. _____ 먹고 있지요?

- 가. 쿠사리 나. 뻥뻥 다. 빠꾸 라. 욱

이곳은 게임룸입니다. 업무에 지친 직원들이 여기 안마의자에 앉아 게임을 즐깁니다. 3. _____ 안마를 받으면 피로가 싹 가신다고 합니다.

- 가. 따뜻한 나. 시원한 다. 미지근한 라. 여대생

정답지

파트1	가				파트5	1. 라	2. 가	3. 다
파트2	가				파트6	1. 다	2. 나	3. 나
파트3	1. 나	2. 나	3. 다	4. 가		5. 가		
파트4	1. 나	2. 가	3. 다		파트7	1. 가	2. 라	3. 나

OD MUSICAL COMPANY, CJ E&M & PHOENIX ENTERTAINMENT Present
Book, Music & Lyrics by JIM JACOBS and WARREN CASEY

10th
ANNIVERSARY

뮤지컬
그리스를
보여주마



내가 선택한 첫 뮤지컬!
No.1 뮤지컬 그리스

2013.10.22 ~ OPEN RUN | 대학로 유니플렉스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오픈리뷰 1588-5212 |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협찬| LOUN.G

민망하고! 오글거리는!

애국심 폭주

갱스타 KING!



민망 KING!



틸다 스윈튼 '설국열차' 출연 배우 (기자회견에서) 계속 국적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신기 사람으로서 어느 배우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중

뽀뽀 KING!



두유노 사이?

3·1절 일식집 테러 사건

올해 3월, 한 네티즌이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흥대의 한 일식집 튀김집이 찍혀 있었는데, 가게에 내걸린 간판과 현수막이 쓰러지고 뜯겨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만취한 젊은이들이 '사게'와 '덴뿌라'를 파는 이 가게 옆을 지나가다 반일 감정이 샘솟아 무차별 테러를 감행한 것. 이 사진을 본 네티즌은 "쪽바리 음식을 파는 곳이니 당해 마땅하다"라는 반응과 "주인이 한국 사람인데 무슨 병신 짓이나"는 의견으로 나뉘어 설전을 벌였다. 정작 인근의 일본인 사장이 운영하는 소문난 라멘집은 멀쩡했다고, 한 일전 후 일본인 선수와 유니폼을 바꿔 입은 박주영이 지나가던 붉은 악마에게 맞아 죽은 셈이다.

KTX가 된 <설국열차> 사건

<설국열차>의 주연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틸다 스윈튼. 개봉 당시 개최한 배우 초청 시사회에서 기자들은 그녀에게 몸 쪽 쪽 찬 돌직구를 쳐맞았다. 언제나처럼 기자들은 그녀에게 "어떤 이유로 한국 감독이 좋았나", "한국 스태프와 일하니 어땠는가", "한국 배우의 연기력은 어땠나" 등의 영화 외적 질문을 마구 쏟아내고 있었다. 결국 참다못한 스윈튼은 "배우에게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국적 질문 좀 그만해 달라"며 일침을 놓았다. 몇몇 네티즌은 "그나마 김치 맛있느냐는 얘기가 안 나와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참고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며칠 앞서 방한했던 휴 잭맨은 <스타킹>에 출연해 "김치 짱!"만 외치다 돌아갔다.

두유노 사이? 사건

올해 8월 19일, 미 국무부에서 유례없던 코리안 뜬금포가 터졌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 빅토리아 놀런드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우리나라의 <연합뉴스> 소속 기자가 "한창 히트 중인 사이의 '강남스타일'을 알고 있느냐"며 삼천포 관광하는 소리를 던지고 만 것이다. 마치 어린이 신문 기자가 대통령 당선자의 기자회견에서 "우리 학교 체육 선생님 달리기 X나 빠른 거, 청와대에서도 유명하냐?"는 질문을 던진 셈. 결국 곁에 있던 외신 기자들은 실소를 뿜어댔고(이 민망함을 직접 느껴 보려면 우측 페이지 상단의 QR코드를 찍어 보자) 놀런드 대변인은 친절하게도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딸이 K-POP을 무척 좋아한다"며 미소로 화답했다. 아야, 내 손발 돌려내, 기자 양반아!

대륙의 애국심 스케일

고만해, 이 미친놈들아!

대륙을 무시하지 마라!



망했다! 우리 거다!

2012년 중국 보수파들의 반일 감정이 거세지면서 현대판 외세 척결 운동이 벌어졌다. 보수 성향을 띤 시위대들이 외국계 점포들을 때려 부수곤 했는데, 심지어 중국인 갑부 리자칭이 소유한 '왓슨스(Watsons)'마저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왜 그랬어? 이름이 영어라서 헛갈렸어?



부심이 가관이네

중국인 사업가 허례성은 아들과 함께 해발 3,776m의 일본 후지 산 정상에 올라 '다오위다오(중·일 간 영토 분쟁 중인 땅)는 중국 땅'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은 고산병으로 쓰러졌고, 부지는 결국 일본인 구조대원에게 잔소리를 들으며 구조되었다고.



열전!

Circus Maximus

Korea No.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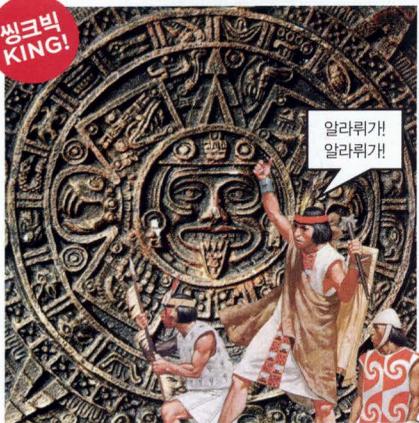


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 우리 독자들 마음에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넘치는 나라사랑을 주체 못하고 세계를 놀라게 한 이들을 소개한다. 코리아 넘버원! BY 조종재

손발이 뒤틀린다!



싱크빅 KING!



신성모독 KING!



오버 KING!



아스테카, 잉카 '너네도 단군의 자손' 사건

배재대 중남미학과 손성태 교수는 '한민족이 아스테카문명과 잉카문명을 세웠다'라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의 이 주장에 따르면, 이들 문명이 사용한 '나와틀어'는 한국어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고, 특히 민속요 '아리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인상적이다. 그는 "아라리가 다투네"에서 '아라리가'라는 단어가 나와틀어의 'Alariga(그렇게 해서)'라는 단어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웃놀이를 할 때 '났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났다'라는 말은 '이겼다'는 뜻이므로, "아라리가 다투네"라는 구절은 "그렇게 해서 이겼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따라서 '아리랑'은 사실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는 송진가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런 공통점을 찾아낸 것은 세계 문화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큰 발견"이라며 흥분을 금치 못했다.

초강력 대한민국 하나님 사건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국가대표 팀이 전통의 강호 스위스와 혈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이 호프집, 광장, 극장 등에서 열띤 응원전을 펼치는 가운데, 한 아주머니가 세계 종교계를 발각 뒤집어놓는 발언을 했다. 열렬하게 기도하며 응원 중이던 어느 아주머니에게 기자가 "스위스 사람도 우리처럼 기도하고 있을 텐데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우리 하나님이 스위스 하나님보다 강력하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라는 대답으로 옆에서 듣던 장로님을 얼얼하게 만들었다. 이 아주머니의 발언에 기독교는 단숨에 다신교가 되었고, "천국에 세계 하나님 협회라도 있느냐", "나라별로 하나씩, 전 세계 하나님은 224명이나 되는개" 등 신학계조차 예상하지 못한 가설과 드립이 흥하기 시작했다.

버스커버스커 매국노 사건

올해 3월, 버스커버스커의 뱃꽃 엔딩이 다시 한 번 차트 정상을 휩쓰는 이변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를 남다른 시선으로 지켜보던 한 네티즌이 해당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 "(제목을)무궁화 엔딩이라고 지었으면 훨씬 더 각광받았을 텐데"라는 댓글을 단다. 이에 지나가던 다른 네티즌이 "이건 또 뭘 개 소리여"라며 태클을 걸자, 그는 "일본 '뱃꽃'보다는 우리나라 '무궁화'가 좋은 얘기지, 넌 애국심도 없느냐!"라며 감정이 폭발! 졸지에 버스커버스커는 친일파 밴드로 전락하고 말았다(바스카-바스카- 정도로 읽으면 되려나). 많은 네티즌들은 이 뜬금없는 애국자에게 불쾌함을 표시하며 "가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뽀빠리 휘날리며~ 휘날리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냐?" 등 비아냥을 퍼부었다. 이거 뭐 무서워서 뱃꽃놀이도 못 가겠네.

월드클래스 해커단

어나니머스가 날뛰기 전부터 중국에는 '홍객'이라 부르는 해커들이 있었다. 이들은 천안문 시위에 참가했다가 중국을 떠난 망명자들을 '배신자'로 여기고 그들의 신상을 캐서 정부에 제공했다. 신상이 털린 동포들은 해외 망명 중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당하기도 했다고.



올림픽 팀킬 원정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올림픽 성화가 서울 봉송을 하고 있을 때 벌어진 사고, 잠실 올림픽공원 광장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을 중국 유학생 단체가 기습했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까지 때려잡았다. 올림픽 개최 기념 원정 주역 봉송이냐?



애국심이 최고의 부적

중·일 영토 분쟁 때문에 중국 내에서 반일 분위기가 한창일 무렵, 거리에 주차된 외제차들이 보수파 시위대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애국 스티커'를 붙인 차량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물론 스티커 구매자 중 60%가 일제 차량 소유자였단나?





세계 최초 라면 버스킹

길거리 밴드가 당신에게 음악을 들려줄 때, 누들러는 라면 냄새를 맡게 해주었지...
 BY 라면 전문 리뷰어 누들러(blog.naver.com/noodler)



1 8월 31일 토요일 20시 27분
 누들러 코너의 담당자 손안나 에디터에게 원고를 주기로 약속한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아이디어가 화수분처럼 쏟아진다는 약속의 땅 홍대로 무작정 나왔건만, 좀처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짧은 치마를 입은 언니들의 팬티라도 구경하고자 낮은 곳으로 가서 쭈크리고 앉아본다.



3 9월 1일 일요일 00시 17분
 유동 인구가 적은 뒷길일까? 혹은 근처 고깃집에서 풍겨오는 삼겹살 냄새에 라면 냄새가 묻힌 뒷길일까? 그것도 아니면 지나친 팬심을 들킬까 봐 소녀 팬들이 가슴 졸였기 때문일까? 2시간 동안 컵라면 8개를 먹었지만, 우리를 알아보는 이는 술에 취한 이동 막걸리 홍보팀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것도 남자들.



2 8월 31일 토요일 22시 45분
 버스킹 밴드를 발견했다. "그래 저거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라면 버스킹에 도전하기로 한다. 저들이 노래를 들려준다면, 우리는 라면을 끓여주면 되는 것 아닌가. 쓰레기통에서 폐지를 주워 문구를 작성했다. 그래도 불로거 5년 찬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예쁜면 어떡하지? 사갈까? 소녀들이랑 라면 먹는 걸로 '아침밥'에 걸리진 않겠지?



4 9월 1일 일요일 01시 08분
 버스킹 밴드는 목이 쉬어가고, 우린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이었다. 이걸로 끝인가. 우리는 한날 조무래기에 불과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 멀리서 하얀 소복 차림의 소녀가 말을 걸어왔다. "저, 혹시 김면발, 박스프 씨 아니세요?" 아야, 그녀에게서 참이슬 냄새가 났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이왕 알아보는 건 받아가사라며 노트에 시안을 해서 건넸다. 행복하세요, 옥자님. 사랑합니다.

* 이번 호를 끝으로 누들러의 라면 리뷰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누들러를 사랑해주신 MAXIM 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들 즐거운 연식하시길, 피스!

당신이 모르는 라면에 관한 숫자들

뭐 평생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1958 일본 닛신식품이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연도



1963 우리나라 최초로 삼양라면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선보인 연도



1971 일본 닛신식품이 세계 최초로 컵라면을 개발한 연도



1972 우리나라 최초로 삼양라면에서 컵라면을 선보인 연도

10 당시 꿀꿀이죽 두 그릇 값이자, 삼양에서 최초로 개발한 인스턴트 라면의 가격(원)



후루룩~ 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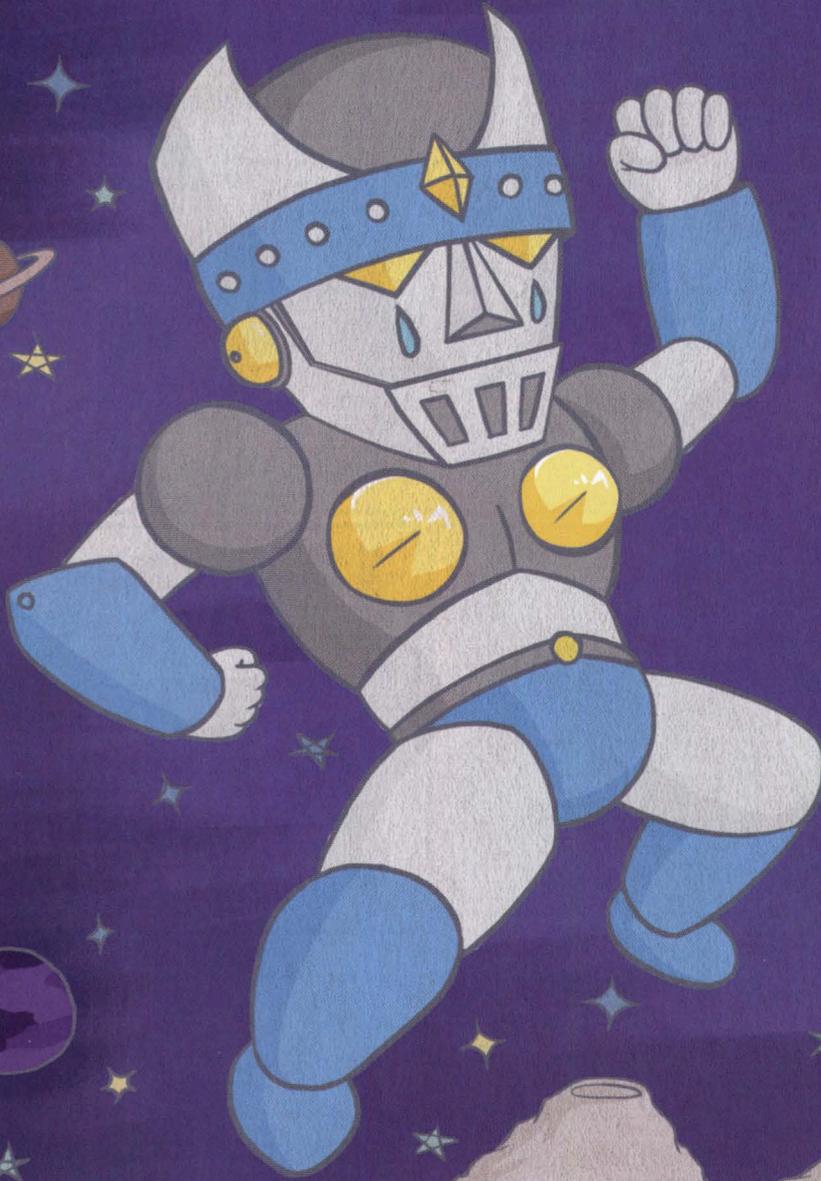
69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2012년 기준, 세계 1위)

50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는 '삼양라면'의 면발 길이(m)



2.26 우리나라에서 가장 굵다는 '남자라면'의 면발 굵기(mm)





남자가
버려야 할
한 가지!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한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로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루엣 성형외과의원 [진료내용 : 여성형유방증] www.gynecomastia.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92-15 실루엣 빌딩 4, 5, 6층 실루엣 성형외과의원 [진료내용 : 여성형유방증]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100m 앞
TEL. 02-3443-1180 / 02-3443-128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30312-중-40312호

HOW TO

어이 신임,
욕실에서 나 좀 보자.

Office Life Tip #9. 알미운 직장 후배 길들이는 법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법...

BY 김희성

MODEL 2013 MISS MAXIM 8강 진출자 오하루

여자 상사
조련하기



TYPE 1

선배 무시하는 후배 길들이기

➔ 당신의 말에 냉소적이고 시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후배

Solution

이럴 땐 선배의 권위를 확실하게 보여줘라. '내 밑으로 다 꿰어'라며 쌍팔년도 방식으로 군기를 잡으라는 게 아니다. 당신은 그냥 질문만 하면 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가장 달라진 회사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해?", "우리 회사 월 매출이 얼마인지 알지?" 등 회사나 업무와 관련된 질문들을 자주 던져라. 그 후배는 항상 어떤 질문을 받을지 긴장할 테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선배가 알고 있다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자연히 당신을 선배로 존중하게 된다.

TYPE 2

일을 떠넘기려는 후배 거절하기

➔ 실제로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잘 알면서도 '선배니까 해결해 주겠지' 하고 요행을 부리는 유형

Solution

질문을 빙자해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선배에게 일을 떠넘기는 양체 후배도 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 봐'라고 호기롭게 말했던 입이 원망스러워지는 순간이다. 반면에, 거절하기가 좀 그렇다는 이유로 다른 일 핑계를 대거나 도와줄 수 없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착한 선배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도 꽤 많다. 하지만 거절할 땐 단호하게 하는 게 좋다. 미안해하면서 애기하면 당신이 진짜 미안해지는 꼴이 된다. 후배에게 빛진 것 같은 이상한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면 다음에 당신이 부탁을 들어줘도 후배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히 해줘야 할 것을 해줬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호구는 평생 호구짓만 하게 된다고, 아예 호구의 싹을 만들지 않는 게 상책이다.

TYPE 3

빼딱한 후배 내 편으로 만들기

➔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항상 빼져있는 후배. 유독 당신에게만 호의적이지 않다.

Solution

당신 편으로 만들고 싶은 후배의 표정이 유독 안 좋아 보이는 날 그 후배를 살짝 불러라. 따로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며 "요즘 힘든 건 없냐"며 편하게 물어봐라. 만약 어떤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면 해결 방법을 알려주거나 "그건 내가 해결해 줄테니까 그 다음 단계부터 진행해"라며 그로기 상태 빠진 후배를 구출해 줘라. 직장인이려면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사회 초년생은 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때문에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선배를 따를 수밖에 없다. 막혔던 부분이



후배님, 니 때문에 골치가 다 아프다.

속옷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뺨 뚫리는 지적을 경험한 후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거다.

TYPE 4

선배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후배 다루기

➔ 자기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선배를 무시하는 유형

Solution

갓 입사한 신입일수록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나머지 동기가 아닌 선배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쌈싸먹으려 하는 후배도 있다. 사실 이런 후배가 있으면 괜히 더 예민해지기 마련. 후배의 일거수일투족에 자신도 모르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면 할수록 그 후배는 기고만장해진다. 그냥 철없는 후배의 귀여운 도발 정도로 생각하고 여유롭게 대처하는 게 낫다. 이런 후배가 어떤 업무에 대해 물어오면 솔직히 가르쳐 주지 싫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일부러 감추는 경우도 많다. 그러지 말고 후배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줘라. 그리고 그가 물어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줘라. 최대한 자상하게.

패기로만 가득찬 애송이에게 있어 선배의 '여유'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다. 여유 충분한 당신의 모습에 '아, 나는 적수가 안되는구나'하면서 스스로 꼬리를 내릴 것이다. 깨갱...

TYPE 5

선배를 만만하게 대하는 후배 길들이기

➔ 회사를 동아리처럼 생각하는 유형으로 선배를 동기처럼 대하는 후배.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사석에서 반말을 섞어 쓰기도 한다. 아놔...

Solution

대놓고 지적을 해도 되지만 싸가지 없게 굴지 말라고 하자니 끈대로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뻑친다. 일단 그 후배가 당신이 아닌 다른 선배에게도 예의 없이 행동할 때를 포착해 후배에게 얘기한다. "선배들이 이런 데 은근 민감하니 알아서 잘 해", 혹은 "서로 편하게 지내면 나도 좋지만 회사 분위기상 선배들간 규율을 중요시하니 주의하는 게 좋을 거다" 라며 하고 싶은 말을 우회적으로 해라. 그 후배는 당신의 지적을 자신의 앞날을 위한 조언으로 인식하곤 그 말을 받아들여 모실 거다. 물론 당신에게도 알아서 잘 하겠지? 휴, 다 써놓고 보니 자식 훌륭하게 키우는 법 같네... 

How To

Eat Meat

돼지 갈비 스테이크 만드는 법

개그맨에서 요식업계의 왕자로 거듭난 이승환이 이번 달엔 매콤달콤한 돼지 갈비 스테이크 요리법을 알려준다. 위장 풀리네...

BY 이승환(법집삼겹살 대표)



누가 다 먹었나?



재료:
 돼지 갈비 200g, 시판 갈비 소스(고기가 잠길 정도의 양), 통조림 파인애플 2조각, 배 1/2개, 키위 1개, 고추기름 1/2소주컵, 월계수 잎 한주먹

1 갈비 소스에 파인애플, 키위, 배를 갈아 넣어라.

파인애플과 키위가 연육작용을 해서 갈비가 부드러워진다. 배는 단맛을 낸다. 하지만 위의 세 가지 재료를 많이 넣으면 소스에서 과일 향이 너무 강하게 나서 느끼할 수 있다. 딱 정량만 넣자.

2 소스에 월계수 잎과 고추기름을 넣고 돼지 갈비를 재운다.

월계수 잎은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준다. 고추기름을 넣으면 스테이크에서 씹을수록 매콤한 맛이 난다. 이제 완성된 소스에 갈비를 담가서 냉장실에 넣고 하루 동안 숙성시켜라.

3 고기가 타지 않도록 약한 숯불에 은근하게 굽는다.

소고기 스테이크와는 달리 돼지고기 스테이크는 센 불에 익히면 겉은 타고 속은 설익을 확률이 높다. 약한 불에서 자주 뒤집으면서 굽자. 스테이크를 프라이팬에 구울 경우엔 스테이크의 겉면이 살짝 익었을 때 물을 한 컵 넣고 졸여라. 겉면이 타지 않고 고루 속까지 익는다.

4 잘 익힌 스테이크를 살짝 구운 파인애플로 장식하라.

자, 이제 썰어볼까?



연애루저♥정훈이와 밀당하수♥시후의
좌충우돌 사랑극복기

연극 **극적인 하룻밤**



2013.7.19~OPEN RUN 대학로 소리아트홀 1관

평일 8시 | 토 3시,6시,9시 | 일,공휴일 4시 | 월 쉽

작 황윤정 연출 이종욱 출연 원종환 ♂ 채송화, 정성일 ♂ 한송이, 주민진 ♂ 윤정선 문의 연우무대 02-744-7090 www.iyeonwoo.co.kr 20세이상관람가

Game

CHARACTER OF THE MONTH

에오스(EOS) 온라인: 가디언(Guardian)

 이 정도는 입어줘야 어디 가서 정령 좀 꼬셔봤느냐는 얘기 듣는다. BY 조용재

〈에오스〉의 '가디언'은 대지의 수호를 받고 정령과 자유롭게 교감하는 님프족 여성이다. 게임 속에서는 전사 혹은 무도가처럼 적들의 공격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탱커(Tanker) 역할을 수행한다. 어마어마한 근육을 자랑하는 여타 게임 속 남자 탱커와 달리, 〈에오스〉의 세계에서는 스치는 바람에도 열은 신음 소리를 낼 것만 같은 이 여러여리한 캐릭터가 탱커란다. 이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럴싸한 얘기다. 적의 공격을 버티는 것이 탱커의 주 역할이라면, 대지와 정령을 '뻑'으로 부릴 수 있는 이 부서운 여자야말로 진정 '내추럴본' 탱커가 아닐까? 무시무시한 몬스터가 거대한 무기를 휘두르자 치맛자락이 들려 "까악!" 하고 얼굴을 붉히는 요정. 이에 뻑친 대지와 폭풍의 정령이 들고 일어나 "이노오오옹! 감해!"라며 몬스터를 처단한다. 뭐 이런 만화 같은 설정인데, 나쁘진 않다. 먹던 뽕글이를 집어 던지게 만드는 구리구리한 근육남 탱커들과 달리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말이다.

〈에오스〉는 직업별로 두 가지 특성을 부여하는 '멀티플레이 클래스 시스템'을 도입해 '2 in 1'의 재미를 강화했다. 가디언은 맞아도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체력을 강화하는 '대지' 오빠와 마법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를 강화하는 '폭풍' 오빠 모두에게 양다리를 걸칠 수 있다. 이 탓에 여자들이 어장 관리를 하는 것인개!

장르	MMORPG
플랫폼	PC(온라인)
개발사	엔비어스
유통사	NHN 한게임
등급	청소년 이용 불가

작업 보는 게 어때?



에오스 온라인

세계의 패권을 놓고 신과 전투를 벌인 끝에 패배한 거인들. 그들의 피와 시체가 세계를 오염시키자, 이를 정화하기 위해 신에게 선택받은 자들 '아르카나'가 세계에 흩뿌려진 암흑의 소울을 찾아 떠난다는 이야기. 검색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게임 순위에서 우연히 발견한 〈에오스〉는 저 사양 PC에서도 쏠쏠 돌아가는 화려한 그래픽과 참신한 '멀티플레이 클래스 시스템' 등으로 간만에 기대 이상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 게임이다. "퀄리티에 투자하면 본전 못 뽑는다"는 일부 제작사의 몸살 마인드에 일침을 가했다고나 할까. 마우스 잡고 반성해라, 이것들이! 

섹시하고 강한 남성의 선택

BLUE.
i n e

그녀와의 특별한 날,
마초적인 섹시함을 어필하고 싶은 남성!
색다른 러브시추에이션을 즐기고 싶은 남성에게 추천!

모델명 : BLM008-BLK 마이크로 매쉬 트렁크



MX04-6C9F-9120-5F9E

부르르닷컴 접속 후, 왼쪽의 쿠폰번호 16자리를 등록하시면,
즉시 사용 가능한 **적립금 10,000원**을 적립해드립니다.



bururu.com

백만 가지 어덜트 솔루션 부르르닷컴 | 고객센터 1661-7725

m.bururu.com

Game

Fail!

그깟 게임 때문에 정신 나버린 에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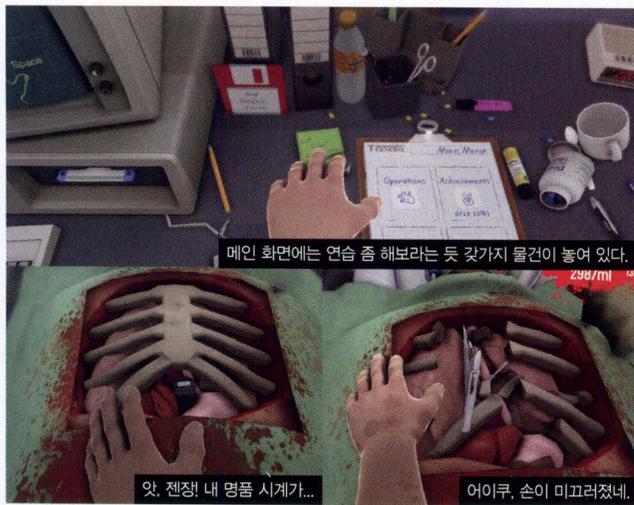
이 달의 추천작! 병신 같은 게임 TOP 5



이런 게 바로 재능 낭비라는 거다.

BY 조웅재

빠큐 머징, 미친 게임애!



메인 화면에는 연습 중 해보라는 듯 갖가지 물건이 놓여 있다.

앗, 젠장! 내 명품 시계가...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난이도가 병신 같애!”

Surgeon Simulator 2013

플랫폼 PC

장르 의료 시뮬레이션

참신성 ★★★★★☆

난이도 ★★★★★☆

고작 300MB의 용량으로 이 정도의 그래픽을 뽑아낸 것은 분명 상당한 성과지만, 과연 게임성도 그럴까? <사전 시뮬레이터 2013>은 흔히 접하기 어려운 '수술' 상황을 소재로 활용한 참신한 게임이다. 하지만 이 게임은 손 하나를 굳이 양손으로 조절해야 하는 마의 컨트롤을 요구한다. 이것이 얼마나 복잡한가

하면, 키보드 자판 다섯 개가 각각 다섯 손가락 역할을 해 키를 누르면 손가락을 잡고 떼면 편다. 마우스로는 손 전체를 움직이거나 손모가지를 돌릴 수 있다. 컨트롤이 손에 익지 않으면 내가 의사인지 재할 치료 중인 환자인지 모를 지경이다. 게다가 “어디 몸이나 풀까!”라며 플레이를 시작하면, 다짜고짜 첫 판부터 ‘심장 이식’을 하란다. 마치 버튼이 안 눌리는 스트리트 파이터 기계에 동전을 넣고 류를 고르자 첫판부터 베가나 나왔는데, 아도켄이 안 나가서 울고 싶은 느낌이었잖아. 결국 어설픔게 마우스를 휘젓던 에디터는 그만 환자의 심장에 메스를 꽂고 말았다.

“발상이 병신 같애!”

Lococycle

플랫폼 XBOX360

장르 어드벤처 액션 레이스

참신성 ★★★★★☆

난이도 ★☆☆☆☆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탈것’이 인간을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게임 <로코사이클>에 등장하는 수염쟁이 남자를 보며 유저들이 ‘아마 저 녀석이 저 멋진 모터사이클을 타는 주인공일 테지’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게임이 시작되면 그 간지 폭발하던 모터사이클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그 수염쟁이를 엉덩이에 차고 달린다! 절대로 버그나 치트가 아니다. 등쪽에 반 강제로 무한 사포질을 받는 수염쟁이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모터사이클이 나아가는 곳으로 질질 끌려 다니는 것뿐. 무난하게 도로 위를 달리던 모터사이클은 심지어 공중으로 뛰어 올라 하늘에서 덮쳐 오는 적들에게 타격기를 구사한다 (아니, 분명 팔다리가 없는데 저건 분명한 이단 염차기다). 심지어 콧보도 넣을 수 있다. 이 게임의 장르가 단순 레이스가 아니라 ‘어드벤처 액션 레이스’인 이유가 분명 있었던 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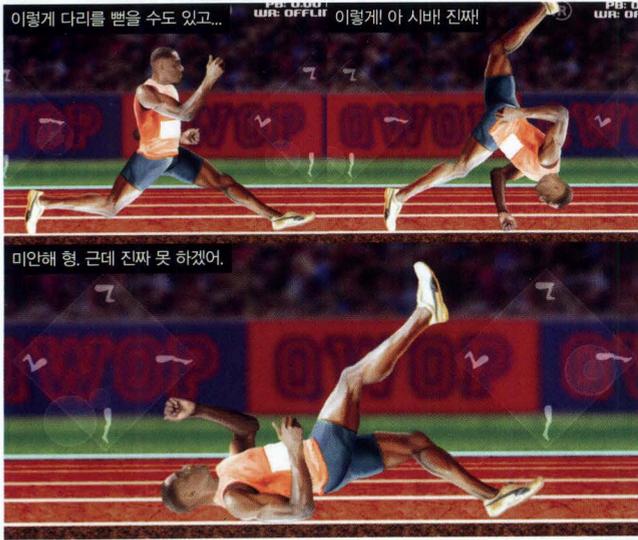


자, 이렇게 보면 분명 주인공은 수염쟁이 녀석이지.

그리고 게임을 시작하면 이렇게 끌려다녀어어어어어어!

양중맞은 동작만으로도 편치인지 킁인지 알 수 있을 정도.

장풍 싹, 장풍!



“조작이 병신 같애!”

QWOP
 플랫폼 Android/iOS
 장르 스포츠
 참신성 ★★★★★
 난이도 ★★★★★

‘병림픽’이라는 말이 이처럼 어울리는 게임이 있을까. 그저 달리기만 하면 되는 이 게임의 진행 방식은 아홉 살짜리 우리 조카도 생각해 낼 만큼 흔한 발상이다. 허나 버튼을 터져라 연타하기만 해도 100m를 12초에 돌파하는 오락실 게임과 이 게임을 비교하면 곤란하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양발 조작’을 차용했으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캐릭터의 신체를 조작할 수 있게 되었으나... 양 다리를 접고 뺄는 메커니즘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다. 분명 육상 게임이지만 제멋대로 니키키나 백조 점프 같은 고난도 자세를 구현한다. 팔다리가 있는데 왜 달리지 못하니! 상반신이 땅에 닿으면 게임 오버가 된다. 스마트폰의 틸트(기울이기) 기능으로는 몸의 각도를 조절한다. 조금만 틀어져도 땅에 코를 박고 “억!” 하기 때문에 주의할 것. 한창 즐기다 보면 기록 게임이 아니라 흑형을 살리기 위한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집에 두고 온 딸기 케이크를 먹으러 가듯 폴짝폴짝 신나게 소녀 점프나 하고 있는 흑형과 함께 말이다.

“소재가 병신 같애!”

알파카 형님
 플랫폼 Android/iOS
 장르 육성 시뮬레이션
 참신성 ★★★★★
 난이도 ★☆☆☆☆

분명 내가 기억하는 ‘알파카’라는 동물은 양과 낙타를 반쯤 섞어놓은 듯 복슬복슬 귀여운 생명체였건만. 이 게임의 주인공 알파카는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다른 알파카를 흡수할 수 있게 된 돌연변이’다. 플레이어는 그저 필드 위에서 주인공 알파카 주변을 얼정거리는 동족들을 차례차례 터치해 주인공 알파카가 씹어 먹도록 하면 된다. 말이 ‘흡수’

지 자기 배배기를 벌려 머리부터 썬서 넣는 모습을 보면 ‘집어 삼킨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다. 이렇게 차례차례 동족들을 먹다 보면 진화를 하는데 그 모습이 하나하나 심하게 기괴하다. 결국 주인공 알파카는 이 세계의 섭리를 붕괴시켜 신의 분노를 사고, 그를 심판하기 위해 하늘에서 천사 알파카들이 내려온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다르지 않다. 그저 “천사 X까”를 외치며 천사마저 씹어 먹으면 된다. 그렇게 한층 강해지면, ‘알파카 신(神)’이 푸른빛을 뿜으며 하늘에서 멋지게 강림한다. 경의를 표하며 자국이 씹어 삼키면 게임이 끝난다. 아마 설정이나 스토리도 알파카가 씹어 먹은 모양이다.



“설정이 병신 같애!”

Viscera Cleanup Detail
 플랫폼 PC
 장르 1인칭 청소 시뮬레이션
 참신성 ★★★★★
 난이도 ★★★★★

남이 싸지른 똥을 치우는 것만큼 기본 더러운 일도 없다는 의미에서 <비서러 클린업 디테일>은 최악이다. 배경은 히어로가 괴물을 신명나게 쓸고 간 우주 정거장. 플레이어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벽에 묻은 피와 주인 잃고 날브리진 살점, 장기 조각을 치워야 한다(참고로 Viscera는 ‘내장’

이란 뜻이다). 기본 무기(?)인 마대, 무한 공급되는 휴지통과 물 양동이를 이용해 구석구석 닦아 나가자. 핏자국을 뺐으면 한동안 바닥에 피로 얼룩진 발자국이 생기기 주의할 것. 병신 같은 소재를 너무 세밀히 구현한 바람에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다. 열심히 해봤자 점수는 없다. 빨리 청소해 봤자 타임 보드도 없다. 어찌면 이 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스테이지 클리어’라는 개념이 아예 없다는 것일지도... 그런 주제에 멀티플레이는 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병신도 돌이면 위안이 되는 법. 친구를 살살 꼬여서 커를 마대질을 해보자.

Comment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카라 방송 태도 논란의 포인트



'생계형'이 아니라 이제 좀
살 만하다는 거야? BY 손안나

메인
보컬이
없다고!!!



한때, 대중이 카라에게
갖는 호감은 어떤 '기특함'
같은 것이었다. 2007년
제2의 핑클이라 불리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원더걸스와 소녀시대에
떠밀려 '총동문화 체육대회' 무대에나
서게 된 인지도 안습의 걸그룹.
그녀들은 언제 팀이 공중분해 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서 공중파든
케이블이든 닥치는 대로 출연해
'카라'라는 이름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오죽했으면 당시 붙은 별명이 '생계형
아이돌'이었을까?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구라에게 "우리 동현이가 너보다
유명해"라는 굴욕적인 말을 들던
'한들보(한승연?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한승연부터, 몸매 바지를
입고 눈두렁을 누비던 <청춘불패>의
구하라까지... 그때의 카라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언제나 '성실하고 근성 있는
아이돌'이었다.



하늘도 무심해 내게 왜 이리는데
 우울한 내 기분은 안중에도
 없는가 봐 내가 미운가 봐
 다들 신이 나서 웃는 게 날 비웃나 봐

잘해 보려고 성격 감추고
 네게 맞춰 보려 많이 참았어
 그런 내가 기특하고 신기했었어
 그간 고생하던 내가 불쌍해

그래 나 못 돼 부처가 못 돼
 숙녀가 못 돼

- 카라, '숙녀가 못 돼' 中 -

그러나 지난 9월 4일 방송한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서 본 그녀들은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카라와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시작은 가벼운 농담이었다. 비스트 용준형과의 공개 연애와 결별, 최근엔 모델 출신 연기자 이수혁과 열애설에 휩싸인 구하라를 두고 MC 규현이 “제가 입을 열면 구하라 다 끝나요” 라고 하자 그녀가 “오빠도 당당하지 못하시잖아요!”라고 발끈하며 물통을

규현에게 집어 던진 것. 그러고는 “진짜 화나서...”라며 갑자기 눈물을 흘렸고 옆에 있던 한승연은 “진짜 너무 한다. 듣는 게 많겠지만, 우리도 듣는 게 많다”며 거들었다. 이후 MC 김국진이 “일본에서 강지영 씨 애교 한 번이면 일본이 다 죽는다는 말이 있다”며 강지영에게 애교를 요청하자, 그녀는 “정말 애교가 없는데 왜 자꾸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안 할래요”라며 갑자기 눈물을 쏟았다.

방송이 나간 뒤 누리꾼은 카라의 ‘프로답지 못한 방송 태도’를 비판, 아니 그 이상으로 거세게 비난했다. “생계형 아이돌한테 내수, 외수 차별받을 줄은 몰랐다”, “<라스> 원래 저런 분위기인 것 모르고 나갔느냐”, “시정자를 호구로 아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 “우는 이유를 대체 모르겠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한승연은 다음 날 카라를 대표해 트위터로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람들이 20대(그것도 아주 예쁜!) 여자애의 눈물을 보고 그렇게까지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그건 서운함과 상실감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지금껏 술한 골육의 순간에도 “હે헤” 웃으며 성의껏 방송에 임하던 기특한 아이돌이 이제는 자신들의 비위를 건드리는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살 만한’ 톱스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AKIRA

 어느 날 갑자기 초능력이 생긴 한 소년의 폭주 이야기.
(주의! 스포 있음! 좀 많음!)

BY 김희성



“기자님께서도 도쿄에 올 때 무섭지 않았습니까?”

“도쿄에 간다고 했을 때 가족이나 지인들이 걱정하진 않았습니까?”

“방사능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는데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 수 있는 홍보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1년이 지난 2012년 3월, 도쿄 애니메이션페어 취재차 도쿄를 방문했을 때 비즈니스 미팅 자리에서 도쿄 도청 공무원이 던진 질문이었다. 방사능과 지진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무렵의 일본 방문이었다. 방사능으로 인한 기형 동식물들의 출몰 사례가 연일 매스컴에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창 일본 여행을 기피할 때였다. 도쿄 도청 공무원은 방사능과 지진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고, 그곳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와 그 대처 방안에 대한 내 생각을 물어봤다. “기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순간 나는 <아키라>를 떠올리고 있었다.

아키라의 세기말적인 분위기!



완주 포인트 1. 상상치 않은 세기말적 분위기

1992년, 도쿄에 떨어진 폭탄으로 인해 제3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다. 그 후 2019년, 폭탄을 맞고 폐허가 된 도시는 완벽히 재건됐고 그 새로운 수도는 '네오 도쿄'라 불린다. 네오 도쿄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재개발 사업에 한창이다. 사람들은 얼음처럼 냉소적으로 변했고, 가정과 학교 등 사회의 율타리는 붕괴된 지 오래다. 아이 몸에 노인의 얼굴을 한 끽찍한 형상 등은 이 음울한 분위기에 일조한다. <아키라>의 작가 오토모 가쓰히로가 설정한 도쿄의 미래다. 1982년에 연재를 시작한 <아키라>는 30년 후 일본의 미래를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견했다. 도심에 떨어진 폭탄으로 폐허가 된 도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떠올리게 하고, 2020 도쿄 올림픽 개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았다. 이 작가, 일감 떨어지면 종로에 돛자리 깔아도 장사 잘하겠다. 예언인지, 저주인지 모를 작가의 통찰력 때문에 이 만화가 뽐는 세기말적인 분위기는 더욱 생생하고 서늘하게 다가온다.

완주 포인트 2. '아키라'와 초능력의 미스터리

사작부터 내내 '아키라'는 실체 없이 이름만 등장한다. 정체 모를 신비한 원천, 블랙홀 같은 암흑과 죽음, 혹은 에너지와 생명 등의 복합적인 이미지가 편린처럼 엮여져서 흩어져 있을 뿐이다. 작가는 이렇게 아키라의 실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궁금증을 유발하여 만화 전권을 단숨에 독파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궁금증을 유발하는 요소는 바로 초능력이다. 평범한 소년 데쓰오에게 갑자기 초능력(아키라의 힘)이 생긴다는 설정은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다. 예를 들어, 영화 <크로니클> 속의 세 평범한 고등학생은 이상한 물체를 발견한 뒤 갑자기 초능력이 생긴다. <리미트리스>는 마감이 다 되도록 한 글자도 못 쓰던 무능력한 작가가 뇌를 풀가동하는 신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그런 약 있으면 나도 좀...). <브루스 울마이트>처럼 아예 전자전능한 신이 된 남자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공짜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갑자기 초능력을 얻은 <크로니클> 속 인물들은 쓸수록 세지는 초능력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급기야 서로를 공격한다. 한편 약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리미트리스>의 주인공은

문제의 알약을 얻기 위해 나쁜 짓도 불사한다. <브루스 울마이트>의 주인공은 결국 신의 능력을 버리고 본래 모습인 평범한 인간의 삶을 택한다. 어느 날 갑자기 감당 못할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된 한 인간의 우주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일까? <아키라>는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완주 포인트 3.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

갑자기 엄청난 힘을 얻게 된 데쓰오는 결국 그 힘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마저 파괴하게 된다. <아키라>에서는 슈퍼 파워를 갖게 된 데쓰오를 인간의 힘을 얻은 '아메바'에 비유한다. 아메바가 갑자기 인간의 힘을 얻는다고 해서 도로나 건물을 짓지는 못한다. 아메바는 원래 자신이 하던 대로 주위의 부스러기들을 잡아먹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데쓰오도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던 때처럼 아키라의 힘을 거기에 쓸 뿐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손만 까딱해도 사람을 단번에 죽일 수 있다는 것 정도? 작가는 갑자기 얻은 능력이 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힌트를 아메바의 비유로 대신한다.

남들에게는 없는 능력이 자신에게만 생긴다는 상상은 언제나 즐겁다. 하지만 노력 없이 찾아온 것은 그 이상의 불행을 남기고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의 아키라가 깨어나길 소망한다.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가 <아키라>를 명작으로 기억하고 있는 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그 신비한 각성에 대한 열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 안의 아키라는 어떤 모습인가? 🤖

➔ 아키라

글·그림 오토모 가쓰히로/

김만 율김

출판사 세미콜론

날권 가격

18,000~22,000원

(총 6권 세트 120,000원)



➔ 줄거리 복습!

3차 세계대전 후 재건된 '네오 도쿄'에서 폭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데쓰오는 도로를 질주하던 도중 군 연구소에서 이탈한 초능력 개발 실험체를 맞닥뜨리게 된다. 이상한 힘으로 인해 바이크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고 그 충동을 계기로 데쓰오의 내부에 잠재돼 있던 초능력이 깨어나게 된다. 어릴 적 상처에서 비롯된 사회에 대한 분노,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데쓰오는 초능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며 파멸을 향해 질주한다.

<아키라>에 등장하는 세기말적 대사들



난데없이 임신 드림을 치는 꽃뱀한테 써 먹으면 좋을 드림. "그거 대단한데? 다음에 넣는 거 보여주려!" 와우!



'건강 우랑 불랑소년'이라니. MAXIMI가 지향하는 수컷상을 한 단어로 표현해 놓은 것 같다.



만화 속 등장 인물의 말실수치곤 꽤 참신하다. 분노가 아닌 분노라니. 분노보다 더 강력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든다...

<아키라>가 현실 세계에 미친 영향



가네다의 바이크가 현실로?

수많은 소년들을 바이크족으로 만든 가네다의 BMW 바이크가 실제로 만들어졌다. 스즈키가 2003 도쿄 모터쇼 발표한 콘셉트 바이크 G-Strider가 그것. 하지만 양산이 될 거라는 소문만 무성한 채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아키라> 국적 세탁하기

<아키라>는 '홍콩 영화' <폭풍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1991년 서울 뉴극장 극장에서 상영되었다. 하지만 개봉 일주일 만에 일본 영화라는 사실이 알려져 막을 내렸다. 어찌됐든 <아키라>는 해방 이후 극장에서 상영된 일본 영화 1호가 되었다.



...치...찰십일?

팔 구!

홍콩 느와르는 죽었다

 그래도 우리는 바바리코트 입은 윤발이 형의 간지 나는 총질이 보고 싶다! BY 손안나



〈영웅본색 2〉에서 주윤발이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총기를 난사하던 씬을 기억하는가? 그 장면은 한창 자라나던 열혈소년들에게 엄마 몰래 숨어 보던 〈엠마누엘〉보다 더한 흥분과 쾌감을 안겨줬다. 홍콩도, 홍콩 영화도 좋은 시절 다 갔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당시의 '홍콩 느와르'를 기대하고 극장을 찾는다. '간지'만 난다면 '리로딩 없는 무한 탄창' 정도는 가까이 용인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영화 〈콜드 워〉가 지난 9월 2일 국내에서 정식으로 개봉했다. 에디터는 포스터에 대문짝만 하게 박힌 "〈무간도〉 이후 10년 만에 부활한 홍콩 느와르"라는 문구에 홀려 극장을 향했다. 어땠냐고? '뉘였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영화, 너무 현실적이고 정적이라서 김센다. 〈콜드 워〉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치안을 자랑하는 홍콩"에서 5명의 경찰관이 피랍되면서 시작된다.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 곽부성과 양가휘는 경찰의 명예가 달린 비공개 테러 진압작전 '콜드 워'를 지휘하게 되고, 내부 첩자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악전고투한다. 얼핏 들으면 〈무간도〉가 연상되지만,

1980년대 홍콩 느와르를 2000년대 식으로 훌륭하게 재해석했다고 평가받는 〈무간도〉에는 그래도 삼합회가 있고, 서로 죽고 죽이는 서늘한 개싸움이 있고, 사나이들의 의리가 있다. 그런데 〈콜드 워〉는 부패방자국과 보안국의 미묘한 알력다툼, 차기 청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두 부청장의 신경전이 감상 포인트인 작품이다. 액션은 없고 시종일관 사무실에서 고뇌하는 부청장 곽부성이 영화 중반에 유일하게 총질하는 씬이 하나 있긴 한데... 잔인하지도, 멋있지도 않고 억지로 우겨넣은 듯 뻘뻘하다. 종반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 홍콩 느와르 특유의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결말로 여운을 주기는커녕 회사를 그만 둔(앗, 스포일러!) 양가휘가 곽부성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이 어찌나 오글거리고 '일본 드라마'스러운지 손발이 소멸할 뻔했다.

다만, 이제는 중년이 된 두 배우 곽부성과 양가휘를 한 프레임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왕년의 꽃미남 배우 곽부성. 그는 장국영, 매영방, 알란람 트로이카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갈망하던 홍콩 미디어에 의해 '뽀록'으로 4대 천왕 대열에 합류한





콜드워

寒戰, Cold War, 2012

개요: 액션, 범죄, 드라마

감독: 썬니 렉, 령록만

출연: 곽부성, 양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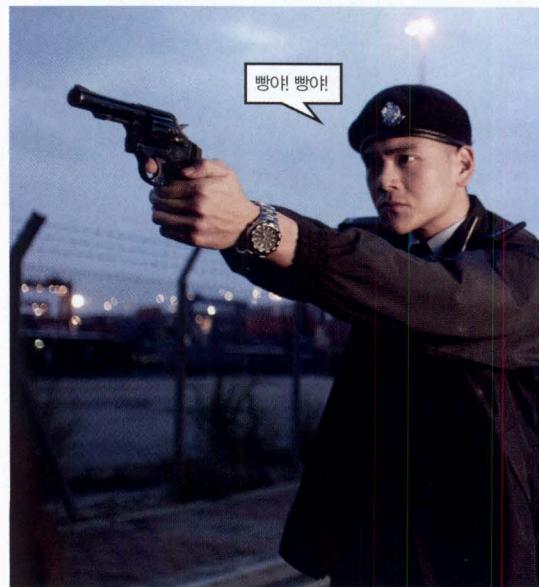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주연으로 홍보했지만, 유덕화가 나오는 씬은 120분 러닝 타임 중 5분이 채 되지 않는다.



양가휘의 명품 연기는 이 영화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였다.



'행운아'이자, 아시아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던 <천장지구 2>의 청춘스타였다. 풋풋했던 그가 어느덧 이 영화에서는 경찰 부청장을 연기한다. 따지고 보니, 그의 나이도 내일모레면 50이다. 같은 부청장을 역할을 맡은 양가휘는 또 어떨고? 지금이야 일단 넘새날 것 같은 중년의 아저씨지만, 그는 1992년 영화 <연인>에서 제인 마치와 함께 세기의 에로틱한 사랑을 펼치던 색기 넘치는 옴므 파탈이었다. 이 영화로 지난해 양가휘는 제32회 <홍콩 금상장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곽부성 역시 무게감 있는 연기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우리는 <콜드 워>의 곽부성과 양가휘를 통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도 한때의 청춘스타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대배우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뿌듯하게 지켜본다.

홍콩은 특별한 도시였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서구문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일찍부터 동서양 문화가 혼재했던 홍콩은 1997년 '중국으로의 반환'을 앞두고부터는 불안한 정세와 우울한 기류에 휩싸였다. 1986년, 이곳에서 <영웅본색(A Better Tomorrow)>

이 탄생한 건 어찌보면 필연이다. 이국적이면서도 서양만큼 낯설지는 않은 무대... 불안하고 방탕해 보이는 홍콩의 허름한 뒷골목은 어찌지 정말 그런 영화 같은 일이 가능할 법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홍콩은 <콜드 워>에서 곽부성이 말하듯,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다. 동서양이 혼재된 문화는 더 이상 홍콩만의 것이 아니다. 홍콩 반환 후 15년, 이 도시는 이제 '총질'보다 '연말 메가 세일'이 더 잘 어울린다. 한마디로 무대의 성격이 아예 바뀐 것이다. 정세와 분위기만 변한 게 아니다. 반환 이후 체제가 변할 것이 두려웠던 많은 영화 감독과 배우들은 아예 일찌감치 홍콩을 떠났다. 홍콩 느와르는 이제 왕년의 이야기다. 에디터처럼 여전히 '홍콩 느와르'라는 떡밥에 속고 또 속으면서도 극장을 찾는 관객과 배우빨로 근근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뿐, 이 장르에 더 이상 'A Better Tomorrow'는 없어 보인다. <영웅본색> 이후 30년, 장르는 죽었고, 배우만 남았다. <콜드 워>를 보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씁쓸함은 어쩌면 영화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Sex

Want More?

원나잇 성공률 높이는 법

Part 1. 물색 편



원나잇의 성공률을 높이는 요소는 많다. 짜릿한 하룻밤을 위해 술값을 더 쓰기도 하고, 스타일, 말빨, 향수 선택 등 디테일한 스킬까지 신경 쓴다. 심지어 이상한 약(?)까지 동원하기도 한다. 물론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쉬운 방법을 알고 있지는 않나? 그건 바로 원나잇 '할' 여자를 알아보는 것.

BY 김희성 MODEL 2012 MISS MAXIM 우승자 단영



아놔. 술이 웬수지...

1

오늘따라 술이 맛있다. 이대로 집에 가기 아쉬워 클럽에 갔다. 저쪽에서 터질 듯한 몸매의 그녀가 당신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가슴과 엉덩이는 뽕뽕한데 허리는 잘록하다.

오늘 밤, 한 팔로 그녀를 끌어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은 생각한다. 끝내주는 금요일 밤이 될 것 같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에게 선뜻 말을 걸지 못한다. '저렇게 끝내주는 그녀가 나와 놀아줄 리 없어'라며 지레 포기하고 만다. 게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그녀를 노리고 있는 경쟁자들도 많이 보인다. '저 놈은 나보다 몸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저 놈은 나보다 못생겼지만 키가 크다. 그리고 저 놈은... 젠장 테이블을 잡았네' 당신은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음속으로 찌뽕던 그녀를 그냥 포기하고 만다. 다음 상대를 물색하기 시작한다. 눈을 조금 낮춰 당신과 함께 있는 그림이 현실성 있어 보이는 여자로 쪽쪽 뽕뽕은 아니지만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여자에게 말을 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만만해 보였던 그녀가 당신을 거절한 것이다. 당신의 자신감은 아까보다 더 추락하여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진다. 술을 마시며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한다. '하... 역시 난 안 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당신보다 별로여 보이는 찌질이들이 술에 취해 살짝 비틀거리는 여자들의 허리를 감고 유유히 이곳을 떠난다. '도대체 내가 재보다 뭐가 모자라서'



Editor's Guide

너무 섹시하거나 몸매가 끝장나는 여자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지레 겁을 먹고 포기했던 적 많았을 거다. 이미 다른 누군가가 먼저 와서 그녀와 잠시 후를 기억했을 것 같기도 하고 기다리고 있는 남친이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평소에도 어울리는 특A급 수컷 무리가 따로 있어 그녀를 점유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 거 다 떠나서 FA 시장에 완전히 풀려 있는 상태라 해도 '그녀는 예쁘고 섹시하기 때문에 나같은 평범한 남자가 말을 걸면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할거야'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다. 하지만 성공률을 높인답시고 섹시한 그녀를 포기하고 적당히 하향 지원했을 때의 결과는 어땠나? 더 좋았나? 아마 잘 안 됐을 거다.

당신도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느냐, 비장의 수트를 갖춰 입느냐에 따라 걸음걸이와 표정, 행동, 말투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자들도 차림새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웃을 입고 나왔다거나 평소보다 무난한 웃을 입고 나왔을 때 여자들은 자신감이 확 떨어진다. 마스크라 하나만 껌뽕해도 괜히 자신이 못생겨진 것 같고, 하이힐을



내 옷 여따 숨겼어?

'남자들이 자주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라고 느끼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힐끗 힐끗 쳐다보는 남성들의 시선을 다 눈치 채고 있다. 당신은 몰래 본다고 봤겠지만 여자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누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지 다 안다. 알면서도 당신이 마음 놓고 자신을 쳐다볼 수 있도록 모르는 척 해주는 거다. 일부러 령키한 앵글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한껏 섹시하게 꾸몄을 땐 그런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다. 기분이 좋다. 그리고 그런 시선을 느끼며 한껏 더 기분이 고조된다. 그리고 여자는 자신이 최고로 섹시하다고 느껴지는 날 섹스를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다. 이런 날 남성들의 시선은 많이 꽃히는데 정작 다가와서 말 거는 남자는 시선만큼 많지 않다. 저쪽에서 어떤 남자가 나를 쳐다보며 주뻔거리다. 나도 그가 마음에 든다. 와서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참을 맴돌기만 하더니 그냥 간다. 혹시 치마가 말려 올라가서 쳐다본 건가 싶어 화장실에 가서 옷매무새를 점검한다. 아무렇지도 않다. 사람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고 있지만 오히려 남자들이 쭈뻐거리기만 하고, 자신감있게 확 들이대지를 않는다. 시간은 점점 가고 예쁘게 하고 나왔는데 그냥 집에 가지니 섭섭하다. 남자와의 만남을 작정하고 나온 건 아니지만 남성들의 시선을 받다보면 기대가 생기기 마련이다. 집에 안 들어갈 생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왠지 그냥 들어가기가 아쉽다. 문득 뭔가 짜릿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동안 '안 될거야'라며 당신이 GG를 찢던 그 무수한 섹시녀들이 블루오션이었다는 거다. 의외로 노출이 많거나 타이트한 옷을 입은 여자들을 공략하는 게 더 성공 확률이 높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 찬 상태에서 남자가 '마음에 들어요'라고 들이대면 '역시 나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하며 기분이 좋아진다. 하루 종일 남성들의 시선에 조련당하면서 잔뜩 달아오른 그녀는 거절하기 보단 몇 번 재다가 못 이기는 척 승낙할 가능성이 높다. 주위에 평소의 자신을 아는 사람도 없겠다. 철저히 섹시녀 코스프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 표정도, 자세도, 행동도, 말투도 더 섹시해진다. 침대에서도 당연히 섹시하게 행동하겠지?



그렇게 옷벗기 게임은 왜 해가지고...

안 신으면 자신감이 바닥으로 추락한다. 그리고 노는 내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오늘 난 별로 안 예뻐', '섹시하지 않아',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 그녀의 심리상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예쁘다', '섹시하다', '아까부터 지켜봤다', '반했다' 라고 이빨을 까도 소용없는 거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섹스에 대한 욕구도 함께 떨어지기 마련이다. 만약 여자저차해서 함께 술을 마신다고 쳐도 당신과 자고 싶은 마음까지는 들지 않을 거라는 거다. 여자들 스스로도 오늘 자신이 충분히 섹시하지 않다 싶거나, 섹시한 옷차림이 아니면 섹스할 마음이 잘 안 생긴다. 문제는 거절당한 당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자신감에 있었다. 그러니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당신이 기죽어하거나 자괴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 알겠지? 반면 아찔한 옷차림에 잔뜩 꾸미고 나온 여자는 지금 자아 도취된 상태다. '지금 난 섹시해', '예뻐',

2

볼타는 금요일 밤. 당신은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한껏 멋을 낸 채 흥대거리로 나왔다. 오히려 물이 참 좋다. 여자들도 당신을 힐끔힐끔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보니 오늘

모인 멤버도 나쁘지 않다. 문득 늑대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주변을 스캔하여 2, 3, 4차를 함께 할 암컷 무리를 물색하기 시작한다. 호프집은 불금을 보내려는 손님들로 만원이다.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주위를 열심히 스캔하고 있는 승냥이 때부터 이미 합석에 성공한 무리들까지 경쟁자들로 가득하다. 당신은 후보군을 추리기로 결정한다. 당신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몇몇 테이블로 목표물이 좁혀진다.



선볼리 시도할 수 없다. 대충 아무데나 들이댔다가
 까이고를 반복하면 모처럼의 불금에 기분만 잡친다.
 안타깝게도 남초인 세상이다. 어떤 무리를 공략하는
 게 가장 승산이 있을까?



Editor's Guide

남자들은 종종 집에서 나올 때부터 원나잇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온다(라고 조중재
 에디터가 말했다). 반면 여자들은 애초에 원나잇을
 작정하고 만나지는 않는다. 그냥 이유 없이 볼 때도
 많고, 맛있는 걸 먹고 수다를 떨 목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이후 2차, 3차의
 동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갈 수도 있고, 소주를 마시러 갈 수도 있다.
 만남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선지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딜
 가지?'하고 고민하는 타임이 남자들보다는 꽤 길다.
 게다가 당신도 잘 알듯 여자들은 선택의 순간만 되면
 매우 우유부단해진다. 따라서 당신이 공략해야 할
 테이블은 '나가서 뭐하지?'를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테이블이다.

그런데 다음 행선지를 정하고 있는 테이블이 어딘지
 어떻게 아나고? 그녀들의 대화가 들리면 좋겠지만
 그런 타깃이 주변으로만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자리에서 화장을 고치는
 무리를 찾는 거다. 지금 그녀들은 아이러인을 다시
 그리고 립스틱을 바르며 다음 행선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화장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려차려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한다. 일종의 최종
 점검인 셈이다. 최종 점검을 한다는 건 그녀들끼리도
 암묵적으로 '남자들이 많은 곳'으로 간다는 함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행선지를 찜질방으로
 정했다면 맥반석 계란이나 까먹기 위해 화장을
 고치는 귀찮은 일 따위는 하지 않으니깐.

자, 이제 말을 걸어라. 그녀들의 우유부단함에 결정을
 내려줘라. 어차피 별다른 계획이 없었던 그녀들은
 "주변에 괜찮은 데가 있는데 나가서 술이나 한 잔
 더 할래요?"라는 당신의 제안에 "어차피 마땅히 갈
 데도 없었는데 그냥 한 잔 더 마실까?"하며 의외로
 쉽게 당신을 따라 나설 거다. 남자들이 많은 곳으로
 갈 예정이었다면 더더욱. 어쩐지 일이 술술 풀리는
 느낌인데?



자, 이제 성공적으로 탐색을 마쳤다.
 여기까지만 해도 최종 목표에 거의 다 온
 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성공적인 합석이 늘
 원나잇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당신도 이미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거다. 애꿎은
 술값을 날리느냐 아니냐는 사소한 디테일이 결정한다.
 원나잇 성공률 높이는 법 Part 2. 결정 편! 11월호에
 계속됩니다. 커밍 슌... 🍷

낯선 곳에서
 깨어난
 단영



For Ladies



아 놔 이 벽지, 할짝
미치겠네. 할짝!

썰라가라,
썰라가.

남자가 환장할 때: Fetishism

 페티시즘이란 특정 신체 부위나 물건, 상황 등에 유독 '끌리는' 취향을 말한다. 그런 건 다 변태 자식들의 취향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 엉덩이가 매력 포인트인 당신한테 '착한 마음씨'가 좋다고 하는 건 순 거짓말이러니까?

BY 조용재



'페티시즘(Fetishism)'이라는 단어는 원래 '물신주의', '맹목적인 숭배'를 의미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적 페티시즘' 역시 여기에서 파생된 용어다. 다만 전자가 '숭배하는 대상'이라면, 이쪽은 '끌리는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당신 역시 남자의 신체 부위 중 특히 끌리는 데가 있을 것이다. 가끔 만나는 여성 중에는 남자의 '목젖' 혹은 '팔에 드러난 핏줄'처럼 의아한 곳에 취향을 가진 여성들도 있다. 그럴 때면 늘 옆에 앉은 몇몇 여자들도 "맞아! 거기!"라며 맞장구를 친다. 하지만 남자 몸의 어디가 끌렸는지 남자가 알 턱이 있나. 아마 당신도 남자가 여자의 어디 어디에 환장하는지 정확히는 모를 거다. '이성의 신체 중 어느 곳을 가장 먼저 보느냐'는 건 이성 그 자체보다는 특정 신체 부위에 우선적으로

호감을 느낀다는 얘기다. 우리는 그것을 '페티시즘'이라 부른다. 단언컨대 모든 남자들은 특정 부위에 집착하는 페티시즘을 갖고 있다(정도의 차이나 부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몸 어딘가에 시선을 계속해서 던진다면, 그는 분명 '그 부위'에 페티시를 가진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충분히 이용하면 남자 홀리기, 그리 어렵지 않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한 남자가 평소엔 관심 없던 여자를 만나, 여자의 국소 부위에 반응하다 결국 사랑에 빠진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엄밀히 따지면 다음 상황 속의 남자는 '특정' 부위가 아닌 '여러' 부위에 반응하므로 페티시스트가 아니라 그냥 색꿀일 뿐이다. 하지만 MAXIM의 여성 독자들이 남자의 페티시즘을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대일 상황으로 설정했으니 오해 없기 바란다. 아, 참고로 내 얘기는 아니다.

Prologue

마감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일요일, 침대에 누워 텅클거리고 있으니 갑자기 전화가 온다.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흥대로 튀어 와.” 지갑 하나 달랑 들고 집을 나선다. 나를 호출한 이 여자는 얼마 전부터 흥대 앞에서 자취 중인 대학 동창으로, 불알친구 같아서 술 처먹고 모텔에 가도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여자다. 또다시 흥대라니. 아마 난 죽어서도 서교동을 떠도는 지박령이 되겠군.

Chapter 1.

허벅지 - 하반신에 숨은 아누스의 얼굴

먼저 도착해 북 카페에서 책을 뒤적거리며 그녀를 기다린다. 저 멀리서 화장기 없는 얼굴의 그녀가 다가온다. 배가 고파 짜증이 난 표정이다. 평소 차림과는 달리 대중 걸쳐 입은 지프업 후디와 짧은 청 핫팬츠가 그녀를 한층 어려보이게 한다. 자기가 늦어놓고 ‘나는 배가 고파 죽겠으니 어서 움직이자’라는 표정으로 앞서 걸어간다. 짧은 청 핫팬츠 아래로 통통한 허벅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렇게까지 다리가 예쁜 편은 아니지만 나름 끈게 뻗어 건강해 보이는 허벅지가 은근히 시선을 끈다. 앞에서 보는 허벅지와 뒤에서 보는 허벅지는 묘하게 느낌이 다르다. 앞에서 보는 매끈한 허벅다리가 여학생처럼 상콤하고 귀여운 느낌이라면, 뒤에서 바라보는 허벅지는 조금 더 육덕지고 섹시한 느낌이다. 저 육덕진 허벅지 바로 위쪽에 히프가 있다. 나도 모르게 투시력을 발휘하며 묘한 상상을... 아, 시발. 지금 내가 저 여자한테 무슨 음흉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거지?



→ 허벅지 페티시 활용 가이드!

짧은 치마나 핫팬츠를 입고 다리를 드러낼 때, 되도록 그에게 뒤태를 어필하자. 부드럽고 찰진 허벅지는 남자들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긴다. 몸을 이루는 부드러운 곡선이 엉덩이에서 허벅지로 완만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보는 것보다 풍만한 느낌을 준다. 그보다 조금 더 앞서 걷기만 해도 옆에서 나란히 걸을 때보다 훨씬 육감적으로 보인다든 얘기다.

Chapter 2. 귀

- 숄바꼭질하는 유혹의 헛바퀴

점심을 먹으려고 근처 우동집에 들어왔다. 언제나처럼 내가 알아서 주문을 하고 컵에 물을 따라준다. 수저도 꺼내서 곱게 놓아준다. 지는 손발이 없는지 시시덕대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 왜 안 나와!” 가만히 있는 지가 되레 승질이다. 잠시 후, 우동 정식이 차려진다. 뜨거운 우동을 후후 불던 그녀가 귀찮다는 듯 귀밑머리를 뒤로 넘기자 검고 긴 생머리에 가려져 있던 뽀얀 귀가 모습을 드러낸다. 빨간 실뿔줄이 흰 피부에 그대로 비쳐 콧바퀴 쪽이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다. 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뽀얀 볼과 목 그리고 열은 색의 귀밑머리가 묘하게 귀엽고 섹시하다. 평소 처녀귀신처럼 머리를 내리고 다녀서 몰랐나? 얼마 전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나는 음담패설이 떠오른다. “귀를 보면 말아야, 여자의 그곳이 어떤지 대충 짐작할 수 있네. 심지어 잘 보면 달았어!” 이런저런 음흉한 생각에 빠져 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찡그린 표정으로 그녀가 나를 쳐다본다. “너, 안 처먹고 뭐 하나?”



→ 귀 페티시 활용 가이드!

여자의 예쁜 귀는 남자들의 성욕을 자극하는 주요 부분 중 하나다. 평소 귀를 덮는 헤어스타일을 고수한다면, 머리를 쓸어 넘겨 귀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여성스러움을 그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Chapter 3.

쇄골 - 어쩌다 마주친 그대

밥을 다 먹고 나서 가게를 나온다. “이제 뭐 할까? 만화방이나 가자.” 내게 선택권은 없다. 흥대입구 근처의 만화방으로 향한다. 주말이라 사람이 꽤 많은 모양이다. 어렵사리 자리를 잡고 책을 고르러 간다. 그녀가 꽤 높은 곳에 있던 책을 뽑자 실수로 옆에 꽂혀 있던 책이 땅바닥에 떨어지며 정적을 깬다. “X발, 왜게 높는데 꽂혀 있어!” 나만 들릴 정도로 소심하게 욕을 뱉으며 땅에 떨어진 책을 주우려고

그녀가 고개를 숙인다. 순간 혈렁한 지프업 후디 사이로 선명하게 드러난 골짜기가 보인다. 분명 ‘저건 여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면서도, 내 시선은 늘 습관적으로 그곳에 꽂힌다. 자리에 앉아 책을 보고 있으니 해가 벌써 중천에 떠 있다. 10월이지만 아직 햇살은 뜨겁고, 에어컨을 틀 시기는 지났다. 옆자리에 앉은 그녀가 덩다며 후드를 벗는다. 아까 얼핏 시선을 사로잡았던 쇄골이 시원하게 드러난다. 조금씩 몸을 뒤척일 때마다 가슴을 의식하다 보니 시선이 자꾸 쇄골에 꽂힌다. 어쩔 수 없다. 쇄골은 시선이 가슴으로 이동할 때 눈이 자연스럽게 스캔하게 되는 포인트다. 얼굴과 가슴 그리고 잘 빠진 목선과 둥근 어깨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 잡은 쇄골은 자연스레 여성의 벗은 몸을 떠올리게 한다. 이쯤 되니 만화책을 보러 온 건지 몸을 보러 온 건지 나조차 헛갈릴 지경이다.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보냐?” 아, 젠장. 걸렸나?



→ 쇄골 페티시 활용 가이드!

몸이 마르고 가슴이 작아서 고민인 여성은 살집이 있고 가슴이 큰 여성보다 쇄골 라인이 예쁘고 선명하다. 그러니까 가슴이 작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 없다. 되레 가슴이 빈약하다면 쇄골을 드러내 섹시함을 어필하자. 양팔을 팔짱 끼듯 잡고 상체를 살짝 숙이면 물을 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쇄골이 부각된다. 아마 없는 가슴골도 생기는 기적을 볼 수 있을 거다. 흔히들 ‘안영미 포즈’라고 하지.

Chapter 4. 목덜미

- 베일에 싸인 여성미의 상징

한창 만화책을 보고 앉아 있던 그녀가 갑자기 허리를 세우더니 긴 머리를 한 움큼 잡아 배배 꼬아 올린다. 이 여자가 가끔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다. 귀찮다는 듯 전투적인 표정으로 머리를 묶고 있으니 숙인 목과 활처럼 휘어 쑥 들어간 허리 그리고 뒤로 쑥 빠진 엉덩이가 S라인을 그린다. 청순한 손짓과 섹시한 S라인의 조합이 묘하게 어울리며 몇그제 본 AV 배우의 그라비아 화보를 떠오르게 한다. 또 한 소리 들을까 봐 빨리 정신 차리고 시선을 책으로 돌리자 “아, 재미없다. 영화나 보러 가자”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카페 밖으로 나와 건너편에 있는

멀티플렉스를 향해 걷는다. 갑자기 그녀가 "잠깐만, 머리 좀 묶고 가자"라며 걸음을 멈춘다. 이런 미친! 그럼 아까 묶고 나오던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머리를 틀어 올려 똥머리를 만드는 모습을 한참 동안 뒤에서 지켜본다. 흰 목덜미 위에 정리되지 않은 채 멋대로 솟아 있는 보송보송한 잔머리가 귀엽다. 평소에 긴 머리에 덮여 햇볕에 그을린 적이 없는 뽀얀 목덜미에서는 베이비파우더 향이 날 것 같다. 밤마다 이태리타월로 벽벽 밀어주기라도 하는 건가? 조용히 다가가 키스를 퍼붓고(할고) 싶은 충동마저 든다. 고것 참, 계속 보고 있자니 묘하게 야릇하네.



➔ 목덜미 페티시 활용 가이드!

매끈한 목선을 드러내며 그를 유혹하고 싶다면 조명발을 충분히 이용하라. 도서관에서 똥머리를 하고 창가에 앉아 있는 여자들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햇볕을 받아 뽀얗게 드러난 목덜미와 열은 갈색 잔머리는 당신을 한층 여러여리하고 섹시한 여자로 보이게 한다.

Chapter 5.

손 - 오감을 자극하는 복병

일요일 대낮의 영화관에는 사람들이 무척 붐빈다. 티켓을 끊으려니 네 자리가 남아 있다. 두 개는 맨 앞자리 일반석, 다른 두 개는 중간쯤 위치한 커플석이다. "맨 앞은 눈 아파!"라고 징징대니 어쩔 수 없이 커플석을 끊는다. 다음 상영 시간까지는 30분 정도가 남았다. 멍하니 있기도 뭐해서 상영관 옆에 붙어 있는 커피숍으로 향한다. 마주 보며 앉아 커피를 짹짹 빨고 있으니 갑자기 그녀가 손을 뻗는다. "뭘 이렇게 묻히고 다니냐?" 새하얀 손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핸드크림의 아몬드 향이 은은하게 풍긴다. 속 하는 소리를 내며 눈썹을 조심스레 스치며 검지손가락이 무척 부드러웠다. 흰 스티로폼을 떼어내고 다시 손을 컵으로 가져가는 그녀. 컵을 잡고 있는 길게 뻗은 손가락 끝으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얇고 가는 손톱이 투명하게 빛나고 있다. 그녀의 손은 아마 엄청 말랑말랑하겠지. 그녀가 쥐고 있는 툴(Tall) 사이즈의 컵을 질투하듯 내 아랫도리는 무척 화가 나

있다. 조금 오버를 하자면, 살짝 입에 넣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왠지 달달할 것 같다. 여자의 예쁜 손을 보고 있는 남자라면 누구든 이런 생각을 할 거다. "10분 남았네, 가자." 그녀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상영 시간이 다가온다. 급히 일어나 상영관으로 향한다. 갑자기 "이쪽인데 어디 가냐?" 하며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내 팔을 잡아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느낌에 사지가 짜릿해진다. 아, 손만 잡았는데 풀리다니, 이게 무슨 개망신인가!



➔ 손 페티시 활용 가이드!

손은 시각보다 촉각을 자극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장난치듯 아무렇지 않게 그의 팔, 다리, 얼굴 등을 터치하기만 해도 그는 영통이 쫓길해질 거다. 향이 좋은 핸드크림은 항상 지참하자. 은은한 향에 껌뻑 죽는 건 남자 역시 마찬가지다. 굳이 매니큐어 색으로 어필하고 싶다면 엄마 생각 나게 만드는 원색보다 은은한 파스텔 톤이나 투명 매니큐어를 고르자.

Epilogue

영화관에서 나오니 8시, 해가 부쩍 짧아졌다. 그녀와 함께 어둑어둑해진 대로변으로 걸어 나온다. 내 옆에서 걷고 있는 그녀는 아까부터 계속 말이 없다. "괜한 짓을 했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한 시간 전, 영화를 보며 음료수를 잡다 무심코 내 손에 닿은 그녀의 손을 나는 결국 덤석 잡고 말았다. 별 수 있나. 노랫말처럼 "니가 나를 딱딱하게 만들었잖아". 영화 보면서 할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 서먹한 분위기를 참을 수 없어, 배는 안 고프니까 밥이나 먹자니까 괜찮다. 언제나처럼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지만, 평소 같지 않은 침묵이 흐른다. "나 간다"라고 말하며 뒤돌아 담뱃불을 붙이려 하자, 그녀가 나를 불러 세우더니 나지막이 얘기한다. "배고프니까 라면이나 끓여주고 가라."

Masters of Fetishism

매력을 150% 활용하는 능력자들!



수지

작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이던 수지에게 페티시즘을 거론했다간 지금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겠지. 이제야 말하지만, 수지는 귀를 매력적으로 연출할 줄 아는 여자다. 검색창에 '수지'만 쳐봐도 귀밑머리를 쓸어 올린 사진이 유난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효리

애초에 '물 고이는 새글'로 유명한 유부녀 이효리, 그녀 역시 대중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방송에 출연할 때면 늘 가슴까지 파인 의상을 즐겨 입곤 했다. 그녀의 새글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인 이유는 아마 우월한 숨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말했잖아. 숨가량 새글은 멜레아 뿔 수 없는 사이라고.

SEX SURVEY 그래서, 어디가 제일 끌린다는 건데?

남자를 가장 끌리게 만드는
여자의 신체 부위는?



- 1위 허벅지 뒤쪽 (446표, 64%)
 - 2위 새하얀 목덜미 (138표, 20%)
 - 3위 예쁜 새글 (86표, 12%)
 - 4위 가늘고 긴 손 (20표, 3%)
 - 5위 살짝 보이는 귀 (8표, 1%)
- 총 투표자: 698명
투표 기간: 2013년 9월 10일~진행 중

MAXIM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 수컷 10명 중 6명은 당신의 허반신에 열광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이랑 잘 되고 싶나? 네일아트 받을 돈으로 차라리 핫팬츠를 하나 더 사라.



올바른_본보기.jpg

Subscribe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구독 중 가격 인상 없는 서비스, 푸짐한 사은품까지!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대
5만 원
할인!**



24개월
정기 구독시
무료 증정

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
엠도시 안티 링클 트리트먼트 에센스

STILL SUMMER!
9 月

누구 맘대로 가을이래?
장마가 여름의 반을 망쳤다. 그래서 여름을 한 달 연장한다. 가을 같은 거 필요 없어. 9월호는 비키니 스페셜! 왜 싫어?

Man's Skill
회투관 평정하는 티파 기술 LA 같이 맛있게 굽는 법 상사에게 보고 잘하는 법 지구 어디서든 길 찾는 법

Real SEX TIP
실때는 성공의 어머니! 더 나은 내년을 위한 열망사레집
VACANCE SEX 오답노트
당신의 현재 상태로 여자랑 할 확률 예측하기
여자 뒤돌아보게 만든다는 바로 그 향수 진짜 되나 생체 실험
여성 독자를 위한 섹스팁
그를 당신에게 계속 미처있게 묶어두는 아주 쉬운 비밀 트릭

MAXIM Life Guard

여민정
레드카펫 가슴 노출 사고 (가자, 장미 여민으로)

손으로는 심폐 소생, 입으로는 인공 호흡
평생 못 잊을 삼 떨리는 섹시 화보로 가르쳐주매

▶ 황현길 입수 금지! 죽기 싫음 스트레칭
▶ 수영 못해도 물에는 뜨는 법

PLUS! 과도한 스킨실 유발하게 설계된 위험천만 화장이 있다?
(있음 우리 회사에도 좀 나와주라)

2013년 9월호
정가 5,900원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3개월	정가 17,700원	
6개월	32,400원 (정가 35,400원) 3,000원 할인 + 1,000원 적립	
12개월	63,800원 (정가 70,800원) 7,000원 할인 + 2,000원 적립	
24개월	126,600원 (정가 141,600원) 15,000원 할인 + 4,000원 적립	
36개월	182,400원 (정가 212,400원) 30,000원 할인 + 6,000원 적립	
48개월	233,200원 (정가 283,200원) 50,000원 할인 + 8,000원 적립	



※떡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떡=1원)
※사은품은 한정 수량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원쪽 QR 코드 스캔 후 확인하세요!

정기 구독 신청 안내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 1 www.maximkorea.net 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 2 무통장 입금
(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 하나은행 569-910012-00904
KB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MAXIM을 아이패드와 아이폰에서도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매거진 앱!
종이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 MAXIM의 아이패드 매거진에는 편리한 인터랙티브 디자인, 풀 버전 영상 화보, 종이 매거진에서는 볼 수 없는 미공개 화보와 깨알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MAXIM KOREA] 또는 [맥스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아이패드 매거진 : 1권 구매 시 \$2.99 / 1년 정기 구독 시 \$19.99
아이폰 매거진 : 1권 구매 시 \$0.99



Sport

아싸 퇴근이되야아~!!

박지성부터 기성용까지 랭킹으로 보는 유럽파 시즌 전망

나라별 축구짱 중에서도 최고만 모인다는 유럽 축구.
그 판에서 뛰는 한국 남자 7인의 올 시즌 전망은?

BY 김덕중(엑스포츠)





달라졌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유럽 무대를 누비는 한국 선수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해마다 그 수가 늘더니 2013년 현재 적지 않은 한국 선수가 유럽 유수의 명문 클럽에서 활약하고 있다. 2013-14 시즌 유럽 축구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2014 FIFA (국제축구연맹) 브라질 월드컵 직전 시즌이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그래서 이번 달엔 주요 유럽파 선수들의 시즌 전망과 더불어 새롭게 닷을 올린 홍명보호에서의 전망을 매우 주관적인(?) 랭킹으로 살펴봤다.

1위 박지성 / PSV 아인트호벤 소속팀 상, 대표팀 상

그가 돌아왔다. 8년 전 AC밀란을 격침시키며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와 같은 짜릿함을 선사한 그 팀으로, PSV 아인트호벤 유니폼을 입은 박지성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만난 밀란을 상대로 전성기 시절 못지않은 위용을 드러내며 견재함을 과시했다. 헤라클레스를 상대로는 복귀골까지 터뜨리며 이름값을 했고, 필립스타디움에는 박지성 응원가 '위승빠레'가 다시 울려 퍼졌다. 시즌 전망은 매우 밝다. PSV는 팀 창단 100주년을 맞아 네덜란드 리그 우승을 노린다. 주축 선수의 연령대가 낮아 큰 무대 경험이 많은 박지성에게 리더 역할을 맡기려 한다. 필립 코쿠 감독은 쓰임새가 많은 박지성에게 오른쪽 윙어 포지션을 부여했다. 박지성의 공격력이 잘 드러날 포지션이다. 문제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서 역할이다. 본인이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브라질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다시 박지성의 대표팀 복귀 얘기가 나올 거다. 그때도 박지성이 거절할까? 홍명보호의 유럽 전지훈련은 이미 확정됐다. 대표팀의 성적이 계속 불안하다면? 캡틴 락이 복귀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2위 김보경 / 카디프 시티 소속팀 상, 대표팀 상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김보경의 소속팀은 지난 시즌 챔피언십(잉글랜드 2부 리그) 우승팀 카디프 시티. 카디프 시티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했는데, 2라운드에서 '우승 후보' 맨체스터 시티를 3 대 2로 꺾었다. 이 날 김보경은 0 대 1로 뒤지던 상황에서 그림 같은 개인 돌파로 동점골의 발판을 마련했다. 카디프 시티도 놀랍지만 김보경의 팀 내 입지가 이렇게 견고할 줄은 미처 몰랐다. 시즌 전망이 좋다. 영국 현지 언론에선 승격된 가운데 카디프 시티의 잔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으며, 팀 내 에이스로 자리 잡은 김보경도 좋게 평가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볼을 지켜내는 능력을 더 키워야 하고, 패스와 드리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룬런할 수 있다. 대표팀 내에서도 입지가 단단하다. 김보경은 지난해 홍명보 감독과 함께 런던 올림픽 동메달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당시 주 포지션은 측면이었으나

현재 카디프 시티에서는 처진 공격수 또는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고 있어 흥 감동이 고인에 빠졌다. 물론 김보경에게는 행복한 고민이다.

3위 이청용 / 볼튼 원더러스 소속팀 중, 대표팀 상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축구 팬의 시야에서 사라진 이청용이 화려하게 돌아왔다. 지난 6일, 아이티와의 평가전에서 이청용은 후반전에 교체 출장하자마자 페널티킥 2개를 유도하며 한국의 4 대 1 대승에 기여했다. 물론 이날 경기에서 심판의 일방적인 '홍몰'이 있었다고는 해도 이청용의 최근 경기력은 홍명보호의 안착에 톡톡히 기여했다. 특히 대표팀이 큰 진통에 시달릴 때, 이청용에게 보내는 흥 감독의 신뢰는 엄청나 보인다. 문제는 소속팀에서 그가 갖고 있는 경쟁력과 입지다. 이청용의 소속팀 볼튼은 또다시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고배를 마셨다. 이청용은 볼튼에서 꾸준히 활약하고 있으므로, 경기력, 컨디션과 더불어 '소속팀 활약'을 강조하는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선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소속팀 내에서의 임팩트는 다소 취약하다.

4위 구자철 / 볼프스부르크 소속팀 중, 대표팀 상

구자철은 올 시즌 시작과 함께 아우크스부르크 임대 생활을 마치고 원 소속팀 볼프스부르크로 복귀했다. 볼프스부르크는 선수 구성 면면에서 아우크스부르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스타플레이어가 적지 않아 구자철 중심으로 돌아가던 아우크스부르크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진통이 예상됐으나 시즌 초반 베스트 11의 한 자리를 꿰차며 무리 없이 스타트라인을 끊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팀에서는 홍명보호 전술의 핵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마땅한 원톱이 없는 현 대표팀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기능이 중요하며, 구자철은 포지션 경쟁 상대와 비교해 득점력에서 확실한 강점을 갖췄다. 일명 '제로톱'이 홍명보 사단의 유용한 카드 중 하나가 된다면, 구자철은 공격 2선과 1선을 오가며 최전방 중앙에 배치될 확률이 높다.

5위 손흥민 / 레버쿠젠 소속팀 상, 대표팀 중

레버쿠젠 소속의 손흥민은 이번 시즌 가장 기대되는 해외파 중 한 명이다.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는다.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의 강력한 '다크호스'다. 바이에른 뮌헨,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우승 경쟁은 힘들지 몰라도 분명 대항마가 될 정도의 전력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레버쿠젠에서 손흥민은 독일 대표인 스테판 키슬링, 시드니 샬과 함께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홍명보호에서도 성공적으로 데뷔전을 치렀다. 손흥민은 유려한 개인 기술로 6일 아이티전에서 2골을 쓸어 담았다.

첫 발걸음에는 성공했지만 다른 해외파와 견줘 조금은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모른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런던 올림픽에서 손흥민을 단 한 번도 발탁한 적이 없다. 개인플레이가 많으며 팀플레이에 적합하지 않은 선수 중 하나로 손흥민을 평가했다는 후문이 들린다. 아이티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는 해도 이미 검증된 다른 해외파와 견줘 추가 테스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위 지동원 / 선덜랜드 소속팀 하, 대표팀 하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로 복귀한 지동원도 적응이 쉽지만은 않다. 소속팀 감독은 지동원을 직접 겨냥해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썼고, 때마침 현지 언론으로부터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임대설이 제기됐으나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분데스리가와 견줘 수비 강도가 세고 한층 거친 프리미어리그에서 중앙 공격수가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지동원은 지난 6일 아이티와의 평가전에서 홍명보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다. 전반 원톱 역할을 맡았으나 정작 필요한 포스트플레이에서 아쉬움을 남겼고, 결국 후반전에는 출전 기회를 잃었다. 대표팀에서도 전망이 밝지 않다. 술술 불거지는 '제로톱' 얘기는 현재 한국 축구에 마땅한 공격수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유일한 대안으로는 여전히 박주영이 꼽힌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 팀을 찾는 데 실패했지만 박주영에 대한 흥 감독의 신뢰는 여전히 있다. '소속팀 활약'의 원칙을 벗어나더라도 브라질 월드컵 최종 명단에 박주영의 이름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동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7위 기성용 / 선덜랜드(임대) 소속팀 하, 대표팀 하

우울하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킨 스완지 시티에서 자리를 굳힌 듯했으나 돌연 선덜랜드 임대 결정됐다. 한국 축구를 뒤흔든 SNS 파동이 잉글랜드까지 전해졌고, 선수의 멘탈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한 미카엘 라우드루프 스완지 시티 감독이 모종의 결단을 내렸다는 설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다. 그런데 기성용의 좁아진 입지는 소속팀뿐이 아니다. 기성용은 유럽파를 소집한 홍명보호 3기 명단에서 제외됐다. 징계 처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흥 감독도 지난해 런던 올림픽 당시 최강희 대표팀 감독을 '디스'하던 기성용을 보고 내심 당황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그러나 당시 홍명보 감독은 대체 불가능한 전력이던 기성용을 중용했고, 결국 올림픽 동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수확했다. 지금은 얘기가 다르다. 현재 홍명보호에서 기성용은 대체 불가능한 전력도 아니다. FC서울 소속의 하대성이 급부상했다. 기성용이 롱 패스에 능하다면 하대성은 짧은 침투 패스에 출중하며, 이러한 그의 성향은 공격형 미드필더의 기능을 중시하는 홍명보 감독의 성향과도 일치한다. 기성용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 

Stuff

GEAR OF
THE MONTH

거시기 달린 녀석의 귀환! GALAXY Note 3



더욱 강해진 매직 스틱을 탑재한
샘송의 세 번째 은하계 공책. BY 조웅재

갤노트 3의 선방 요소

POINT 1. 에어 커맨드

본체 화면 위에 펜을
올려두고 S펜의 버튼을
누르면 다섯 가지 기능이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진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지정해두면 어떤
상황에서든 앱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
편리하다.

POINT 2. 펜 원도

이번에 추가된 기능
중에서 가장 '애플스러운'
기능이다. 화면 위에 S
펜으로 원하는 크기의 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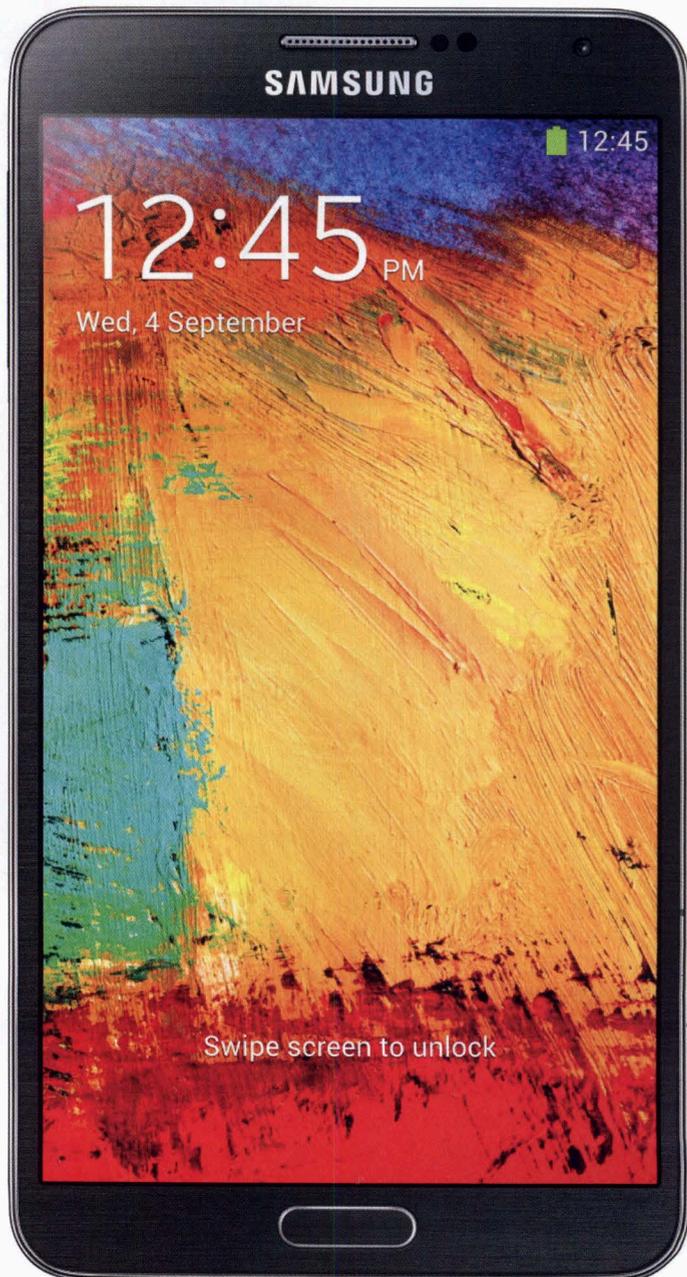
그리면 그 크기에 맞춰 유튜브, 계산기,
웹브라우저 등의 애플리케이션 창이
실행된다.

POINT 3. 뉴 멀티 윈도

화면을 분할해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한 뒤
한쪽에 있는 텍스트와
사진 등을 펜으로 끌어다



다른 한쪽으로 바로 전송하는 기능이다.
인터넷 창과 카톡을 연동하면 사진과
텍스트 등을 손쉽게 끌어다 보낼 수 있다.



SPEC CHECK

크기(mm) 151.2(긴 축) x 79.2(짧은 축) x 8.3(두께)
 해상도 6.7인치 Full HD 슈퍼 아몰레드(1920x1080)
 칩셋 2.3GHz 쿼드코어 프로세서
 메모리 3GB RAM
 용량 32/64GB(외장 최대 64GB 지원)
 배터리 3,200mAh(착탈식)
 카메라 후면 1,300만/ 전면 200만 화소
 출고가 미정



GALAXY Gear

디자인 팀장 누구냐?



'IFA2013'에서 야심차게 발표한 것은 '갤럭시 노트3'뿐이 아니었다. 삼성전자 씽크탱크팀 이사인 프라나브 미스트리는 특유의 인도식 억양으로 "오늘은 삼성과 우리 모두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군요!"라고 감동을 표하며 삼성 최초의 '입' 스마트 기어, '갤럭시 기어'를 발표했다. 장내가 어두워지자 무대 위 화면에 혼자 이리저리 움직이는 손이 나타난다. 곧이어 손목 위에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갤럭시 기어가 장착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별로 신선하지도, 예쁘지도 않다. 그냥 스트랩 위에 아이팟 나노를 풀로 붙여놓은 것 같다. 삼성은 이전에도 출시 예정인 자사의 스마트 워치에 휘어지는(flexible)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생각이 없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깽뎛 통조림처럼 만들어놓을 줄이야! 신촌 길바닥에서 파는 1만 원짜리 시계가 더 예쁜 것 같다. '미래 지향적 디자인' 같은 건 아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하지만 어느새 소매를 걷고 몰래 손목에 차고 있던 갤럭시 기어를 드러낸 프라나브 미스트리는 이렇게 외친다. "웰컴 두더 뷔쳐(Welcome to the future)!"



2013년 4월, '갤럭시 S' 시리즈의 네 번째 제품인 '갤럭시 S4'가 출시되었다. 글로벌 인기에 익숙해진 삼성은 이 주력 신제품에 적잖은 기대를 걸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삼성은 예측 판매량이면 1,000만 대에 턱없이 부족한 20~30만 대의 판매 실적을 찍었고, 이 변수는 삼성전자의 주가 폭락에 영향을 미쳐 시가총액 15조 2,000억 원을 순식간에 공중분해시켰다. '인생의 동반자(Life Companionship)'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갤럭시 S4는 추가 폭락의 동반자가 되고 말았다.

그 후로 다섯 달이 지난 9월 5일, 삼성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제품 박람회 'IFA2013'에서 신작 '갤럭시 노트3(이하 갤럭시 노트3)'을 발표했다. 2.3GHz 쿼드 코어 프로세서와 800MHz RAM과 3GB 램을 탑재한 갤럭시 노트3의 스펙은 '현존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다. 예상치 못한 갤럭시 S4의 판매 부진에 놀란 삼성이 이쪽에 사활을 걸었다 보다. 갤럭시 2에서 명성을 떨친 뽕뽕한 배터리는 여전하다. 수치상으로는 지난 시리즈에 비해 고작 60mAh 정도가 늘어난 3,200mAh에 불과하지만, 실제 사용 시간은 3~4시간 정도가

늘어난다. 스마트폰계의 진정한 변경축이 탄생한 셈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갤노트' 시리즈만의 무기는 역시 왼쪽 엉덩이에 수줍게 달린 거시기, 'S펜'이다. 베가나 옵티머스* *패블릿 제품이 아무리 뒤통수를 문지르고 원격 조정을 하며 난리 불루스를 쳐도 갤럭시 노트3의 S펜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궁중 내시가 아무리 궁녀 앞에서 복근을 자랑하며 비보잉을 해도 내시는 그저 내시일 뿐.

지난 시리즈에서도 갤럭시 노트3보다 확장된 기능을 수행하던 S펜은 갤럭시 노트3에 와서 더욱 섬세해졌다. 펜으로 직접 창을 그려 앱을 실행하거나 다중 창을 띄워 웹과 메시지를 오가며 사진을 옮기는 등 여태까지는 볼 수 없던 섬세한 추가 기능을 수행하는 진정한 '매직 스틱'으로 거듭난 것이다.

변경축 배터리와 섬세한 펜, 두 가지 모두를 가진 갤럭시 노트3. 마치 거울을 달고 있는 송중기 혹은 D컵 습가를 가진 아이유 같은 녀석이다. 

*폰과 태블릿의 합성어. 보통 5.3인치 이상의 대형 스마트폰을 종종 이렇게 부른다.

Berserk



불멸의 명작 <베르세르크>가
절정에 오른 퀄리티의 피규어로 현신하다.

BY 이영비 PHOTOGRAPH YuD

광전사 가츠

전투 도중 대장장이 고든이 만들어준 가츠의 갑옷이 파괴된다. 맨몸으로 거인 그룬벨드와 전투를 벌이던 가츠는 빈사지경에 이른다. 이런 그에게 동료들은 광전사의 갑주를 입혀 겨우 살려낸다. 광전사의 갑주는 체형에 맞게 피팅이 되며 착용자의 본능에 따라 투구 모양이 변하는 폭풍간지 갑옷! 게다가 신체 능력이 향상되고 통증마저 느낄 수 없다. 그래서 당장은 강해지지만 무리하면 죽는다. 그래서 광전사가 된 가츠 옆에는 늘 소녀 마법사 시르케가 파리처럼 붙어서 그의 격한 감정을 제어한다. 아래의 피규어는 광전사의 갑옷을 입은 상태의 가츠다.

POINT

투구 속에 숨겨진 잘생긴 얼굴. 벗으면 갑자기 잘생겨진다!

제물 느낌 아니까.

광전사 가츠
1/6 2010 Ver.



이런 퀄리티 본 적 있어?

오늘의 주인공은 만화가 아닌 만화 캐릭터들의 피규어다. 화보에 등장한 <베르세르크> 피규어를 만든 곳은 '아트 오브 워(Art of War)', 줄여서 '아트(Art)'사라 불리는 일본의 피규어 제작사다. 이름에서도 느껴지듯 "전투를 테마로 한 작품을 주력으로 하며 오랫동안 감상할 만한 변치 않는 미를 추구한다"는 그들은 피규어 하나 제작하는 데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투자한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무슨 장난감 하나 만드는 데 이 난리를 피우느냐고 할 거다. 하지만 어떤 캐릭터를 어떤 장면 속 모습으로, 어떤 디테일을 넣어 표현할지 까다롭게 고민하는 노력이 있기에 이렇게 쩌는 퀄리티의 피규어가 탄생하는 거다. 좌측의 '광전사 가츠' 피규어도 가츠가 칼을 내리치는 장면을 만화의 전체 느낌에 맞게,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 인물과 칼의 형상은 물론, 망토가 펼쳐지는 각도와 방향, 일렁이는 디테일까지 지독히 꼼꼼하게 고민한 끝에 탄생했다고 한다.

아트사 사장님에게 제품의 가격대를 물으니 "보통 5만 엔 이상이며 해외 고객들은 배송료와 관세를 포함해 개당 10만 엔에 가까운 금액을 낸다"고. 그래요. 이거 하나 만들다가 눈이 멀고 손이 마비되게 생겼는데 그 정도는 받으셔야죠.

베헤리트

이 못생긴 알에 피가 달으면 세상이 뒤틀리며 고드 핸드스가 나타난다. 이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사도로 환생! 한마디로 악마 비슷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피스의 '진홍의 베헤리트(파왕의 알)'는 사도보다 레벨이 높은 고드 핸드스의 일원으로 태어나게 해주는 극강 레어템. 일식날, 그리피스의 피가 이 알에 달으며 고드 핸드스가 나타나고, 그리피스의 "바친다"는 말 한마디에, 그리피스를 따르던 '매의 용병단' 전체가 마물의 제물이 되어 먹고 죽임 당한다. 이렇게 그리피스는 고드 핸드(신)가 되고 겨우 살아남은 가츠와 캐스커는 병신&미친년이 된다. 한마디로 이 알 새끼가 모든 사단의 원흉.

이것 또한 속명인가

명작 <베르세르크>는 1989년 미우라 켄타로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37권까지 출간됐다(37권은 1년 반 만에 나왔다). 장인 정신도 정도껏 부릴 것이지 해도 해도 이건 좀 너무하다. 이 굼벵이 같은 작업 속도에 지친 팬들은 분노하다가 부처가 된다. '때 되면 나오겠지 뭐.' 어째서 서비스 정신은 1mg도 없는 이 작품이 '명작' 소릴 듣는 걸까? 한 장 그리고 3박 4일은 쉬어줘야 할 것 같은 고퀄리티의 작화를 직접 보면 이해가 될 거다. 이쑤시개에다 다비드 상 같은 걸 완벽하게 새긴 느낌이랄까. 작가는 실제로도 "20여 년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원고 작업만 했다"고 말했다.

스토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악귀고 사람이고 거칠 것 없이 베는 '검은 검사' 가츠. 한때 둘도 없는 친구였던 그리피스가 모두를 신의 제물로 바치는 바람에 가츠는 몸도 병신되고, 여자와 동료, 뭐 하여튼 인생 전부를 다 잃는다. 그래서 복수를 위한 긴 여정을 떠난다. 방대한 스케일의 스토리와 꼼꼼하게 디테일하기로 이름난 작화는 직접 보시도록. 만화는 손에 침 발라가며 봐야 맛이니까. <베르세르크>를 보게 된다면 아마 당신도 나오지 않는 신간을 기다리며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욕 나올 정도로 느리게 연재하는 작가와 그걸 망부석처럼 기다리는 나. 이것 또한 속명인가."

해골 기사

최강 카리스마, 엄청난 실력을 가진 해골 기사. 한때까지 하는 매의 용병단도, 일당백 가초도 찢절매던 마족들을 단칼에 쓸어버릴 정도로 엄청 세다. 해골 기사는 가초가 광전사 갑주를 입기 전부터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이상한 단서들을 던져주는 신비한 인물. 이런 카리스마에 비해 한번 등장하면 말이 꽤 많은 편. 특히 '너는 수면에 물결을 일으키는 물고기', '맹목적인 양들이 모인 성지', '현세란 수면에 비친 달그림자와 같은 것' 등의 중2병스러운 은유적인 표현을 자주 쓴다. 그의 숙적은 최강의 사도 중 한 명인 불사신 조드다. 만나면 죽임듯이 싸우고 헤어지는데, 돌아 말이 참 많다. 무슨 만담하러 온 노인정 할배들 같다.

POINT

사도들에게 빼앗은 베헤리트를 자신의 몸 속에서 달구어 만든 소환수의 검.



해골 기사 Birth Ceremony Chapter

이거 왜 모아?

이날 촬영을 가능하게 한 국내 최고의 베르세르크 피규어 콜렉터 복정민 씨를 만났다.

갖고 있는 피규어 중 가장 비싼 녀석은?

아트사의 20주년 광전사 가초. 10만 엔이 넘는다. 한정판이니 가격이 점점 오르겠지. 가장 애착이 가는 건 그 녀석과 해골 기사 승마 버전 피규어다. 도형이며, 색상이며 봐도 봐도 안 질린다. 크기도 커서 장식용으로 그만이다.

피규어를 모으는 이유는 뭔가?

만화에서 본 멋진 장면을 3차원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로마의 조각상도 같은 맥락일 거다. 단지 만화 주인공을 피규어로 만들었다고 해서 평가 절하하는데, 피규어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예술품이다. 왜 고대 조각상은 예술품이고 피규어는 오타쿠의 질나쁜 취미로 비춰지는지 모르겠다.

여자들은 피규어 수집을 이해 못 하잖나?

어머니는 '그만 사라!'고 하신다. 가격을 얘기하면 여자들은 대부분 왜 이리 비싸냐며 놀란다. 피규어를 모은다고 하면 왠지 방구석에 틀어박혀 애니 여자인공만 바라보는 '안여태(안경 여드름 돼지)'

를 떠올린다. 다 왜곡된 이미지다! 나는 아니니 일단 만나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그 피규어가 여자를 좋아하는 명품백의 밑천이 될지도 모르거든.

직접 만들기도 했었다지?

어릴 때부터 모형 만들기를 좋아했다. 유치원 졸업 사진에도 아카데미에서 나온 짝퉁 건담 프라모델을 들고 있다.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일본에서 1년간 생활하면서 이 일을 해보자고 결심했다. 졸업 후 도쿄에 있는 피규어 조형 전문학교에서 2년 동안 배웠다. 우리말로는 '원형사' 정도 되겠다.

베르세르크 피규어 수집가들 사이에선 어떤 캐릭터가 가장 인기인가?

주인공 가초. 근데 요즘 아트사의 도색과 조형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해골 기사의 인기도 높아졌다.

조드와 해골 기사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해골 기사가 이기지 않을까.

광전사 가초와 신이 된 그리피스가 붙으면?

광전사 가초만으론 신이 된 그리피스를 이길 수가 없겠지. 하지만 만화 내용이 판타지로 변한 이상, 가초에게 동료들이 생겼고 마법사도 곁에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그 전개가 언제 될는지 원..

캐스커&가츠

'매의 용병단'의 리더 그리피스를 동경하고 따르던 여검사 캐스커. 그녀는 가츠의 호의에 넘어가 몸도 마음도 화알짝 오픈하게 된다. 문제의 일식 날, 고드 핸드스가 된 그리피스는 가츠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겁탈하고 캐스커는 결국 미쳐버린다. 이날 가츠는 팔과 눈, 그리고 동료와 여자를 잃는다.

바쁘다며 왠상은 언제 했니?!

POINT

이상하게 눈이 저기로만...



가츠&캐스커 Red Ver.

POINT

아름답지만 볼수록 섬뜩한 흰 피부와 붉은 입술.



그리피스 매의 용병단 2012 Ver.

하얀 매 그리피스

모든 것을 가졌으나 가츠만은 갖지 못한 그리피스. 아름다움, 카리스마, 지혜, 강한 의지를 가진, 매의 용병단 리더였지만 동료들을 제물로 바친 뒤 고드 핸드 '페우토'가 된다. 외모는 기생오라비지만 공식 설정에 따르면 '현세에선 대적할 자가 없는 절대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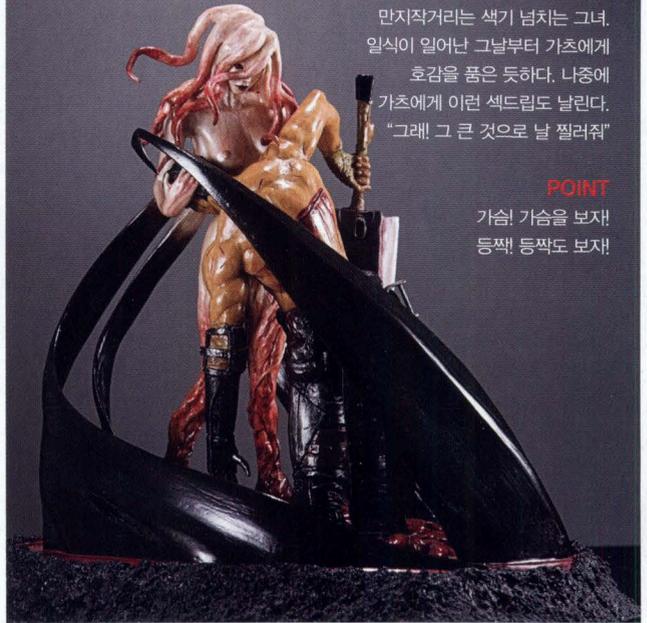
가츠&슬링

고드 핸드 슬링

유일한 여성형 고드 핸드. 항상 허를 날름거리며 자기 가슴을 만지작거리리는 섹시 넘치는 그녀. 일식이 일어난 그날부터 가츠에게 호감을 품은 듯하다. 나중에 가츠에게 이런 섹드립도 날린다. "그래! 그 큰 것으로 날 찔러줘"

POINT

가슴! 가슴을 보자! 등짝! 등짝도 보자!



빨리 찍어, 무겁다.

베르세르크 20주년 기념 광선사 가츠

<베르세르크>를 설명하는 가장 심플한 문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야...

“멋진 기갑 부대, 끈끈한 동료애, 그리고 배신, 복수와 치정, 전쟁과 권모술수, 악마와 요정, 마법과 판타지, 굿 보디 여자 검사와의 로맨스와 약간의 세...엑스. 그리고 '등짝! 등짝! 보자!'가 어우러진, 장애된 검사의 눈물겨운 수행기로 요약할 수 있지.”

가츠 매의 용병단 2012 Ver.

매의 용병단 시절 가츠

그리피스와 함께 혁혁한 전과를 세우고 동료애를 처음 알게 된 시절의 가츠. 일식 전의 모습이라 왼손이 멀쩡하게 붙어있다.

POINT

전매특허 '100인 배기'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는 디테일한 선혈.



피규어가 살아 움직인다야아!

일할 맛나게 하는 책상 위 신박한 사무용품 12

손이 병신이면 도구를
업그레이드하자. BY 손안나



Laser Guided Scissors

2

누가 그랬지. 군대는 각 잡는 게 생명이고, 직장은 줄 굵는 게 생명이라고. 뻘뻘뻘한 가위질 하나 때문에 당신은 상사의 인사 평가에서 언제든지 '부주의·불성실 직원'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래서 소개한다. 레이저에서 주사되는 선을 따라 자르면 종이가 일직선으로 잘리는 아이디어 가위! 자를 대고 마킹할 필요 없으니 중요한 문서도 깔끔히 재단할 수 있다.

구입처 [미스터쿤\(mrkoon.com\)](http://mrkoon.com)
가격 37,000원



Nap Anywhere

오후만 되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식곤증에 헤드뱅잉하며 조는 게 일상인 직장인에게 추천. U자형 목 베개를 두르고 자다가 목이 졸리는 듯한 공포감에 깨본 적 있는 이에게도 강추한다. 한쪽 면은 가죽, 반대쪽 면은 폴리플리스 재질인 원판을 몇 번 구부리면 베개로 변신한다. 미국의 한 의사가 고안한 이 제품은 머리의 하중을 어깨와 쇄골 부분이 지탱해주도록 설계해 앉은 상태에서도 목을 똑바로 펴고 잘 수 있다. 게다가 지탱한 반대편에서 보면 베개가 보이지 않는다. 꿈속에서 경리와 미스 김과 뜨거운 몸정을 나누는 중에도 길오로는 모니터에 시선 고정하고 업무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기특한 녀석!

구입처 [냅 애니웨어\(napanywhere.net\)](http://napanywhere.net)
가격 \$49



3

Visomate USB Vision and Posture Reminder

종일 좀비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와 씨름하는 이들을 위한 자세 교정기. 자동 센서가 모니터와 사용자 간의 거리를 파악해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이 왔을 때 경고음을 울린다. 모니터 꼭대기(모니터에 하두리 캡 좀 달아본 사람이라면 알 만한 그 자리)에 제품을 고정하고 USB로 연결하면 작동한다. 소리가 울리면 곤란한 공용 사무실에서는 음소거 모드로 설정하면 된다. 푸른색 LED는 당신과 모니터의 거리가 권장



시각 범위(35~60cm) 내에 있음을 나타내고, 빨간색 LED는 당신의 머리가 모니터에서 너무 가까우니 뒤로 꺼지라는 뜻이다.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 알잖나, 자세가 나쁘면 눈 건강, 목 통증, 무엇보다 허리에 치명적이라고!

구입처 [THANKO\(thanko.jp\)](http://thanko.jp)
가격 2,980엔

4



Morninghead

늦잠 자느라 머리를 못 감았다거나 야근 때문에 머리가 딱졌을 때 급히 수습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 양복을 입은 상태에서 삼푸 없이 물만으로 딱진 머리의 기름기를 제거해주는 헤어 캡이 바로 그것. 안감은 하기스 기저귀처럼 물을 대량으로 흡수할 수 있는 폴리우레탄 소재다. 이 헤어 캡에 물 3분의 2컵을 붓고 다시 머리에 쓴 채 구석구석 비벼주면 삼푸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마...마법 같아!

구입처 **미스터쿤(mrkoon.com)**

가격 7,600원

하리낙스 스테이플러 8매

철심 없이 종이로 종이를 철하는 친환경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 사이에 종이를 넣고 꼭 누르면 U자 모양으로 종이에 구멍이 뚫리고, 그 사이를 오려진 종이로 꿰매는 원리다. 날카로운 철심 박다가 손에 피를 본 적이 있거나 심을 뽑아내다가 손톱 안에 철심 엑스칼리버가 꽂혀본 이라면 환호할 만한 아이템. 단, 8장까지만 철할 수 있다.

구입처 **천삼백케이(1300k.com)**

가격 20,000원



5

클린한 비커 같이 클린 비커를 썼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기분 나쁜 축축함을 방지한다. 고양이 얼굴에 수염까지 달린 쓸데없는 디테일 덕에 미친놈처럼 보이는 게 함정. 다행히(?) USB 전력을 사용해야 팬이 돌아가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어차피 사무실에서만 쓸 수 있다.

구입처 **THANKO(thanko.jp)**

가격 1,980엔



아오, 너를 끼는 걸 빼먹었네.



Stress Buster Desktop Punching Ball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고?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66%의 직장인이 화집에 사표를 제출한 경험이라고, 그중 63%가 이를 후회한다. 가뜩이나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무작정 사표를 던지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 이 펀칭볼을 책상 한구석에 붙여두고 화가 날 때마다 짜증나는 동기, 알미운 후배, 미친 상사를 생각하며 사정없이 두들겨라. "한 번 고정한 이후로 사무실 내 어떤 동료도 이걸 쓰러뜨리지 못했다"는 해외 사용자들의 구매 후기도 있으니, 펀칭볼이 상사의 뒤통수로 날아가는 불상사 걱정은 붙들어 매라. 세계! 더 세계!
구입처 **폴에디트(poledit.co.kr)**
가격 26,500원

Stuff

Office Life

8

The Tea Cup SlingsHOT



사무실에서 편하게 마시는 티백 차. 한 번 우려내고 나서 곧바로 버리지나 아깝고, 컵에 담긴 차로 마시자니 너무 진하게 우려진다. 심지어 어느 때는 차를 마시려고

Stuff

Woman with a Tool

너무 힘들어, X발. 이래서 다들 사무직, 사무직 하는구나.

잘 빨고 잘 부는 낙엽 청소기

조상님, 젓밥도 드셨으니 이제 저한테 이런 화끈한 여자 하나 점지해주시죠?

(19금 농담 한 마디 없이 흡입력 강한 청소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음... 실패할 게 뻔하지만 노력은 해보겠다.)
Black&Decker LH4500 12 Amp Two-Speed Electric Leaf Hog Blower는 1석 3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특한 청소기다.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람을 불어 쓰레기를 한데 모아주는 낙엽 청소기부터 진공청소기, 제초기 역할까지 혼자서 해치우는 우렁각시다. 이정도면 꽤 쓸쓸한 성묘 아이템이겠지? 최고 풍속은 107m/s, 바람 세기도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내 부모도 모자라 조상님한테까지 잘하는 그녀. 게다가 '빨고 불고' 하는 일엔 도가 텃다고! (아, 이런... 미안하다. 결국 19금이다...)
\$75, amazon.com

구두 Steve Maden

Smoke & Drink



*원샷 때리다 질식사 할 수 있어, 조심해.

젤리 칵테일 만드는 법

남자에게 젤리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물강물강한 촉감이 자꾸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거든. MAXIM이 알려주는 레시피로 이제는 젤리의 탄력 있는 촉감을 알뜰뜰하게 즐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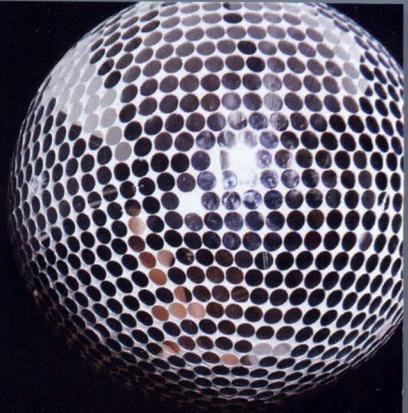
시큼한 라임 주스에 오렌지 맛 리큐어, 얼얼한 고춧가루, 상쾌하고 시원한 민트까지... 이 모든 맛을 한 잔으로 느낄 수 있는 기동찬 젤리 칵테일을 소개한다.

준비물

- 젤리 8~10컵 분량
(단위: 1잔 = 1소주잔)
- 라임 주스 1잔
- 보드카 4잔
- 쿠앵트로(오렌지 맛 리큐어) 1잔
- 설탕물(물:설탕=1:1) 1잔
- 젤라틴(판이나 가루) 1/4잔
- 소금, 신선한 민트 잎, 고춧가루 약간

라임 주스와 설탕물을 믹싱 볼에 붓고 섞은 후, 젤라틴을 투하하고 3분 정도 불린다. 젤라틴이 다 녹을 때까지 전자레인지에 20초간 돌린다. 보드카와 쿠앵트로를 더하고, 샷 글라스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굳힌다.

그녀와 분위기를 잡기 전에 냉장고에서 미리 꺼냈다가 마시기 바로 전, 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리고 민트 잎으로 장식한다 (섬세한 남자로 보일 거야). 들이킨다. 후루룩, 크야! 젤리처럼 부드러운 그녀 입술을 안주로 चु름, 크야야!



언더웨어 에블린
구두 슈즈원

탄탄 vs. 뽕뽕

 탄탄하고 길게 뻗은 다리냐,
아니면 터질 듯 풍만한 가슴이냐.

BY 조용재

MODEL 2012 MISS MAXIM 준우승자 엄상미



며칠 전 촬영한 화보 사진을 3시간째 모니터로 들여다보고 있다. 상미가 섹시하고 깜찍하게 웃으며 내 시선경을 자극한다. 총 600장의 사진 중에서 가장 예쁘게 나온 두 장만 이번 10월호에 실린다. 젤장, 안 예쁜 게 없어! 피로가 몰려온다. 회사 테라스로 나가 담배를 입에 물고 주지육림의 거리, 홍대를 내려다본다.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지만 여전히 시원한 차림의 여성이 많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잔잔하게 물결치는 풍만한 가슴과 미니스커트가 터질 듯 탄탄한 허벅다리 거리를 가득 메운다. 상미에 이어 현실 속 여인들의 보드까지 쪽 스캔하고 있으니 '뽕뽕한 가슴과 탄탄한 다리... 하나만 실컷 만질 수 있다면 뭘 선택해야 할까?' 하는 뽕 생각이 든다.

탄탄한 다리가 킹왕짱!

소녀시대가 '소원을 말해봐'로 활동할 때만큼 섹시 충만하던 시절이 있었던가. 시원하게 드러난 허벅지를 역동적으로 움직이던 모습은 갓 튀긴 통통한 닭다리만큼 군침을 돌게 만드는 볼거리였다. 흰 핫팬츠 깊은 안쪽에서 뻗어 나온 잘 빠진 허벅지는 볼수록 묘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더 원 임팩트'는 마치 그런 여성의 다리만큼 탄탄한 허반신을 가진 담배다. 단단한 하드 필터는 입에 아무리 오래 물고 있어도 결코 젖어 뭉개지는 일이 없어, 손에 땀이 많거나 입에 침이 팔당땀처럼 고이는 사람들조차 깔끔한 흡연을 즐길 수 있다. 결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성의 탄탄한 허벅지처럼 '단단한' 담배. '더 원 임팩트'는 그런 녀석이다.

둘 다 가진 상미의 애교 SHOW!



뽕뽕한 가슴이 킹왕짱!

남성은 여성의 신체 중에서도 유난히 가슴에 집착한다. '늘씬하고 탄탄한 다리'보다 훨씬 알현하기 힘든 그 깊은 골짜기. 큰 가슴의 발견이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만큼이나 위대한 업적이다. 그대로 얼굴을 파묻고 싶게 하는 풍만한 가슴처럼, 담배 중에도 자꾸만 입에 가져가고 싶은 풍부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녀석이 있으니 바로 '더 원 임팩트'다. '1mg 담배가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며 한 모금 빨아들인 순간, 깊고 강한 풍미가 당신의 대뇌 전두엽까지 전해질 거다. 이것은 마치 가슴이 너무 커서 부끄러운 나머지 압박봉대를 하고 지냈던 남성미를, 어쩌다 운 좋게 자빠뜨렸을 때의 느낌일까. 그 비결은 잎담배 줄기의 위쪽에서 충분한 태닝을 거쳐 탄생한 '임팩트 리플' 함유했기 때문이라고, '더 원 임팩트'는 여성의 풍만한 가슴처럼 풍부한 맛과 향이 넘치는 담배다.



뽕뽕 가슴 vs. 탄탄 허벅지
당신의 시선을 가장 강렬하게
끄는 여성의 신체 부위는?

뽕뽕 가슴
(656표, 60%)

탄탄 허벅지
(422표, 40%)

투표 기간: 2013년 9월 3일 ~ 진행 중
투표 인원: 1,078명

MAXIM KOREA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마치 전효성과 우이의 대결처럼 치열하고 드라마틱했다. 우리 독자들은 탄탄한 허벅지보다 뽕뽕한 가슴을 선택했으니, 역시 대세는 속일 수 없다!





프리미엄 코냑 레이마틴 VSOP와 함께 맛있고 즐거운 데이트를 시작해보자. (여자는 알아서 구해와라...)

적주적소 (適酒適所)

 아무 때나, 아무데서나 소맥 마는 남자, 매력 없다. 술에도 T.P.O가 있지.

BY 이영비



며칠 전, 촬영 장소를 보러 (간다는 핑계로) 남자 에디터와 함께 이태원의 핫플레이스로 이름난 이탈리아 퓨전 레스토랑 '레뒤플라'로 향했다. 고급스럽고 모던한 실내 디자인이 속 맘에 들었다. 3층엔 야외 테라스도 있어 더욱 로맨틱한 기분이 들었다. 자리를 잡고 앉아 둘러보니 여기저기

소개팅이나 데이트를 하는 커플들이 많았다. 괜히 덩달아 설렌다. 마침 옆 테이블에는 어색한 분위기의 소개팅 커플이 있었다. 남자는 청순한 수애를 닮은 이 여자가 상당히 맘에 든 눈치다. 그런데 이 남자, 대뜸 보드카를 시키는 게 아닌가? 이 여자랑 잘해보겠다는 건지, <삼국지> 속 장비처럼 술을 동이째 팔팔 들이붓는 술꾼으로 보이고

싫은 건지(아니면 첫날 어떻게든 자빠뜨리겠다는 심산인지)... 분위기에 죽고 분위기에 사는 여자들에게는 T.P.O(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술이 얼마나 중요하지 모르나! 진심으로 말리고 싶었다. 취한다고 다 같은 술이 아니다. 데이트 분위기를 무르익게 할 술과 음식의 완벽 조합의 예를 MAXIMI이 알려주겠다!

소개팅녀가 마음에 들 때 레미소다 + 카프리지 샐러드



Drink: 레미소다
간만에 소개팅에서 딱 당신 스타일의 여자가 나타났다. 분위기도 좋아져 술도 한 잔 시키게 됐다. 그럴 땐 시원하게 훌쩍훌쩍 마시다가 어느새 살짝 취기가 돌면서 기분이 UP되는 레미소다가 제격. 달콤한 레이마틴 VSOP에 토닉워터와 레몬을 넣은 상큼하고 달콤한 이 드링크를 마다할 여자는 없을 거다. 여자들은 너무 단 것보단 상큼달콤한 맛을 더 좋아하거든.

Eat: 카프리지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레미소다. 안주 역시 비슷한 무게감의 카프리제를 추천한다. 치즈의 진하고 묵직한 맛에 새콤달콤한 발사믹 식초 드레싱이 어우러진 이 안주는 맛있게 가볍게 먹기 좋다. 여자들도 살 짝 걱정 안 하고 맘껏 먹으면서 데이트를 더 오래 즐길 수 있을 테니 일석이조. 게다가 흑시어나, 기분 좋은 새콤달콤한 맛이 그녀의 잠자고 있던 혀 돌기를 강렬하게 자극할지.

레미소다 = 레이마틴 VSOP 30ml + 토닉워터 90ml + 레몬 조각 + 민트 잎 + 얼음

아직 그녀의 마음을 모르겠다면 레미마틴 VSOP + 칩스테이크



Drink: 레미마틴 VSOP

사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아리송한데 계속 만나기는 한다? 아직 그녀의 진심을 잘 모르겠다면 레미마틴 VSOP를 추천한다. 왠지 코냑은 아저씨들만 마시는 술 같다고 생각했던 그녀도 부드러운 맛에 과일 향이 진한 레미마틴을 한 입 머금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평소 와인을 좋아하는 그녀라면 더욱 맛있게 즐길 거다. 게다가 당신이 높은 도수의 코냑을 시켰는데도 그녀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왠지 예감이 좋다. 레미마틴은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술이

아니라, 자기가 취할 걸 알면서 마시는 술이라는 거. 약간 달아오른 그녀는 이미 오늘 집에 안 들어갈 핑계를 한 500가지 정도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다.

Eat: 칩스테이크

함께 고기를 먹으면 상대에 대한 호감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당신들의 지지부진한 관계를 풀어줄 도우미로 '스테이크'를 소환하자! 레미마틴을 마신 후 칩스테이크를 먹으면 입안에 남아있던 레미마틴의 과일 향과 육류를 씹는 맛이 어우러져 풍미를 돋울 거다.

술을 잘 못한다면: 온더락이나, 온더락에 물을 약간 섞고 레몬을 한 조각 넣어 마시자. 풍미는 그대로, 도수는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다.

레뒤플라 Les Deus Plats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8-54
소개팅이나 데이트 장소를 찾고
있나?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1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이 장점이인 퓨전 이탈리아
레스토랑 레뒤플라에 주목.
이탈리아 음식뿐 아니라,
튀김이나 피자 등 주류와
어울리는 다양한 음식이 있다.
레미마틴을 이용한 칵테일도
즐길 수 있으니 이만한 데이트
장소가 또 있을까?



영업 시간: 오전 11시~새벽 2시
문의: 02-797-2228



아... 나도 옆에 여자친구
하나 그려주라. 뽕뽕한 Girlo.

사건 지 오래되어 친구 같은 커플이라면 레미마틴 프렌치 모히토 + 게살 크림 파스타

Drink: 레미마틴 프렌치 모히토

취하려는 목적보다 맛있게 음료처럼
취하려는 목적보다 맛있게 음료처럼
함께 즐기면서 편안하게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칵테일을 원한다면
모히토만한 게 없다. 갈증 해소는
물론이고, 다양한 음식들과도 잘
어울리니까. 보통은 럼 베이스로
만드는데, 레미마틴으로 만든 레미마틴

프렌치 모히토는 끝맛이 더 깔끔하고
라임 향도 더 잘 느껴질 수 있다. 상큼한
라임과 민트의 청량감이 가득한
새콤달콤 모히토로 예전의 그 풋풋한
설렘을 다시 느껴보자. 이미 볼 장
다 보고, 할 거 다 한 사이인데 굳이
만취할 필요 없잖아? 맛있게 마시고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Eat: 게살 크림 파스타

모히토처럼 민트 향이 나는 음료들은
마신 뒤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그
음식의 맛을 잘 살려준다. 풍미가 진한
크림 파스타에 딱이겠지? 게다가
상쾌한 모히토는 게살 크림 파스타의
느낌도 잡아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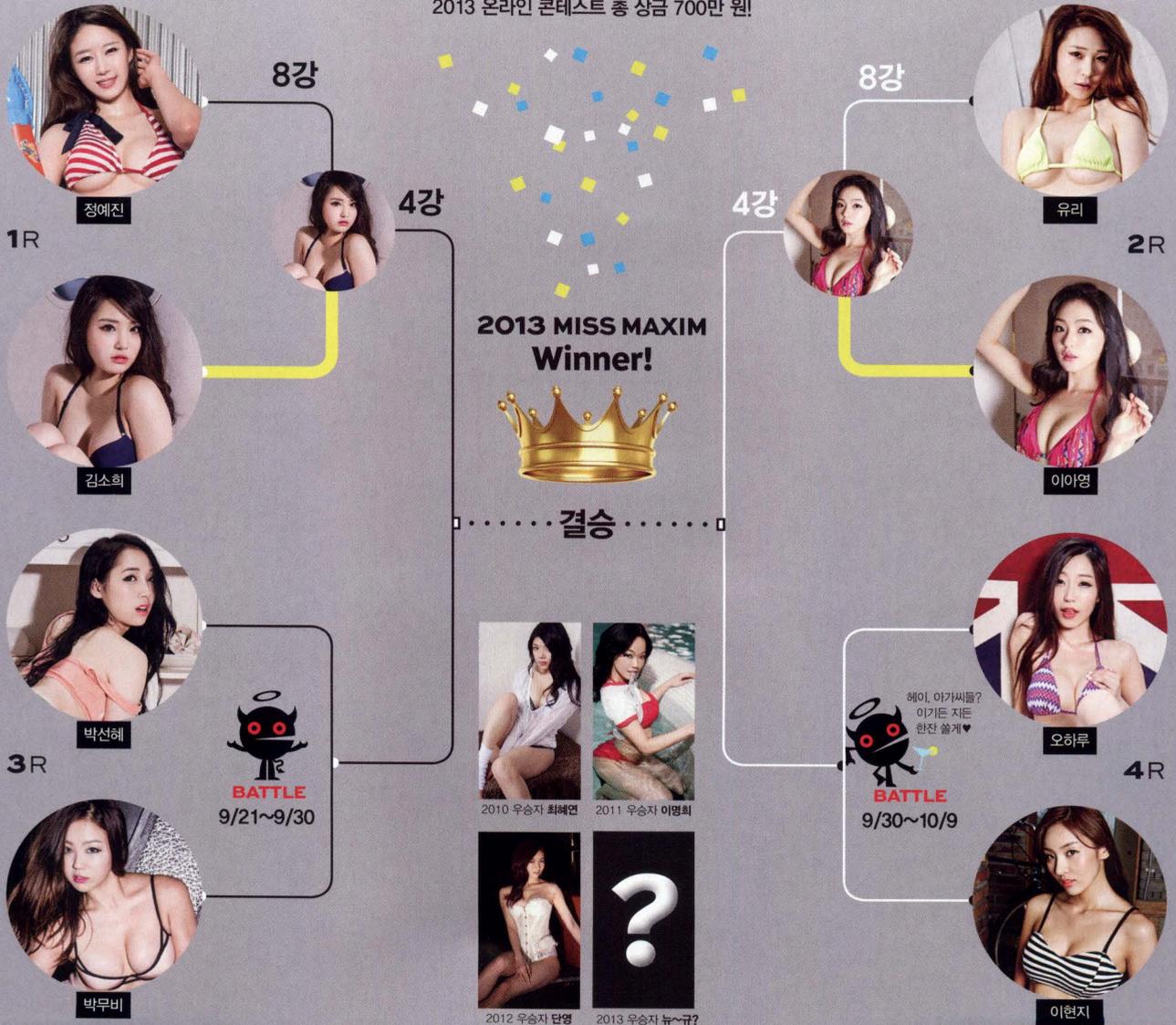
레미마틴 프렌치 모히토 = 레미마틴 VSOP + 라임 + 라임 주스 + 설탕 + 부순 얼음 + 민트 잎

2013 MISS MAXIM CONTEST

TOP 8 Tournament Battle Start!

MISS MAXIM 8강전이 한창이다!
당신의 한 표가 MAXIM의 간판 미녀를 좌우한다!

우승자는 2014년 한 해 동안 MAXIM에서 각종 화보 모델 활동을 하게 되며,
2014년 중에 MAXIM 정규 월호 또는 스페셜판 매거진 표지 모델로 발탁된다!
2013 온라인 콘테스트 총 상금 700만 원!



Your Choice! Your Miss MAXIM!

MAXIM을 사랑하는 섹시 매력녀 중 최강자를 선발하는 2013 MISS MAXIM 콘테스트! 여는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더 뜨거운 경합을 벌이고 8강에 올라온 그녀들이 이제 4강 진출을 위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10월호에는 김소희와 이아영, 두 4강 진출자가 당신의 판타지를 자극하는 코스프레 화보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한다. 9월 21일부터는 세 번째 4강 진출자를 가리는 투표가 시작된다! 당신이 원하는 그녀의 멋진 화보를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홈페이지에 접속해 한 표를 던져라. 역대급 화보로 보답하겠다.

투표 방법

1. 모바일 기기 또는 PC에서 www.maximkorea.net에 접속해 8강 진출자들의 아찔한 매력을 감상한 뒤 투표한다.
2. 여기 있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바로 투표한다!



2014 MISS MAXIM 참가 문의

missmaxim@maximkorea.net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Motor

CAR OF THE MONTH

3,390만원



정면 돌파

正面突破

CITROËN DS3 CABRIO

9회 말 2아웃, 시트로엥의 구원투수가 마운드에 올랐다.

“플레이볼!” BY 박정욱

어디 그 반반한 얼굴 좀 보자!



클래머러스한 몸매와 귀여운 얼굴. 강예빈은 예쁘다. 섹시의 아이콘인 MAXIM 표지 모델, UFC 옥타곤걸로도 활약했다. 그런데 네이버 프로필 상 그녀의 직업은 ‘탤런트’다. ‘탤런트 강예빈? 연기자였나?’ 연기자 명함이 영 어색하다. 사실 강예빈 하면 연기하는 모습보다는 섹시하고 귀여운 화보나 셀카가 먼저 떠오른다. 그녀가 신들린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도 아니고, 대중이 그녀에 주목하는 이유도 연기력 때문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녀는 분명 스타다. “연기보다는 외모와 섹시 콘셉트로 승부한다”는 비아냥거림은 개의치 않고 더 예쁘게, 더 섹시하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리한 스타 말이다. ‘선불리 약점을 보완하기보다 강점을 더욱 극대화하라’. 지난 8월 말, 이와 같은 강예빈식 마케팅에 가장 충실한 자동차가 하나 출시됐다. 바로 시트로엥의 ‘DS3 카브리오’다. 사람들은 DS3의 감성과 디자인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중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가격과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주행 성능에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 진출 선봉장이었던 DS3의 저조한 판매는 시트로엥이 한국 시장에 안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경고였다. 그런데 새로 출시된 DS3 카브리오는 호기롭게도 이런 경고를 깔끔히 무시했다. 성능 향상이나 가격 인하는커녕 오히려 보란 듯이 더 예뻐지고 비싸졌다. 마치 “잘 하는 거 계속 할게, 못 하는 건 시키지 마”라고 말하는 듯하다. DS3 카브리오는 캔버스 톱은 대부분의 컨버터블에 없는 독특함이 있다. 일반적인 컨버터블은 지붕을 열 때 A필러와 앞 유리만 남는다. 하지만 DS3 카브리오는 지붕 개방 시 ‘샤크핀’이라 부르는 B필러, 차량 유리 안에 내장된 C필러, 플로팅 루프가 그대로 남아 있다. 게다가 캔버스 톱이 트렁크 안에 수납되는 대신 트렁크 도어 위에 차곡차곡 접혀서 얹힌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 그렇다. 두껍게 열리는 방식은 피아트

친퀘첸토C를 그대로 닮았다. 닮은 꼴 친퀘첸토C가 ‘변종 선루프’ 혹은 ‘반쪽 오픈카’ 취급을 당하며 올 상반기 동안 76대밖에 못 판 게 조금 불안하지만 분명 매력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이다. DS3 카브리오는 시트로엥의 승부수이자 ‘구원투수’다. 시트로엥은 1988년 삼환 가류가 수입·판매했으나 판매 부진에 허덕이다 2002년 사업을 접은 전례가 있다. 다시 한 번 국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시트로엥으로서 지금이 바로 승부의 분수령이다. 자, 화려한 변화구 한 구종밖에 모르는 구원투수가 시트로엥 마운드에 섰다. 과연 승부는 어떻게 될까? 🍷

SPEC CHECK

배기량	최대 출력	최대 토크
1,560cc	92hp	23.5kg.m

Motor

Test Drive



뒤태 에디터
히치하이킹
영상



Q 음... 그러고 보니 문짝이 네 개네요. 제가 기억하는 M3는 2도어였거든요.

A 제원상으로도 확연히 다른 차네요. M3가 420마력의 기름 하마인데, 320d는 184마력에 연비가 18.5km/L(1등급)이나 돼요. 완전히 반대 성격의 차를 제가 헛갈려 했군요.

Q 맞아.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연비에 중점을 둔 신형 320d야. 거기에 M3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서스펜션이랑 18인치 대구경 휠을 탑재한 거야.

A 그러면 휠이랑 서스펜션으로 기분만 낸 거고 실제로 '고출력의 M'은 아니네요?

Q 기분만 낸 건 아니고, ECO모드나 NORMAL모드로 안전하게 달리다가도 SPORTS 모드 딱 누르면 엔진 소리부터 달라지면서 딱딱 튀어 나가거든. 물론 M3 만큼은 아니지만.

A 하긴. 당연한 거겠죠. M3는 차 값만 1억이 넘잖아요. 배기량 1,995cc의 320d한테 3,999cc의 M3급 출력을 기대하면 안 돼요.

Q 글썄, M3의 420마력이 제 인생에 필요할까 싶어서요. 카톡 뽐 것도 아닌데 250km/h로 달릴 일이 뭐 있겠어요? 가성비까지 안 따져도 320d M팩이 오히려 나아요. 연비 더 좋죠, 디자인 더 짙죠.

A 그래? 1억 주고 M3 타는 사람들 섭섭하겠다. 8기통 꺼내놓고 다닐 수도 없고... 사실 M3는 엄청난 출력과 가격에 비해 디자인이 너무 수수하긴 했어. 7천만 원대인 BMW z4가 슈퍼카 썬싸먹게 생긴 거에 비하면 더더욱.

Q z4까지 끌어들이지 않아도 저는 확실히 320d의 디자인이 M3보다 맘에 들어요. 뭐랄까, 정통

스포츠 카라는 M3보다 디젤 세단인 320d가 외관은 오히려 더 날렵한 스포츠카스럽지 않아요?

A 오, 만나씨 눈이 좋네. 스포츠카라는 게 구조적으로 세단보다 휠베이스(앞바퀴 축과 뒷바퀴 축의 간격)가 길거든. 실제로 320d의 휠베이스가 M3보다 5cm쯤 더 길어서 그래 보여.

Q 서당암개 두 마리가 이제 정말 풍월을 읊는군. 뿌듯하다. 최근에 BMW 3시리즈가 6세대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을 풀 체인지한 건 알고 있지?

A 네, 단체로 눈 앞드임 성형하고 나왔죠. 김민중 스타일로다가.

Q 응. 그 6세대 대변신에 M3는 못 끼었어. 여전히 휠베이스가 짧은 5세대 차체를 갖고 있지.

A 야합, 320d와 M3의 차이랑이 보단 6세대가 5세대보다 더 날렵하게 변모한 거군요. 휠베이스가 길어진 만큼 실내공간도 넓어졌어요.

Q 혼자 더 오래 6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M3도 곧 달라진 모습으로 나오겠네요.

A 어쨌든 저라면 그 1억으로 차라리 320d M팩을 뽑고, 남은 돈으로 미니 쿠퍼 컨버터블을 한 대 더 사겠어요. 그래도 한 천만 원 남겠네. 우왕♥

Q 남은 천만 원으로는 뭐하게?

A 하아아... 그러게요. 천만 원으로 뭐하죠? 그렇게 큰 돈을 써 본 적이 없어서... 나 얼굴도 가습도 할 필요 없는데... 일단 소고기 한 근 사 먹고, 그 다음엔... 나 뭐하지? 뭐하지?

Q 쫓쫓, BMW를 두 대나 지른 년이 천만 원 가지고 멘붕이 왔네.

Q 그 돈으로 차를 더 예쁘게 꾸며,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랑 사이드 미러를 카본으로 감싸 놓으니까 차가 확 달라 보이는데?

A 그거 싸제 카본으로 감싼 거 아니야. M스포츠 패키지에 아예 포함된 디자인이래. 업자 숨쉬로는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지.

Q 정말요? 어쨌든 센스 굿이더라. 하얀 차에 사이드 미러에만 카본을 씌우니까 마치 발 끝이 까만 삼 고양이 같아!

A 내가 보기엔 M스포츠 팩의 외관은 지금 딱 완벽해. 괜히 더 손 대면 양카된다. 만나야, 그냥 그 천 만원은 나한테 주면 잘 쓸게.

Q 선배는 천 만원 생기면 어디다 쓰게요? 저 좀 알려 주세요.

A 일단 위디스크랑 팡파일 캐시 좀 채우고, 머리 심고, 텐프로 술집도 가보고, 그 다음엔 모텔비, 모텔비, 모텔비...

Q 복상사하시면 저희가 시신 수습하러 갈게요. 돈 다 못 쓰시겠네.

A 그러게. 남자한테는 M튜닝 같은 거 못하나? 겪어보지 않아도 M로고로 구분하게.

Q 만나씨는 참 창의적이야. 테크닉과 사이즈, 체력을 모두 탑재한 남자에게 정부 인증 M 로고를 새겨 준다든지 하는 거지? 이 차처럼 패들 시프트도 달려 있으면 좋겠다. 양쪽 귀가 패들 시프트, 참, 그리고 보니 이 패들 시프트는 3시리즈에 다 달려있는 건가요?

A 맞아. 깜빡했네. 패들 시프트도 M Sports에만 탑재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보면 그냥 3시리즈와는 확실히 차별화 되는데? 이번 6세대는 8단까지

변속 가능하니 패들 시프트가 특히 유용하겠어.

320d와 M패키지의 조합은 진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네요. 유지비도 적고 실속은 다 챙겼는데, 괴력의 상징인 M로고까지 여기저기 박혀 있으니 카리스마는 M3나 별반 차이 없어요.

그렇네. 길에서 BMW를 흔히 보지만 M이 붙어 있으면 안에 탄 사람을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 좀 밝아볼까? 얼른 타봐. 벨트 매고.

헉, 방금 뭐였지? 출발하니까 벨트가 제 가슴을 살짝 만졌어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안전 벨트가 몸에 딱 맞게 조여지지? 나도 처음엔 깜짝 놀랐어. 그게 끝이 아니야. 차가 접지력을 잃고 미끄러지면 벨트가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더 팍 조여진대.

어머나, 더 팍? 우리 어디 넓은 데 가서 진짜 되나 한번 해 봐요! 위험상황 되면 창문도 저절로 닫힌대요. 팔 튀어나가지 말라고, 신기하죠?

어어어, 그렇긴 한데 너무 빠르다. 그만 밟아! 무슨 디젤차가 130km/h이 넘었는데 속도가 계속 치고 올라가?

그러게, 혹시 이 도로 내리막이나? 엑셀에서 발을 떼도 속도가 별로 줄지도 않고 타력 만으로도 쌍쌍 나가. 연비 터지겠네.

차가 가볍나? 디자인은 전혀 가벼워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꽤 육중하게 보이던데?

그 점도 맘에 들어요. 보통 연비 좋은 차는 디자인에서부터 친환경 티를 막 내잖아요. 보기에도 가볍고 풀 뜯어먹게 생긴 차요.

맞아. 연비 좋다고 디자인까지 초식스러워야 한다는 법도 없는데 말야. 솔직히 남자가 그런 차 끌면 알뜰해 보이긴 하는데, 섹시하진 않죠.

헐, 그래? 비실비실한 성욕 감퇴남으로 보여? 막 정액도 아낄 것 같냐? 리터당 몇 회 이렇게?

품, 그냥 박력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정도죠. 섹스 얘기 아니에요. 저 초식남도 좋아해요.

뭘 아니야, '섹시한'의 뜻은 '섹스하고 싶게 생긴'이잖아. 아, 내 신성한 자동차 시승기가 또 김희성의 섹드립으로 더럽혀졌어.

해해, 그래도 독자들이 요새 저한테 얼마나 많이 물어 보는데요~

"이번에 차 사는데 OO차 쓰는 남자는 여자 눈에 어떻게 보이냐? XX차는 어떻게 보이냐? △△차는 타보니 어떠냐?"하고요.

맞아요. 이번 달도 이 BMW 기사 나가고 나면 저도 한 동안 폐북 메신저로 3시리즈 얘기만 받아줘야 할 걸요? 하아... 공부해야겠다.

안나씨도 그랬구나. 참, 누가 저보고 자동차 시승기 제가 써도 재밌겠다고요. <철저히 여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BMW 3시리즈> 어떠요?

오, 좋다. 나라면 <극강 연비로 실속은 챙기고, 스타일은 마초적인 상남자> 콘셉트로 320d를 써 볼래요!

이... 이봐... 자네들, 내 밥그릇은 좀 봐 주게. 등심 좋아한다고 했나? 🍴

하악...하악...



초심자를 위한 자동차 읽는 법

휘발유 차 vs. 경유차

"오빠 차 기름 없길래 내가 채웠어. 휘발유랑 경유 중에 경유가 싸길래 경유 넣었어. 잘했지?" "....."

경유(DIESEL)	휘발유(GASOLINE)
-연비 효율 높다 (1L로 더 멀리 간다) -1L가격 싸다 ▶ 경유가 경제적!	-연비 효율 낮다 (1L로 가는 거리 짧다) -1L가격 비싸다
온도가 높아야 발화 ▶ 겨울철 시동 잘 걸림 ▶ 연소 속도가 느림 ▶ 엔진 느리게 회전 (저RPM=마력이 낮다) ▶ 고속 주행에 불리	낮은 온도에서도 발화 ▶ 겨울철 시동 잘 걸림 ▶ 연소 속도가 빠름 ▶ 엔진 빠르게 회전 (고RPM=마력이 높다) ▶ 고속 주행에 유리 (스포츠 카)
잘 연소하지 않으나 일단 연소되면 센 힘이 나옴 (=토크가 높다) ▶ 힘이 세야 하는 장비에 적합 (트럭, 중장비, 버스) ▶ 힘이 세므로 정지 상태에서의 가속력 높음 ▶ 오프로드에서 유리 (SUV)	빠르게 연소하나 연소시 발생하는 힘이 약함 (=토크가 낮다) ▶ 힘 세야 하는 장비에 부적합 ▶ 힘이 약하므로 정지 상태에서의 가속력 낮음 ▶ 오프로드에서 불리
진동이 크고 시끄럽다 ▶ 승차감이 나쁘다	진동이 적고 조용하다 ▶ 승차감이 좋다 (고급 세단, 승용차)



SPEC CHECK

배기량
1,995cc

엔진
직렬 4기통

연료 종류

복합 연비
18.5k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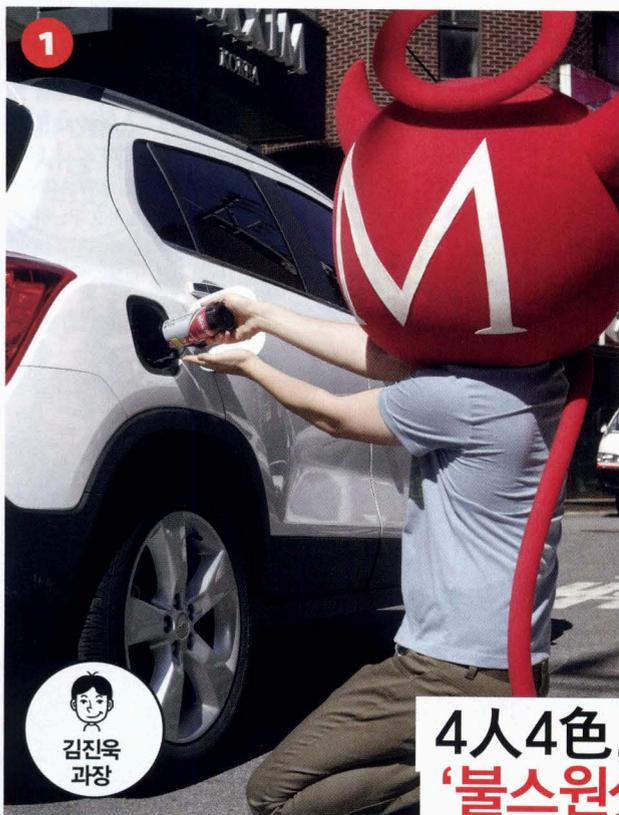
최대 출력
184마력

승차 인원
5인승

구동 방식
뒷바퀴 굴림

변속
자동 8단

최대 토크
38.8kg.m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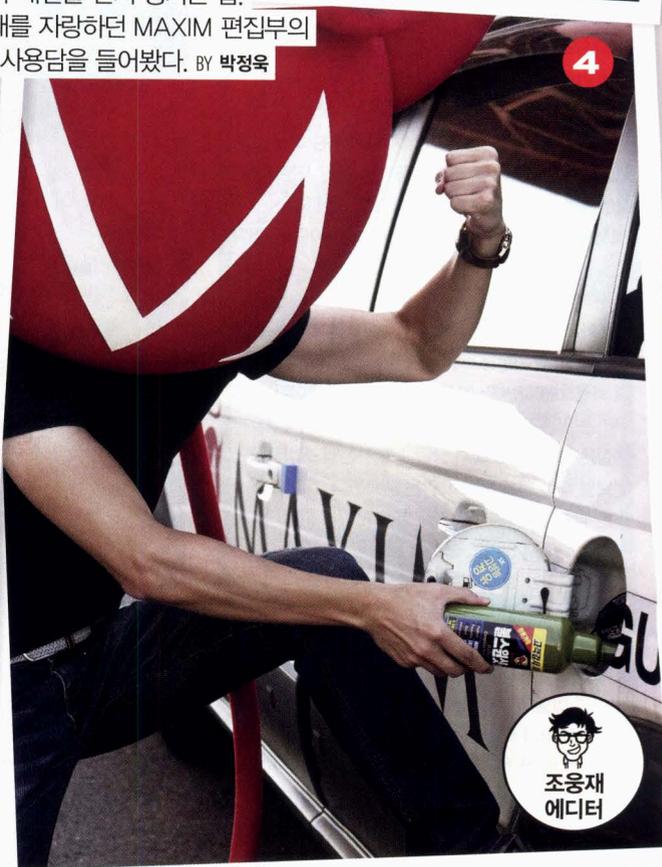


4人4色, 에디터의 '불스원샷' 체험기

진정한 남자라면 겉모습보다 내실을 먼저 챙기는 법!
 평소 자동차도, 마음도 시꺼먼 속내를 자랑하던 MAXIM 편집부의
 드라이버 네 명에게 불스원샷 사용담을 들어봤다. BY 박정욱



3



4



1 볼스원샷 New Car



진즉 과장님 또 세차하세요? 차 닦겠네요.
 니가 새 차를 뽑은 마음을 알아? 차는 아까는 만큼 새 차 상태가 쪽 간다고 나 참, 차와 여자는 닳을수록 섹시한 법인데...
 그래서 넌 꼭 니 차 같은 여자를 만나는 거야. 어이쿠, 여기 또 먼지가 붙었네! 껍데기만 광내봤자 소용 없어요. 아무리 새 차라도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엔진엔 이미 때가 쌓인대요. 속은 이미 현 차라고요.
 아놔, 이거 어디 족보도 없는 신입이 혼수질이야? 내가 아마추어로 보여? 안 그래도 엔진이 신경 쓰여 이것저것 써보다가 지금은 볼스원샷 New Car로 관리하고 있어.
New Car? 그게 뭐예요? 새로 나온 건가?

자식, 아직 멀었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최적화된 볼스원샷이래. 나의 애마 같은 새 차에 딱 어울리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물론 너의 걸레 같은 풍차와는 무관한 얘기가.

새 차 엔진을 뭘 어떻게 다르게 보호해주는대요?

가솔린 엔진에는 마찰 저감제 성분이 실린더를 코팅하는 효과를 준대. 너 회사 때마다 위벽을 코팅한다고 여명 같은 거 쳐묵쳐묵 하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야. 디젤용은 유활성 향상제 성분이 인젝터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엔진을 보호한대.

볼스원샷 New Car를 넣으니까 좀 다른 게 느껴져요?

새 차 상태가 오래 유지된다는 느낌이야. 지금도 처음 출고됐던 그 날 탔던 새 차 느낌 그대로지.

2 볼스원샷



안나 선배! 회사 차 주유구에다 뭐하는 거예요? 설마 기름 빼내서 팔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좀 닳쳐줄래? 난 지금 회사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야. 그것도 2 대 1로.

엇? 선배도 볼스원샷 넣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 차인 모닝과 스파크 연비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애사심을 발휘해서 엔진 때를 벗기는 중이지.

역시 원가를 벗기는 중이었군요! 확실하 요즘 연료 게이지가 똑똑 떨어진다 싶었는데...

하지만 회사 차가 다 그렇죠 뭐. 안 그래요?

그게 다 너 같이 난폭 운전하는 에디터들 때문이야. 엔진이 남아나겠어? 그래도 이렇게 볼스원샷으로 엔진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면 에디터들 안전도 챙기지, 배기가스를 줄여 환경도 보호하지, 연비 향상으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나 나라 경제 살림에 보탬이 되지, 볼스원샷이 바로 애사와 애국의 멀티태스킹 아니겠어?

연료 첨가제가 엔진에 좋다고 하는 거 순전히 플라시보 효과 같은데...

모르는 소리야. 독일 TÜV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던데 뭘. 개네가 좀 간간하니? 게다가 오래된 우리 집 차에 넣어봤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오래된 차도 이제 에어컨 켜고 오르막길을 오를 수 있다고!

기름값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사장이 좋아하겠네요.

이런 게 다 사회 생활 비결이다. 좀 보고 배워. 사장님 곧 나오실 시간이야. 비켜.

3 볼스원샷 Premium



승민 선배! 저 여자 만나게 스포츠카 좀 빌려줘요!

너는 염치나 면목은 먼저 빌려야 할 것 같은데? 여자랑 차는 원래 빌려주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여자를 나한테 빌려주던지.

쫘! 제발요, 저 비싼 수입차 끈다고 했던 말이에요.

그럼 조건이 있어. 돌아올 때 기름 만병에 볼스원샷 Premium을 넣어.

볼스원샷에 Premium이 따로 있어요?

차 값이 얼마데 같은 걸 넣을 수 있네!

이 차 사고 연료 첨가제 같은 거 넣어도 되나 고민했는데 이젠 그런 고민 안 한다.

어때요? Premium다운 효과가 있어요?

서비스 센터에 물어봤더니 처음엔 그런 거 안 넣어도 된다는 식으로 허세를

부리더라고? 하지만 차가 조금씩 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볼스원샷 Premium을 넣어 봤지. 이걸 넣으니까 출력도 연비도 확실히 더 좋아졌어.

승차감부터 달라지겠는데요?

조수석에 탄 사람이 먼저 효과를 알아보던데? 난 변한 게 없는데 운전이 부드러워졌대.

혹시 엔진 소리도 더 좋아져요?

물론이지. 또 이런 스포츠 쿠페에는 사운드가 생명 아니겠냐? 잔 소음은 줄고 배기음은 더 경쾌해졌지. 여자들이 환장해.

오옷, 그럼 돌려드릴 때 말고 가져가는 길에 넣어야겠군요!

4 볼스원샷 Pro



웅재 선배, 오늘 촬영 이 차 타고 가요? 지옥형 급행열차 같이 불안전해요. 저 유서 좀 쓰고 출발할게요.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든지...

입사 10년 차 로디우스를 깔보지 마. 맥심의 역사를 함께한 대선배라고! 모르긴 몰라도 우리 회사에서 짬 순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걸? 그런데 너무 걱정 마! 얼마 전에 정비소 갔을 때 볼스원샷 한 방 놔줬거든.

10년 묵은 엔진 때가 쉽게 빠지겠어요?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알아봤는데 정비소에서 쓰는 전문가용 엔진

첨가제가 있더라고 볼스원샷 Pro라고 알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게 오래된 차 때 빼는 데 직빵이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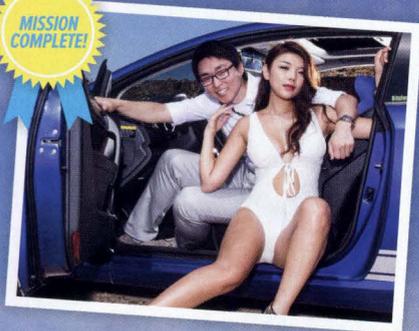
일반 볼스원샷이랑 뭐가 다른대요?

볼스원샷 Pro는 전문가용 제품이라 일반 활인점에서는 구할 수 없어. 전문가가 처방을 받고 사용하는 거지. 세정력도 뛰어난. 일반 제품보다 휘발유용은 2배, 경유용은 3배 뛰어난 세정력을 자랑한다고.

어때요? 효과가 좀 있어요?

물론! 차가 너무 잘 나가고 소음도 줄어든다니까 촬영 가는 길이 훨씬 즐거워. 난 정비소에서는 항상 비싸지만 하고 이름 모를 수입 첨가제만 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전문가도 볼스원샷 Pro를 권하더라고. 단, 잊지 마. 볼스원샷 Pro는 꼭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

Motor / This Is My Car



정두영 / 29세, 현대자동차 연구원
 활동 중인 동호회: CTM(Car Talk Meeting) 운영진
 내 차 애칭: 푸르딩
 추천 드라이브 코스: 제주도 해안 도로
 드림카: 이상은 포르쉐 911.
 하지만 현실은 박스터나 카이맨.



“파란색과 은색이 조화를 이루는 스포일러를 달았다. 원래 스포일러는 고속 주행 시 차체가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능도 기능이지만 간지 넘치는 스포츠 쿠페라면 당연히 하나 있어야겠지?”



독자의 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
This is My Car



맥시 스타프
항시 대기!



오너드라이버 독자를 위한 특급 이벤트는 계속된다. MAXIM 화보로 당신의 애마에게 지상 최고의 호강을 시켜줘라!

“타 본 중에 제일 좋은차는 뭐예요?”

지난 5년간 수십 종의 신차를 시승해 온 MAXIM의 자동차 전문 에디터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바로 ‘내 차’입니다.



배기량, 최고속도, 마력 등... 수많은 기준을 놓고 서로 최고의 차라며 떠들어대지만 ‘내 차’라는 특별한 존재 앞에선 모두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다. 나와 함께 울고 웃고, 수많은 추억을 담고 달리는 ‘내 차’. 심지어 나를 먹여살리는 것도 ‘내 차’ 뿐이니까. 이 화보의 주인공은 여느 자동차 잡지처럼, 자동차 회사의 신차 홍보를 위해 제공된 ‘남의 차’가 아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실 새 없이 달려준 바로 ‘당신의 차’다.

MISS MAXIM을 만나!

잡지로만 만났던 미스맥시를 양팔에 끼고 잊을 수 없는 기념 촬영을! 간직해 뒀다가 아들에게 보여줘라.

당신의 차를 MAXIM 화보에!

레이싱걸을 거느린 모터쇼 슈퍼카처럼! MAXIM에 매거진에 영원히 남겨주마.

당신의 자동차를 전국에 뽐내라!

튜닝하고 꾸민 당신의 자동차를 자랑해라!

이게 정말 내 차 맞아?!

최고 수준의 MAXIM 포토그래퍼, 조명팀, 에디터가 당신의 차를 멋진 화보로 남긴다!

덤으로 1년 정기 구독까지!

차가 공짜 구독 혜택도 안겨준다. 당신의 애마가 실린 호가 MAXIM정기 구독 첫 권!

응모 요령

- 당신의 자동차를 직접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 당신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차종(모델명)/ 구입연도도 적어라.
- 메일 보낼 곳:
event@maximkorea.net

당첨 확률을 높이는 Tip

- 당신 차에 얽힌 재미진 사연을 적으면 더 유리하다.
- 안전한 차보다는 당신만의 개성으로 튜닝한 차가 더 유리하다. 갓 뽐은 새 차라면 튜닝 안 해도 된다.
- 같은 차를 모는 동호회 친구가 있다면 함께 신청해도 좋다.

당신의 드림★카는 뭔가요?

남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동차가 있다. 스타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MAXIM이 만난 스타들이 고백한 그들의 드림 카를 소개한다. 하... 이렇게 눈은 높아만 가고...



1 **김진표**
포르쉐 964 / 단종

"좋다는 차는 다 타봤더니 요즘에는 오래된 것에 시선이 간다. 오래된 차를 내 손으로 갖고 닦으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매력적이다. 내 드림 카는 지금 몰고 있는 포르쉐 964다."

 클래식 포르쉐 마니아 사이에서 최고의 수집품으로 꼽힌다. 영화 <나쁜 녀석들>에서도 주인공의 차로 등장해 악당의 '헬비 코브라'와 스피드 대결을 하는 유명한 추격 신에 사용되기도 했다.

Celeb Owner: 김진표



2 **장우혁**
로버 미니 / 단종

"드림 카는 이미 타고 있는 로버 미니다. 나중에 아들한테 차를 물려주는 게 꿈이다. 지금은 고치고 업그레이드하고 바퀴도 갈면서 탄다. 돈은 많이 들지만 그래도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다."

 영국의 명품 코미디 <미스터 빈>에서 주인공 로언 앳킨슨이 타고 다니는 작고 귀여운 차. '로버 미니 붐'의 도화선이 된 그는 로버 미니와는 전혀 안 어울리는 자신의 애마 '맥라렌 F1'을 몰다가 큰 사고를 겪은 바 있다.

Celeb Owner: 존 레넌, 폴 스미스



1 **유지**
포드 머스탱 / 4,200만 원

"머스탱 코브라가 드림 카다. 생긴 게 나랑 잘 어울리지 않나? 디자인이 딱 내 취향이다. 탱크 갈기도 하고, 날렵한 표범 갈기도 한 느낌!"

 명차의 향연을 보여준 니컬러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 <식스티세컨즈>에서 주인공 랜달의 차, 시리즈물 <전격 Z작전>에서 주인공이 손목시계에 대고 "키트 도와쥬"라고 외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차가 바로 미국 머슬 카의 정석, 포드 머스탱이다.

Celeb Owner: 빌 클린턴, 에미넴



1 **주석**
롤스로이스 팬텀 / 7억 5,000만 원

"롤스로이스 팬텀을 타고 싶다. 명색이 드림 카인데, 비싼 차로 말해야 좀 보여 보이지 않겠나? 직접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 롤스로이스 팬텀을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 좀 웃기려나? 기사를 두고 난 뒷자리에 타야겠다."

 손님을 엄격하게 고르는 차로 유명하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정숙하지 못해 이혼했다는 이유로 롤스로이스 구매를 거절당했다는 일화가 있다. 하지만 BMW 그룹이 인수하면서 시장경제에 물들었는지 이제는 손님을 안 가린다고 한다.

Celeb Owner: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사유리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1억 6,000만~2억 원

"까말고 체격이 큰 남자들이 몰고 다니는 차를 갖고 싶다. 포르쉐 같은 차는 개구리같이 생겨서 안 좋아한다. 큰 차가 좋다. 트럭이나 버스 같은 거 몰고 싶다."



할리우드 스타의 파파라치 샷 단골손님. 비운세와 제이지 커를,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의 파파라치 샷에 자주 등장했다. 팝 스타 저스틴 비버는 레인지로버를 몰고 시내에서 144km로 달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이민정이 자신의 레인지로버 이보크에서 이병헌과 데이트하다가 파파라치 사진에 찍혔다.

Celeb Owner: 데이비드 베컴, 하인즈 워드



구준엽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5억 7,500만 원

"지금 몰고 있는 차는 레인지로버다. SUV를 몰다 보니 가끔 스포츠카도 몰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더 늙기 전에 슈퍼카 한 번 몰아봐야 하지 않겠나?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정도면 좋겠다."



고담 시의 백만장자 브루스 웨인(베트맨)의 애마다. <다크나이트>에서 몰던 무르시엘라고 LP640가 박살나자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는 아벤타도르를 새로 뽑았다. 역시 쿨한 형이지?

Celeb Owner: 한화 김태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구지성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 1억 2,000만 원

"원래 내가 좋아하는 차가 다 SUV다. 그런 스타일의 차가 좋다. 남자다운 차 예전엔 허머나 디스커버리가 좋았는데, 요샌 에스컬레이드에 꽂혔다."



2010년 배우 권상우가 뺑소니 사고 당시 도로에 버리고 간 고급 외제 SUV 차량이다. 타이거 우즈가 부인과 과격한 싸움 끝에 집에서 도망가다 가로수를 들이받으며 각종 지지분한 스캔들이 대중에게 알려진 계기가 된 차도 에스컬레이드다.

Celeb Owner: 추신수, 타이거 우즈



샘 해밍턴

허머 H1 / 단종

"미군이 타고 다니던 구형 허머를 사고 싶다. 안이 지지분해도 정리 안 하고 그대로 타고 다닐 거다. 음악 엄청 크게 틀고 이태원 거리를 계속 돌고 또 돌아다녀야지."



<더 록>에서 손 코너리가 샌프란시스코를 질주하던 바로 그 차.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H1의 첫 고객이 된 후 마니아가 됐다. 비싼 외제차를 훔쳐 대도(大盜)의 반열에 오른 개그맨 박한구가 탐내던 차는 신형 H3다.

Celeb Owner: 아널드 슈워제네거(H1), 씨멜(H2)
Wanna be Owner: 박한구(H3)



“욕봤어”



여자들이, 내가 돌아왔다! 이혼의 모든 것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11만 4,300여 쌍이 이혼했다. OECD 국가 중 이혼율이 1위다. 한 해에 30만 쌍 남짓이 결혼한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11만이 넘는 이혼 건수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인지 아젠 우리 주변에서도 돌싱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법률 이슈인 것 치고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한 편이다.



BY Devil's Advocate

대한민국의 현직 변호사로서, 국내 굴지의 로펌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 6년간 MAXIM을 구독하던 중, 2013년부터 MAXIM 객원 에디터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 이혼, 내 맘대로 할 수 있나?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이혼도 혼자서 맘대로 할 수 없다. 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 양 당사자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만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가정법원에서 확인 받아 이혼 신고까지 마쳐야만 비로소 남남이 된다.

한편,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도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양 당사자를 앉혀놓고 상담을 해 주기도 한다. 바로 우리가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 보는 장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굳건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에도 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혼을 확정지을 때까지 시간을 좀 줄테니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다. <사랑과 전쟁>이 낳은 최대의 유행어 신구 아저씨의 “4주 후에 뵙겠습니다.”가 바로 그 말이다. 지금은 민법 제836조의 2에 따라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부부 사이에 애가 있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3개월이다. 애도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는 거다. 협의상 이혼이란 부부 쌍방의 이혼 의사가 합치하는 거다. 그럼 한 쪽만 이혼을 원하고, 나머지 한 명은 못 헤어져주겠다고 하면 그냥 살아야 하나? 당연히 그건 아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가 없어도 이혼을 할 수 있다. 다만, 협의 없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1993.4.9.92묘938 판결). 간통죄로 기소된 여자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간통 외의 정황만으로도 민법 제840조의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다. 비슷한 판례에서도 남편 아닌 자와 MT에서 둘 다 팬티만 입은 채 섹스를 하기 직전 발각(간통 아님)된 경우(대법원1988.5.24.88묘7), 고령에 중풍으로 성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남자(간통 불능)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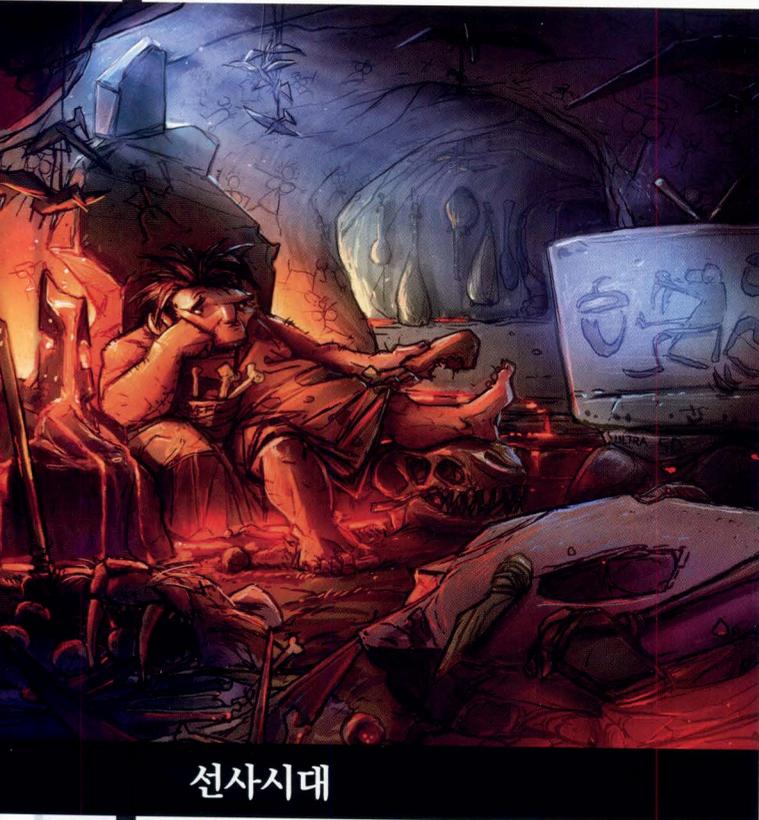
Office Spouse: 오피스 배우자

최근 유행하는 ‘Office Spouse’가 ‘부정한 행위’인지도 관심이 높다. 개념적으로 Office Spouse란 애인 관계이거나, 섹스 파트너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육체적 관계는 아니나, 하루 종일 직장에 함께 있다 보니, 진짜 남편(아내)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며 정신적으로 친밀하고 의지하는 관계다. 섹스까지 하면 Office Spouse고 뭐고 그냥 간통이 되버리니 당연히 ‘부정한 행위’가 되지만,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만 가지고는 ‘부정한 행위’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료로서의 친분을 넘어 야밤에도 지속적으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하고 사적인 만남을 계속 가지는 정도라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겠다.

History
of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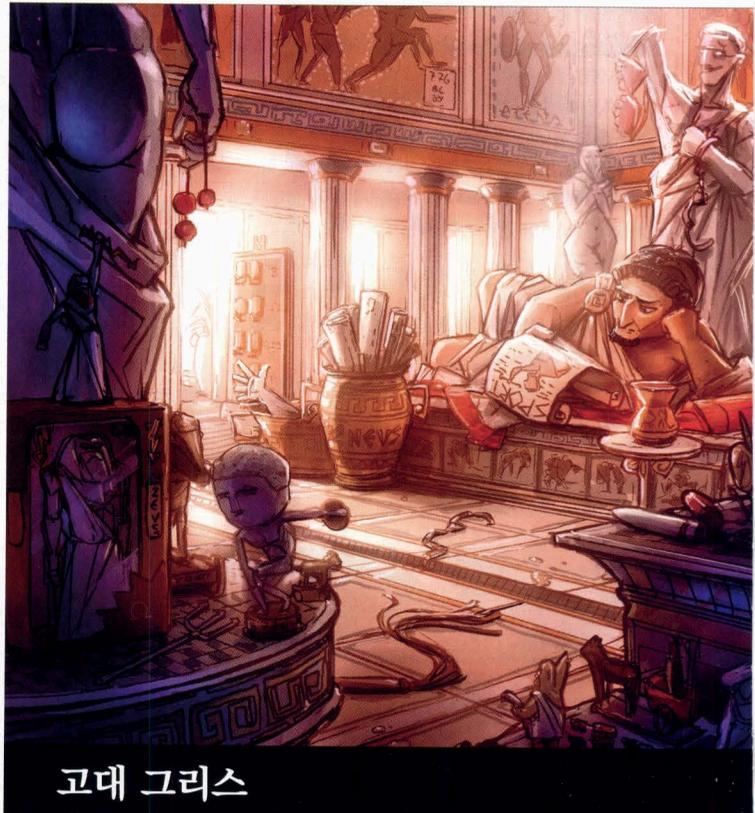
Man

세상 모든 남자에게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하여 '남자의 동굴(Man Cave)', 남자들이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고 꾸미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사시대

인류 최초의 맨 케이브는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선사시대 동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약 80만 년 전 지구에는 '호모 노호모브로(Homo Nohomobro)'라고 불리는 유인원이 살고 있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수컷들은 부락에서 멀리 떨어진 사냥터 근처에 은밀한 동굴을 만들어놓고 특하면 그곳에 쫓박혀 있었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부족 암컷들이 밥 벌어 오라고 바가지를 쉴 새 없이 긁었기 때문인 듯. 재미있는 사실은 호모 노호모브로의 두개골을 복원해보면 남자보다 여자의 안구가 구조적으로 훨씬 더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다. 아마 동굴 속에 처박힌 남자들이 뭘 하는지 궁금해진 암컷들의 눈알이 빠르게 굴러가게 진화한 게 아닐까?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위대한 철학은 조금 특별한 공간에서 태어나기도 했다. '고추방(Testicletoriums)'이라 불린 정교한 맨 케이브는 인간 존재의 의미와 바람직한 여자의 가슴 크기 등에 대한 문제를 사색하기 위한 남성들만의 공간이었다. 이곳에 틀어박혀 있던 남자들이 오랜 사색을 멈추고 가끔씩 고추방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안에서 즐겨 먹던 간식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광장 근처에 있는 시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이렇게 굴 밖으로 나온 철학자들이 마주쳐서 썰전을 벌이다가 발전시킨 것이 당시의 윤리 사상이며, 광장은 철학 토론의 메카가 되었다. 소크라테스가 유난히 광장에 오랫동안 있던 까닭은 약처 크산티페가 그의 맨 케이브를 찾아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전해진다.

Cave

'남자의 동굴'
이라고 해서
이상한 걸 상상한 건
아니겠지?



BY JASON REICH
ILLUSTRATION
MICHAL DZIEKAN

수백, 수천 년 전에도 엄마와 마누라, 여친은 모르는 자신만의 쾌락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남자들이 자기들만의 맨 케이브를 어떤 식으로 가꿔왔는지 볼까?



미국 식민지 시대

건국 초기 미국이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수호자들도 남자의 독립을 위해 그들의 맨 케이브를 만들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미국 헌법의 기초를 다졌으며, 효율적인 청교도 박해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때로는 이곳에서 럼주 파티를 열어서 질펀하게 놀기도 했다. 당대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독립선언서에 첫 번째로 서명한 '존 핸콕'은 고약한 술버릇으로 악명이 높았다. 가장 먼저 팔라가 되는 의원의 얼굴에 자기 거시기를 갖다 대고 "이 거시기가 미국을 독립시킨 거시기에!"라며 서명 퍼포먼스를 하곤 했다고(이후 '쫄 핸콕'이라고 불렸다는 설이 있다). 누가 가장 먼저 집구석에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독립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당시 정치인 중 한 명이 아닐까 싶다.



미래

지구와 화성 사이에 떠 있는 이 맨 케이브에 들어서면 바퀴 없이도 이곳저곳을 날아 이동할 수 있는 최신 구체형 의자가 당신을 맞이한다. 혁신적인 '아이폰25s'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맨 케이브 전체를 제어하자. 'XBOX 36000'으로 'GTA 11'을 가동하면 270인치 3D 홀로그램 모니터를 통해 화면이 흘러나온다. 한창 게임에 열중하다 배가 고프면 맥도날드의 24시간 무인 우주 배달 서비스 '맥스페이스(McSpace)'를 이용하자. 밤이 외롭다면 책상에 쌓여 있는 홀로그램 전단지에서(LCD 가격 대란으로 터치스크린이 종잇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섹스 로봇을 호출할 수도 있다. 지구인들은 '픽시 제트팩'을 타고 다닌다. 브레이크는 역시 별도로 주문해야 한다.

ICON

Attack On Titan!

진격의 초대형 거인

이런 건 왜 맨날 나만 시켜?

BY 조웅재 COOPERATION 학산문화사(02-828-8988),
KODANSHA(www.kodansha.co.jp)



“이번 달 ICON 인터뷰는 역시 거인이제!”



편집장의 그 한 마디는 내 귀를 의심케 했다.

이번엔 <진격의 거인>의 거인과 인터뷰를 하란다
끼리만 까이지. 수화기를 들고 학산문화사에 전화를 걸어
“거인을 섭외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라는 무모한
소리를 해버렸다.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대답이 들려왔다.
“가능은 하지만, 목숨은 보장 못합니다. 가이드도 없을
거고요, 생명보험은 드셨죠?” 학산문화사와 고단사의
도움(?)으로 결국 거인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
그리고 빌어먹을 그 날이 밝았다.
“저기요, 거인 보게 오늘 인터뷰 일정, 전담은 된 거죠?”
“네, 기왕 하는 길에 초대형 거인으로 섭외했어요. 어차피
살아오긴 힘드실 것 같아서.. 입체 기동 장치는 챙기셨죠?”

우와아아아아!! 엄청나게 크대야! 내 말이 들리나아아아아!?

어제 조사병단 놈들이 귀 옆에서 폭음탄을 쓰는 바람에 아직도 귀가 멍멍하다.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주지 않겠나?

크게 얘기하고 있다! 이래도 안 들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가까이 와서 얘기하지 그래?

알았다. 그러로 가기 전에 먼저 당신이 지금 배가 고프지 안 고프지부터 물어보고 싶다. 고프다고 하면 어쩔 건가?

도망가야지. 혹시 1입체 기동 장치 갖고 있으면 하나만 달라. 여기까지 왔는데 허망하게 잡아먹힐 순 없잖아!

배속에 몇 개 있을 거다. 직접 갖고 갈래, 아니면 내가 넣어줄까?

사랑하지.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 근데 인간이 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렇게 먹어대나?

나는 인간을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다른 거인과는 다르다. 저번에 어쩌다 헌병단 놈들을 우연히 입에 넣은 적이 있는데, 술 냄새가 어찌나 나던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술을 얼마나 처먹어댄 건지 모르겠다. 이래서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겠네!

나라 파괴자인 당신이 나라 걱정을 하다니, 몹시 아이러니하군.

초등학교 때 당신이 맨날 괴롭히던 단짝 친구가 갑자기 전학을 갔다고 생각해봐라. 슬프지 않나?

왜 인간적인 비유인데?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건가? 아니, 괴롭힐 사람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말이다.

본격적으로 만화 해볼까. 요즘 한국에서 <진격의 거인>이 열풍인 건 알고 있나?

전혀 몰랐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학산문화사 측에서 “너 요즘 인기 쩐다”라고 하길래 소식을 듣고 맘 설레며 검색해봤더니 ‘거인’이 열풍이 아니라 ‘진격의’라는 말이 유행이더라. 헛!

아쉬워하기는... 당신 역시 단행본을 사서 보나?

아하하(찌렁찌렁) 인간들이 보는 아이맥스 영화관도 내게는 DMB만 하게 보이는데, 고 쪼꼬만 책이 보일 것 같은가?

내 생각이 짧았다. 본격적으로 데뷔 시절 얘기를 좀 해보자. 처음 작품에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나?

일단 나는 첫 권부터 내가 단행본 표지 모델로 나온다가에 신나서 출연 요청에 OK했지. 근데 막상 작가 하지메 이사이마가 신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내 비중이 크지 않아 솔직히 조금 실망했다.

그래도 1권에 등장해 절대로 뿔리지 않을 것 같은 두꺼운 방벽을 부순 당신의 임팩트는 대단했다!

당연하지! 베컴의 프리킥보다 더 세계 찻는데! 아직도 엄지발가락이 얼얼하다. 하지만 구멍을 뚫었을 땀 나조차 깜짝 놀랐다. 그렇게 쉽게 뚫릴 줄 몰랐거든. 국방력이 이렇게 허술해서!

발차기의 위력이 수준급이다. 조인트 까는 느낌에 가깝긴 하지만 말이다.

말도 마라. 내 친구들도 뭔가 잘못했다 싶으면 내 앞에서 정강이부터 가릴 정도다.

“

큰 남자야말로 진정한 남자다.

”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작품 속에서 제일 많이 까이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은 없었나?

어디 한번 까보라 그래. 한 번 더 까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어차피 약당이 될 거면 제일 나쁜 놈이 되라” 하셨지. 임팩트 있잖아? 게다가 나보다 작은 다른 거인들이 뒷목 잡고 픽픽 쓰러지는 판에 나 정도면 존재감도 괜찮은 편이고.

자신감이 대단하다! 평소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하나? 밤마다 성곽에 다리 올리고 푸시업도 하고, 조그마한 거인을 아령 삼아 팔운동도 한다. 6m짜리로 한 시간, 15m짜리로 두 시간. 이게 쉽게 나오는 근육이 아니다! 피부는 군데군데 없지만 가끔씩 관리도 받는다.

자기 관리가 무척 프로답다. 하지만 첫 등장 이후에는 거의 가름에 중 나트 등장한다. 표지 외에는...

클릭클릭하게 작품에 나온 건 두세 번밖에 안 된다. 근데 만약 내가 매회 등장했다면 2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미 존나 옛날에 끝났어. 그럼 너무 시시하잖아. 연재분도 더 안 나올걸? 배드 엔딩으로 끝나서 다들 실망할지도 몰라.

그래도 11권에서는 당신의 비중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작가한테 “이렇게 계속 찬밥 신세로 둘 거면 처음부터 차라리 3월복숭이 거인을 밀지 그랬느냐”며 엄청 따졌지. “그 새끼는 말도 하잖아! 잘됐구먼!” 이랬더니 작가가 사정사정하면서 “이번엔 꼭 출연시켜줄게!”라고 하더라. 결국 최근에 날뛰는 장면이 나오긴 했다. 11권에서는 상반신만 나왔지만... 역시 마케팅 인지도는 무시 못 한다니까.

혹시나 해서 조심스레 묻는 말인데, 당신의 정체를 언급해도 괜찮은가?

미안하지만 그건 좀 자제했으면 한다. 판매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

알겠다. 덩치는 커서 엄살은... 이제 <진격의 거인>에 등장하는 여자 출연진 중 실물이 가장 예쁜 캐릭터를 좀 꼽아달라.

MAXIM이라고 했던가? 역시 소문담게 이만 질문이 들어올 줄 알았다. 내가 먼저 묻고 싶었는데, 그러는 당신은 누가 가장 예쁘던가?

나는 주인공 엘런 예거의 소꿉친구인 미카사짱을! 딱 봐도 히로인 급 미모 아닌가!

아직 어리구먼! 깔깔(찌렁찌렁) 배에 왕(王)자 있는 여자가 당신 취향인가? 아니면 아직 어려서 얼굴만 보는 건가? 잘 보면 근육쟁이인 나보다 그 여자 복근이 더 쩐다. 이쪽 세계에서 그 여자는 거의 마녀 급이야. 무서운 여자지.

모르는 소리 마라. 복근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섹시한데! 아무튼 그래서 누가 가장 이쁘냐는 말이다. 아... 솔직히 꼽기 좀 부끄러운데, 굳이 꼽아야 하나?

당신의 시벨건 근육이 더 별개질 지경이다. 안 어울리게 부끄러워 말고 남자답게 딱 집어달라. 애니 레온하트가 가장 예쁘더라. 원래 키 큰 남성들이 키 작은 여자 좋아한다는 말도 있잖나. 게다가 웬지 모르게 금발에 대한 환상이... 아, 페티시는 아니다.

1 입체 기동 장치

거인을 처치하는 '조사병단' 병사들이 거인의 약점인 목덜미에 다가가기 위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장치. 가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충분히 충전해두어야 한다.

2 생존 구역(월 시나, 월 로제)

100년 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거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방벽인 월 시나, 월 로제. 월 마리아 중 살아남은 안쪽 두 구역을 말한다. 월 마리아는 현재 함락된 상태.

3 털복숭이 거인

단행본 9권에서 실체를 드러낸 수수께끼의 거인. 병신 같은 얼굴의 엑스트라급 거인과는 포스부터 다르다. 향후 스토리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엘런 예거

키 170cm 몸무게 63kg
생일 3월 30일

〈진격의 거인〉의 남자 주인공.
어릴 적 거인에게 어머니를 잃고
복수를 위해 조사병단에 가입한다.



초대형 거인

키 60m
몸무게 불명
생년월일 불명

데뷔작 〈진격의 거인〉 1권

특기 조인트 까기

매력 포인트

- 시원한 살인 미소(진짜 '살인' 미소)
- 기분을 파악할 수 없는 표정
- 보디빌더 뺨치는 근육(피부가 없어서 잘 보인다)



근데 그분은 엘런 예거한테 마음이 있는 듯싶는데? 그것 땀에 요즘 뻘쳐서 벽이나 한 번 더 차려 갈까 생각 중이다. 가끔 엘런 앞에서만 유난히 여성스러운 척하는 게 보이거든. 근육 찢지, 치열도 고르지, 내가 그놈보다 못한 게 뭐야? 게다가 난 존나 크잖아. 60m 라고. 엘런이 주인공이라고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야?

너무 열내지 마라. 당신이 뿜어대는 증기 때문에 내 몸이 녹을 것 같으니 조금만 참아달라.

무슨 증기? 아, 이 ⁴허연 연기 말인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들 뜨겁다고 하더라. 예전에 누군가도 거인 시체 잘못 만졌다가 손병신이 될 뻔했다며.

나중에 우리가 애니 레온하트를 불러서 색시 화보라도 촬영한다면 어떻게?

일단 일정이 잡히고 나면 나에게 귀땀해주기 바란다.

어쩌려고? 몰래 와서 구경이라도 하려고?

구경이라니... 발가락만 들이밀어도 촬영장 문이 와장창 부서질 거다. 아, 방법이 있구나. 천장을 들어낸단다.

미안하지만 없던 일로 하자. 혹시 번식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도 되나?

나한테 그걸 묻기 전에 작가한테 ⁴여성형 거인이나 좀 더 출연시키라고 독촉해라. 이게 <진격의 거인> 인지 <진격의 군인>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아하! 그래서 인간 여자를 보고 예쁘다는 감정이 드는 건가? 이해가 되네.

아니 뭐, 개새끼도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가릴 줄 아는데 새삼스레...

작품에 안 나올 땐 대체로 어디에 팽박혀 있나?

지난번 여성형 거인 출연 사건만 봐도 알겠지만, 그 숲에도 여럿 팽박혀 있다. 다들 좋아하는 곳이 달라서, 어떤 놈은 100년째 성벽... 아, 아니다.

방금 뭐가 말하러다 말았지? 무슨 얘기인가?

아니다.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하겠다. 판매는 중요하니까.

뒷덜미가 약점이라고 들었는데, 대체 여기에 뭐가 있길래 스쳐도 사망인가?

어허(찌렁찌렁) 조심해라! 어딜 만지려고! 당신이 지금 한 말이 ⁴등짝을 보자와 다를 게 뭐야? 새가 목덜미로 스치기만 해도 움찔움찔하는데 말이야.

미안하다. 진정한 당신의 '거시기'는 어쩌면 목덜미일지도 모르겠군.

그렇게 말하니 참 거시기하군. 그렇다고 성감대는 아니니 오해하지 마라.

'거시기' 얘기가 또 나와서 말인데, 솔직히 보기 좀 불편하다. 옷 좀 입어줄 수 없나? 하이라도...

없는 사람한테 해도해도 너무 한 거 아닌가! 당신네가 이만한 정장이라도 한 벌 맞춰 주던가. 어차피 입자마자 타버리겠지만...

다른 거인에게 없는 당신만의 매력이라면 뭘까?

사람들이 '거인'을 생각하면 굉장히 불쾌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예컨대 우리 작품에 나오든, 배 나오고 팔다리 짧은 돼지 같은 녀석들 말이다. 오래 나와도 미관상 좋을 게 없잖아. 비주얼 소크니까. 그래서 나오자마자 뒷부 부어잡고 쓰러지는거다. 하지만 나는 외형 자체가 전부 근육이다. 이 점이 끔찍하면서도 매력적이었는지 사람들이 은근히 좋아하던.

개인적으로는 세계 유명 전시회 <인체의 신비展>을 보는 기분이다. 당신, 장조림 같아.

너도 똑같다. 보아하니 평소엔 운동도 잘 안 하는 몸처럼 생겼는데, 벗겨놓으면 돼지 거인이랑 별다를 게 없어 보이네.

나도 당신처럼 매일 밤 욕조에 발 물리고 무시업 한다. 무시하지 마라.

그래? 그것 참 부럽네. 아, 욕조가 있다는 게 말이야.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 노출된 근육 덕에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얘기가.

그렇다면 당신도 인기를 몰소 체감하고 있나?

인간들이 들고 다니는 <진격의 거인> 상품마다 죄다 내 얼굴이 박혀 있더라고. 자랑은 아니지만 팬북에서 실사한 '거인 부문' 인기 투표에서도 당당하게 1위에 올랐고, 허허, 뭐 그렇다고.

당신을 캐릭터로 상품화한 제품 중 가장 인상적인 게 있다면?

열쇠고리? 얼마 전에 열 살짜리 꼬마가 가사본(뽑기 기계)에서 초대형 거인의 SD 캐릭터(머리가 유난히 큰 2등신 캐릭터) 열쇠고리를 뽑고는 그렇게 좋아하더라. 하지만 옆에 있던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어유~ 징그러워. 그런 게 뭐가 좋다고 그러니!"라며 분위기를 깨는 바람에 기분이 상했다. 젠장, 남자 외모부터 보는 건 인간 여자들도 마찬가지라니까.

당신의 외모뿐 아니라 지능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엘런 예거는 이미 그 점을 눈치챈 것 같은데?

뒤뚱뒤뚱 달리며 쳐묵하기만 하는 저능아 거인들과 나를 비교하면 서운하지. 게다가 신체 조건도 그들보다 우월하니까. 나 역시 예전에 엘런과 대결할 때 방벽 위 고정포가 귀찮아 보이길래 먼저 박살냈더니 그 자식 눈빛이 달라지는 걸 눈치챈다. '이 새끼, 똑똑한데?'라는 눈빛이었을까? 아, 내가 맘만 먹으면 성벽 따위는 진작에 부숴다니깐.

그리고 보니, 당신 지금 한국어도 알아듣고 있다.

존스럽게 뭘 놀라나. 내가 근육투성이라 뇌까지 근육일 것 같은가?

미안, 사실 그런 줄 알았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남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큰' 남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가?

간단하고 명확한 정의와 자백이 어우러진 최고의 대사다! 당신 같은 남자라면 최고의 미녀들인

MISS MAXIM과 함께 촬영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애니보다 예쁜가?

지금 당장 보여주지. (잡지를 펴서 보여주며)이렇게 생겼!

유취! 다음 주부터 조금 한가하다. 이제 애니메이션도 종영을 앞두고 있으니까. 작가에게 잠깐 피부라도 좀 입자고 졸라볼까? 머리도 심어야 하는데, 요즘 근육 주름도 좀 늘었고...

갑자기 적극적이기는... 마지막으로 MAXIM 독자에게 한마디해달라.

처음엔 MAXIM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다기에 다른 거인 만화에 우정 출연 같은 걸 하는 건가 싶었다. 이름도 맥심(MAXIM)이라니까 왠지 큰 뭔가가 나올 것 같고(그리고 거인은 귀찮달로 "아, 근데 큰 가슴이 나오긴 하더라고, 꺾꺾"이라 말했다). 근데 나를 인터뷰한다는 미친 생각을 한 걸로 보아 평범한 잡지는 아니겠구나 싶었다. 이왕 나오는 거, 많이들 봐줬으면 한다. 더불어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우리 <진격의 거인>도 꾸준히 사랑해주기 바란다. 계속 말하지만 판매는 중요하니까!

그리고 거인은 평음을 동반한 엄청난 증기를 내뿜으며 사라졌다. 그의 마지막 한 마디 "판매는 중요하니까"라는 말이 그의 웃음소리와 함께 메아리칠 뿐이었다...⁵

4 증기(허연 연기)

근육이 드러난 거인의 시신은 고열을 내며 뜨거운 증기를 뿜는다. 인터뷰 속 초대형 거인은 근육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증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온다.

5 여성형 거인

일반적인 남성 고자형 거인과 달리 남다른 S라인을 자랑하는 거인. 여태껏 작품에서 이렇듯 '대놓고 여성형' 거인은 단 한 명만 등장했다. 그 실체는 과연...?

6 등짝을 보자

만화(베르세르크)에서 어린 시절의 주인공 가츠가 도노반에게 겁탈당할 때 도노반이 말하는 대사. "등짝! 등짝을 보자!"



진격의 거인

이사이야마 하지메 / 학산문화사

일본 만화 작가 이사이야마 하지메의 데뷔작.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별책 소년 매거진>에 연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뒤늦은 2011년 2월부터 학산문화사가 출간 중이다. 2013년 5월에는 우리나라에서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며 일본 현지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에 '진격의'라는 단어 역시 온갖 미디어 속에서 드림에 사용하며 올 상반기 최고의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스토리

거인의 공격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인류는 거대한 방벽 안에서 숨어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초대형 거인이 나타나 남쪽 방벽의 문을 파괴하고, 비집고 들어온 거인들을 정예 병사인 '조사병단'이 가까스로 물리치지만 인류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최강의 정예 부대, 조사병단과 거인 간의 피 튀는 혈전을 그린 초대형 스케일의 판타지!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 TV 방영:

애니플러스에서 10월 3일부터
매주 목·금요일 새벽 01:00~02:00

다시 보기: www.aniplustv.com

육... 육포?

2013 '진격의 00' BEST 3!

올 한 해는 '진격의' 열풍으로 뜨거웠다.

진격의 아빠

네이버 인기 웹툰 <마음의 소리>에 등장한 패러디. 치킨집을 운영하는 주인공 조석의 아버지가 맞은편에 개업한 라이벌 가게와 열띤 이벤트 열전을 벌이다 거대 죽마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하루종일 동네를 누비고 다니는 이야기.



진격의 장미칼

무엇이든 썰어버린다는 홀쇼핑의 올 상반기 최대 이슈 상품 장미칼과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을 적절히 조합해 만든 패러디. "초대형 거인도 문제없이 쓱쓱~"이라는 문구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나 뭐라나...



진격의 맥도날드

2013년 5월경 인터넷을 강타한 호러+황당 사진. 건물 벽에 붙어 있던 맥도날드의 마스크트 로널드 풍선이 허리가 꺾여 엎어지는 바람에 매장 창문 안을 거꾸로 서서 들여다보는 형상이 되었다고, 이런 날 해피밀을 먹으면 입체 기동 장치라도 주는 건가? 두근두근!



The Voice *and* The Body

팝 음악의 아이콘인 그녀가 *〈The Voice〉의 코치로 돌아왔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핫하다! 이것으로 세 번째 MAXIM 표지를 장식한
섹시 여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매력에 빠져보자..

BY DAN BOVA
PHOTOGRAPH MARK LIDDELL



〈더 보이스〉: 진표 형님이 진행하던 〈보이스 코리아〉의 미국판으로, 9월 23일 시즌 5가 시작된다. 이번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와 시 로 그린 등 쟁쟁한 뮤지션이 코치가 되어 미국 노래쟁이를 발굴할 예정.





이름만 듣고도 누군지 알 정도의 가수는 정말 드물다. 스팅썸은 돼야 그런 말을 듣는다. 하지만 스팅 아제의 섹시 화보를 찍는 건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니므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티나'를 다시 모시기로 했다. 그렇다. MAXIM 역사상 세 번째로 커버를 빛낸 그녀! 업계 최고의 풀성대와 정신을 흥미하게 만드는 마력을 지닌 여가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전보다 더욱 섹시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서른둘의 그녀는 지금 커리어의 정점에 서 있다. <The Voice> 새 시즌에 코치와 심사 위원으로 출연하며, 최근 'Unforgettable' 이란 이름의 향수를 출시한 그녀는 심지어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대사 자격으로 르완다까지 날아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바쁜 일정에도 짬을 내서 우리에게 '크리스티나 공략법'을 친절히 알려주기까지! (힌트: 먹는 것과 관련 있다.)

영상은 더 황홀해



MAXIM 표지 모델로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이번 촬영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마워요. 돌아오니 흥분되네요! 인생의 현 시점에선 모든 게 저의 섹시함을 기념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전 단 한 번도 제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춘 적이 없어요.

그거 '올해의 명대사' 감인데요?

그런가요. 첫 MAXIM 커버 촬영은 스물한 살쯤이었죠? 매사에 성공했고, 저만의 틀에서 벗어나 독립심을 시험해보려던 때였어요. 두 번째 MAXIM 커버는 그로부터 2년 뒤였죠. 그리고 지금은 전보다 더 제 자신에게 편안해졌어요. 내년의 크리스티나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풀어두니 정말 기분이 좋더군요. 여자는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거든요.

당신이 생각하는 섹시함이란 무엇인가요?

전 굉장히 소박한 여자예요. 그냥 편안한 옷에 소년스러운 언더웨어를 입었을 때 편안함을 느끼죠. 섹시해지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게 가장 최악이에요. 섹시함은 자연스럽게 묻어나야 해요.

섹시함은 꼭 타고나야 하는 건가요?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세상에, 엄청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보죠. <The Voice>의 시작은 '블라인드 테스트'죠. 돌아앉아 있는 코치는 누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늘 사람의 목소리에서 어떤 느낌을 받죠. 꼭 타고나야 한다가 보단 본인 안에 선천적인 뭔가가 있다면 밖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섹시나, 도발 혹은 뭐가 싸구려고, 뭐가 고급스러움지에 대한 세간의 견해는 아주 다양해요. 저는 정말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보고 들어왔거든요.

2003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마돈나,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삼자 키스를 해서 엄청난 화제였죠. 만약 지금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만큼 난리가 날까요?

사람들은 충격적인 것에 나날이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도발은 너무 일상적이니까요. 라디오에선 케이티 페리의 'I Kissed a Girl'이 흘러나오고, 리하나도 자신의 섹시함을 아주 편안하게 표출하잖아요. 여자인 저도 리하나에게 한순간 반해버릴 것 같던데요.

“
I've never been one
to shy away
from my sexuality.

전 단 한 번도 제 자신의 섹시함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춘 적이 없어요.

”

란제리 Agent Provocateur
구두 Christian Louboutin
목걸이 Tacori
반지 Loree Rodkin

(앞 페이지)

란제리 Agent Provocateur
구두 Christian Louboutin
상의 Co
다이아몬드 반지 Sethi Couture/ Broken English
반지 Jacquie Aiche
팔찌 Colette/ Broken English

“
**The one place I don't
need to be in control
is the bedroom.**

제가 주도권을 쥐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 침실이죠.

”





치마 Kiki de Montparnasse
 브라 La Perla
 하의 American Apparel
 팔찌, 보디 체인, 반지 Jacquie Aiche
 기타 반지 Arik Kastan

저는 파이팅 넘치고 사람을 열받게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를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마돈나와 있었던 사건은 거의 기억도 안 나요. 저에겐 현실 속의 교감과 판타지 그리고 롤플레이밍이 전부니까요.

남자들이 침실에서 뭔가 다른 걸 시도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건 대화로 시작해야 해요. 특히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해온 파트너라면요. 물론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죠.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진다면 다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당장은 그냥 내버려둬야죠.

당신을 흥분시키려면 노래를 잘해야 하나요?

전혀 아니에요! 절 오그라들게 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제 앞에 앉아 기타를 치면서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남자를 좋아하나요?

진짜 남자요. 그래서 유명인이랑은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돈이 많고 적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혼자서 벌어서 먹고살 수 있거든요. 전 우두머리 곰 같은 타입의 남자를 사랑해요.

의외네요. 연애에서도 리드하는 쪽은 당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주도권을 쥐지 않는 유일한 공간은 침실이에요. 침실에서는 남자가 저를 리드하는 걸 좋아해요. 파트너와 섹스를 하는 건 하루 일과의 피곤함을 날려버리는 근사한 방법이에요. 참고로, 전 너무 피곤하다며 거절하는 여자는 아니에요.

무엇이 당신을 흥분시키나요?

전화가 아주 중요해요. 그게 목에 하는 가벼운 키스라도 말이에요. 상대와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기억하세요. 저에게 최고의 데이트는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그럴 치즈 샌드위치 그리고 와인 한 잔과 함께 잘 맞아주는 거예요. 아침, 포장 음식은 절대 안 돼요. 식탁 위엔 식탁보와 약간의 꽃을 장식하고 초도 켜고요. 단순할수록 더 섹시한 법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여자가 안 넘어온다면 어떻게 하죠?

그게 여자한테 먹히지 않는다면, 그 여자가 당신의 시간을 쓸 가치가 있는 여자인지 전 의심스럽네요.

마지막으로 이걸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미키 마우스 클럽〉에 출연하던 어린 시절, 함께 출연한 라이언 고슬링과 저스틴 팀버레이크 중 누가 더 멋있었나요? 지금은 둘 다 정말 잘나가지만요.

두 사람 다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피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대답이 나중에 제 뒤통수를 치면 안 되니까요. 알다시피 둘은 무척 친했어요. 늘 붙어 다녔죠. 저랑 브리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 우리를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놀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웃기다니까요.

***미키 마우스 클럽:** 디즈니에서 만든 어린이 버라이어티 쇼. 지금은 최고의 스타인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와 브리트니 스피어스, 라이언 고슬링, 저스틴 팀버레이크 등이 어린 시절 이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다. 이 쇼의 캐스트는 당시 10대의 우상이었다. 

“
It was nice to
unleash the inner
Christina
and let her play.
”

내면의 크리스티나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풀어두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드레스 Kiki de Montparnasse
구두 Christian Louboutin
본디지 반지 Loree Rodkin
뱀 장식 반지 Sorellina/ Roseark
다이아몬드 반지 Sethi Couture/ Broken English
귀고리 C. Greene/ Broken Engl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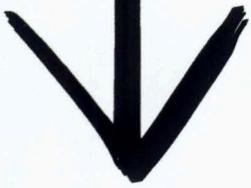
셔츠 Kiki de Montparnasse
브라 La Perla
하의 American Apparel
팔찌, 보디 체인, 반지 Jacquie Aiche
반지 Arik Kasten

'컨트롤' 대란?
한국 힙합은 이미 15년 전부터
'디스 전쟁' 중이다.

BY 손안나

DISSES THE REAL HIP-HOP





백문이 불여일청



1990년대 말, 지드래곤 뺨치는 인기를 구가하던 유승준.

디스(Diss)

Disrespect의 준말로, 주로 힙합 장르에서 랩을 통해 특정 대상을 비난하는 행위

지난 3월 <무릎팍 도사>에 출연한 힙합 뮤지션 데프콘은 디스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땅덩어리 넓은 미국은 디스하고 서로 안 마주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여기저기서 다 만나게 된다. 디스 문화는 한국의 현실성하고는 좀(맞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부터 반년 후인 2013년 8월, 한국 힙합 사상 가장 큰 디스전이 벌어졌다. 개코, 씬디, 이센스는 물론 '스웁스, 어글리 덕, 제이통' 등 다소 낯선 힙합 뮤지션의 이름이 연일 실시간 검색 순위에도 오르내렸다. 이센스의 'You Can't Control Me'와 개코의 'I Can Control You'를 듣고 난 다음 날, 학교나 회사에서는 "아메바컬처가 잘못했네", "이센스가 철이 없네!" 등 간밤에 있었던 뜨거운 디스 전쟁이 회자됐다. 사람들은 씬디의 "오늘 밤"이라는 트윗 하나에, 밤을 새워 사운드 클라우드(음악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음원 공유 플랫폼)를 새로 고침 하며 "정신병 걸린 개 유다 새끼"라는 스웁스의 디스에 대한 그의 대응을 기다렸다. 더 이상 '디스'는 한국에서 낯선 문화가 아니었다. 이센스의 디스곡에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개코가 올린 "컨트롤 비트 다운받았습니다"라는 트윗은 '분패를 보여주겠다', '복수하겠다'는 의미로 한동안 SNS상에서 유행어가 될 정도였다.



한국민속촌(K.folkvillage) @koreanfo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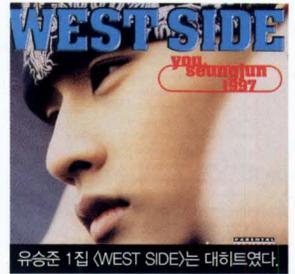
Control 비트 다운받아야하나. RT @sunhome3: @koreanfolk 아씨 다음주에 고양시가 민속촌에 배를하러 간다는 것이 사실 이옵니까? #벤치마킹??

힙합이 한국에 뿌리 내린 지도 어언 20년. 이번 '컨트롤전'이 수면 위로 올라와 대중의 주목을 받긴 했지만, 크루나 레이블 간의 전쟁부터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고발, 래퍼들의 개인 감정에 의한 폭로까지... 사실 한국 힙합 씬은 지금껏 계속된 크고 작은 디스전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 동네다.



내가 깐어! 내가 깐다고!!

IMAGE 슈퍼페이스



유승준 1집 (WEST SIDE)는 대히트였다.

국내 최초의 디스 김진표 vs. 유승준

1998년, 김진표는 자신의 2집 앨범 <JP Style> 중 '진표생각2 - 랩퍼라면...Etc'라는 곡을 통해 유승준을 디스했다.

너희 같은 놈들 땀에
"랩은 아무나 하는 거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땀에
진짜 랩퍼 애매하게 같이 무시당해



혹시 그거 아냐? 여기 미국 아나
얼어 죽을 East Side, West Side!
외치지만 말고 제대로 좀 해봐
몇 년 후에 강통 매봐

너희 그냥 댄서 괜히 애써
랩을 하려 하는 모습 이제 됐어
아무나 가수나 하는
너무나 화나는 세상아구나
- '진표생각2 - 랩퍼라면...Etc', <JP Style> 중 -

당시 유승준은 여기저기 '웨쌔이/!!'를 외치고 다녔다. 유승준 자신이 L.A. 출신이기도 했고, 추구하던 장르도 멜로디를 강조한 웨스트사이드 힙합이었기 때문이다(심지어 팬클럽 이름도 '웨스트사이드'였다). 2년 뒤, 유승준은 자신의 5집 앨범에서 기다렸다는 듯 김진표를 맞디스한다.

내가 말하는 진짜 MC
MIC만 들면 너도나도 MC

그렇게 쉽게 되진 않지만 다하지
나 절대 어디 가서 랩 한다고 말도 안 하지
You hear me all fake MC's and I'll see
허무한 네 마지막마저도 No Pitty
인정을 받기 위해선 노력해 필히
난 랩 안 해도 잘 먹고 사네 Yo, JP, Yo!
- 'Throw Your Hands Up(너의 기준)',
<고지탈환(高地奪還)> 중 -



그리고 김진표는 그해 말 조PD의 3집 앨범 수록곡 '3VIP'에서 다시 누군가를 언급한다. 그는 유승준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노래를 들으면 누구라도 L.A. 출신인 그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야자수 있는 L.A.
내가 하는 일은 세탁소에서 빨래
그게 원래 너의 위치
맛간 너의 MIC의 스위치
너는 빌어먹을 Bitch
여기는 조PD 앨범 조그만 자리에서
나는 할 말 다하고 사는 JP
- '3VIP F-3534.JP', <ChoPD.Net / Best In East> 중 -



"난 랩 안 해도 잘 먹고 사네 Yo, JP, Yo!",
"나는 할 말 다하고 사는 JP"라니... 지금 들으면
이정도 디스는 <뽀뽀뽀> 수준으로 느껴지지만,
1990년대는 뮤지션이 다른 뮤지션의 이름을 대놓고
언급하며 깐다는 것 자체가 큰 이슈였다.

Diss Means War!

크루 전쟁 스나이퍼 군단 vs. 무브먼트

다이나믹 듀오와 타블로가 참여한 TBNY의 2집 앨범 수록곡 '차렷!'. 여기서 최자가 말하는 '어떤 놈'에서 떠오르는 랍퍼는 누가 들어도 MC 스나이퍼였다.

어떤 놈은 시를 읊듯 랩을 재미있게 해 태극기 휘날리며 민족혼을 자극해 군데 그놈은 일본 회사 음반 수익의 일부는 일본에 가 - '차렷! (Feat. 다이나믹 듀오, Tablo)', (Masquerade) 中 -

나중에 본인 스스로 고백했듯, 당시 스나이퍼는 한국적인 것에 매우 심취해 있었다.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의 뮤직비디오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이른바 "고구려 힙합"을 외치며, '한국인'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다(뮤직비디오에는 살풀이와 불국사도 등장한다). 최자는 그런 스나이퍼가 정작 일본계 회사인 '포니캐넌' 소속임을 지적한 걸로 보인다. 이에 평소 스나이퍼와 친분이 두터운 스컬은 스톤니 스컬크 2집 앨범의 수록곡 'Buffalo 2006'을 통해 자신의 친구를 변호한다.

스컬:
나 겨울에도 반팔로 We smoke the buff halo 뿌리도 없던 네가 왜 인제부터 음악을 해 친구들과 언더 힙합 둘 다를 팔아 장사를 해 TV 나와서 생소를 해 앨범 한 장 더 팔려 너의 말뼌은 최고잖아 사기 치는 게 더 빨라 마이크만 잡으면 변해 만나면 그렇게 착하던 꼬마 애들이 요즘은 돈 안 뺏기니 맛고 다니던 강남 포깁이 형들 뒤에 꼭꼭 숨어서 너는 뺨을 믿는가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무사는 수치를 참지 않는다 시를 쓰는 내 친구는 오늘도 이를 꼭 깨물고 일곱 번씩 일흔 번 참고 사람들은 캐묻고 - 'Buffalo 2006', (Skunk Riddim) 中 -

그러자 다이나믹 듀오와 같은 무브먼트 크루인 에픽하이도 '8 by 8'에서 이에 대해 반격했다.

타블로:
년 겨울의 반팔티 아마 추워(아마추어) 네 가사는 마약 중독자처럼 약해 망해도 누굴 탓해? 씹어봤자 년 그저 껌뽀이였어 네 정신 상태는 포장마차 싸움꾼 병들었어 - 'Eight By Eight (Feat. Dynamic Duo, Dok2, Double K, TBNY)', (Pieces, Part One) 中 -

'Buffalo 2006'의 "나 겨울에도 반팔로"라는 구절을 그대로 가져왔다. "마약 중독자처럼 약해"라는 가사도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MV의 한 장면.



뽀로로가 네 친구다

역시 스컬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스컬이 하는 레게라는 음악이 워낙 대마초랑 밀접한 관계기도 하고 스컬 역시 2005년, 대마합법화를 노란 '강아지'라는 곡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기 때문. 스컬이 입대하는 바람에 이들의 디스전은 이렇게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4년 후인 2012년, 스컬이 'Buffalo 2012'라는 곡으로 다시 한 번 타블로를 디스한다. 스나이퍼&스컬 vs. 다이나믹 듀오&에픽하이 디스전이 재점화된 것이다.

아마추어 네 삶이 더 추워
겨울에도 나 반팔로 We smoke da bu-ffelow 군대 갈 때 네가 그랬지 스컬 새끼 끝났어 불법 면제 네가 알겠냐 군 생활은 플러스 너는 또다시 틀렸어 미국이 또 날 불렀어 너의 애인은 무한도전 보고 "스컬 나왔어 끝났어" 밀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조선생 침술원 둘째 아들 Air bag을 준비해라 내 주위 온통 거친 애들 Rockefeller도 가지고 있는 씨디 한국 레게다 내 욕 쓰는 거 지겹지 않냐 인터넷 답변라에다 지 부모도 몰라보는 너는 진짜 쓰레기다 이계 내 음악이다 (네가 원하는 마약이다) - 'Buffalo 2012 (Feat. 스웬스)', (쓰레기) 中 -

그로부터 몇 달 후 다이나믹 듀오와 에픽하이, 사이먼 D는 (2012 SBS 가요대전)에서 'Cyber'라는 노래를 불렀다. 이날 타블로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뽀로로가 네 친구다"라고 외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하하(=뽀로로)와 친한 스컬을 겨냥한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은 꽤 그럴듯하다. 어찌 됐건, 찢끔찢끔 계속되는 이들의 디스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스컬과 타블로의 찢끔찢끔 요실금 디스

"세상의 무게는 너의 척추를 휘게 만들고 또 아프게 해" - 2010, 에픽하이, 'Over'
→ "네 척추를 확중이처럼 쉽게 접어"
- 2012, 스컬, 'Buffalo 2012 (feat. 스웬스)'
→ "곱게 잘 접어둔 네 곱의 확중이나 퍼"
- 2012, 다이나믹 듀오&에픽하이&사이먼 D, 'Gangnam Clique'



'한국인' MV, 스나이퍼가 불국사에서 합장하고 있다.

해의 힙합홍들의 살벌한 디스전 #1. Tupac vs. The Notorious B.I.G.

스눅 독, 닥터 드레와 함께 서부 힙합을 대표하는 투팍은 어느 날 작업실에서 과한에게 5방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는다. 그는 동부 힙합의 수장 노토리어스 비아이지, 그리고 그가 소속된 베티 보이 레코드의 대표 디디 (Puff Daddy)가 그 당시 스튜디오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그들을 범인으로 지목한다. 하지만 노토리어스 비아이지는 총소리를 듣고 오히려 자신이 직접 투팍을 구하러 1층으로 뛰어 내려갔다고 주장하면서 둘의 진실이 엇갈리게 된다. 이후, 투팍이 먼저 동부 힙합, 디디, 노토리어스 비아이지와 그의 아내까지 디스하는 'Hit Em up'을 발표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노토리어스 비아이지는 이후 제로부터 의심심장한 맞디스크곡 'Who shot ya(누가 날 쏘았을까)'를 내놓는다. 이 디스전으로 서부 힙합과 동부 힙합 간에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몇 달 뒤 투팍은 마이크 타이슨의 경기를 보고 돌아오던 BMW 750iL 세단 안에서 총격으로 사망한다. 그리고 1년 뒤 앨범 홍보를 위해 투팍의 나와버리 L.A.로 간 노토리어스 비아이지 역시 총에 맞아 죽는다. 참고로 디디의 'I'll be missing you'는 노토리어스 비아이지의 죽음을 추모하며 만들어진 곡. 그들은 정말로 투팍을 죽이려고 했던 걸까? 진실은 저 너머에...

다구리 디스

다이나믹 듀오, 에픽하이, TBNY → 커빈

2004년, CB Mass에서 다이나믹 듀오로 돌아온 개코와 최자는 1집 앨범 〈Taxi Driver〉를 발표하는데, 첫 번째 트랙부터 전 CB Mass 멤버 커빈을 겨냥한 듯한 이야기를 꺼낸다.

혼자보단 둘 아니 둘보다는 셋
을 외치며 설치면서 무대를 누볐네
힘찬 몸짓으로 앞으로 노를 저었네
하나 멤버 중의 한 명은
성공이라는 허울에 취해
겸손 아닌 경솔해
나머지 둘에 비해
그는 음악보다 거울 앞이 훨씬 좋았네
그는 의리보다 돈다발을 훨씬 사랑해
- '이력서', 〈Taxi Driver〉 중 -



힙합 리스너 사이에서는 일명 'VIP(귀빈) 사건'이 카더라 소문으로 퍼져 있다. 당시 리더 커빈이 CB Mass, 에픽하이와 TBNY의 앨범 제작비를 비롯한 자금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그가 동료들의 곡을 자신의 저작권으로 등록해 저작권료를 몽땅 챙겼다는 것. 에픽하이는 자신들의 곡 '뒷담화'에서 내레이션으로(심지어 랩도 아닌) 이 일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CB Mass의 커빈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나쁜 놈들, 못된 놈들, 나쁘신 분들, 소위 말하는 개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개새끼들이 진짜 많아서... 유명한 사건, VIP 사건.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사람이랑 같은 팀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랑 그 팀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이유 없이 죄 없이 우리 앨범까지 우리가 1년 동안 빚지고 앨범 못 내고...
- '뒷담화', 〈High Society〉 중 -

TBNY의 'YOU'라는 곡에서의 디스는 이보다 더 심하다. 가사에서 느껴지는 특정 대상을 향한 분노는 슬래셔 무비가 연상될 정도로 살벌하다.

너 내 목을 조인 것부터 여러 가지가 화가 나
나는 토해 뱉어 Dissin' like 최자? 그는 양반이지
Muthafxxx ya 넌 쓰레기 네 대가리 박살 내기
네 애미가 뻥 그 얘기는 강간에 몸쓸 얘기
또 수많은 이야기 yo 수난에 비약이
도망자의 피가 내 몸속 깊이
가소론 네 미소로 죽음으로 빠져드네 깊이
또 네 발 싸매서 여기 거꾸로 매달아
그다음 놈. 말. 씨. 니. 이걸 거꾸로 읽어
너의 새끼들은 믹서에 모두 다 갈아 없애
너의 희멀건 쌍관은 나의 분노의 폭발의 촉매제
- 'YOU', 〈Prosac〉 (EP) 중 -



결국 남은 건 빛과 마이너스 통장

훗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당시의 일을 언급하는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



그는 2008년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사회 비판

디지의 미국산 쇠고기 파동 디스

지금까지 광우병으로 몇 안 뒤졌으니까
닥치고 처먹으란다
신발 그제 말이 되냐?
"디지 너 미쳤냐?"
그래 나 씨발 미쳤다
그래도 내가 뺀의 말 틀린 말 아니다
4,700만 중 1명이라도 죽을 수 있다면
먹지 말자는 이야기는 할 수 있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네 자식이 네 친구가
네 마누라가 먹고 죽을 수 있다면
그만 말이 입에서 나오겠냐고
이 개XX! X 같은 새끼들이!
M 'ad' Bull, M 'ad' Bull,
독도 가서 너나 먹어 미친 소
- 'Mad Bull', 〈Mad Bull〉
(Digital Single) 중 -

'Red Bull'을 패러디한 〈Mad Bull〉은 디지가 2008년 발매한 첫 번째 디지털 싱글이다. 고급스러운 재즈 힙합 베이스에 상스러운 욕설 가사를 날리는 디지 특유의 스타일이 잘 나타난 곡으로, 가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대한 래퍼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한다. 이게 처음은 아니다. 그는 이미 2001년 1집 수록곡 'Damn Ex-Presidents'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J.N.P.(About the Jotsun Newspaper)'에서 〈조선일보〉를 디스했고, 2004년 〈클리토레스〉라는 EP Bootleg 앨범에 수록된 '오나 씨발 것들아'란 참진 제목의 곡으로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부패 경찰에게 임질을 가한 전적이 있다.

Diss Means War!

일당백 디스

윤희중 vs. CB MASS, 드렁큰 타이거

한국 힙합 1세대 윤희중(A.K.A. 3534)에 대한 디스곡인 'Movment II'는 2000년 발매한 CB Mass 1집 수록곡으로, 드렁큰 타이거가 피쳐링했다. 이 곡에서 개코는 "Fuck 354!!"라며 그를 불러낸다.

개코:

나는 나 나는 개코 아무도 나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 절대로 나는 다이아마이트 폭발해 맘대로 씨발라 먹는 놈들이 만든 힙합 규정화가 만들어버린 자유의 구속과 생각의 엇갈림과 서로 간의 헛갈림이 만든 피 튀기는 War 분쟁은 끊임없이 What! 그 속에 나를 지켜 만들어 높이 띄워 Fuck 354!!

DJ 사인:

계속 그렇게 계속 똑같은 실수를 내 주위에서 반복하지는 마 차라리 내 앞에서 해봐 어차피 넌 X됐어 네 여자 친구 어젯밤 내가 땀이 먹었어 Fuckin 조루 X끼 닥쳐 꺼져

타이거 JK: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무덤을 파는 자는 너지 너 같은 쓰레기 Rapper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Fuckin 불타야지

마지 나 JK 네 목을 따지 CB Mass와 나 같아온 날카로운 메스로 깊게 찌서주지 도려내지 - 'The Movment II (Feat. Drunken Tiger)', (Massmediah) 中 -

이렇게 CB Mass와 드렁큰 타이거 멤버 총 5명에게서 쌍욕을 먹은 윤희중은 나중에 이현도와 함께 작업한 'What'으로 여기에 화답한다. 평소 시적이고 은유적인 가사를 쓰는 그답게, 디스곡임에도 불구하고 욕설 한 마디 없다. "씨우지!"고 에너지끼라, 아도캔을 조낸 날렸는데, 상대방이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뉘이로다. 중생이여..." 하는 느낌이랄까?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면서 상대방을 은근히 깔아뭉개는 윤희중의 고도의 전략이 정말 통한 것인지, 당시 리스너들은 이 디스전을 윤희중의 승리로 평가했다.

내 경이로운 호수 그곳에 침을 뱉는 넌 자칭 Rapping의 고수 왜 셀 수도 없이 많은 동그라미를 그리며 수면을 좌우로 어지럽혀 큰 획이라도 그은 듯이 거품을 왜 일으켜 시인 페인 두 공간 속에 페인 용덩이 속 깨인 언어의 선의의 게임 이 게임 이미 포기해 - 'What!!! (Feat with D.O.)', (Enlightenment) 中 -



해외 힙합홍들의 살벌한 디스전 #2. Ja Rule vs. 50Cent, Eminem



Ja Rule



50Cent



Eminem

자 룰과 50센트는 같이 마약을 팔던 동갑내기 래퍼지만 사소한 시비 이후로 사이가 틀어진다. 한 번은 클럽에서 50센트와 싸우고 발린 자 룰이 50센트가 있던 녹음실로 찾아가 등에 칼을 꽂고 튀었다고. 50센트는 9발의 9mm 총알을 맞고 얼굴과 몸에 구멍이 숭숭 뚫린 적도 있는데, 이때 허가 좀 잘리는 바람에 지금의 독특한 발음을 갖게 된다 (이 살인청부도 자 룰이 의뢰했다는 소문이 있다). 자 룰은 'Pain Is Love'라는 곡으로 빵 뜨면서, 음반회사들에게 "50센트와 일하면 죽어 버린다"고 협박한다. 그 바람에 50센트는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갑자기 방출된다. 그후, 에미넴이 허 잘린 50센트의 음악을 우연히 듣고 자신의 영화 <8마일> 사운드 트랙에 그의 'Wanksta'를 삽입한다. 그덕에 50센트는 <Get Rich Or Die Tryin'>을 발표하면서 슈퍼스타로 부상하고, 'Window Shopper', 'Your Life's on the Line' 같은 자 룰 디스곡을 계속 만들어낸다. 화가 난 자 룰은 이에 맞디스 하다가 측근인 에미넴도 함께 건든다. 'Loose Control'이라는 곡에서 "네 엄마는 마약중독에, 네 부인이었던 김은 창녀였는데, 과연 네 딸 헤일리는 어떻게 클까?"라고 한 것. 이에 백친 딸바보 에미넴은 자신의 인맥이란 인맥은 모두 동원해서 'Hailies Revenge'라는 디스곡을 만든다. 현재 자 룰은 '아무리 그래도 딸까지 건들인 건 심했다'는 대중들의 싸늘한 시선과 함께, 내는 곡마다 별다른 히트를 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어쩌면 에미넴이 앞길을 막고 있는 걸 수도... 역시 센 놈은 건들면 안 된다.



언더 시절, 데프콘은 강도 높은 욕설과 디스곡으로 유명했다.



마스터플랜 시절의 주석은 아이돌 못지 않은 인기를 누렸다.



디스 후 마스터플랜과 손을 잡은 데프콘의 모습. 젊네, 젊어.

라는 곡으로 언더씨의 주목을 한몸에 받게 된다. 아마추어의 디스곡이라고 하기엔 그 랩 스킬과 플로가 너무나 신선했기 때문.

난 줄곧 King of flow title에 불복
넌 날 편견지 수준 구릴 거라 변변치
않게 생각했는데 추천 수가 좀 많지
호기심 Click했는데 듣고 넌 Flip
Fucking crazy this nigga's doper than VJ



그렇게 애들 갖고 놀고 나면(재밌세요?)
대놓고 잘난 척을 하면(재밌세요?)
King of flow라 자칭하면(재밌세요?)
You think I'm under ya feet nigga(재밌세요?)
89년도 랩을 하면(재밌세요?)
네이버 1등 하고 싶었어요(재밌세요?)
발을 그런 식으로 굴리면(재밌세요?)
Don't let me step on ya head(재밌세요?)
- '재밌세요?', <Ready To Be Signed> 中 -

산이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버벌진트를 싫어한 게 아니고, 그저 주목받고 싶어서 그를 디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사 마지막에는 "내 조크를 이해 못 한다면 가슴이 아퍼, 디스를 해서나마 네 관심을 낚아, 반격을 해준다면 나 역시 환영"이라며 그를 다시 'King of flow'로 치켜세운다. 당시 버벌진트는 대인배스럽게 본인을 디스한 곡에 "친구가 말해줘서 들어봤는데, 좀 놀랐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후, MC 산이는 버벌진트의 크루 오버클래스로 들어가게 된다. DJ 우지가 조PD를 씌고 그의 회사와 계약을 한 것처럼, 데프콘이 마스터플랜을 디스하고 그곳에서 앨범을 낸 것처럼, 버벌진트가 조PD를 씌고 그와 듀엣 앨범을 제작한 것처럼 말이다. 뭐 이게 그리 욕 먹을 일은 아니다. 힙합에서 디스란, 라임과 플로우로 벌이는 <백분토론> 같은 거니까.



이번 '컨트롤' 대란에 뒤늦게 뛰어든 YDG(양동근)의 'MIND CONTROL'에는 이런 가사가 나온다. "기억해? 옛날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모두가 바라던 지금 같은 디스전, 여긴 no 미합중국 but 대한민국, 안타깝게 동방예의지국, 땅덩어리 좁아, 서울서 부산 세 시간, 한 다리 건너면 다 동시시간". 데프콘의 말처럼 어차피 흥대 아니면 강남에서 다 마주칠 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싫은 건 싫은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는 힙합 뮤지션들에게 우린 리스펙트를 보낸다. 이 판을 더 재미있게, 힙합을 더 힙합답게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혹시 알아? 나중에야 자칭 힙합 아이들과 힙합 소상공님들까지 이 판에 막 뛰어들지? 재미있어 보이는 놀이판에는 돈과 인기, 그리고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다.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그러니까 우린 곳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피스 아웃! 🍌

디스로 엮인 인연

버벌진트 ♥ 조PD / 데프콘 ♥ 마스터플랜 / 산이 ♥ 버벌진트

지금은 '감성 변태'로 불리는 버벌진트는 언더 힙합 시절, 디스의 제왕이었다. 나무누리 PC 통신 흑인 음악 동호회 SNP에서 활동하던 그는 4WD의 '노자'라는 곡에 피쳐링을 하면서 DJ 우지, 그리고 당시 <9시 뉴스>에도 등장한 화제의 래퍼 조PD를 동시에 씌었다. 일전에 DJ 우지가 조PD를 디스하고 얼마 후 그의 소속사로 들어간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걸로 보인다.

그래 조프 몰라 유치한 라임을 조몰라
조PD He's wack 초보자
꺾물 가득한 안타까운 목소리가 밤새워 고민한
망가진 Flow에다 애송이 Rhyme을 들려줄 때
난 조용히 웃곤 하지 Oh my god



짜다 힙합퍼들을 따먹고 느끼는 포만감
4WD&Verbal Jint의 치밀한 2인조 강간
좋아라? 좋아라? 당하며 느낄 줄도 알아?
- '노자', <노자> 中 -

'디스의 제왕'이라는 별명처럼 당시 버벌진트의 디스는 '모두 까기' 수준이었는데, 조PD에 이어 그의 레이더망에 걸린 타겟은 가리온, 주석, DJ Wreckx, DJ Soulscape, Infinite Flow가 소속돼있던 레이블 '마스터플랜'이었다. 절친 데프콘의 EP 앨범에 그가 피쳐링한 'No Joke'라는 곡에는 당시 한국 힙합 씬에서 영향력이 엄청났던 마스터플랜에 대한 반감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버벌진트:
"제가 여러분 앞에 제대로 된 힙합 세계를 보여드릴게, 함께 재미있게 놀시다"
썩끈한 Timberland boots,
금목걸이 머리엔 Doo-rag
They look damn good!
자 그럼 이제 음악을 들어볼 차례인데
그들을 처음 본 2년 전 5월 달에 비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랐던 나의 기대를
무참히 깨버리네 거참 곤란해지네
재네들도 이 혼란의 시대에 기생하는
겉대기 Musician들이었구먼

데프콘:
엠씨 아무개 제진 임 죽 다물게
왜 무개를 잡고서 힙합을 해
어이없는 대가리로 지가 쓴 랩 귀담으려
저 사람 뿔로 보고 헛지랄을 해
네가 쓴 한자 가사를 한참 봤다
대체 이게 뭘 소리아 흑시 넌 갑 잡았나?
난 잘 몰라 난감 혼란 주는 글자를
몽땅 적고 지랄하는 멧통 힙합
하루는 철학 래퍼 많이 기르는 공장을 방문했어
하나 앞문에서부터 흥분했어
강적! 무적! 올 외치는 놈들의
웃만 무적! 아직도 랩은? X나 후져!
- 'No Joke (Feat. Verbal Jint)
<Straight From The Streetz> (EP) 中 -



버벌진트가 앞에서 읊은, "제가 여러분 앞에 제대로 된 힙합 세계를 보여드릴게, 함께 재미있게 놀시다"라는 표현은, 당시 마스터플랜 무대에 서던 뮤지션들의 단골 멘트였다. 그리고 당시 여성 팬들을 몰고 다녔던 마스터플랜의 슈퍼스타 주석은 자신을 천하무적 주석이라고 칭했고, 사자성어와 한자어를 가사에 많이 넣는 걸로 유명했다. 데프콘이 말하는 엠씨 '아무개'가 주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조PD 밑에 들어간 DJ 우지를 비판했던 버벌진트와 데프콘은 후에 자신들이 그렇게 씌어재킨 마스터플랜과 함께한다. 데프콘은 마스터플랜 소속으로 몇 장의 앨범을 발표하고, 버벌진트는 2010년, 조PD와 듀엣 앨범까지 낸다. 그리고 훗날, 힙합 사이트에 자작곡을 올리고 놀던 방구석 MC 산이는 이른바 'King of flow'로 불리던 버벌진트를 까는 '재밌세요'

MISS M



2013 
**MISS MAXIM
CONTEST**

첫 번째 4강 진출자

김소희

코스프레 의상을 보더니 좋아하며
강충강충 뛰던 그녀. 평소에도 코스튬을
즐긴다고 했다. 어쩐지 채찍을 휘두르는
숨씨가 보통이 아니던 걸?

BY 김희성 PHOTOGRAPH Yud

MAXIM



 2013
**MISS MAXIM
CONTEST**
두 번째 4강 진출자

이아영

촬영장에 도착한 그녀에게 첫 번째로 경찰복을 입혔다. 잠시 후, 청순하면서도 섹시한 여경찰로 변신한 이아영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저 사실 코스프레는 처음이에요”



“
이것만 치우고
쉬면 안 될까요?
”

속옷 르페



오늘 메이드, 간호사, 경찰로
변신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의상은?

메이드 >> **결정**

입어보고 싶었다!! ㅋㅋㅋ

남자가 할로윈데이에 어떤 코스를
하면 멋진 것 같나?

모리큐리백작 **상**

이번 할로윈데이 계획이 있나?

당분! 할로윈파티에

코스프레를 할 거야요!!

파티에서 뭘로 변신하려고?

음.. **메이드나 바나나** 

가장 뜨거웠던 할로윈 파티를
고르라면?

**1년전 사마권상으로 광산의
밤을 보냈죠 ~>>>!**

혹시 코스튬 복장으로 섹시한
이벤트를 해준 적도 있나?

코스튬.. **간호사랑 경찰이랑 랜제리**

파티 퍼포먼스 팀이 있을때

스테이지에서 가요

할로윈 파티에 마음에 드는 남성이
나타났다! 작업 멘트 한 마디
날려줘라!

메이드 = 주인님 저어때요? **헛**

간호사 = 엉덩이 대세요!

따끔할거예요 

경찰 = 술어! 내마음을 훑

당신을 추궁하겠어!!



MISS MAXIM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간호사





“
병원놀이
좋아하세요?
”

속옷 르페

MISS MAXIM



잘못하고
싶어지는
영상





당신에게 할로윈데이란?
초콜릿, 사탕 먹는날 ♡

남친이 해줬으면 하는 할로윈
 코스튬이 있다면?
슈퍼마리오!

이번 할로윈데이엔 뭐할 건가?
계획없음. 나감 놀사감 >.<

할로윈 파티에서 어떤 콘셉트로
 변신할 예정인가?
미니마루스

당신이 어떤 코스튬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좋던가?
**오늘 입었던 경찰!
 섹시했다고... ㄱㄱㄱ**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튬
 복장은?
동물! 동물은 다 좋아요 ♡

차갑고 섹시한 드라큘라 같은 남자
 vs. 순수한 짐승남 헬크 스타일 중
 어느 쪽이 더 끌리나?
순수한 짐승남 헬크.

당신이 직접 할로윈 파티를 연다면
 어떤 파티를 할건가? 파티 플래너가
 되어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라!
**모두 코스프레를 하고 입장!
 클럽분위기에 비서들이 초콜릿,
 술, 사탕을 무제한으로 서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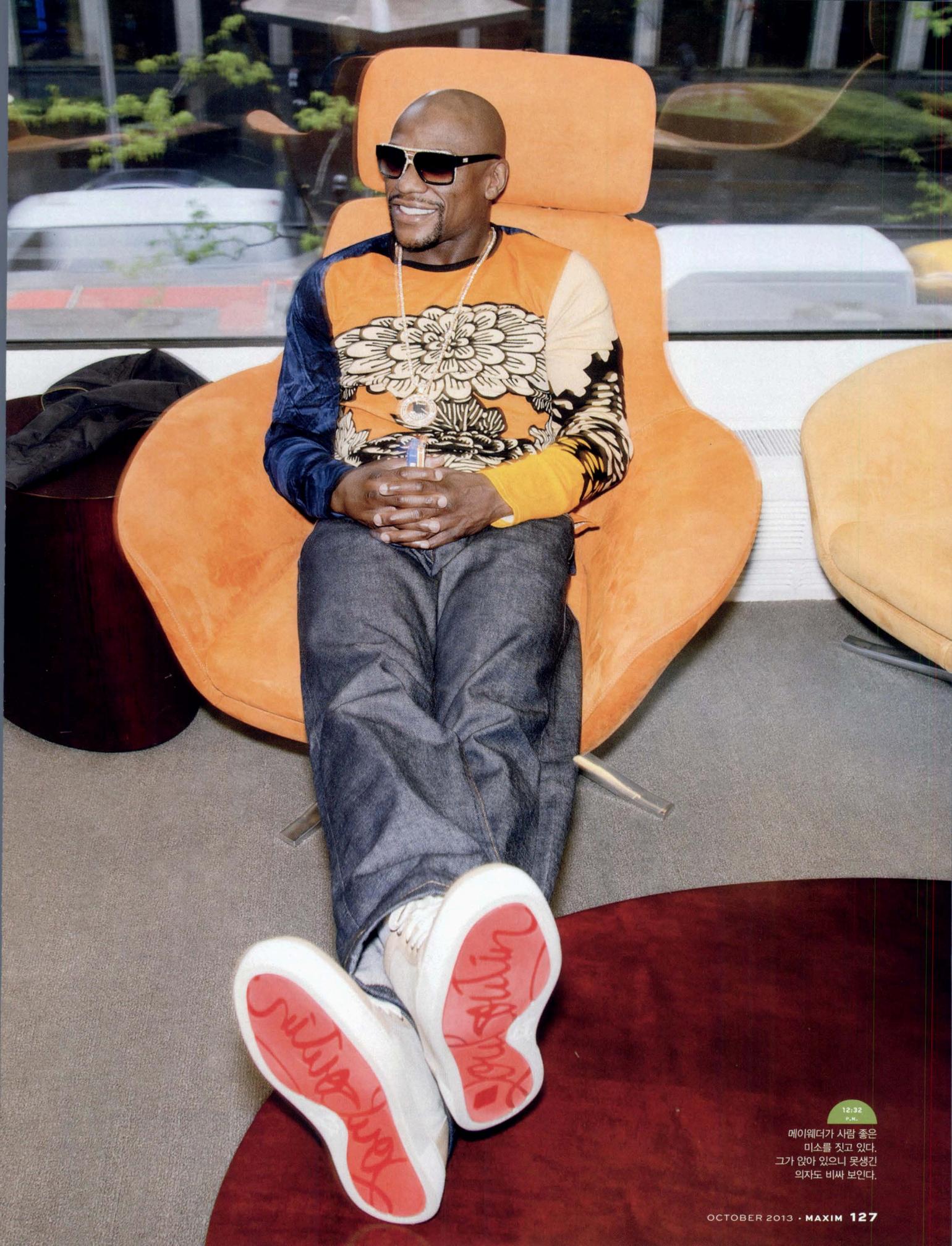


FLOYD MAYWEATHER WILL MAKE \$100 MILLION THIS YEAR.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는 올해 100만
달러를 벌 거다.

그리고
바로 다
써버리겠지.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복서의 하루.
BY CHRIS WILSON PHOTOGRAPH TIM SOTER



12:32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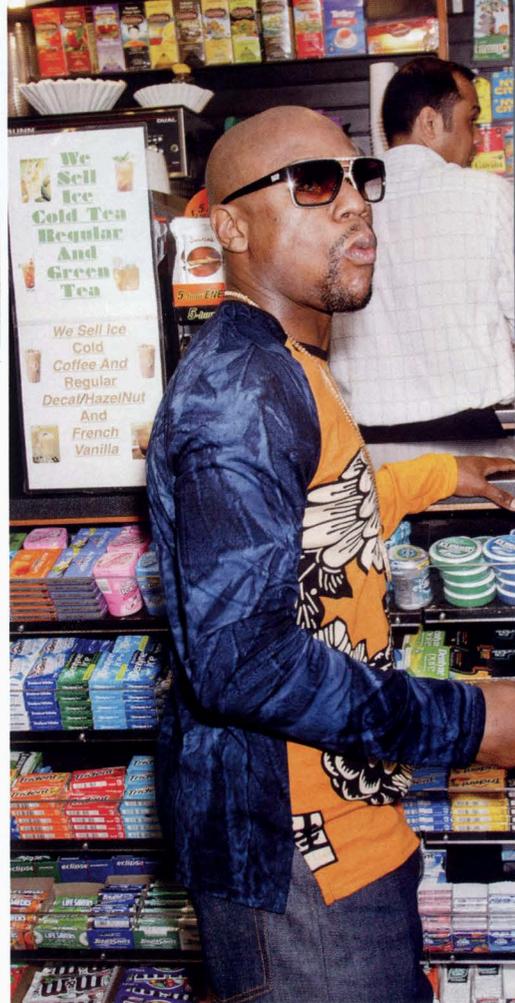
메이웨더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다. 그가 앉아 있으니 못생긴 의자도 비싸 보인다.



1



2



S

스포츠 스타라고 별 수 있나.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복싱 챔피언도 은행에 오면 줄을 서야 한다! 올 한 해만 예상 수익이 100만 달러인 천재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그가 지금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 자리 잡은 한산한 은행 창구 앞에 줄을 서 있다. 채급을 불분하고 현재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로 꼽히는 45전 45승 무패 신화의 주인공 메이웨더. 그는 돈이 썩어 문드러지게 많다. 개인 소유의 비행기로 이동하고,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에 살며, 말도 안 되게 비싼 고급 자동차를 여러 대나 소유하고 있다. 자신의 경기를 홍보하기 위해 출연한 리얼리티 쇼에서는 집구석에 남아도는 돈뭉치를 쥐고 마구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은행 창구 앞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줄서 있는 모습은 정말이지 비현실적이다. 메이웨더의 친구이자 최측근인 '맥(Mack)'은 핑크색 백팩을 메고 옆에 서 있다. 아마 가방 안에는 메이웨더가 그렇게도 카메라 앞에서 흔들어댄 지폐 다발이 들어 있겠지. 영화 속 은행 강도, 마약 거래, 납치범에게 몸값을 지불하는 장면에서나 보던 그런 돈뭉치 말이다. 지금 헬크처럼 생긴 보디가드 두 명이 출구를 매설게 주시하고 있고, 다른 몇 명은 'The Money Team'이라고 적힌 재킷을 입은 채 은행 앞에서 공회전하며 대기 중인 SUV를 둘러싸고 있다. 나는 메이웨더에게 돈을 뽑으러 왔다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다이아몬드가 진뚝 박힌 요란한 루이비통 선글라스를 끼고,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번쩍이는 체인에 화려한 메달이 달린 목걸이를 걸고, 뽀뽀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메이웨더가 대답했다. "아니, 그냥 우리 식구들 볼일 좀 보려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바로 그의 보디가드가 나와 메이웨더 사이에 끼어들더니, 크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그는 식구들 때문에 볼일 보러 온 겁니다"라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메이웨더는 백팩에서 돈뭉치 하나를 꺼내더니 창구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나를 향해 돌아보며 성찰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돈을 뽑든 말든 그게 왜 궁금한데? 당신 일이나 신경 써" 저... 근데 그게 말이다. 그가 돈을 뽑고 안 뽑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게 내 일이란 말이지. 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스포츠 선수를 미행해서 MAXIM에 실릴 기사를 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사실 내 존재가 귀찮을 만도 하다. 메이웨더는 전 세계 미디어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복싱 세계 챔피언이다.

전(前) 챔피언 로버트 게레로를 처참하게 굴복시킨, 현재 세계 복싱계에서 가장 위압적인 남자란 말이다. 메이웨더는 당시 오른손에 부상을 당해 로버트 게레로를 KO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어쨌거나 게레로는 메이웨더가 그 전에 상대한 43명의 적수와 마찬가지로 메이웨더의 맹수 같이 빠른 스피드와 정확성, 묘기에 가까운 방어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이후 메이웨더는 떠오르는 신성 '사울 카닐로 알바레스'와 맞붙었다. 알바레스는 스물세 살의 멕시코 '국민 복서'로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슈퍼헤틀급 타이틀을 차지해 센세이션을 일으킨 강자다. 메이웨더는 지난 9월 14일에 벌어진 그와의 빅매치에서 화려한 플레이로 알바레스를 제압하며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메이웨더 대 알바레스의 대결은 2007년 오스카 데 라 호야와 메이웨더의 경기만큼이나 큰 기대를 받았다. 데 라 호야와의 경기 당시 페이퍼뷰(Pay-Per-View, PPV: 시청 프로그램마다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수익은 사상 최대였다. 메이웨더는 이 경기에서 '골든 보이' 데 라 호야를 판정승으로 이기고 만다. 방송사 '쇼타임'은 메이웨더에게 경기당 개런티로 3,200만 달러를 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총 6경기를 계약했다. 그중 두 번째 경기가 알바레스전이었다. 36세의 무패 복서 메이웨더는 이번 30개월의 계약이 '명예의 전당'을 향해 달려온 자신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45전 무패 행진에, 다섯 채급 석권, 총 8개의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쥔 메이웨더. 그는 마이크 타이슨 이후로 가장 화려하게 이름을 날린 복서다. 또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운동선수 리스트'에서 메이웨더는 2위인 NBA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를 큰 차이로 따돌리며 1위에 올랐다.

M

메이웨더가 처음부터 거물급 선수로 주목받은 건 아니었다. 그의 별명 '프리티 보이'에서 연상되듯, 과거 그는 번지르르한 스타일과 조곤조곤한 말투를 가진 어린 파이터에 불과했다. 2007년 데 라 호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대중의 이목을 확 끌기 전까진 말이다. '프리티 보이'는 이후 자신만만하고 약간은 악랄하기까지 한 캐릭터 '머니' 메이웨더로 거듭났다. 그는 리얼리티 쇼에 나와 자신의 일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HBO의 <24/7>), <댄싱 위드 더 스타>에 나와 몸을 흔들고, 토크쇼를 돌며 입담을 과시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TV에 나와 타조 가죽 트렁크 팬티를 입고 허풍을 떠는 메이웨더가 상대를 때려눕히는 장면을 보기 위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주목받기를 워낙 좋아하는 메이웨더는 저스틴 비버나 릴 웨인 같은 유명한 셀러브리티 친구들의 지원을 받으며 요란하게 링 위에 오르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메이웨더를 때려눕혀 줌 닥치게 해주길 바라며 경기 페이퍼뷰로 69.95달러를 가까이 결제한다. 그런 안티팬도 꽤 많다. 하지만 메이웨더는 그런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들이 날 응원하면 좋겠느냐고? 당연하지." 이른 오후, <허핑턴 포스트>와 인터뷰하러 가는 차 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이기는 모습을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팬과 내가 지길 바라며 돈을 내는 팬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팬은 팬이다. 그들은 다 같은 사람이다. 누군가 당신이 지는 걸 계속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한다면 그건..." 그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나이가 어리고 가슴이 큰 그의 개인 비서 '키치'가 메이웨더의 민머리를 마사지하듯 문지르자 그의 목소리가 찾아들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난 늘 최선을 다한다는 거다. 밤낮으로 열심히 운동한다. 내 목표는 승리다. 무패의 기록을 지키는 데 연연하지 않는다. 내 앞에 어떤 상대를 데려다 놓든지 간에 난 상대를 이기는



1:47 P.M.
3



1. 이날 메이웨더와 머니팀은 맨해튼의 길거리를 완전히 접수했다.
2. 은행에 있는 메이웨더의 모습. 더 큰 사이즈의 통장이 필요해 보인다.
3. 세계 최강의 권투 선수는 캔디 같은 곳까지 거리에 환장한다.
4. 메이웨더를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운동선수'로 선정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사에 잠시 들른 모습
5. HOT 97 방송국에서 래퍼 '달리브 리'와 사진 한 방

24피트 높이의 천장에 달려 있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2층짜리 개인 극장이 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트레이닝 데이>, <트로이>,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1975년 빌 코스비와 시드니 포이티어, 지미 워커가 출연한 <레츠 두 잇 어게인> 이라고 말했다. 이 영화에서 지미 워커는 최면에 걸려 챔피언이 되는 겁쟁이 권투 선수로 나온다. 아예 메이웨더가 직접 영화에 출연하는 건 어떨까? 마이크 타이슨도 영화에 나오는데 말이다. "조엘 실버와 매우 친하다." 메이웨더가 <매트릭스>와 <다이하드> 제작자이자 액션 블록버스터 전문 프로듀서인 조엘 실버를 언급했다. 실버와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걸까? "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뭐 운이 좋으면 잘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서거나, 아님 제작을 맡을 수도 있지. 연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가 슬슬 재미있어질 무렵, 메이웨더는 잠이 들었다. 보아하니 내 질문과 키치의 마사지가 환상의 조화를 이루며, 그동안 메이웨더의 적들이 결코 이를 수 없었던 일을 해낸 것 같다. 바로 세계 최강의 복서를 쓰러뜨리는 일 말이다.

잠시 후, 메이웨더의 매니저 '레너드 엘러비'가 자기 선수 자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메이웨더는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선수다. 어디 메이웨더보다 더 존재감 있는 스포츠 선수의 이름을 한번 대봐라. 골프, 농구, 축구 선수? 그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다!"

그렇다. 맞는 말이다. 메이웨더의 팬이든, 안티든 그가 압도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지녔으며, 현존하는 최고의 선수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무하마드 알리에게 조 프레이저가 있었고, 슈거 레이 레너드에게 마빈 헤글러와 토머스 헌스가 있었던 것과 달리, 메이웨더에게는 그의 실력을 진짜로 테스트해볼 만한 라이벌이 아직 없다. 위대한 챔피언은 위대한 도전자를 어떻게 방어하느냐로 평가받는다. 지금까지 메이웨더는 2002년 호세 루이스 카스틸로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때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 빼고는 그다지 베팅 끝에 물러본 적이 없다. 그는 엄청나게 뛰어난 복서들을 그대로 침몰시키며 계속 전진해왔다. 누구보다도 크고 힘이 센 사울 카블로 알바레스는 수년 동안 메이웨더가 마주한 상대 중 가장 위협적인 적수가 될 줄 알았다. 그러나 결과는 메이웨더의 판정승. 메이웨더가 링 위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움직임과 뛰어난 방어 능력은 여전히 그를 만인의 우위에 세계 할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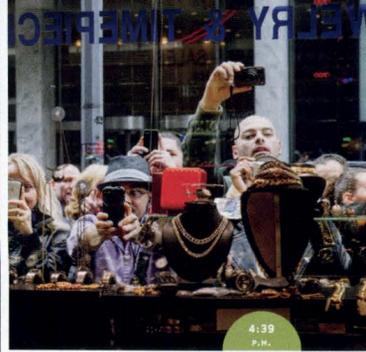
데에만 집중한다. 난 동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은퇴하고 싶다. 그게 핵심이다. 그게 내가 링 위에 올라가서 얻어맞지 않으려는 이유고," 링 위의 메이웨더는 날아오는 주먹을 다 피해버리는 신기한 능력의 소유자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강편치에 더 주목한다. 지난해 여름, 전 여자 친구 '조시 해리스'를 폭행한 혐의로 두 달간 감옥에서 지냈으며, 경기 중지 처분을 받아 한동안 링 위에 오를 수 없었다. 그의 네 명의 자식 중 세 명을 낳은 조시 해리스와의 사이에 발생한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해 메이웨더는 "과장이고 날조"라고 말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쏟아진 미디어의 엄청난 관심과

그의 비협조적 태도 때문이었을까. 작년에 이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광고 모델로서 번 돈은 정확히 0달러였다. 그런데 메이웨더는 자신의 몸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으며 되려 광고주들을 탓했다. 그는 아마도 르브론 제임스나 타이거 우즈 같은 스포츠 스타처럼 유명 브랜드의 대표 간판 모델이 되긴 힘들 거다. 하지만 메이웨더가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데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는 은퇴 후 '메이웨더 프로모션'을 통해 어린 선수들을 후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예 사업을 하겠다는 꿈도 여전히 품고 있다. 그가 사는 2만2,000평방피트의 럭셔리한 라스베이거스 저택에는 고급스러운 와인저장고와

“ 다른 시대의 선수들과 내 기술을 견주고 싶지 않다. 난 경기에 임할 때 단 한 번도 누군가 날 때려눕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



6



7

6. 메이웨더가 다이아몬드 가게에서 또 뭔가 불링블링한 것을 둘러보고 있다.
7. 팬들이 챔피언 사진을 몰래 찍고 있다.
8. HOT 97의 DJ 엔지 마르티네즈와 함께 '머니' 메이웨더가 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의 적이자 친구인 '50센트'에 관해서 말이다.
9. 보디가드들이 몰려드는 팬을 막는 동안, 메이웨더는 사인 중이다.
10. 지나간 하루의 마지막 일과, BET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모습.

현존하는 선수 중 메이웨더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선수는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린 그를 과거 웰터급 전설들과 붙여보고 싶어진다. 본인은 이 가장 매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선수들과 기술을 견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메이웨더가 말했다. "그렇지만 말이지, 지금껏 난 경기에 임할 때 단 한 번도 누군가 날 때려눕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메이웨더는 복싱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수석 트레이너이자 아버지인 '플로이드 시니어'는 세계적인 수준의 웰터급 복서였다. 시니어의 35년 중엔 플로이드 프로덕션의 매니저이자 전직 복서 레너드 엘러비와 치른 경기가 있다. 아버지 메이웨더가 코카인 밀매 혐의로 5년간 옥살이를 하기 전의 이야기. 플로이드의 삼촌 로저는 그의 가문에서 탄생한 첫 번째 챔피언이자 두 개 체급을 석권한 강자다. 로저는 플로이드 주니어를 13년간이나 트레이닝했다. 아버지 시니어가 2013년 게레로와의 일전을 앞두고 아들의 훈련에 투입되기 전까지 말이다. 그들의 부자 관계는 아주 옛날부터 복잡했다. 아버지가 플로이드의 외삼촌과 말싸움을 하다가 다리에 총을 맞았는데, 그때 그의 손에는 자신의 한 살 된 아들 주니어가 인간 방패처럼 들려 있었다. 아버지 메이웨더는 2000년 해고돼 삼촌 로저가 트레이너로 바뀌기 전까지 아들의 커리어 대부분을 함께하며 그의 트레이닝을 도맡았다. 그러나 메이웨더 주니어는 2012년 미구엘 코토와 치른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고전을 하다가 결국 코피를 쏟고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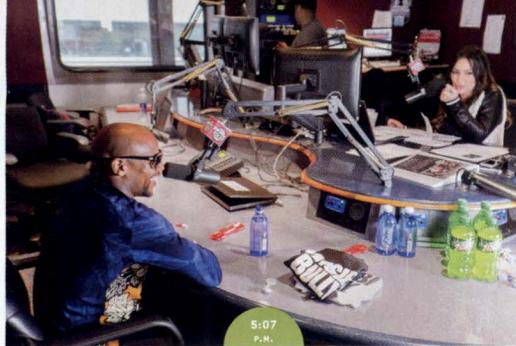
말았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메이웨더는 아버지를 트레이너로 복귀시켰다. "아주 좋은 일이지." 메이웨더가 말했다. "아버지가 헤드 트레이너고, 삼촌 로저는 차석 트레이너다. 로저는 당뇨를 앓고 있어서 시력이 안 좋다. 어떨 때는 보이고, 어떨 땐 안 보이고, 치열한 파이터 세계에서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건 진짜 위험한 거다. 그래서 아버지와 삼촌은 우리가 서로 도우며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다."



인터뷰를 위해 <허핑턴 포스트>가 있는 높고 멋진 건물의 로비에 도착했다. 메이웨더는 마치 애벌레처럼 늘어난 한 무더기의 사람이 이끌고 이곳을 지나고 있다. 거기에는 몇 명의 보디가드와 엘러비, 맥, 비서 키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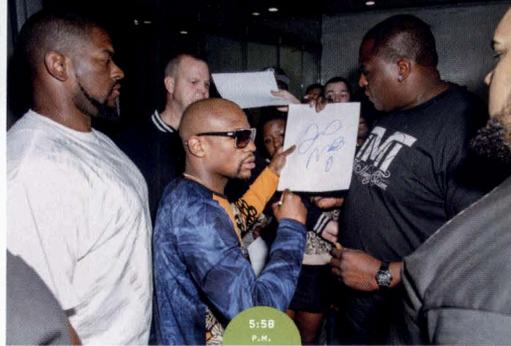
홍보 전문가도 포함된다. 그리고 맨 뒤에 내가 따라가고 있다. "아, 미안. 아까는 그냥 잠이 들어버렸네." 메이웨더는 그제야 내가 자신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그는 간식이 놓인 테이블에서 아몬드 과자를 집어 먹더니 킁킁 웃음을 터뜨리는 두 명의 젊은 여자의 요구에 함께 사진을 찍는다. 메이웨더는 <허핑턴 포스트> 기자와 10분 정도 앉아 인터뷰를 한 뒤, 다음 장소인 힙합 라디오 방송국 'HOT 97 스테이션'으로 이동한다. 거기에서 그는 래퍼 '달리브 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여성 DJ 엔지 마르티네즈와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날 하루 중 가장 긴 인터뷰였다. 메이웨더는 오후 내내 받은 똑같은 질문에 늘 허던 대로 능숙하게 답변을 늘어놓는다. "메이웨더 브랜드를 만드는 것, '머니팀' 브랜드를 만드는 것,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답변의 주요

“ 내 목표는 승리다. 무패의 기록을 지키는 데 연연하지 않는다. 내 앞에 어떤 상대를 데려다 놓든지 간에 난 상대를 이기는 데에만 집중한다. ”



5:07 P.M.

8



5:58 P.M.

9



6:15 P.M.

10

내용이다. 그는 “머니팀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풍요워지는 것”이라며 사업 철학을 밝혔다. 팬들에게 남기는 “웹사이트에 와서 모자랑 티셔츠를 사라”는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다. 경기 전 선수들이 보여주는 요란한 연출에 대해서 그는 “진짜로 그 연출처럼 상대를 때려눕힐 자신이 있다면, 그게 100% 땀이나 허풍은 아니잖아”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충격적인 실신 KO패를 당한 그의 전(前) 숙적 매니 파퀴아오에 대해 몇 차례 유감을 표했다. “그저 그가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참패는 인생을 통째로 망쳐놓을 수 있다.”

‘머니’ 메이웨더다운 건방지고 센 대답을 이끌어내지 못해 약이 오른 DJ 마르티네즈가 메이웨더의 예전 절친 ‘50센트’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50센트는 메이웨더와 권투 프로모션 사업을 벌이려 했지만 둘 사이가 나빠져 실패로 돌아갔다.

“50센트와 관계가 궁금하다.” 그녀의 질문에 메이웨더가 “나는 여자랑만 관계한다”라며 우스갯소리로 받아친다. “비즈니스를 할 때 사람들은 서로 눈을 보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눈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의 길을 갔고, 난 내 길을 갔다. 그는 내 친구였다. 내가 그의 친구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사이에 유대감이 깊었던 건 사실이다.”

50센트는 공개적으로 메이웨더를 비난했다. 메이웨더와 파퀴아오의 경기가 무산된 일부터 메이웨더의 모자란 비즈니스 감각까지 말이다. 그는 메이웨더의 경제관념을 이렇게 묘사했다.

“싸우고 돈 받고, 그 돈을 다 쓰고 또 싸운다. 이게 무한 반복된다.”

메이웨더의 험픈 씬숨이에 대한 그의 발언은 화려한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산으로 스러진 파이터들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돈이 없어서 결국 라스베이거스의 시저스 팰라스 호텔에서 전대원으로 일한 조 루이스부터 수백만 달러를 벌어서 시베리아 호랑이를 키우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돌아다니던 2003년 파산을 선언한 마이크 타이슨처럼 말이다. 메이웨더는 스포츠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고, 또 평평 쓴다. 타이슨처럼 말이다. 자동차와 보석을 사고, 친구들에게 1만 달러짜리 저녁 식사를 접대하고, 전세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은 물론 스포츠 도박을 즐긴다는 인터넷 루머까지 돈다. 메이웨더는 지난해 NCAA 풋볼 게임에서 미시간 올버린이 앨라배마 크림스 타이드를 이긴다는 데 3만 달러를 베팅해 모조리 잃었다는 소문을 부인했다. 사실 그가 일곱 자릿수의 돈을 베팅하는 것은

망설일지도 모르지만, 여섯 자릿수의 돈을 베팅하는 데 쫄 사람은 아니다. 그는 가끔 트위터에 베팅 인증샷을 올리곤 한다. 메이웨더는 자신의 스포츠 베팅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캠블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짓는 건 옳지 않다. 어제도 안 했다. 오늘도 안 할 거다.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난 도박에 중독되지 않았다.”

BIG MATCH!

메이웨더가 뚱개버린
45번째 최성양,
사울 ‘카벨로’ 알바레스와의
스팩 대결!



메이웨더

VS.



알바레스

36	나이	23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출신	과달라자라, 멕시코
머니	별명	카벨로(계피)
머리 뭐?	머리카락 색	계피색
아버지와 삼촌 모두 프로 복서	가족 관계	3형제가 모두 프로 복서
176cm	키	179cm
 래퍼 LL 쿨 제이의 어린 시절	닮은꼴	 키작은 농구 선수 블레이크 그리핀
45전 무패	기록	43전 1무 1패
캠블링	취미	승마
저스틴 비버	유명인 친구	오스카 데 라 호야

C CNN으로 향하는 길에 우리는 47번가의 다이아몬드 전문점에 들러 메이웨더의 다이아 체인을 수리했다. 정비공이 3만 달러짜리 체인을 수리하는 동안 주얼리숍 직원이 메이웨더에게 진열대에 놓인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시계를 팔려고 한다. 요란하게 반짝이는 무지개색 손목 줄에 싸구려처럼 보이는 보석이 박힌 시계를 그의 앞에 내놓는다. “이런 걸 누가 차? 내 딸내미가?” 메이웨더가 실실 웃는다.

사람들이 유리창 밖에서 휴대폰으로 그를 도촬한다. 음식 배달원이 다가와 기름 묻은 음식 봉투를 그에게 건넨다. 메이웨더는 100달러짜리 돈봉투를 꺼내 본다. 체인 수리가 끝났다. 메이웨더는 “지금은 CNN에 가야 한다. 내일 또 오겠다”라고 말한 뒤 자신의 뒤에 애벌레처럼 줄줄이 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간다. 밖에는 한 무리의 사람이 그의 트럭을 둘러싸고 있다. 메이웨더의 뒷좌석에 앉은 보디การ์ด 한 명이 음식 봉투 안에서 프렌치프라이를 꺼내 먹으며 말한다. “이런 일은 비밀비재하다.” 그가 차를 둘러싼 사람들을 보며 말한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몰려와서 우리가 경호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 한다.”

CNN과 짧은 인터뷰를 끝낸 후, 마지막 총착지인 힙합 음악 방송국 ‘BET’s 106 & Park’로 향했다. 우리는 백스테이지로 안내를 받았다. 메이웨더가 약혼녀 산텔 잭슨의 옆에 앉자 프로듀서가 그를 준비시킨다. “혹시 로션 있는 사람!” 메이웨더가 묻는다.

몇 분 후, 그가 무대에 오르자 고등학생들의 함성 소리가 터져 나온다. 메이웨더는 공중 진행자 바우와우 옆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한다. 다이아몬드 선글라스를 쓰고, 오늘날 해도 벌써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를, 게다가 앞으로 끊임없이 언급할 게 분명한 이야기를 반복한다. “머니팀의 최종 목표는 마음의 풍요를 얻는 것이다...”





▶▶▶▶
태권 소녀 태미와 함께하는
MAXIM
가을 운동회



지난 8월 17일,
잠실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두산베어스 전.
이날 경기 내용보다 화제가
된 것은 '태권 소녀' 태미의
화려한 돌려차기 시구였다.
외신 기자들도 놀란 멋진
공중회전 발차기로 확 뜬 그녀,
MAXIM과 함께한 박 터뜨리기도
날라차기 한 방으로
끝내버렸다니까?
BY 손안나 PHOTOGRAPH YuD

Who's That Girl? #9

오늘 MAXIM 스태프와 명랑 운동회 콘셉트로 촬영을 했는데, 어땠나?

화보 촬영은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부담됐는데, 역시 MAXIM 화보는 재밌다. 코믹 요소도 있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즐겁게 촬영했다. 이런 화보도 있구나!

'태미'라는 이름에 의미가 있나?

'태권도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다. 소속사 이사님이 만들어줬다. 또 영화 <더 킥>에서 극 중 이름이 태미다.

그럼 본명이 뭐가?

음... 어... 김...경숙이다...

좋...좋은 이름이다... 자! 시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다. '공중회전 시구'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나?
내 아이디어다! 정확한 명칭은 내 주특기인 45도 뒤후리기 기술이다.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다. 해외에서 러브를 보내는 흑형이나 백형은 없었나?

전혀 예상도 못 했는데, 반응이 엄청 뜨거워서 놀랐다. 현재 MLB에서 시구를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갈 거다!

팬질 하고 있는 야구팀이 있나?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가족이 모두 두산 팬이다. 좋아하는 선수는 두산의 유희관 선수다. 시구 연습할 때 친절하게 가르쳐주셨다.

영화 <더 킥>에서 화려한 액션을 선보였다. 액션 말고 다른 장르의 영화도 찍어보고 싶나?

<엽기적인 그녀>처럼 코믹 요소를 가미한 로맨틱 코미디를 찍고 싶다. 액션을 넣으면 더 좋고!

SBS <정글의 법칙>에서 흥일점으로 등장했다. 좋았나?

여자다 보니까 오빠들이 많이 챙겨줬다. 사실 화장실을 자유롭게 못 가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해외 로케 버전 <1박 2일>이라는 말에 낚여서 갔다. 그렇게 힘들 줄 몰랐다.



신발 컨버스
브라 갈라짐



거.. 경숙아!
같이 가자

She Was In...



지난 8월, 잠실 야구장에서 '공중회전 시구'로 화제를 모았다.



〈더 킥〉에서 발차기로 악당들을 물리치던 태권 소녀



〈정글의 법칙〉에서 무한 백치미를 발휘하던 홍일점

신발 리복
팔찌 어거스트 하모니

Who's That Girl? #9

“

남자애한테 맞고 화나서
머리를 발로 내리찍어버린
적도 있다.

”



무술 하는 여자는 어떤 남자에게 끌릴지 궁금하다. 강한 남자와 부드러운 남자 중 어떤 남자가 좋은가?
강한 남자가 좋다. 운동하는 남자면 더 좋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남자와 싸워본 적도 있나?
겨루기를 할 때 보통 여자와 붙었다. 그런데 내 주특기가 상단 발차기라서 여자들이 항상 맞고 울더라. 그러다 보니 관중감이 남자애들이랑 겨루게 했다. 남자애한테 맞고 화나서 머리를 발로 내리찍어버린 적도 있다.

연예인 중에 태권도 겨루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이수근 씨! 사실 다음 주에 tvN <세 얼간이> 생방송에서 겨루기를 하는데, 이수근 씨도 굉장한 실력자다. 태권도 5단이라고 하더라.

종합격투기를 배웠다고 들었다.
김동현 선수에게 배웠다. 선수 제안도 받았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재밌더라. 요즘은 칼이나 카미(낫)를 쓰는 실전 무술도 배우는 중이다.



신발 나이키 by 카시나

종합격투기와 태권도를 비교하자면?

태권도는 타격이 주요 동작인데 반해, 종합격투기는 조르기나 꺾기가 많다. 재밌더라. 아파하면서 놀아달라고 해도 안 뇌준다. 내가 서브미션 기술을 제법 잘한다.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 다리가 두꺼울 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직접 보니 몸매가 아주 좋다! 자신 있는 부분은? 잘 봤다. 다리가 가장 자신 있다.

아이돌 가수로 데뷔할 뻔했다고?

그름 '라니아' 초창기 멤버로 함께 준비했다. 도중에 영화 섭외가 들어와 촬영을 하다가 빠지게 됐다. 원래 노래도, 춤도 잘 못해서 나중에 합류하지 못했다.

태권 댄스 동영상을 봤다. 춤은 못 춰도 왠지 클럽은 좋아할 것 같다.

해외에서는 자주 즐기는 편이다. 태권도 퍼포먼스 시범단 'K타이거즈' 해외 공연이 있을 때면 낯선 공연하고, 밤엔 클럽을 간다. 양주 한 병 시켜놓고 흠어져서 놀다가 다시 모일 때는 무대를 장악한다. 모르는 사람들 앞인데 뭐 어때?

'얼짱 태권 소녀'로 유명했다. 헌팅 많이 당하지 않았나?

사실 태권 소녀답지 않게 그런 거 무서워한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오면 도망 다니느라 바쁘다. 지하철에서 알아보는 분도 있더라. 그럴 때마다 하필 물결이 엉망이라서 도망갔다. 미안해요! 



태미
발차기의
진가는
영상으로



→
태미

생년월일: 1990년 4월 23일

데뷔작: <더 킥>

이상형

공유나 김수현이 좋다.
자기 관리를 잘할 것 같지 않아?

즐거 듣는 노래

임재범의 '비상'

노래방 애창곡

흥겨운 트로트를 좋아한다.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

최고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원래 사극을 안 좋아하는데,

이건 정말 코믹했다.

보물 1호

태권도!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WORDS 조종재 박정숙 HAIR/MAKEUP 장혜민 VIDEO 김상수 ASSISTANT 김소율 LAYOUT 서윤정
COOPERATION 나이기 by 카시나(02-3445-1235) 리복(02-3446-4068) 슈조원(02-3443-1703) 어거스트하모니(070-8839-8255) 컨버스(02-3447-7701) 칼라폼(1544-6101)

신발 슈즈원

Style



남친에게 채워주고 싶은 벨트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니가.

BY 김희성

MODEL 2012 MISS MAXIM 준우승자 엄상미



옷을 센스 있게 입고 싶은데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괜히 인터넷에서 올 가을 유행 패션
검색해서 이상아릇한 아이템 시도하다가
피 보지 말고 일단 벨트부터 질러라. 벨트
하나만 잘 둘러도 옷 잘 입는 남자로 보일
수 있다. 여자의 시선이 한 눈에 꽂히는
벨트를 골라봤다.

1

2

3

4

5

6

벨트 잘
채우는 법



- 1. 스톤아일랜드 310,000원
- 2. 브라운브레스 48,000원
- 3. 라이폴 59,000원
- 4. 스톤아일랜드 360,000원
- 5. 시스템웜 109,000원
- 6. 브라운브레스 28,000원



로고 모양대로 버클 앞부분이 뚫려있다. 갈퀴식 원터치 고정타입 버클로 버클 뒷부분은 병따개 기능까지 탑재했다. 손가락으로 병 따는 묘기도 이제 식상한데 벨트를 풀어 병뚜껑 해체소 한 번 해 봐?
에트니스/ 32,000원



뭘 고를지 잘 모르겠으면 어디에나 무난한 스트라이프 벨트가 답이다. 끝 부분에는 벨트가 쉽게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가죽이 부착돼 있다. 여차피 풀 건데 이런 배려까지 해주시오...
브라운 브레스/ 28,000원



네 가지 패턴의 원단 조각을 핸드메이드로 이어 붙였다. 청바지에 돌려주면 훈남 스타일이 물씬 난다.
라이폴/ 59,000원



보드 브랜드 엔조이를 대표하는 팬더 프린팅이 버클에 박혀 있어 한눈에 허리춤으로 시선이 가는 벨트. 100% 폴리에스테르 원단으로 되어있어 튼튼하고 오래간다.
엔조이/ 35,000원



색깔은 아주 무난한데 패턴이 독특하다. 캐주얼한 차림에는 어디든 코디해도 잘 어울린다.
브릭스톤/ 35,000원



양면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벨트. 한 면은 화려한 그래픽 프린팅, 한 면은 무난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병따개 기능 탑재
에트니스/ 35,000원



쇠로 된 징이 박혀있는 벨트...는 웨이크. 사실은 징 장식이 프린트 된 벨트. 나만 낚였나? 독특한 디자인의 벨트로 허리에 힘 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
엔조이/ 59,000원



세 가지 색상의 데님이 블록처럼 센스 있게 배열돼 있어 이 벨트 하나만 허리에 둘러도 옷을 잘 입는 남자처럼 보인다. 가장 무난한 색깔이 가운데로 오기 때문에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최고급 소가죽으로 장식되어 은근히 눈길을 끈다. 아, 남친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이 허리띠부터 선물해 줘야!
라이폴/ 59,000원



버클에 새겨진 브랜드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장식도 없는 아주 무난한 검정 벨트다. 이런 벨트는 어디에 해도 잘 어울려 코디하기가 쉽다. 이렇게 심플한 벨트와 튀는 벨트를 하나씩 사서 번갈아 하면 당신의 옷 입는 센스가 남달라 보일 거다.
칼하트 WIP/ 37,000원

PHOTOGRAPH: Zho ASSISTANT 김세형 김소윤 COOPERATION 라이폴(02-511-7288) 브라운브레스(02-323-2909) 스트라이프(02-3446-9949) 시스템(02-546-7764) 브릭스톤(www.worksout.co.kr) 칼하트WIP(www.carhart-wip.co.kr) 에트니스, 엔조이(www.3vicmail.com)

Style Caps

Heads Up!

입에서 힙합 라임이 저절로 나는 간지 모자들.

1. American Eagle Outfitters AE baseball cap

평범 룩에 포인트를 주는 선명한 와인색 캡. 11,900원. us-shopper.net

2. ...Lost Enterprises War Pig cap

하늘색 배경에 흰색 모트 무늬로 발랄한 밀리터리 스타일을 연출하자. \$25. catalystshop.com

3. Brixton Oath snapback cap

국방부 st. 카무플라주와 선명한 빨간색 캡이 센스있다. 내 예비군 모자도 이렇게 바꿔주래 34,600원. trendus.co.kr

4. Stussy Savannah camp cap

챙이 좋아 귀여운 갈색 스웨이드 스냅백. 여자 친구와 '커플 모자' 하면 좋겠다(근데 여친이 없네. 빌어먹을). 34,600원. buyself.co.kr

1

2

3

4

5

8

7

6

9

5. Vans Dunsmore Native camo cap

뽀족뽀족한 카무플라주 패턴이 강렬하다. 머리통에 장착하면 X나 세 보일 거야. \$26. shop.vans.com

6. Brokn Legend Red Rocks cap

컬러 그라데이션이 한 폭의 산수화 같다. 아야, 청산~! \$95. broknlegend.com

7. Katin Buffalo cap

서핑 브랜드 카틴에서 만든 캡. 책을 보니 추억의 오락실 게임 <갤러그>가 떠오른다. \$33. katinusa.com

8. HUF Metal H Spray camo snapback

황금빛 'H' 로고가 강렬하다. 힙합, 힙합, 존나 힙합. 53,200원. buyself.co.kr

9. New Era Wood camper

나무껍질 그래픽이 개성 넘친다. 이걸 쓰면 머리통에서 좋은 나무향이 날 것 같아. \$30. neweracap.com

Military Watches

진짜 사나이는 이런 시계를 차고 다니지.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1. 타이맥스

얇은 소재의 나일론 스트랩이라 가볍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브랜드인만큼 격식을 차리기도 보다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것을 선호하는 당신에게 딱이다. 정장보다는 면바지, 구두보다는 운동화, 서류가방보다는 백팩에 더 어울리는 디자인이다.
\$65, kohls.com

2. 부로바

Commemorative Hack Watch
과거 파일럿들이 차고 다니던 시계의 기능과 디자인을 부활시켰다.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당기면 초침이 멈추는 '해(hack)' 기능이 있어 시간을 초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150, bulova.com

3. MTM

Special Ops
감마선 감지기가 장착돼 방사능 에너지가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지금 일본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시계!
\$1,500, specialopswatch.com

4. 빅토리노스 스위스아미

Night Vision
버튼을 누르면 블루라이트가 들어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시간을 알아볼 수 있으니 캠핑을 즐기는 당신에게 딱이다. 그녀가 카시트 밑에 화장품이나 귀걸이를 떨어뜨렸을 때도 아주 유용할 거다.
\$695, lordandtaylor.com

5. 닉슨

Time Teller Acetate
다른 복잡한 기능 없이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에 충실한 건전지 시계다. 시침, 분침, 초침과 시간을 표시하는 눈금이 전부다.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하면서도 스트랩은 아세테이트로 되어 있어 패션 소품으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한다. 세련되어 보이고 싶은 복학생에게 이만한 시계도 없을 듯.
\$150, nixon.com

6. 벨앤로스

Military Ceramic
항공기 계기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기계식 손목시계다. 우주인이나 조종사, 다이버, 폭탄 제거반 등 극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시계이니만큼 극단적인 기온이나 기압 변화, 심한 충격에 강하다(폭탄이 터지면 폭탄제거반은 죽고 시계만 살겠네). 어떤 상황에서도 고장나지 않는 튼튼한 시계를 갖고 싶다면 이게 정답.
\$4,500, bellross.com

7. 루미녹스

Recon Point Man
간지 터지는 외관만큼이나 특수 기능도 많이 탑재돼 있다. 태양이 있는 곳에서는 나침반이 작동하고 행군 속도도 측정해 준다. 기존 항공 시계보다 약 100배나 밝고 무려 25년 이상 수명이 지속되는 루미녹스만의 '루미나이트 기술'도 적용됐으니 이 시계를 차고 있는 것만으로도 FBI 요원이라도 된 듯한 우월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거다.
\$425, tourneau.com



Style / Campus Battle #1

서강대 vs. 홍익대

개강 첫날 한껏 차려입은 선남선녀 대학생들 만나러 MAXIM이 상반되는 이미지의 상아탑 두 곳을 찾았다. 최고의 면학 분위기를 자랑하는 서강대, 그리고 젊은 문화의 상징 홍익대. 과연 어디 물이 더 좋을까? BY 손안나 박정욱



서강대학교

강도보라/21/커뮤니케이션학과 →
 힘준 아이템: 로드샵에서 구매한 원피스
 방과 후 서식지: 홍대 '로닌', '에이랜드'
 이상형: 재미있고 개념 있는 남자
 맘에 드는 헌팅 멘트: "오늘 시간 되세요?"
 학교 자랑: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고
 캠퍼스가 환경친화적이다.



이충민/42/프랑스 문학과 강사
 힘준 아이템: 캐나다에서 구매한 티셔츠와 인터넷에서 구매한 바지
 방과 후 서식지: 홍대 옹다방, page A
 이상형: 기혼인데 그런 걸 물어봐?
 자주 쓰는 헌팅 멘트: 이 사람이...
 학교 자랑: 학교가 공부를 많이 시킨다. 그래서 성실한 학생들이 많다.



박경완/21/사회과학대학 →
 힘준 아이템: 유럽 여행 중 구입한 스니커즈
 방과 후 서식지: 서강대 앞 살롱메리제인
 이상형: 목소리 좋은 여자. 여자 목소리면 다 좋다.
 자주 쓰는 헌팅 멘트: 해본 적 없다.
 헌팅 기회가 생기면 고민해볼게.
 학교 자랑: 캠퍼스가 아담하고, 예쁜 여자가 많다.





홍익대학교

↑ 최서진/24/조소과

힘준 아이템: 홍대 로드샵에서 구매한 핑크색 슬리스리스 탑

방과 후 서식지: 이태원 해밀턴 골목

이상형: 배울 점이 많은 사람. 배울 점이 없어도 이병헌 같이 생겼다면 OK!

앞에 드는 헌팅 멘트: 병맛 같지만, 창의적인 멘트. 예를 들어 “팩스번호 알려줘요.”

없으면 전화번호도 괜찮아요”

학교 자랑: 4년을 다녀도 헛갈리는 미로 같은 구조의 캠퍼스.

마이클 웰즈/48/영문학 작문 교수 →

힘준 아이템: 홍대 정문 근처 빈티지샵에서 수집하고 있는 보타이

방과 후 서식지: 홍대 근처 닥트 바

이상형: “I’m married.”

자주 쓰는 헌팅 멘트: “I said, I’m married!!!”

학교 자랑: 캠퍼스가 코딱지만 해서 아늑하다.

게다가 주변에 괜찮은 맥주집도 많다.



↑ 최수희/20/목조형 가구학과

힘준 아이템: 에잇세컨즈에서 산 얼룩무늬 티셔츠

방과 후 서식지: 홍대 피카소 거리

이상형: <아빠, 어디가?>의 윤후 아빠 윤민수처럼 가장적인 남자!

학교 자랑: 홍대 문화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나?

앞에 드는 헌팅 멘트: 생각해 본 적 없다.



다음엔 어느 학교를 가볼까?



저기요, 스타일 좋은신데요?



Style news

버그하우스, 마하 다운 점퍼 출시!

영국 아웃도어 브랜드 버그하우스가 마하 다운 점퍼를 출시했다. TASLAN 소재로 원단의 마모를 방지했으며 착용감이 좋다.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는 아웃도어형 다운 점퍼로서의 실용성까지 갖췄다. 남녀 모두 취향에 따라 입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과 사이즈로 출시된다. 10월 10일까지 예약 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할인,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미리 겨울을 준비하면 큰 이익!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기능까지 좋은 다운 점퍼가 있는데 너 아직도 등골 브레이커니?
199,000원, 버그하우스코리아
 (02-2028-6877, www.berghauskorea.co.kr)



뉴에라, 미국 스포츠 리그를 모티브로 한 에스닉 패턴 컬렉션 출시

뉴에라가 59FIFTY를 기본으로 한 미국 각종 스포츠 리그 팀의 모자를 출시한다. 미국 NBA, NHL, NFL 리그의 인기 있는 팀의 모자에 추상적인 에스닉 패턴을 더해 새로운 패션의 형태를 제시했다. 이 모델들은 검정색 크라운에 눈길을 확 끄는 에스닉 패턴의 채를 더해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모자의 디자인을 독특한 감성으로 재해석했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모자를 쓰고 경기를 보는 재미가 아주 쓸쓸할 거다. 10월 초 발매 예정.

가격 미정

뉴에라(www.neweracapkorea.com,
www.facebook.com/neweracapkorea)



탐스 아이웨어, 신상품 2종 출시

멋내기 좋은 계절인 가을을 맞아 탐스 아이웨어에서 신상품 YVETTE (이베트)와 BELLEVUE(벨뷰)를 출시했다. 이베트 모델은 코 받침대 부분이 메탈로 처리되어 감각적인 디자인에 세련미를 더했다. 레오파드와 삼페인 총 2가지 컬러로 출시될 예정이다. 벨뷰 제품은 부드러운 원형의 프레임이 특징이며 레오파드와 블랙 색상을 채택하여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이다. 라식을 하고도 얼굴을 가릴 필요가 있는 친구에게 꼭 추천해주자.

219,000원(이베트), 159,000원(벨뷰),

탐스 아이웨어(1544-5344, www.tomsshoes.co.kr)



닥터마틴,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영국 캐주얼 슈즈 브랜드의 대명사 닥터마틴이 주력 제품인 신발과 가방,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선보이고 디펄스의 공연 등의 다양한 오픈 행사를 가졌다. 이 매장은 전 세계에서 60번째로 오픈한 플래그십 매장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여는 닥터마틴의 직영 플래그십 스토어다. 이번 오픈을 계기로 2014년까지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콘셉트의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 국내에서도 닥터마틴 스타일로 온 몸을 꾸민 닥터마틴 매니아들이 거리를 누비겠구먼!

닥터마틴(02-431-2562, www.drmartens.co.kr)



트루릴리전, 제이크 인디고 1971 웨스턴셔츠 출시!

아메리칸 데님 브랜드 트루릴리전이 활동성과 실용성이 좋은 웨스턴셔츠 제이크 인디고 1971 웨스턴셔츠를 출시했다. 은은한 핸드 워싱으로 디자인하여 어떤 스타일에도 매칭이 가능하다. 이탈리아 원단 소재는 우수한 촉감과 내구성이 강해 기존의 웨스턴 셔츠보다 편하게 입을 수 있다. 제이크 웨스턴 셔츠는 전국 트루릴리전 매장 및 전세계 백화점 블루잇, 롯데백화점 진스퀘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임스 딘 같은 거칠지만 섬세한 감성을 가진 남성들은 데님으로 멋을 부리는 법!

348,000원, 트루릴리전 코리아(02-3446-5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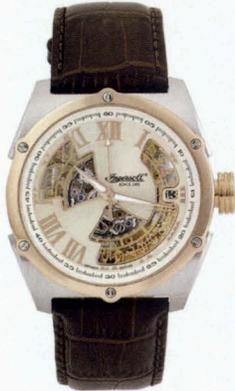
Watch out!



자스페로, Acque Profonde(아쿠아 프로폰데) 출시

박력과 매력 넘치는 남성으로 그녀에게 어필하고 싶는가? 그렇다면 자스페로 투파토레 라인의 아쿠아 프로폰데 모델을 추천한다. 자스페로의 로고 문양이 반복적으로 새겨진 자판과 메탈 스트랩에서는 강인한 파워가 느껴지며, 플라이 커버를 채택해 남성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특히 메탈 베젤 위에 속도 측정이 가능한 타키미터 기능을 넣어 디자인뿐 아니라 기술력도 잡았다. 팔뚝에 우뚝 솟은 혈관들과 잔 근육이 없어도 괜찮다. 아쿠아 프로폰데로 상남자 인증을 해보자!

747,000원,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



가을에 더 섹시한 잉거솔 Tipi(티피) IN2709RG

당신, 가을이라고 우울한 기분에 젖어 진짜 추남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정신 차리고 들어라. 쌀쌀해질수록 여성들은 외로움을 타는 법! 작업 성공률을 높이는 섹시한 잉거솔 티피 모델을 추천한다. 내부를 보일 듯 말 듯 스키텔론으로 감싸 섹시한 감성을 풍기며 금속 재질의 분침, 시침, 숫자판으로 세련미를 갖췄다. 거기에 가을에 어울리는 가죽 스트랩에 금빛 용두로 마무리 올 가을 섹시한 남성이 되고 싶다면, Get it!

550,000원, (주)거노코퍼레이션(02-3397-7100, www.eurotime.kr)

루미녹스 ATACAMA(아타카마) Field Day Date 1922

밤에 더욱 빛을 발하는 아웃도어 워치 루미녹스 아타카마 Field Day Date 1922를 소개한다. 아타카마는 Field Timepieces 시리즈로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극한 상황에서 완벽한 임무를 수행하는 거친 남자의 매력을 상징하는 워치. 견고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브레슬릿은 강인한 매력을 발산한다. 루미녹스만의 자체 발광 기술은 물론 기본! 야영이 트렌드인 요즘, 로맨스 아이템으로 제격. 자기가~ 빛나는 시계 보러 텐트 안으로 들어올래? 왜~? 뭐가 부끄러워?

800,000원, 밀림시계 (02-757-9866, www.milimwatch.co.kr)



독특한 라임색의 워치, 제이스프링스 BFD076

패션리더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제이스프링스의 크로노그래프 스포츠라인에서 독특한 디자인의 워치 제이스프링스 BFD076를 선보인다. 단단한 메탈 스트랩에 검정색 바탕의 라임색 문자판을 매치하여 유머러스하면서도 독특한 감성을 표현했다. 또 라임색의 버튼과 초침으로 예지 포인트를 잡았다. 100m 방수 기능과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탑재하여 실용성까지 잡았다. 왠지 우울해지는 이 가을, 기분만은 상큼해지고 싶다면 제이스프링스!

260,000원, 성원 아워타임(02-3445-4603)



야누스의 매력, 헬다이버 SB2C-5001

청량한 이미지가 인상적인 시계 브랜드 헬다이버에서 세 개의 문자판을 가진 독특한 디자인의 새 모델 SB2C-5001을 출시한다. 각각 시간 표시가 가능한 문자판 덕에 한눈에 세계 여러 곳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청량한 블루 컬러의 문자판은 헬다이버의 DNA를 그대로 계승했으며 메탈 스트랩으로 멋을 더했다. 4종의 색상으로 출시되어 선택의 폭을 넓혔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라. 가격 미정, 헬다이버(1644-3885, www.helldiverwatches.com)



고급스러운 스포츠 워치, ALBA Active Gents AU2082X

고급 패션 워치 브랜드 ALBA가 스포츠 워치 AU2082X를 선보인다. 반원 모양의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을 적용한 1/5초 크로노그래프는 자동차 계기판의 모습과 흡사해 다이내믹한 분위기와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또 입체감 있는 문자판으로 디자인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다크 브라운의 케이스와 가죽 스트랩에 로즈 골드 컬러를 더해 통해 고급스러운 멋을 높였다. 자동차 계기판 같은 디자인에 으렁거리는 터프한 엔진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300,000원, 삼정시계(02-511-3182)





‘웰터급 존 존스’ 임현규의 UFC 2연승 질주

 지난 9월 1일, UFC 164. 벤 핸더슨은
라이트급 타이틀을 잃었고, 강경호는 개최지 출신
상대와 벌인 경기에서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으로 패했다.
그러나 새롭게 떠오른 코리안 파이터 임현규만큼은
대항거포의 본색을 드러내며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입증했다.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서울환경시스템
Seoul Environment System

YEON SOUND

→ 시작은 호기심으로

임현규는 1985년생이다. 중학교 시절까지 축구부와 육상부에서 활동했고, 그즈음 복싱을 접하면서 격투에 눈을 뒀다. 그는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MMA의 존재를 몰랐다. 2003년경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선임의 소개로 프라이드를 접하게 되었는데, 잔인한 것 같으면서도 흥미로웠다고 한다. 제대 직후인 2005년 11월 임현규는 집 근처에 있는 종합격투기 도장을 방문했다. 정찬성, 양동익 선수 등을 탄생시킨 코리아 팀이었다. 시작은 일반 관원이었다.

특별히 선수를 목표로 한 운동은 아니었다고 한다.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탐팀 하동진 대표의 레이더에 걸려들면서 그의 운명은 전기를 맞이했다. 하 대표는 임현규를 선수부로 콜업시켰고 본격적인 담금질을 시작했다. 신장 187cm에 리치가 200.6cm에 달하는 임현규는 한계체중 약 84kg의 미들급으로, 2006년 프로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데뷔전에서는 판정승을 거두었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는 무승부, 세 번째 경기에서는 서브미션 패했다. 그렇게 인상적일 것이 없는 출발이었다. 첫 패배 이후 임현규는 13개월 동안 경기를 하지 않았다. 2008년 3월 복귀한 그는 같은 해 8월까지 4연승(3KO 1SUB)을 달렸다. 4연승의 마지막 경기는 임현규의 웰터급(-77kg) 데뷔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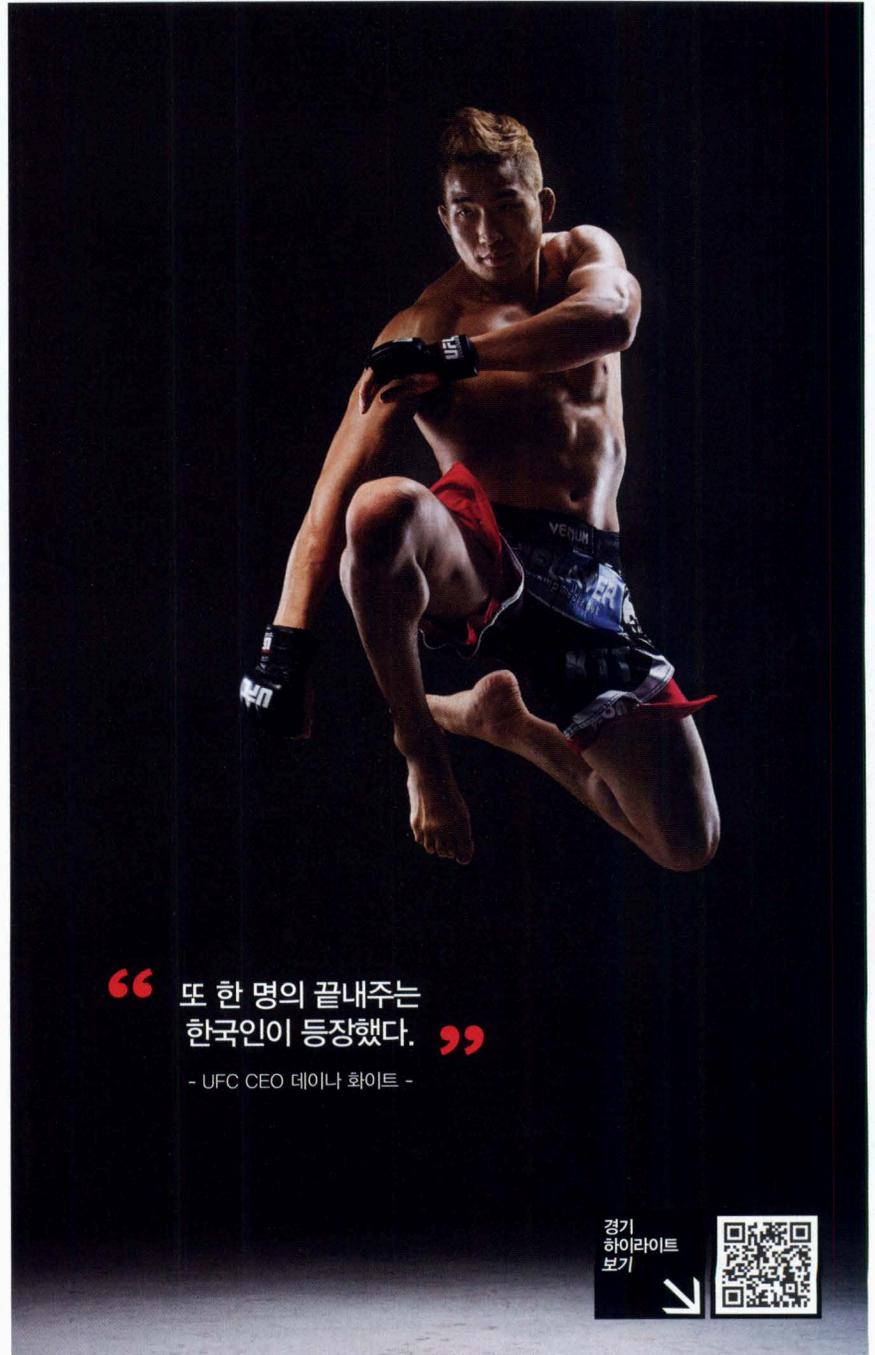
체중 감량이 관건이다

대함거포주의(큰 포를 장비한 큰 군함만이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략 사상)는 이미 2차 세계대전 중 폐기된 이론이다. 그러나 체급별 스포츠계에서는 여전히 더 큰 몸, 한 차원 위의 파워가 진리이자 정석이다. 종합격투기, 킥복싱, 복싱, 레슬링, 유도 등 체급별 경기에서 선수들이 겪는 감량고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체중과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한계체중 내에서 최대한 큰 몸집과 힘을 갖추고 나가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기 위해서다. 임현규의 선택은 그중에서도 매우 공격적이었다. 웰터급의 평균 신장은 약 182cm, 리치는 185cm가량이다. 신장 187cm에 리치가 2m가 넘으며 그렇다고 마른 체형도 아닌 임현규가 웰터급에서 싸우기로 한 것은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 체급에서 세계 최대 사이즈를 확보할 수 있지만 체급을 내린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더 많은 체중을 빼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을 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량 과정에서 자칫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

웰터급에서 치른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임현규는 연패했다. 2009년 2월, 당시 그의 전적은 5승 3패 1무, 프로 경력 3년 차의 선수로서 다소 빈약한

전적이었다. 2010년 2월까지 1년 가까이 경기를 쉬 임현규는 복귀전에서 1라운드 KO승을 거두었다. 다음 경기에서도 1라운드 KO승, 연속 1라운드 KO 행진은 4경기 연속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 임현규는 단지 크기만한 선수를 넘어 사이즈에 걸맞은 무시무시한 살상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임현규는 2012년 7월 PXC 웰터급 타이틀에 도전했다. 이 경기에 걸린 것은 단지 벨트뿐이 아니었다. 4연속 1회 KO승을 거두던 당시, 국내 전문가 사이에서 임현규의 UFC

입성에 대한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먼저 UFC에 진출해 있던 정찬성과 양동익도 “임현규는 UFC의 위상에 부끄럽지 않은 톱 파이터”라는 주장을 틈나는 대로 펼쳤다. 경기에 앞서 하동진 감독은 임현규에게 “PXC 타이틀을 따면 UFC의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귀뜸해 그에게 강력한 목적 의식을 주입했다. 임현규는 PXC 웰터급 챔피언 라이언 비글러를 경기 시작 53초 만에 스탠딩 기요틴으로 간단하게 잠재웠다.



“ 또 한 명의 끝내주는 한국인이 등장했다. ”

- UFC CEO 데이나 화이트 -

경기
하이라이트
보기





임현규의 UFC 대전 상대들

→ 마르셀루 기마라에스:
2라운드 KO 승



→ 파스칼 크라우스:
'교통사고 니킥'으로 1라운드
TKO 승



UFC로 날아오르다

2012년 8월, 임현규는 UFC와 계약을 체결했다. 비슷한 시기 벤텀급의 강경호도 UFC 진출이 확정된 상태였고, 임현규와 강경호 그리고 1호 UFC 파이터 김동현은 2012년 11월 열리는 UFC 마카오 대회에 동반 출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경호는 발가락 부상으로 출장을 포기해야 했고, 임현규는 감량 도중 탈진해 쓰러지고 말았다. UFC 진출이라는 중대한 기로에서 그만의 특수한 문제가 터져버린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와 팬들이 임현규의 미래에 불안감을 느꼈다. 체중을 맞추지 못한다면 체력이 쏠든, 팔이 길든, 파워가 세든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임현규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찾아왔다. 무대는 UFC 일본 대회였다. 상대는 당시까지 8승 1무를 기록하던 마르셀루 기마라에스였다. 원래는 미들급에서 활동하다 UFC에 진출하면서 웰터급으로 체급을 낮춘 기마라에스는 신장이 183cm였고 움직임이 상당히 빨랐다. 임현규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긴장한 듯 몸이 굳어 있었고 걸음과 손놀림도 너무 무거워 보였다. 상대의 펀치에 안면을 계속 내주었고 좀처럼 공격에 성공하지 못했다. 2라운드 후반까지 점수로는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1분어를

남긴 시점에서 임현규의 왼쪽 니킥이 기마라에스의 안면을 강타했다. 단 한 방에 궤멸적인 타격을 입은 기마라에스는 그대로 쓰러졌고, 임현규는 진땀을 빼면서 UFC 첫 승을 거두었다.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결코 내용이 좋은 건 아니었다. 신장과 리치의 우위를 살리지도 못했고 너무 많은 것을 내주면서 경기를 했다. 국내 반응도 역전 KO승이라는 결과에 비해서는 시큰둥했다. "일격 파위 말고는 불안한 데가 많은 선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예상치 못한 승리

2013년 6월, 임현규의 다음 상대로 독일 출신의 파스칼 크라우스가 지명되었다. 크라우스는 당시 11승 1패 2KO 7SUB를 기록하고 있었다. 유일한 패배도 UFC 웰터급의 기대주 존 해서웨이를 상대로 한 것이었고, 그 경기에서 비록 졌지만 크라우스는 자신의 어마어마한 맷집과 근성 그리고 체력을 증명했다. '팬저(독일 전차)'라는 별명대로 묵직한 선수였다. 크라우스의 신장은 185cm로 임현규에 비해 크게 밀릴 것이 없고, 맷집과 체력 그리고 집요한 펀치와 킥은 과연 독일 전차 스타일이라 할 만하다.

반면 임현규는 판정까지 가 본 경험이 두 번에 불과하고 두 번 중 한 번은 2라운드 경기였다. 그나마도 2009년의 일이고 대부분의 경기를 1~2라운드에서 끝냈다. 자신이 과연 풀 라운드를 소화하면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스스로도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감량을 많이 하는 선수일수록 후반 체력 문제가 쉽게 노출되게 마련이다. 크라우스는 웬만큼 맞아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선수였기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임현규에게는 불리했다. 현지 도박판의 배당률도 크라우스 1.45, 임현규 2.7이었다. 도박사들은 7:3 정도로 크라우스의 우세를 점친 것인데, 이전까지 임현규를 살펴보면 그다지 놀랄 만한 수치는 아니었다.

계체량에서 임현규는 선글라스를 쓰고 나왔다. 그가 그렇게 외모로 치장으로 어필하는 선수가 아닌데 굳이 선글라스를 낀 이유는 아마도 눈 주변이 부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감량 폭이 크면 몸의 수분이 마르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고 그 결과가 눈 주변에 드러난다. 경기 당일에도 부기는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감량고가 심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웰터급 톱 레벨의 파괴력을 선보이다

웰터급치고는 사이즈가 큰 편에 속하는 두 선수의 대결답게 옥타곤이 꽉 차 보였다. 둘 중 누구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기에 라운드 초반부터 두 선수는 강력한 타격을 교환하며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다. 크라우스는 레프트 잭과 라이트 스트레이트, 레프트 훅, 원투, 로직 등 타격의 기본기를 위주로 단위 시간당 높은 공격 횟수를 유지해 상대를 갇아먹는 스타일이다. 임현규는 정면 화력 대결을 선택했다. 크라우스가 치고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강력한 받아치기를 걸었고, 크라우스가 물러나면 오히려 본인이 선공을 잡으며 밀고 들어갔다. 크라우스가 하나를 던지면, 임현규가 두세 개씩 갇아주는 일이 반복됐다. 확실히 그의 이전 경기와는 다른 그림이었다. UFC 데뷔전에서 만난 기마라에스에 비해 크라우스가 훨씬 어려운 상대인데도 경기는 오히려 쉽게 풀려갔다. 여러 번 서로 강한 것을 주고받기도 했다. 특히 라운드 초반에는 크라우스의 라이트 펀치가 임현규의 안면에 강하게 적중했지만,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충격을 흡수했다. 지금까지 확신할 수 없었던 임현규의 내구력이 확실히 증명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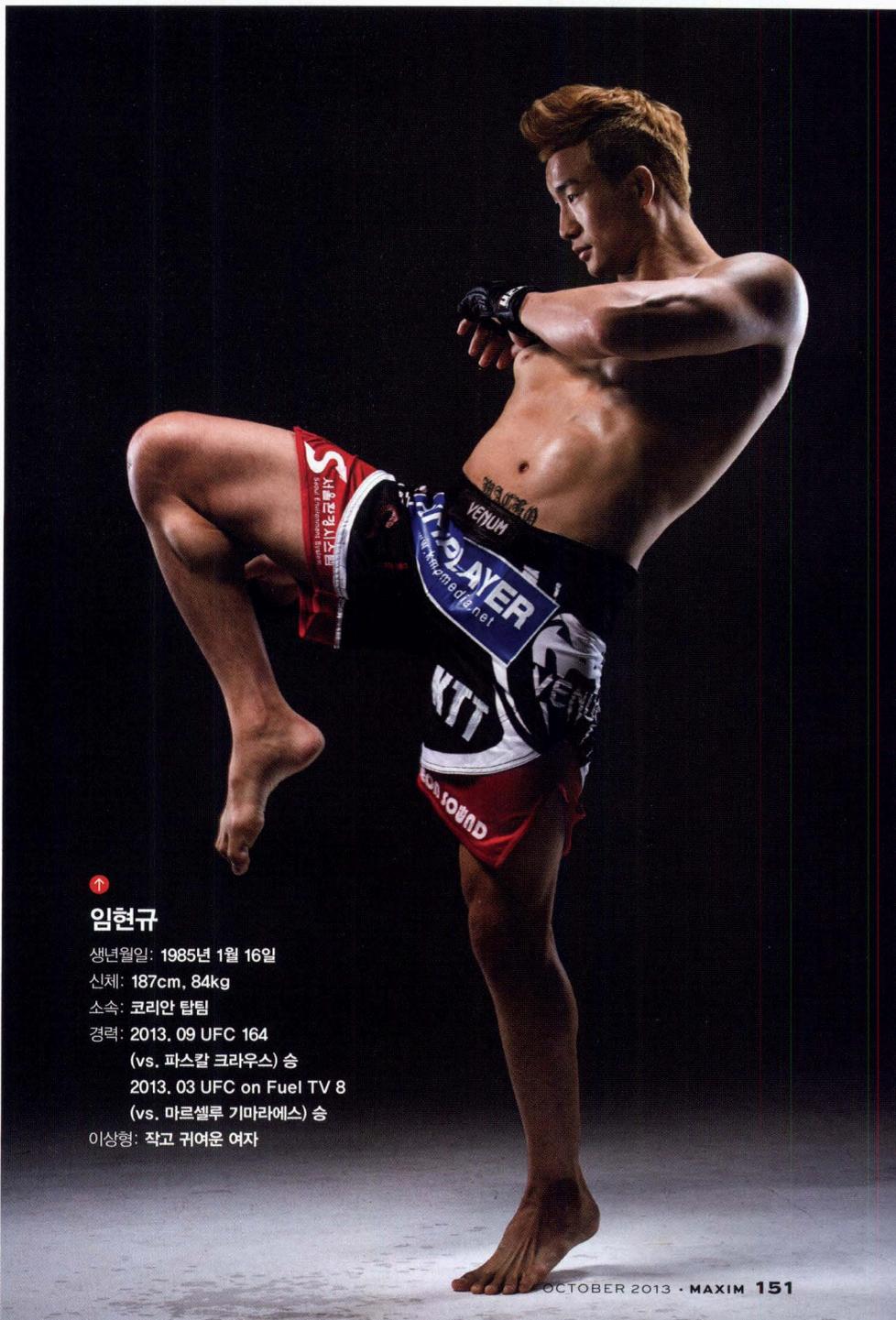
1라운드 3분 10초경 크라우스가 원투 잭을 시도했는데 그 사이를 임현규의 라이트가 관통했다. 임현규가 오른손 주먹으로 크라우스의 왼쪽 눈 위 이마 쪽을 때렸다. 급소라고 하기엔 어정쩡한 지점이었지만 크라우스의 다리가 바로 풀리면서 비틀비를 앞으로 넘어졌다. 임현규는 서두르지 않고 크라우스를 케이지로 몰아넣었으며 왼쪽 니킥을 크라우스의 안면에 적중해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기대 이상의 결과였다. 데뷔전과는 딴판이었다. 1라운드 KO, 한수 위로 인정받던 상대를 정면 승부로 넘어뜨린 것이다. 크라우스의 맷집은 굉장한 수준이다. 웬만큼 맞아서는 떨어질 선수가 아닌데, 임현규의 라이트가 카운터로 꽃히자 다리가 풀려버렸고 상당한 시간 동안 회복하지 못했다. 그만큼 임현규의 펀치는 무거웠다. 웰터급에 크라우스를 이런 식으로 잠재울 수 있는 파워 플레이어는 한 손에 꼽을 정도다. 파괴력 면에서 임현규는 일약 웰터급 톱 레벨로 올라선 것이다.

임현규가 얻은 것

경기가 끝나자마자 UFC의 CEO 데이나 화이트는 트위터에 “임현규라는 또 한 명의 끝내주는 한국인이 출현, 왜 임현규 어땠어?”라며 그에 대한 칭찬과 기대감을 표현했다. 화이트의 신임을 얻는다는 것은 UFC 파이터들에게 매우 중대한 과제 중 하나다. UFC의 많은 부문을 그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임현규의 이번 KO승은 그야말로 최선의 성적표라 할 수 있다. 임현규에 대한 화이트의 포상은 트위터 멘션이라는 립서비스에서 그치지 않았다. 화이트는 UFC 164에서 최고의 경기로 임현규-크라우스전을 꼽았고, 보너스로 양 선수에게 5만 달러씩을 안겨주었다.

이 경기가 끝난 후, 웰터급의 상위 랭커 중 임현규의 경기를 보고 경계심이 발동한 선수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결과다. 강한 턱을 가졌으며, 살벌한 타격을 휘두르는 거대한 웰터급 파이터 임현규는 지금까지 7연승(UFC 2연승)을 달리고 있다. 그중에는 6번의 1, 2라운드 KO승, 1번의 1라운드 서브미션 승이 있다. 게다가 대어 파스칼 크라우스마저 1라운드에 낙하채면서 임현규의 전적에는 일종의 인증서가 따라붙게 됐다. 앞으로 관객들은 임현규의 경기에서 KO승을 기대하게 될 거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현규는 불안해 보이고 걱정되는 선수였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본인 스스로가 더욱 강한 자신감을 가질 때다. 임현규는 더 이상 아시아에서 온 못내기 선수가 아니다. 이번 크라우스전 승리를 계기로 세계의 많은 격투 팬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다. 이제는 임현규 스스로가 옥타곤을 본인의 집 안방처럼 편하게 느끼기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M



임현규

생년월일: 1985년 1월 16일
 신체: 187cm, 84kg
 소속: 코리아안 탐팀
 경력: 2013. 09 UFC 164
 (vs. 파스칼 크라우스) 승
 2013. 03 UFC on Fuel TV 8
 (vs. 마르셀루 기마라에스) 승
 이상형: 작고 귀여운 여자

강한 남자 #3. 임현규 선수의 크라우스전 뒷담화 대방출!

 옥타곤에서 파스칼 크라우스를
떡실신시키고 금의환향한
임현규 선수를 에디터가 사심 가득
담아 만나고 왔다. BY 손안나

이 여자가 어딜!!

좀 먼저
봐도
될까요?





UFC 2연승, 축하한다! 어깨에 힘 좀 들어갔겠다.
전혀 아니다. 나도 힘 좀 들어가고 싶다! 그러려면 앞으로 더 잘해야겠지.

지난 3월, UFC 데뷔전에서 기마레아스를 이겼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솔직히 그뻘 이겼는데도 반응이 시원찮았잖아?

욕 많이 먹었지. 경기가 끝나고 내 기사에 8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길래 신기해서 클릭했더니, 그중 73개가 악플이더라. "나라 망신시키지 마라", "왜 간 건지 모르겠다" 등 많았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것도 다 관심이니깐. 그만큼의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됐다는 거잖아?

이번 경기에서는 날아다니던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운동은 평소처럼 열심히 했다. 다만 UFC라는 무대에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다. 지난번엔 기대와 설렘이 워낙 컸다. 두 번째는 그냥 덤덤해지더라. 그래도 드디어 꿈을 이뤘다는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

옥타곤 걸 아리아니 셀레스티와 브리트니 팔머 중 누가 더 예쁜던가?

브리트니 팔머. 평상복에 선글라스만 끼고 있었는데 할리우드 배우인 줄 알았다. 너무 예뻐서 옆 사람한테 누구냐고 물어봤다. 원래 아리아니를 더 좋아했지만 브리트니 옆에 있으니 안 보이더라.

파스칼 크라우스가 당신의 펀치에 정신을 못 차리던데... 기분이 어땠나?

그 친구가 넘어지고, 내가 파운딩을 하고, 심판이 말리러 달려오는 그 짧은 순간에 든 생각은 오직

'이겼다!' 한 가지였다. 흥분도 없고 기쁨도 없었다. 이겼다는 안도감이 가장 컸다.

다른 선수의 기술 중에 흠치고 싶은 정도로 탐나는 게 있다면?

기술보다 '멘탈'을 배우고 싶다. 챔피언급 선수들을 보면 1라운드에 팔다리가 부러져도 보는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의연하게 시합을 끝마친다. 물론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고 하지 않나. 나한테 그런 상황이 닥치면 과연 그 선수들처럼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최면을 건다.

정찬성, 강경호, 김동현 그리고 당신까지. UFC 코리안 파이터들의 외모 순위를 매겨본다면?

일단 강경호가 1위고... 김동현이 2위. 그리고 음... 정찬성이라 나는 박빙인 것 같은데?(웃음)

외모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음... 보조개?

엇? 보조개가 정말 귀엽다! 그리고 보니 입술은 체조 요정 손연재 선수를 닮았다.

당황스럽다. 이 기사가 나가면 또 욱먹겠다.

여자들이 팔 긴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나?

에이, 그런 건 모델한테나 해당하는 말 아닌가? 다들 날 무서워하던데...

운동을 안 했다면 지금쯤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경찰 원래 꿈이었다. 그래서 의경으로 복무했고 제대하고 계속 준비했다. 당시 경찰들이 총 쏘고 폭행당하는 일이 사회적 이슈였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몸 관리 차원에서 체육관에 나가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됐다.(웃음) 체육관에서 주짓수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호기심에 감독님한테 "나도 하고 싶다"고 졸랐다.

지난해 11월, UFC 마카오 대회에서 시합 이틀 전에 탈진해 데뷔전이 무산된 적이 있다.

음, 그때 일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반 가절했다가 링에 맞고 눈을 땀는데, 정말 서럽고 창피하더라. 프로 선수라면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잘해야 하는데... 선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 원래는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는 편이었는데 그때 실패한 후로 감량 일정을 길게 잡는다. 그러면 회복하는 기간도 그만큼 더디고, 관 손실 같은 위험도 따라오지만... 어쩔 수 없다.

계체량을 앞두고 체중 감량할 때는 주로 어떤 음식이 가장 먹고 싶나?

짜장면, 라면, 냉면 같은 면류가 엄청나게 당긴다. 그럴 땐 얼음 조각을 입에 넣었다가 뱉는다. 그러면 말라 있는 입이 촉촉해지면 잠시 기분이 좋아진다.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니... 불쌍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그때는 1억이랑 물 한 모금이랑 바꾸라고 해도 바꿀 수 있을 정도다. 심할 땐 정말 죽고 싶을 지경이다. 오로지 계체량이 끝나고 먹을 생각으로 버틴다. 이후에 있을 시합 생각은 별로 안 한다.(웃음)

계체량 때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노하우가 있다면?

눈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한다. 눈싸움에서 밀리면 선수(先手)를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피할 때까지 똑바로 바라보면서 내 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맞아도 좀 덜 아프게 맞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건 없다. 맞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나. 가끔 맞아놓고 안 아프다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거 다 뺑이다. 가끔 일반인이 "내가 이 정도로 약하게 때리면 너는 하나도 안 아프지?" 하면서 툭툭 때리는데, 그러지 마라. 아프다.

다음 경기를 기대하는 팬들에게 한마디해달라.

아... 막상 이런 걸 하라고 시키면 정말 할 말이 없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다다. 음...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MAXIM 표지 모델로 누구를 추천하고 싶나?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마지막 질문이다.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

... M



단언컨데 남심이 답이다.

임현규 선수가 여성 독자에게 알려주는 치한 퇴치법

- 1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라. 이게 가장 중요해!
- 2 발로 상대방의 남심을 견어차단. 뻥!
- 3 그리고 재빠르게 도망가라!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자가 남자를 제압하기란 쉽지 않다. 치한을 견어차고 제압할 생각을 하면 위험하다!!

Military



Military Dream Team! 육·해·공 최강의 무기들



'드림팀'에 대한 열망은 시대를 불문하고 늘 존재했으니. 이번 호에서는 현존 최강의 무기들로 꾸려본 '밀리터리 드림팀'을 소개한다. BY 군사 전문가 김대영(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환상의 멤버들로 이뤄진 팀을 드림팀(Dream Team)이라고 한다. 주로 스포츠 경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현실 속의 대표적인 드림팀을 꼽아 본다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미국 농구 대표팀 정도가 되겠다. 이 팀에는 NBA의 신화 같은 존재인 마이클 조던, 스카티 피펜, 래리 버드, 칼 말론, 찰스 버클리 등 당대의 내로라 하는 프로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명성답게 이들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경기 당 평균 117.3득점, 평균 점수 차 43.8점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기고 금메달을 손에 쥐게 된다. 만약 이런 드림팀을 육·해·공 무기들로 꾸려 보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어렸을 적 한 번쯤 꿈꾸어 보았을 이 환상을 지금 당장 MAXIM이 이루어주겠다!

→ 육군

단 한 번도 적 전차에 파괴된 적이 없는 전차 M1 에이브람스

미 육군과 해병대의 주력 전차 M1 에이브람스(Abrams)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 무기로 손꼽힌다. 지난 1979년부터 9천여 대가 생산된 이 전차는,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이라크군의 전차를 상대로 무패행진을 기록했다.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전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력과 방어력 그리고 기동성이 완벽하게 조합된 전차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방어력은 세계 최정상이라고 알려졌다. 걸프전 당시 M1 에이브람스 전차 간의 오인 사격으로 전차 2대가 피격되었는데, 승무원들은 부상 없이 무사히 탈출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전해진다. 현재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가장 최신형 버전은 주한미군에도 배치된 M1A2 SEP로, 기존 모델에 전장 인터넷 체계를 도입해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명품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자주포 독일 육군의 PzH 2000 자주포

전차와 함께 자주포도 지상전을 주도하는 주요 무기 중 하나다. 지난 1998년부터 생산된 독일의 PzH 2000 자주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이다. 무려 100억 원에 육박하는 몸값을 자랑하며, 우리나라가 개발한 K-9 자주포의 라이벌로 꼽히기도 한다. PzH 2000 자주포는 자주포계의 마의 벽이라 할 수 있는 사거리 40km를 갠 바 있으며, 무게가 30kg 이상인 155mm 포탄을 분당 최대 12발, 그리고 1분 47초 동안 최대 20발을 발사한 바 있다. 포탄을 기관총처럼 쏟아내는 괴력의 성능 때문에 일부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외계인을 고문해 만든 자주포'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다. 이 밖에도 아프간에 배치되었던 PzH 2000 자주포는 장거리 정밀 포격으로 탈레반의 공격을 격퇴해 탈레반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Military



키로프급 순양전함은 축구장 3개 크기의 넓이를 자랑한다.

공 빼졌잖아 주위 외라.



픽픽!

날아가는 저것은 참새이고? 허허허.

키로프급 순양전함은 러시아 해군을 상징하는 가장 큰 함정(艦艇)이다.

→ 해군

실존하는 배를 크루저

러시아의 항공모함 킬러, 키로프급 순양전함

〈스타크래프트〉에서 테란의 최종병기인 배틀 크루저. 하지만 배틀 크루저, 즉 순양전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실 순양전함은 20세기 초반 영국 해군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된 전투함이다. 이는 순양함과 전함 사이의 갭을 메꾸주는 전투함으로 개발되어 제2차 세계대전까지 활약했다. 하지만 이후 해전에서 항공기의 역할이 커지면서 점차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러다 1970년대에 소련이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항할 신형 전투함을 건조하게 되고, 키로프급 순양전함이 탄생한다. 축구장 3개 크기의 넓이를 자랑하는 키로프급 순양전함은 함포 외에도 200여 발의 각종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러시아 혁명가 세르게이 키로프(Sergei Mironovich Kirov, 1886~1934)의 이름에서 착안한 이 순양전함은 항공모함이나 강습양륙함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 전투함이며, 러시아 해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함정(艦艇)이기도 하다.

수중의 블랙홀

21세기 유보트, 212급 잠수함

제 1·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해군의 유보트(U-Boat)는 대서양을 항해하는 연합군 수송선단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특유의 늑대 떼 전술(Wolf Pack), 즉 유보트나 항공기가 적 호위함을 발견하면 해당 해역 근처에 있는 다른 유보트들에게 연락을 취해 지정 위치로 이동, 아간 집중 공격을 퍼붓는 전술을 구사하여 연합군 수송 선단을 유린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유보트였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보트의 막강한 위력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잠수함을 보유하는 데 제약이 생겨서 크기가 작은 잠수함만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잠수함을 개발하기 시작한 독일은 드디어 2002년에 212급 잠수함을 내놓았다. 212급 잠수함은 크기는 작지만 연료 전지를 장착, 업그레이드 하여 잠수함의 수중 작전 기간이 늘어났고 소음은 대폭 줄었다. 이 때문에 212급 잠수함은 현존 잠수함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녀석으로 손꼽힌다.



은밀하게 거대하게.

212급 잠수함은 연료 전지를 사용해 남들보다 오래 간다.



'현대의 U-Boat'라고 불리는 현존 최고의 212급 잠수함.



아 뜨게!!

1997년에 등장해 큰 인기몰이를 한 스텔스 전투기 F-22.

→ 공군

108 대 0의 격추 기록을 가진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F-22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최첨단 전투기를 '스텔스 전투기'라고 한다.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이 개발한 F-117이다. 하지만 F-117은 공중전 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는 1997년 등장했던 F-22다.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 F-22 전투기는 지난 2006년 6월, 알래스카에서 실시한 '노던엡지' 훈련에서 수 차례의 모의 공중전 끝에 가상 적기를 100여 대나



모의 공중전에서 수백 대의 적기를 발라버린 최강의 F-22.



최대 40톤의 무기탑재량을 자랑하는 변강쇠 폭격기 Tu-160.

격추했다. 특히 F-22 전투기가 속한 블루포스는 대항군 레드포스와 싸움에서 '241 대 2'라는 대승을 기록했다. 물론 F-22 전투기는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다. 이러한 능력과 함께, F-22 전투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전투기 한 대의 가격이 지난 2009년 기준으로 1,500억 원이다. 미군은 원래 F-22를 700여 대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비싼 생산비용 때문에 180여 대만 생산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략폭격기 러시아의 백조 Tu-160

전략핵무기의 운반 수단이 되는 장거리 폭격기를 '전략폭격기'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폭격기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공군이 운용 중인 Tu-160 폭격기는 전략폭격기 가운데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한다. 지난 1975년 개발된 이 기체는 1987년부터 소련 공군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날개를 펼쳤을 때 기체 폭만 55m로, 웬만한 고층 빌딩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최대 40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세계 폭격기 중 단연 최고 수준의 적재량을 자랑한다. 무기로는 핵폭탄과 재래식 폭탄, 그리고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전투 행동 반경은 7천여 km로 공중급유를 받지 않고도 러시아 상공에서부터 날아가 미국 본토를 폭격할 수 있으며, 최대 속도는 마하 2 이상이다. 총 30여 대가 생산된 Tu-160 폭격기는 러시아의 국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무기이기도 하다. 

영화 속 최강 미래 무기 TOP 3

매력 넘치는 사기급 무기들을 소개한다. 빨리 보급해줘!



1 라이트세이버 in 영화 <스타워즈>

제다이 전사의 기본 무기이자 최강의 퍼포먼스 무기. 플라즈마를 칼날 형태로 만들어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정이다. 가장 간지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역시 스톰 트루퍼가 발사하는 레이저를 야구공처럼 튕기며 전진하기. "반사! 반사!"



2 노이지 크리켓 in 영화 <맨 인 블랙>

영화 <맨 인 블랙>에서 케이(토미 리 존스)가 에드워드(윌 스미스)에게 건네준 무기. 작다고 에드워드에게 무시당하지만 구멍가게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위력을 갖고 있다. 농축 에너지를 방출하며, 발사할 때마다 귀뚜라미(크리켓) 소리를 낸다.



3 BFG9000 in 영화 <둠>

그렇싸해 보이는 이름과 달리 'Big Fucking Gun(존나 큰 총)'의 약자라는 BFG9000. 압축해 놓은 플라즈마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해 적을 한순간에 녹여버린다. 게임에서 잘못 쏘면 자기 자신도 폭사한다. 게임 오버.

최강의
미래
무기들!





MAXIM

Lingerie

∧
featuring
the
2013
MAXIM US
HOMETOWN
HOTTIES





^
PHOTOGRAPH
**CARLOS
NUNEZ**
v



BRITTNEY

BILOXI,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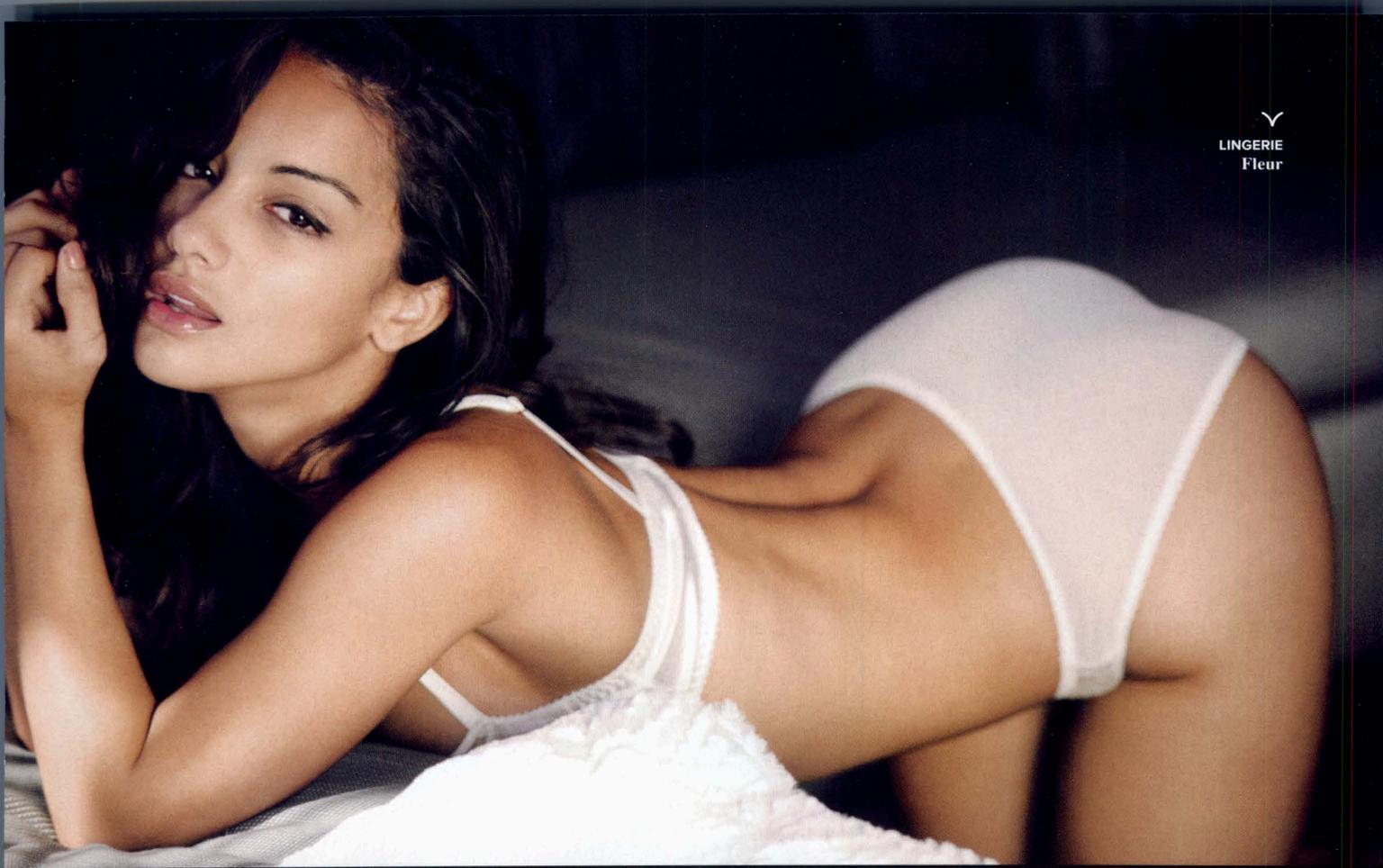
“

THE MOST
EXTRAVAGANT
LINGERIE
I'VE WORN IN
THE BEDROOM
WAS SEE-
THROUGH.
IT WAS
A BIG HIT.

침실에서 입어본 린제리 중
가장 파격적이었던 건
시스루였어요. 반응이 대단했죠.

”

TOP
American Apparel
PANTY
Maison Close



**BUYING LINGERIE FOR YOUR GIRL
GIVES HER THE CHANCE TO LIVE OUT HER FANTASIES.**



그녀에게 란제리를 사준다는 건 그녀에게 자신의 판타지를 실행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PERSEPHANIE

HAMPTON, NH

“

FOR SPECIAL
OCCASIONS,
I DEFINITELY GO
WITH GARTERS
AND STOCKINGS.
DRESSING UP
JUST TURNS ME
INTO A LITTLE
SEX KITTEN.

특별한 날엔 스타킹에
가터벨트를 해요.
입기만 해도 작고 섹시한
고양이가 된 듯 흥분되거든요.

”



<
LINGERIE
Only Hearts

JAQUILINE

BOCA RATON, FL

“

I LOVE GOING
ALL OUT WITH
LINGERIE:
SEE-THROUGH
BRAS AND
PANTIES WITH
LACE STRAPS,
GARTERS

시스루 브라, 레이스 끈이
달린 팬티 그리고 가터벨트...
난 완벽하게 갖춰입는 걸 좋아해요.

”



MARYCARMEN

SAN ANTONIO, TX

“

**I LOVE WEARING
SOMETHING
SEXY UNDERNEATH
MY EVERYDAY
CLOTHES. I FEEL
LIKE I HAVE A
LITTLE SECRET**

평소에도 일상복 밑에
섹시한 속옷을 입는 걸 좋아해요.
나만의 조그만 비밀을 품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

<
LINGERIE
Maison Close



STYLING **KRISSIE TORGERSON** STYLING ASSISTANT **MEG PARSONS**
HAIR **MARSHALL VANIERLAND** HAIR ASSISTANT **TARA ARTHUR** MAKEUP **CARA MACCIANTI**
LOCATION **COURTESY OF PALMS CASINO RESORT IN LAS VEGAS, NEVADA**
TYPOGRAPHY **MATTHEW TAP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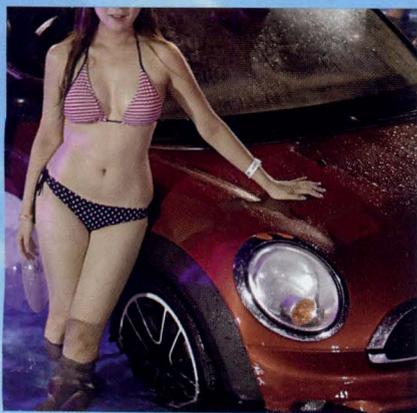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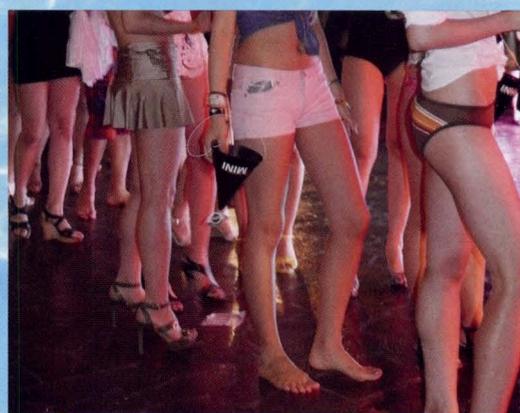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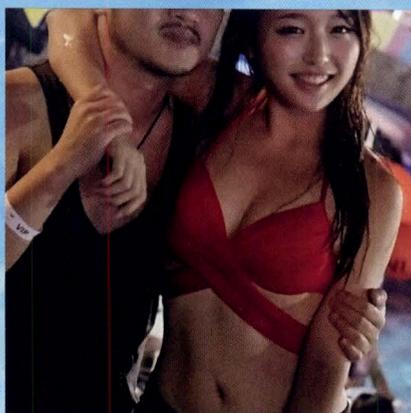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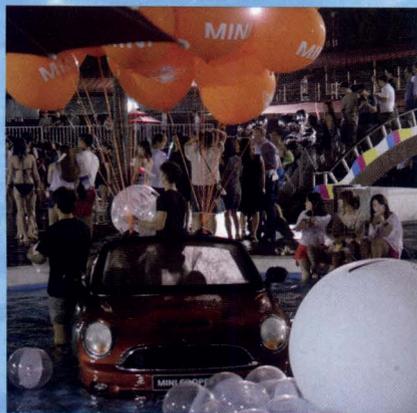
Party

‘NOT NOMAL’ MINI’s 54th Birthday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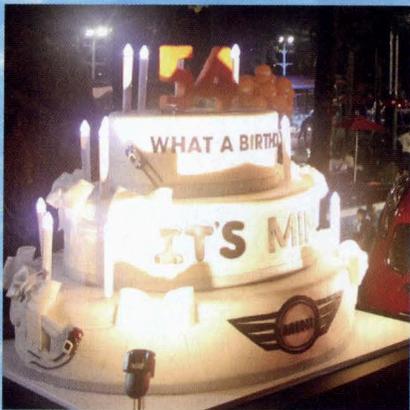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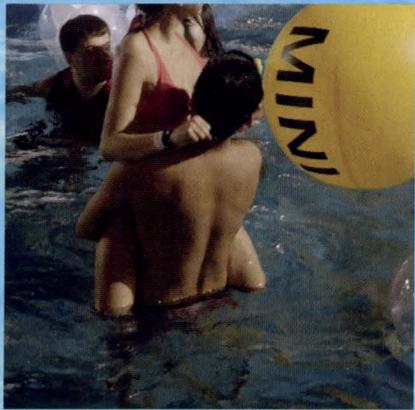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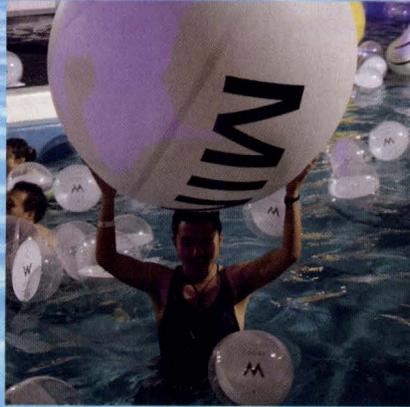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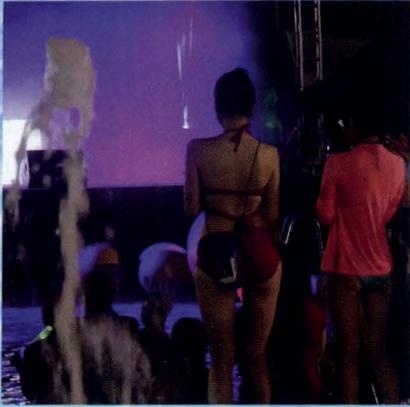
생일 케이크 앞에서 노래 부르고 손가락만한 폭죽 몇 개 터뜨리는 그저 그런 생일 파티가 아니다. 수영장 물 속에 미니 한 대 정도는 빠뜨려 줘야 미니 생일 파티지. BY 장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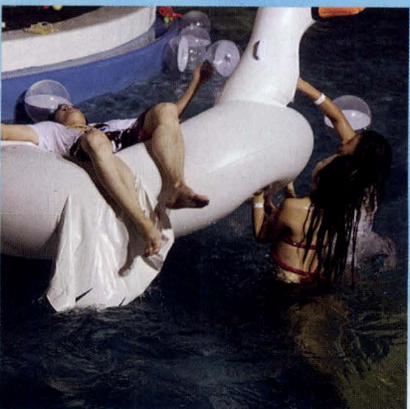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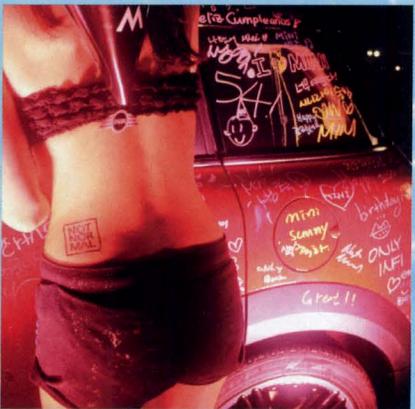
@Walkerhill Hotel Riverpark 2013.0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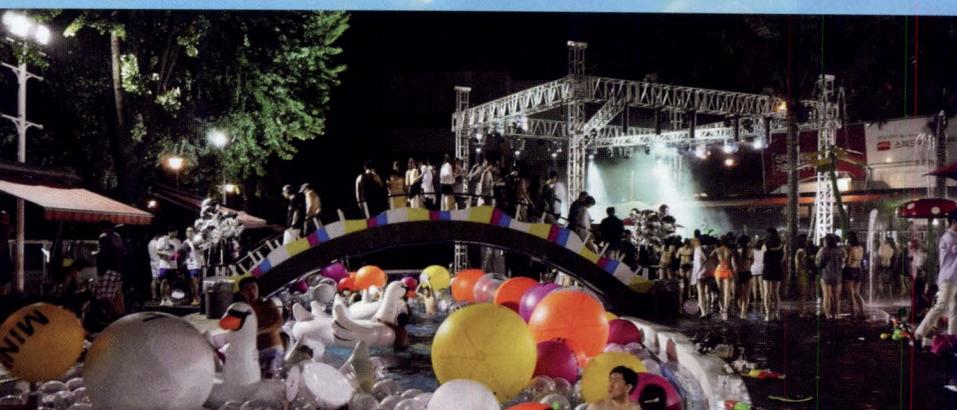
올여름의 마지막 날인 8월 31일 토요일, 미니의 54번째 생일 파티가 워커힐 호텔 리버파크 수영장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항상 기발한 발상으로 그 어떠한 것도 Not Normal하게 만드는 미니, 생일 파티도 분명 예사 생일 파티가 아닐 게 분명했다. MAXIM 편집부도 거한 축하를 위해 테이블을 예약했다. 마지막 여름밤을 불태우기 위해 부라부라 비키니를 챙겨 그곳에 도착하니...



생일 파티답게 곳곳에 54주년을 기념하는 예쁜 생일 케이크 모형이 설치돼 있었다. 입구에선 축하 메시지로 도배된 주황색 컨트리맨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입장객들은 그 옆에서 플라로이드 사진을 찍으며 한껏 파티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입구에서 미니 차 키를 보여주면 입장료를 2만 원이나 할인해 준다는 사실이 알려졌는지 현장은 딱 봐도 스타일리시한 미니 드라이버들로 넘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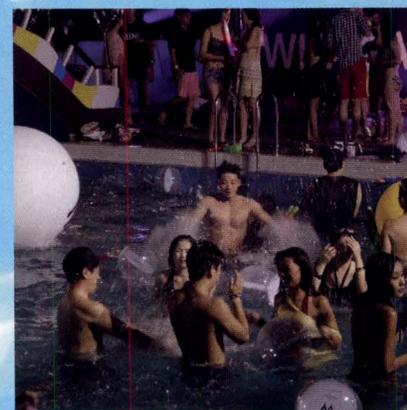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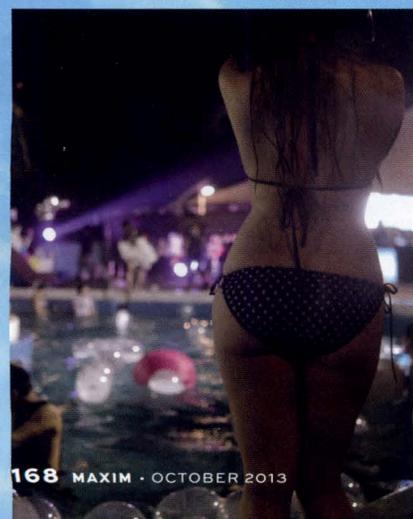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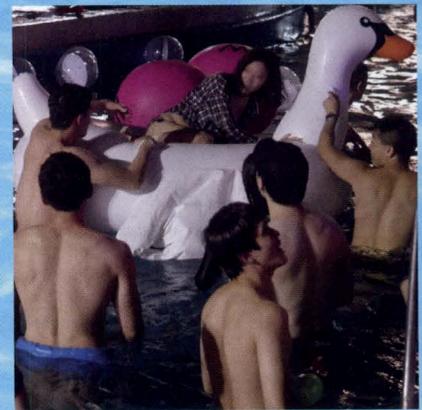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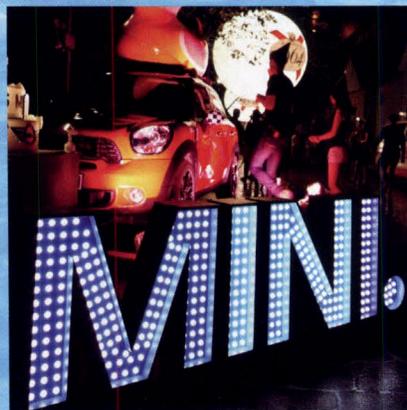
드레스 코드는 '야외 수영장에서 자신을 빛낼 수 있는 의상'이었다. 여름의 끝을 격하게 불태우려는 듯 여자들은 올 여름에 지른 궁극의 필살 비키니들을 챙겨 온 듯 했다. 그녀들 덕에 수영장은 한여름 열기보다 더 화끈 달아올랐고, 파티의 열기도 덩달아 상승했다. 훈남 스태프들은 입장객들에게 물총을 쏘아대며 물놀이를 유도했고, 덕분에 놀러온 모두가 친구가 되어 파티와 물놀이를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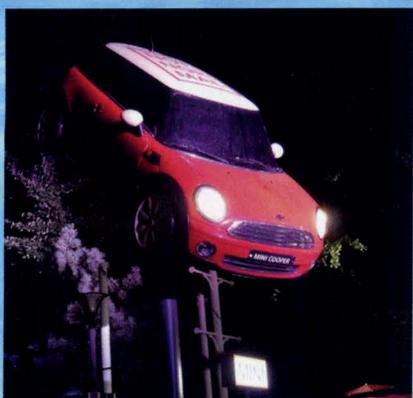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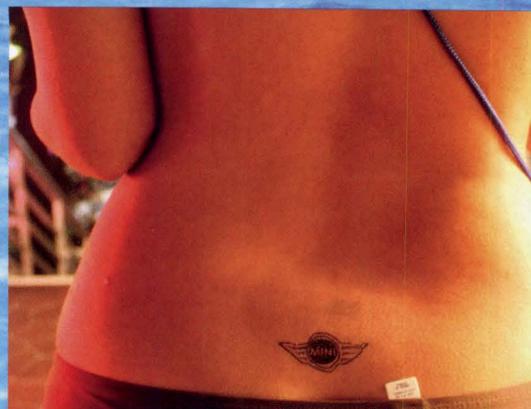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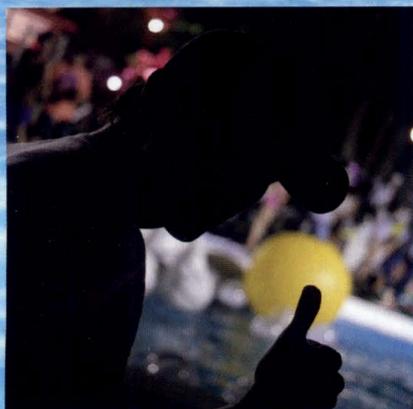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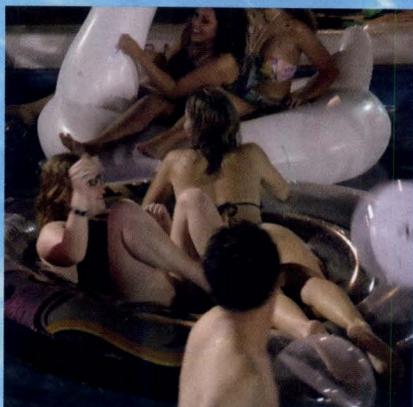


수영장에는 색색의 풍선과 비치볼, 커다란 오리 배 풍선 등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들이 가득했다. 그중 가장 인기 품목은 물 위를 떠다니는 오리 배 풍선이었다. 남자들이 곳곳한 오리 대가리를 가랑이 사이에 끼고 앉았는데 마치 거대한 '그것' 같았다. 다리 사이로 솟아오른 오리 목에 매달리며 배 위에 올라타려는 비키니녀들과 그녀들의 손을 잡아 올리는 신개념 오리 야타족이 여기저기 뒤엉켰다. 수영복 차림의 선남선녀들은 서로 빠뜨리고 일부러 빠지기도 하며 미니 생일 파티의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DJ팀 백 앤 포스와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소울다이브, 더블케이의 합할 생일 축하 공연도 있었다.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여기저기 흩어져서 물총 싸움을 하던 사람들이 무대 앞 수영장에 모여 춤을 추었다. 물 속에서는 남녀의 맨살이 달으면서 그 어떤 클럽보다 더 뜨거운 맨살 부비부비가 이루어졌다. 정말이지 Not Normal한 미니의 생일 파티는 올 여름 그 어떤 파티보다도 뜨겁게 여름의 절정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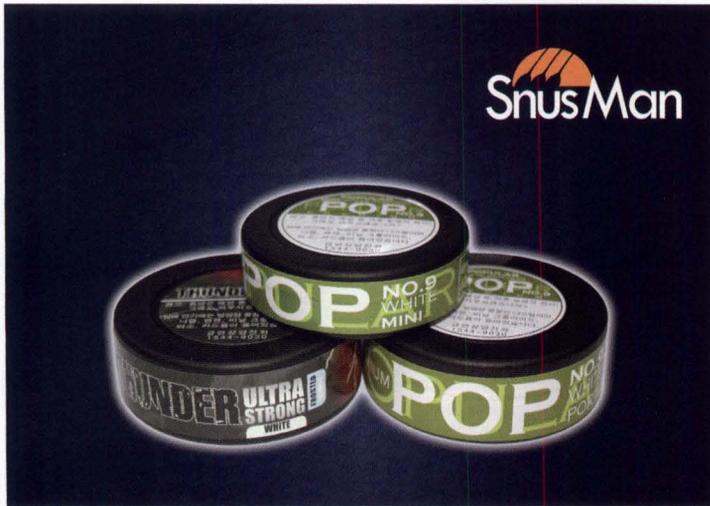
비키니녀들의 생일 축하법 

MAXIM BUYER'S EDGE

강렬하고 대담한 향수, POLO RED

디자이너 랄프로렌의 자동차와 스피드에 대한 열정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향수 POLO RED가 출시된다. 유혹과 대담함을 지닌 향으로 신선한 감성이 느껴지며, 심플하지만 강렬한 레드 색상의 보틀이 소장 욕구를 일킨다. 스틸과 액션, 스피드를 즐기는 남성이라면 딥 레드 우드의 조합으로 유쾌함이 한껏 강조된 POLO RED를 추천한다. 이제 당신의 마초적인 욕구와 매력에 무한으로 샘솟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열의 색, 레드의 매력! 쌤바

80,000원(75ml), 로레알 코리아(02-3497-9500)



무연담배 스누스맨 신제품 3종 출시!

스누스 담배 전문 기업 스누스맨이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 향긋한 사과 향이 매력적인 POP NO.9과 동생격인 막동이 POP NO.9 mini 그리고 강력한 맛과 향으로 헤비 스모커를 사로잡을 썬더 울트라 스트롱으로 라인업을 구축했다. 공공장소의 흡연 규제가 느는 요즘, 눈치 안 보고 껍연을 만끽하고 싶다면 연기 없는 스누스 담배 신제품 3종을 만나 보는 게 어떨까? 귀여운 모습의 삼형제는 스누스맨 전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스누스맨(02-782-5765, www.snusman.co.kr)



예거마이스터를 즐길 수 있는 핫 플레이스는?

예거마이스터를 가장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한다! 아이스 콜드 샷 맵을 이용해 압구정, 청담, 강남, 홍대 등 젊은이들의 핫 플레이스로 간다. 영하 15도의 콜~한 예거마이스터를 전용 샷에 담아 특유의 점성과 상쾌한 허브향이 깊어진 예거마이스터 아이스 콜드 샷을 즐긴다. 아이스 콜드 샷 맵은 예거마이스터의 공식 페이스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일 밤 뜨겁게 달구어지는 당신의 심장을 이제 예거마이스터 아이스 콜드 샷으로 시원하게 식혀라.

예거마이스터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Jagermeister, Korea)



TENGA, 키스 해링과 콜라보레이션 제품 출시

어른들의 명랑 완구 전문 브랜드 부르르에서 미국의 저명한 그래피티 아티스트 키스 해링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선보였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그러나 안전하게 성생활을 즐기자는 캠페인 차원에서 제작된 이 상품은 키스 해링의 대표작들의 그려져 있어 소장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키스 해링 콜라보레이션 TENGA는 명랑 완구 전문점 부르르닷컴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18,000원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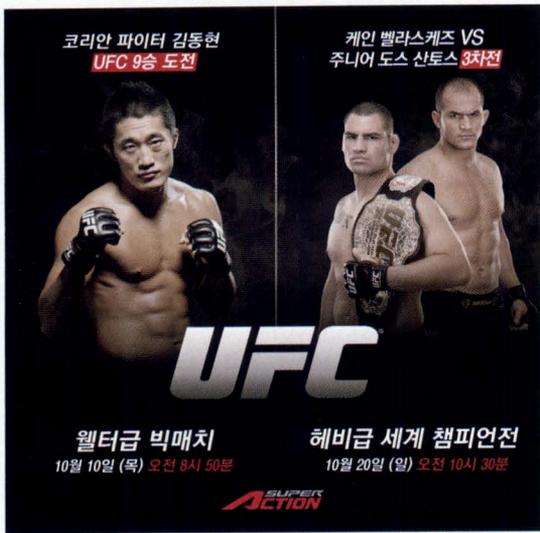
부르르닷컴(1661-7725, www.bururu.com)



월드짐 여의도점, 새롭게 태어나다!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월드짐 여의도점이 새롭게 단장했다. 남녀 샤워 부스 시설, 사우나 라커, 파워더룸 등을 확장하는 리노베이션과 러닝 머신 및 유산소 운동 기구를 포함한 웨이트와 프리웨이트 기구 또한 최신식 기구로 일부 교체했다. 특히 LED 조명과 천연 원목 목재, 맥반석과 사우나의 황토 소재 사용 등으로 고급 호텔에 버금가는 시설을 확충한 것이 큰 특징. 작은 디테일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월드짐. 어찌 체크인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월드짐 여의도점(02-782-1003)



UFC 빅매치가 기다려지는 10월!

2013년 10월을 뜨겁게 달굴 UFC 두 경기가 있다! 10월 10일 웰터급 TOP 10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UFC 파이터 김동현 선수가 에릭 실바 선수를 상대로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벌인다. 또 10월 20일에는 케인 벨라스케즈 선수와 주니어 도스 산토스 선수의 UFC 헤비급 세계 챔피언전이 세기의 대결로 불리며 벌써부터 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3년 10월 사나이들의 피를 끓어오르게 할 UFC 대회는 액션전문채널 슈퍼액션을 통해 HD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슈퍼액션(080-080-0780)



이제 거실에서 디아블로III를 만나자

TV를 통해서도 새로운 영웅 군단과 함께 공포의 군주에 맞설 수 있게 됐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PlayStation®3와 Xbox 360®의 콘솔 버전 디아블로 III를 출시했다. 최대 4명까지 온라인으로 함께 플레이가 가능하며 역동적인 카메라 시점으로 게임의 재미를 극대화 시켰다. 특히 Xbox 360®용 디아블로 III는 전용 헤드셋을 통해 음성 통화까지 지원해 다른 플레이어와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거실에서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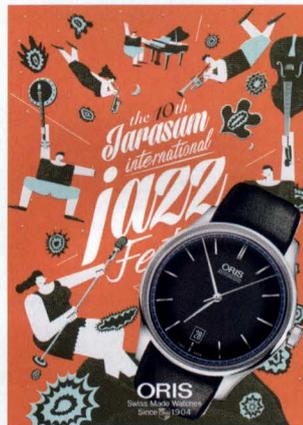
59,800원, 디아블로 III (www.diablo3.com)



엠도씨의 제안, 미백과 수분보충 모두 당신이 잠든 사이에!

여름철 상처받은 더러운 피부를 하얀 피부로 바꿔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엠도씨에서 피부 진정 및 보습 효과가 탁월한 나이트이펙트 화이트닝 겔을 제안한다. 알로에베라가 92% 함유되어 자외선과 스트레스로 인해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자기 전에 한번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푸석한 피부에 환한 생기를 찾을 수 있다. 우리도 자고 일어나면 백설 왕자가 될 수 있다!

23,000원, 엠도씨(www.mdo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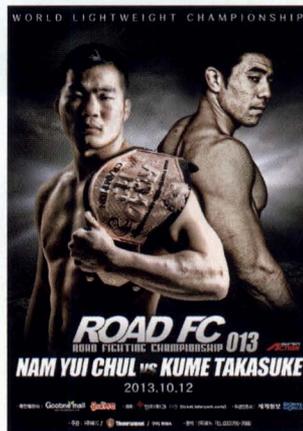


오리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만나다

아시아 재즈의 허브 축제이자 매년 23만 명의 관객이 찾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다. 1996년 런던 재즈 페스티벌부터 후원하고 있는 오리스에서 이번 페스티벌을 기념하기 위해 John Coltrane (존 콜트레인) 한정판 시계를 선보인다. 그의 재즈 재능과 열정을 기리는 한정판으로 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작 되었다. 올 가을 음악으로 달달하게 그녀와 마음을 적시고 싶다면 자라섬으로 가자!

45,000원(1일권),

재즈페스티벌(www.jarasumjazz.com),
미림시계(02-757-9866)



로드FC 13회 대회, 이번엔 구미다!

격투기 팬들 주목! 오는 10월 12일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아시아 최고의 종합격투기 리그 로드FC의 열세 번째 대회가 열린다. 라이트급 챔피언 남의철의 첫 번째 방언전을 필두로 레전드 일본 파이터 미노야만을 비롯해, UFC 출신 일본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예정이며, 대회 사상 가장 화려한 스케일의 대회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 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가능하며, 구미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오프라인 티켓 예매는 이미 대성황을 이루고 있으니 관람을 원하면 서둘러라. 이 경기는 슈퍼액션을 통해 생중계된다.

로드FC(033-766-7666, www.roadfc.com)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을 텐데...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제대가 까마득한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팍팍 내고 싶으니까? MAXIM에 전역 신고 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덤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리보자. 어서 신청하라!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홈페이지
전역 인증
게시판



간첩 신고는 113,
전역 신고는
MAXIM으로!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대박 혜택
세 가지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할아버지가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국가유공자급
혜택이 주어진다!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쏜다!



셋. 전역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1명에게 멋진
'J.SPRINGS' 손목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2013년 10월 20일까지)

전역자랑깅

네가 재벌 2세라도
절대 가입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2년을 희생한
진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국가공유자금 평생 멤버십!

국찬승 **평생 30%**



군산 포대 헌병반
여러분! 보고 있나?
ㅋㅋ 전역하면 꼭
MAXIM에 전역 인증 올려서 너희에게 선물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나간 전역자들 다 이거 해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올렸잖아. ㅋㅋ 2년 군 생활 절대 빨리
지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하다가 보면 전역이
오는 것 같아. MAXIM 보면서 힘내고 난
필리핀으로 떠날게. 불철주야 고생하소!

우성환 **평생 30%**



잘들 지내고 있나?
특수전 사령부 본부
근무대 3생활관
여러분! 아직 기초 공수교육 인간 인원들은 빨리
갔다 올 수 있길 바라며 여서 낙하산 강하해서
생명수당 받아야지. ㅋㅋ 여러 일로 3생활관으로
옮긴 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충실하게 군 생활
마칠 수 있게 도와준 3생활관, 사랑한다!

함상혁 **평생 30%**



음... 형이
너희 챙겨 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창 다녀왔을 때 챙겨준 거
전역해서도 잊지 못한다. 아마 계속 기억할 것
같아. 너희와의 추억은 끝까지 안고 갈게.

남선중 **평생 30%**



03 특공 최강 1세대
2중대 1소대 애들애
사는 게 바빠서 이제야
인증하네? ㅋㅋ 뺨이 치고 있지? 내가 전역하고
참호 격투장 등 아주 많은 참가가 일어났다면서?
예휴... 고생이 많다. 하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마냥 군인일 때가 좋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
내가 보내는 과월호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보고 연락 안 할 줄 알았던 너희인데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연락해줘서 고맙다. ㅋㅋ
휴가 나오면 연락해! 술 한 잔 기울이자!

강영선 **평생 30%**



애들아, 이렇게 전역
인증을 남긴다.
MAXIM 평생
할인이라잖아. ㅋㅋ 막판에 싸이코 같이 곁에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진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알지? 연락하라. 애들아.

정상환 **평생 30%**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제 내 맞후임
원호도 제대하고,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 전기반 있을 때 생각 많이 난다.
그때가 군대긴 했어도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몰랐었지. 진정으로 그림자...ㅠㅠ 그리고
작업 빨리 끝낸 날에는 사무실에서 선임이고
후임이고 할 거 없이 2004년 MAXIM
부턴인가? 선대 선임들이 살아둔 MAXIM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휴가 때마다
누가 MAXIM 사오면 생활관 뒤집고도 막ㅋ
ㅋ 이번에 과월호 가면 미친 듯 정독하길!
전기반 흥하고 MAXIM도 흥해라!!

최창호 **평생 30%**



전라북도 서해에
있는 군산해양경찰서
1001함 애들이 그간
수고 많았다. 나 제대해서 너무 좋다. ㅋㅋ 해경
전경으로서 해상 치안 업무의 보조자로서 묵묵히
근무할 거라 믿고, 건강히 제대하고 휴가 때마다
구입해 찢어질 때까지 본 MAXIM 과월호 보고
더욱 힘내서 제대해라!

한종민 **평생 30%**



누구보다 고생이
많은 우리 국군
대구병원 장병들
수고해라! 남들이 병원부대라고 무시해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군 최초 병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복무한다는 거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군 생활 많이 남은 후임들이!
말은바 성실하게 임하고 분대장 임기 동안 나를
믿고 따라준 녀석들! 너무 고맙다.

한태일 **평생 30%**



애들아.
오랜만이다. 근래
난 에어컨 보조
알바를 끝내고 지금은 복학했다. ㅋㅋ 에어컨
설치하느라 시간도 없어서 지금 전역 인증이
늦어서 미안하다. 이 알바 힘들긴 해도 돈
받을 생각에 열심히 했다.ㅋ 너희는 10만 원
받고 고생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ㅠㅠ 오늘 복학하고 생각난 김에 이리
자랑한다. ㅋㅋ 동재야 난 약속 지켰다. ㅋㅋ
모두 군 생활 마무리 잘해서 나오길 바랄게.
사랑해. ㅋㅋ

김주영 **평생 30%**



애들아. 행정반
보급병 주영이다.
ㅋㅋ 1년 9개월
군 생활 하면서 너희와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다.
ㅋㅋ 오전 오후 야간 진료. 의무 지원까지
거의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훈련병
자원에 쓰는 노고를 누군가 인정해줄 거야.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 알고 있고, 조금만 하면
금방 나오니까 힘들어도 잘 참고 무사 전역하길
바란다. ㅋㅋ

윤기용 **평생 30%**



안녕? ㅋㅋ
군대에서 MAXIM
정기 구독하면서
전역 인증 보며 부러워했는데 내가 이걸 하고
있을 줄이야. ㅋㅋ 대부분 나보다 나이 많은
형들인데 내가 먼저 전역하네. ㅋㅋ 아침에
깨우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럴게 좋다는
걸 새삼 깨닫고 있지. 하해! 마지막에 시설
떨어지고 시간 없어서 사진은 못 남겨 아쉽지만
그래도 그간 선임이라고 어린 놈 잘 따라줘서
고마웠어. 다들 고생하고 몸 건강히 전역해~!

김정호 **평생 30%**



하... 너희를 생각하면
나는 한순밖에 안
나온다. 앞으로
수많은 훈련, 유격, 육한기, 군지검... 하아... 답 없다.
하여튼 더운 날씨에도 고생하고 너희가 있어 내가
두 발 뺀고 잔다!! MAXIM 보면서 힘내라!! 품.

위 12명을 더해 총 250명의 원수들이 MAXIM에
전역을 신고하고 장기구독 평생 30% 평생 멤버십이 되었다!

이달의 몸쓸 사진

개콘 보다가 태워먹은 삼겹살 한 조각만큼 아까운 사진들



이달의 아까운 모델 1

MOTOR 독자의 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p.86)

못 쓴 이유 얼핏 보면 헤연씨 다리 한 쪽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좋구려, 절절걸.



이달의 아까운 모델 2

MISS MAXIM 4강 진출자 화보(p.118)



못 쓴 이유 깜찍하게 눈을 가린 MISS MAXIM 4강 진출자 소희. 여기서 이러시면 잡지에 못 나옵니다.



이 달의 못 먹는 음식

HOW TO 돼지 갈비 스테이크 굽는 법(p.36)

못 쓴 이유 먹음직스러운 웨지감자에 누가 침을 뱉어 놓은 것 같아서. 어떤 새끼야?



이달의 무서운 장난감



STUFF 베르세르크 피규어 화보(p.62)

못 쓴 이유 광천사 가츠가 칼질로 스튜디오 물품을 박살낼 것 같아서. 백날 쳐 보라, 그게 잘리나.



뽀뽀뽀
매지컬 헤어!

이 달의 이상한 STAFF 1



FIGHT UFC 임현규 선수 인터뷰(p.148)

못 쓴 이유 마법을 부리는 뷰티 에디터 장혜민양에게 타격의 달인 임현규 선수가 골목당한 것 같아서.



이 달의 이상한 STAFF 3



WHO'S THAT GIRL? 태권소녀 태미 화보(p.132)

못 쓴 이유 패배한 초딩으로 변신한 남자 스타프들의 표정이 너무 쓸쓸해서. 이거 그냥 화보라고 이것들이!



아이고, 우리
재식이 좋아 죽네!

이 달의 이상한 STAFF 2



MISS MAXIM 4강 진출자 화보(p.118)

못 쓴 이유 허벅지에 청진기를 갖다 대는 의사도 가관이지만, 환자(정재식 인턴)는 아주 좋아 죽네! (재식씨 여친이 이거 보면 화내겠...)



VANS 올드스쿨
인터넷 최저가 42,410원

이 달의 이상한 STAFF 4

HOW TO 할로윈 분장하는 법(p.34)

못 쓴 이유 귀신으로 변신한 김소윤 에디터가 너무 무서워서, 게다가 빨간 운동화를 신는 걸맞춤 센스까지? 누가 소윤씨 고무신 좀 갖다줘라.

Fortune Telling

타로 카드로 점치는 당신의 10월 커플운!

여자 친구가 있다고 안심하지 마라.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모른 채 안일한 하루하루를 보냈다면 외롭고 추운 겨울을 나게 될 거다. 이번 달엔 당신이 사랑하는 그녀의 까마득한 속마음을 파헤쳐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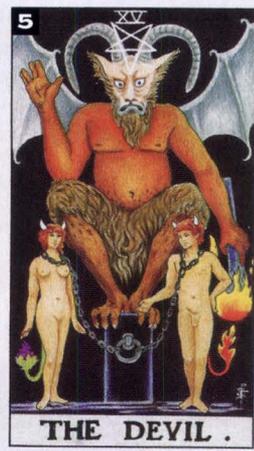
BY 타로마스터 정희도(www.tacaso.net)

6장의 카드 중 현재 당신의 심리 상태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카드 한 장을 고르시오.



타로마스터 정희도

- 타카소(타로 카드 소울메이트) 운영
- YBM, 파고다 타로 취업 특강 강사
- SBS 공채 10기 개그맨 활동
- 전 마이더스 학원 운영



타로 풀이 보기

CARD 1 콩깍지형 :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별보다 더 빛나는 나체의 여인이 맑은 샘에 물을 붓고 있다. 당신은 고차스럽게도 이런 섹시한 여성에게 섹시함보다는 순수한 감정을 느꼈다. 별 카드는 '힐링' 혹은 '순수한 감정'을 의미한다.
TIP : 당신은 밀당의 달인. 연애 초기의 연인들이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지금까지 잘 끌고 왔다. 여인의 '나체'를 보는 사람들처럼, 여친은 지금 당신의 성적 매력에 푹 빠져 있다. 하지만 그것도 밤하늘의 별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콩깍지' 이므로 주의할 것!

CARD 4 냉혹한 겨울형 : 여왕이 날카로운 칼을 든 채 냉기가 감도는 분위기 속에 앉아 있다. 마법에 걸린 것처럼 예민해 보이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다. 이 카드는 극도의 예민함, 단호한 결정, 이분 이별을 의미한다.
TIP : 그녀는 현재 '이별'의 결단을 내리려 한다. 이것은 절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다. 이미 이별을 위해 끊임없이 칼을 갈아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사해야만 추운 겨울을 면할 수 있을 거다.

CARD 2 위험한 권태형 : 여자 뒤에 탐스러운 포도와 금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부를 상징하는 고급스러운 비단옷을 입고 매를 병아리처럼 쉽게 놀리는 걸 보아 이 여인은 여유로운 귀족 타입이다.
TIP : 소파에 앉아 치맥을 즐기며 TV를 보는 여유로운 당신에게 고민 따위는 없다. 하지만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던 <여성녀 아이비>의 재탕을 다시 볼 때 처럼,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다. 권태기가 멀지 않았으니 무릎 위에 치맥 대신 여친을 올려놓고 색다른 플레이(?)를 시도하자.

CARD 5 악마의 커플형 : 악마가 나체로 쇠사슬에 묶여 있는 남과 여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잘 보면 목에 걸린 쇠사슬이 느슨해 사지 병신도 혼자 풀 수 있을 정도다. '데빌' 카드는 집착, 중독, 쾌락, 불륜 등 자신을 스스로 묶어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TIP : 그녀는 당신을 끈질기게 좋아한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자기만 생각해주기를 바라는 미저리 같은 여자다. 침대 위에서는 AV배우처럼 뜨겁지만 지나친 애정은 의심으로 변하기 쉽다. 물론 그녀가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닐 거다. 뭐 찢리는 거 없나?

CARD 3 진퇴양난형 : 남자가 자신의 눈을 가리고 큰 칼 두 개를 교차해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고 어딘가에 위험 요소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혼자서 오버하며 자기 방어 중인 고립 상태.
TIP : 여친은 당신에게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지만 말해도 소용없다 싶어 조용히 당신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들고 있는 칼이 두 개라니! 어쩌면 그녀를 힘들게 하는 건 당신만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새끼가 선수 치기 전에 그녀에게 먼저 달려가 둘 사이에 묻어둔 오해와 고민을 풀어야 한다.

CARD 6 신뢰 충만형 : 철갑옷을 입고 흑마 위에 올라 금화를 내미는 기사. 흑마는 결코 흔들림이 없고 남자의 표정은 믿음직하다. 금 동전을 내미는 저 손은 마치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며 퍼르프즈하는 남자처럼 여자에게 신뢰감과 기대감을 준다.
TIP : 당신은 그녀가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고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흑기사다. 하지만 믿음직스러운 반면 역동적인 면은 부족하니, 열심히 운동해 몸을 다지자. 밤마다 그녀의 전신을 수타 짜장 면발처럼 쫄깃하게 쳐주는 것이 시급하다.